FGI·IDI 기초분석 보고서

전통예술

2025.05



담당부서 : 기획조정팀
Tel : 061)900-2145
연구 기획·진행 : 전통예술 연구협의체(서승미, 오영주, 권용민, 김희진)
작성 : ㈜케이스탯리서치

Contents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1
2. 조사 목적 1
3. 조사 설계 및 내용 1

제2장. 조사 결과

[대상자1] 교육 분야 5
[대상자2] 창작 분야 10
[대상자3] 창작 분야 18
[대상자4] 창작 분야 26
[대상자5] 창작 분야 34
[대상자6] 창작 분야 42
[대상자7] 창작 분야 48
[대상자8] 창작 분야 56
[대상자9] 창작 분야 64
[대상자10] 창작 분야 72
[대상자11] 창작 분야 80
[대상자12] 창작 분야 88
[대상자13] 창작 분야 96
[대상자14] 창작 분야 103
[대상자15] 창작 분야 110
[대상자16] 유통 분야 118
[대상자17] 유통 분야 125
[대상자18] 유통 분야 131
[대상자19] 유통 분야 137

Contents

[대상자20] 유통 분야 143
[대상자21] 유통 분야 150
[대상자22] 유통 분야 157
[대상자23] 유통 분야 163
[대상자24] 유통 분야 170
[대상자25] 유통 분야 177
[대상자26] 유통 분야-1차 184
[대상자26] 유통 분야-2차 191
[대상자27] 지원영역(민간) 분야 198
[대상자28] 지원영역(공공) 분야 205
[대상자29] 지원영역(공공) 분야 211
[대상자30] 지원영역(공공) 분야 218
[대상자31] 지원영역(공공) 분야 225
[자문회의 1] 232
[자문회의 2]-1차 239
[자문회의 2]-2차 247
[서면 자문 1] 254
[서면 자문 2] 261
[서면 자문 3] 268

Contents

표 목차

[표 1-1] FGI 진행 경과 및 내용 1
[표 1-2] FGI 진행 경과 및 내용 (계속) 2
[표 2-1] 참석자 명단 [대상자1] 교육 분야 5
[표 2-2] 참석자 명단 [대상자2] 창작 분야 10
[표 2-3] 참석자 명단 [대상자3] 창작 분야 18
[표 2-4] 참석자 명단 [대상자4] 창작 분야 26
[표 2-5] 참석자 명단 [대상자51] 창작 분야 34
[표 2-6] 참석자 명단 [대상6] 창작 분야 42
[표 2-7] 참석자 명단 [대상7] 창작 분야 48
[표 2-8] 참석자 명단 [대상자8] 창작 분야 56
[표 2-9] 참석자 명단 [대상자9] 창작 분야 64
[표 2-10] 참석자 명단 [대상자10] 창작 분야 72
[표 2-11] 참석자 명단 [대상자11] 창작 분야 80
[표 2-12] 참석자 명단 [대상자12] 창작 분야 88
[표 2-13] 참석자 명단 [대상자13] 창작 분야 96
[표 2-14] 참석자 명단 [대상자14] 창작 분야 103
[표 2-15] 참석자 명단 [대상자15] 창작 분야 110
[표 2-16] 참석자 명단 [대상자16] 유통 분야 118
[표 2-17] 참석자 명단 [대상자17] 유통 분야 125
[표 2-18] 참석자 명단 [대상자18] 유통 분야 131
[표 2-19] 참석자 명단 [대상자19] 유통 분야 137
[표 2-20] 참석자 명단 [대상자20] 유통 분야 143
[표 2-21] 참석자 명단 [대상자21] 유통 분야 150
[표 2-22] 참석자 명단 [대상자22] 유통 분야 157
[표 2-23] 참석자 명단 [대상자23] 유통 분야 163

Contents

[표 2-24] 참석자 명단 [대상자24] 유통 분야 170
[표 2-25] 참석자 명단 [대상자25] 유통 분야 177
[표 2-26] 참석자 명단 [대상자26] 유통 분야 184
[표 2-27] 참석자 명단 [대상자26] 유통 분야 191
[표 2-28] 참석자 명단 [대상자27] 지원영역(민간) 분야 198
[표 2-29] 참석자 명단 [대상자28] 지원영역(공공) 분야 205
[표 2-30] 참석자 명단 [대상자29] 지원영역(공공) 분야 211
[표 2-31] 참석자 명단 [대상자30] 지원영역(공공) 분야 218
[표 2-32] 참석자 명단 [대상자31] 지원영역(공공) 분야 225
[표 2-33] 참석자 명단 [자문회의 1] 232
[표 2-34] 참석자 명단 [자문회의 2]-1차 239
[표 2-35] 참석자 명단 [자문회의 2]-2차 247
[표 2-36] 참석자 명단 [서면 자문 1] 254
[표 2-37] 참석자 명단 [서면 자문 2] 261
[표 2-38] 참석자 명단 [서면 자문 3] 268

01

조사 개요



Ⅰ.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 주관기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수행기관 : ㈜케이스탯리서치
■ 조사기간 : 2024년 9월 11일(수) ~ 2024년 12월 9일(월)
■ 조사방법 : FGI 및 심층면접

2. 조사 목적

■ 정부의 예술위원회 역할 재설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주요 장르별·기능별 지원사업들이 문화예술생태계에서 잘 작동했던 것과 한계가 무엇인지를 진단하는 한편 새로운 도전과 변화 상황에서 예술위원회의 역할 모색의 근거 수집 필요
■ 이에 전통 생태계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현장 전문가와 연구협의체(전통 분야, 관련 지원정책·연구 전문가)로 참여 인원을 구성하여 FGI 및 IDI를 진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3. 조사 설계 및 내용

■ FGI는 총 6개의 상위그룹, 7개의 하위그룹으로 진행함

[표 1-1] FGI 진행 경과 및 내용

[그룹] 구분	주요 논의 내용 및 참가자
[그룹1] 교육 분야	ㅇ 교육기관 현황 및 실태, 생태계 이슈 및 한계점, 저변 확대 및 정책 방향, 창작·융복합 활동 전망 등
	ㅇ 협의체 : TA-A, TA-B ㅇ 참석자 : TA001
[그룹2] 창작 분야	ㅇ 생태계 문제 및 지속 가능성, 저변 확대 및 지원 방향, 창작·융합 활동 및 미래 전망 등
	ㅇ 협의체 : TA-A, TA-B ㅇ 참석자 : TA002, TA003, TA004, TA005, TA006, TA007, TA008, TA009, TA010, TA011, TA012, TA013, TA014, TA015
[그룹3] 유통 분야	ㅇ 창작과 보존, 교육 체계, 전통예술 지원의 현황, 예술 생태계와 자생력, 정부 지원 및 정책 등
	ㅇ 협의체 : TA-A, TA-B ㅇ 참석자 : TA016, TA017, TA018, TA019, TA020, TA021, TA022, TA023, TA024, TA025, TA026, TA026

[표 1-2] FGI 진행 경과 및 내용 (계속)

[그룹] 구분	주요 논의 내용 및 참가자
[그룹4] 지원영역(공공/민간)	ㅇ 공공지원의 구조적 문제와 한계, 전통예술 지속성, 전통예술 단체 운영의 실태
	ㅇ 협의체 : TA-A, TA-B ㅇ 참석자 : TA027, TA028, TA029, TA030, TA031
[자문회의]	ㅇ 전통예술 생태계 체계도 보완 사항에 대한 의견
	ㅇ 협의체 : TA-A, TA-B ㅇ 참석자 : TA002, TA003, TA004, TA008, TA011, TA012, TA013, TA016
[서면자문]	ㅇ 전통예술 생태계 체계도 보완 사항에 대한 의견
	ㅇ 참석자 : TA001, TA026, TA031

02

조사결과



[대상자1] 교육 분야

1. 일시

■ 2024년 12월 2일(월), 13:00 ~ 15:00

2. 장소

■ 전남대학교

3. 참석자 명단

[표 2-1] 참석자 명단 [대상자1] 교육 분야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1)	공공	TA-A			
참석자(n=1)	교육	TA001	남	40대	26년

4. 주요 논의 사항

■ 전통 예술 창작과 보존
- 전통과 현대 창작의 균형 유지
- 전통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접근법

■ 전통 예술의 교육 체계
- 국악 및 전통 예술 교육의 실무 부족 문제
- 예술가의 진로 불안정 및 생계 문제

■ 예술 생태계와 자생력
- 예술 단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 필요
- 지원금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 기반 구축

■ 전통 예술과 대중화
- 전통 예술의 저변 확대 및 관객 개발
- 창작과 대중성의 균형 문제 해결

■ 정부 지원과 정책
- 전통 예술 지원 정책의 한계와 개선 필요
-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전통예술 교육의 한계와 창작 환경 개선 방안

1) 전통예술 교육 및 창작 환경

■ 전통예술 분야에서는 보존·전승과 창작의 균형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 예술대학의 교육과정은 40여 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으며, 이는 창작자와 교육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함

■ 현재 교육과정은 전공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들의 진로 다변화를 고려한 교육이 부족함

"대학 커리큘럼은 40몇 년째 같은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예술계의 환경이 급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유도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특정 전공 중심으로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졸업 후에 창작자로 독립하기가 어렵습니다." (TA001)

2) 예술대학의 역할과 도제식 교육의 문제

■ 전통예술 분야의 교육 방식은 여전히 도제식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교수 중심의 기득권 구조로 인해 커리큘럼 혁신이 어려운 상황으로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실무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창작자로 독립하기 어려움

■ 교수진이 변화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대학 교수들이 전통적인 방식의 교육을 고수하며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교육이나 실무 중심의 교육이 도입되려 해도 교수진의 반대가 심해 실행되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생존할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사회로 나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전공을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TA001)

3) 전통예술 분야 진로 다양성 부족

■ 현재 전통예술 분야에서 학생들이 졸업 후 선택할 수 있는 진로가 극히 제한적임. 학생들의 50% 이상이 졸업 후 전공을 포기하고 타 분야로 진출하고 있음

■ 예술 행정, 기획, 기술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부족함

"학생들이 졸업하고 다른 직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육 과정에서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TA001)2

나. 생태계 이슈

지원 정책의 한계와 전통예술의 자립 과제

1) 지원 정책 의존성과 예술가의 자립 문제

■ 현행 전통예술 지원 정책은 예술가들의 자생력을 길러주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 의존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됨

■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지원금 정책이 변화하면 창작 환경 자체가 불안정해지는 문제 발생

- 지원금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창작자들의 시장 진입이 더욱 어려워짐

> "지원의 최종 목적은 지원으로부터의 독립입니다. 현재 많은 예술가들이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원 정책이 바뀌면 창작 환경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술가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이 단순한 재정적 도움을 넘어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원금이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수익 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TA001)

2) 전통예술의 시장 진입 한계

■ 현재 전통예술 공연은 상업적 유통구조에 편입되지 못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

■ 전통예술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수적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공연 기획 및 유통 모델 구축이 필요함

> "아트마켓을 통해 공연을 유통시키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전통예술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방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통예술이 단순한 보존이 아니라, 현재의 문화산업 속에서 경쟁력 있는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트마켓을 통해 몇몇 공연이 성사되었으며, 이를 통해 시장의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전통예술이 상업적 유통구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TA001)

3) 예술가와 기관 간의 협력 부족

■ 문화예술 기관과 창작자 간의 협력 부재로 인해 지원 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현장과 동떨어진 지원 정책이 많아 실질적으로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기관들이 주도하는 지원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는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예술가들의 실제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 (TA001)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전통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

1) 예술대학 커리큘럼 개편

■ 기존 전공 위주의 교육을 넘어서, 기획, 연출, 예술 행정 등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개편 필요

- 전공필수 과목을 줄이고, 전공 선택 과목과 실무 교육 비중을 확대해야 함
- 대학과 현장 간 연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해야 함

> "전공 필수를 최소화하고, 기획, 연출, 예술 행정 등 다양한 선택 과목을 확대해야 합니다. [...] 학생들이 원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공 심화 과정과 실무 중심 과정으로 나누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TA001)
> "현장 연계 수업 비중을 30~40% 이상 확대해야 합니다. 실무를 경험하지 못하면 졸업 후 예술계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 아트마켓, 공연 유통, 예술 기획 등을 실습하는 커리큘럼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졸업 후 '새로 시작'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이미 경험을 쌓고 나가야 합니다." (TA001)

2) 시민예술 활성화

■ 전통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단순한 공연 감상이 아닌 시민 참여형 예술 활동을 활성화해야 함

- 시민 동호회, 지역 예술 단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관객층을 확보하는 정책 필요
- 일반 시민들에게 예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전통예술의 저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예술을 향유하는 시민이 아니라, 직접 배우고 참여하는 시민이 많아져야 합니다. 현재 시민예술 활성화가 미흡한데, 이는 전통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악기를 배우고, 공연을 기획하며, 창작 과정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질수록 전통예술의 수요 기반이 탄탄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단위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민예술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TA001)

3) 창작자의 실무 교육 강화

■ 아트마켓과 같은 상업적 유통 채널을 활용하여 예술가들이 직접 작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공연 제작과 유통에 대한 실무 교육 및 창작자 대상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함

■ 창작자가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진입 전략을 교육 과정에 포함해야 함

"아트마켓이라는 상업적 유통구조 안에 들어가야 자생력이 생깁니다. 팔리는 작품을 만들어야 하고, 지원 없이도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합니다." (TA001)
"예비예술인 지원사업에서 무대 음향, 연출, 기획, 예술 행정을 포함한 실무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TA001)
"학생들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며 실질적인 창작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TA001)
"졸업 후 취업이 아닌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기획, 유통, 홍보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TA001)
"전통 방식의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며, 창작자가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TA001)

4) 공공기관과 민간 협력 확대

■ 공공 지원이 지속적인 의존이 아닌 예술가들의 시장 진입을 돕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 예술 행정과 기획 역량을 갖춘 창작자를 양성하여 전통예술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기업과 협업하여 전통예술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함

"지원의 최종 목적은 지원으로부터의 독립이다. 예술가들이 장기적으로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TA001)
"예술 행정과 기획을 배운 창작자들이 많아져야 전통예술이 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다. 단순한 전공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운영 역량을 키워야 한다." (TA001)
"전통예술이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될 수 있도록 기업과 협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통 채널을 확장하고, 지속 가능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TA001)

5) 기관 및 정책의 유연성 확보

■ 현장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기관들이 단기적인 목표보다 장기적인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 문화예술 정책이 지속적으로 끌고 오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현장이 바뀌는데 정책은 그대로이기 때문이죠. [...] 정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현장의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조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TA001)
"기관들이 단기적인 지원 사업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좋은 정책은 돈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TA001)

[대상자2] 창작 분야

1. 일시

■ 2024년 9월 11일 (수) 11:00 ~ 13:00

2. 장소

■ 대학로 예술극장 1층 회의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0길 17)

3. 참석자 명단

[표 2-2] 참석자 명단 [대상자2] 창작 분야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2)	공공	TA-A			
	공공	TA-B			
참석자(n=1)	창작	TA002	남	30대	24년

4. 주요 논의 사항

■ 전통 예술 분야 내부적 요소
- 교육기관 현황 및 실태
- 정규 교육 과정
- 민관 교육 과정
- 보완할 점

■ 전통 예술 생태계 최근 이슈/쟁점 및 한계점
- 최근 중요 이슈와 과제
- 직군별 전문인력 양성
- 전문인력 교육

■ 생태계 과제에 따른 개선 방향

■ 공공부문 예술지원의 역할과 예술위(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전통 예술의 학습 및 진입 과정의 특수성

1)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전공 과정

■ 전통 예술 분야는 조기 교육이 일반적이며, 성인이 된 후 새롭게 배우기 어려운 구조

■ 예술고등학교 진학 후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교육과정이 제한적이며 실질적 성장을 위한 기회가 부족

"전통 예술은 성인이 돼서 시작하기 어려운 분야예요. 대부분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이나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는데, 성인이 돼서 진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4살 때부터 박동진 선생님께 배우기 시작했어요. 당시 국악 지원이 활발해서 서울대 국악과 경쟁률이 68대 1이었지만, 지금은 7대 1로 줄었어요. 꾸준한 인재 배출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TA002)

"전통 예술은 보통 초등학교 때 시작해 예고, 대학, 대학원을 거치는 과정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학교 교육만으로는 실력을 쌓기 어려워요. 결국 개인 레슨을 받아야 하는데, 경제적 부담이 크고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지 않아요." (TA002)

"코로나 이후 국악 진입 인구가 더 줄었어요.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이 중단되면서 개인 레슨을 받아야만 배울 수 있는 구조가 됐거든요. 지금 초등 국악 경연대회에서도 참가자가 3명뿐이고, 다른 지역 대회에서도 똑같은 3명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TA002)

2) 학교 교육과 사사(師事) 교육의 이원화

■ 대학교 및 공식 교육기관의 전공 교육보다 개인적인 사사 관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함

■ 전수자 중심의 교육 방식이 일반적이며, 교육 기회의 불균형이 발생

"고등학교나 대학교에도 전공 선생님이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사사한 선생님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찾아가 배웠던 스승님들을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죠. 그런데 학교에서는 학비를 내고 배우지만, 실력 향상은 결국 개인 레슨에서 이루어져요. 학교 교육과 입시 준비도 별개라 명목상 교육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TA002)

"국악에서는 대학교 교수님보다 개인적으로 사사한 스승이 더 중요한 위치예요. 다른 예술 분야는 교수님을 은사로 여기지만, 국악에서는 개인 레슨이 더 중요하죠. 학위 과정과 실력 간 괴리가 커서 대부분의 학생이 별도로 사사를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TA002)

"학교 전공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뿐인데, 춘향가 하나만 해도 9시간 반이 넘어요. 결국 학교 교육만으로는 학습이 불가능하고, 스승을 찾아야 해요. 무형문화재 선생님께 배우면 이수자 자격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운 구조예요." (TA002)

3) 전통과 창작의 경계 문제

■ 전통 예술 내에서 창작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전통 보존 관점과 창작을 결합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 부족

■ 창작 국악의 범위 및 지원 체계가 명확하지 않아 창작자가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

"전통 예술 안에서도 창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무엇이 전통이고 창작인지 경계가 모호해요. 같은 전통 음악이라도 조금만 새롭게 해석하면 창작으로 분류되고, 어떤 창작 음악은 전통적인 요소가 많아도 전통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지원 사업에서도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창작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지원해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TA002)

"판소리는 시대에 따라 변해온 예술인데, 지금은 무형문화재 제도에 묶여 자유로운 변화가 어려워졌어요. 일본은 인간국보가 되면 이름까지 바꿔가며 전통을 유지하지만, 우리나라 판소리는 원래 변화하는 예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특정 유파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 인정받는 분위기라,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개성을 살리는 게 쉽지 않아요." (TA002)

"전통과 창작의 경계는 결국 사람들이 만든 기준이에요. 같은 음악을 연주해도 창작으로 보는 사람, 전통으로 보는 사람이 달라요. 저는 전통 연주팀과 창작팀을 따로 운영하지만, 어떤 공연은 두 팀이 함께할 때 더 좋은 시너지가 나와요. 하지만 지원을 받을 때는 명확한 카테고리에 속해야 해서, 이런 융합적인 작업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TA002)

나. 생태계 이슈

전통 예술의 구조적 문제 및 환경적 한계

1) 진입 장벽과 신규 인력 유입의 어려움

■ 전통 예술의 경우 학습 기간이 길고 초기 진입이 어려워 성인이 된 후 시작하는 사례가 적음

■ 기존의 전수 체계 내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져 학습 경로가 제한됨

"전통 예술 분야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성인이 돼서 진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기본적인 테크닉이 중요한 분야라, 늦게 시작하면 따라가기 어려운 구조죠. 타 전공에서 국악으로 전과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고, 전통 예술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나중에 시작하는 사례도 거의 보지 못했어요." (TA002)

"예전에는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이나 지역 문화센터에서 국악을 접할 기회가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줄었어요. 부모님이 국악을 시키지 않는 한 접할 기회 자체가 없고, 전공을 하려 해도 예고나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으면 길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결국 전통 예술을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TA002)

"국악과 지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국악과 입시 경쟁률이 높았지만, 지금은 지원하는 학생 수 자체가 적어요. 대학에서 국악과를 운영하는 곳도 줄어드는 추세라, 앞으로 전통 예술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점점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TA002)

2) 폐쇄적 문화와 내부 텃세

■ 특정 지역이나 유파 중심의 배타적인 문화로 인해 새로운 인력이 유입되기 어려운 환경

■ 선배와 기존 관계를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특정 배경이 없으면 기회가 제한됨

"전통 예술계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환영하기보다 텃세가 심한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판소리는 전라도에서 주로 하는데, 충청도 출신이라는 이유로 대학교에서 특정 수업을 듣지 못한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나는 충청도 사람은 안 가르친다'라고 하시면서 거부하셨거든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역이나 유파에 따라 활동 기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TA002)

"전통 예술은 특정 계파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새로운 인재가 들어오면 열린 태도로 맞아주기보다는 기존의 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압박이 강하죠. 선생님의 라인을 따르지 않으면 활동 기회도 줄어들고, 심지어 연습 공간이나 공연 참여에서도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후배들도 자연스럽게 기존 질서를 따르게 되고, 이런 폐쇄적인 구조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TA002)

"제가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특정 유파 출신이 아니면 무시당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판소리는 유파마다 창법과 해석이 다 다른데, 자신이 배운 방식만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하는 것도 어렵고, 창작을 하려고 해도 기존의 틀을 깨는 게 쉽지 않아요. 이런 전통 예술계의 보수적인 문화가 젊은 세대의 유입을 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TA002)

3) 지원 사업의 연속성 부족

■ 단기적인 지원 사업이 많아 지속적인 창작 활동이 어려움

■ 같은 단체가 연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인해 창작자들이 단체명을 바꾸어 지원하는 경우 발생

"지원 사업이 대부분 단발성이라 팀을 오래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같은 단체가 연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팀 이름을 바꿔가며 지원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 올해 '서의철 가단'으로 지원을 받았으면, 내년에는 이름을 바꿔야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 지속적으로 하나의 브랜드를 키워나가기 어려운 구조예요. 사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니 장기적인 기획도 힘들어요." (TA002)

"기획서를 쓰는 것도 문제예요. 실연자 입장에서는 공연을 준비하는 것도 벅찬데, 해마다 새로운 기획서를 작성해야 해요. 특히 10월~11월은 공연이 많은 시기라서, 지원 사업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한데도 이때 대부분의 공모가 몰려 있어요. 결국 공연이 끝난 뒤 밤새 기획서를 쓰고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지쳐요. 연간 운영을 보장하는 장기 지원 사업이 절실합니다." (TA002)

"단기 지원 사업은 팀의 안정성을 떨어뜨려요. 지원이 끊기면 활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공연을 기획할 때도 '내년에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항상 따라다녀요.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공연 퀄리티도 높아지고, 창작자들도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데, 지금 시스템에서는 한 해 한 해 버티는 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TA002)

4) 공연 및 창작 기획의 어려움

■ 공연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획자가 부족하여 창작자가 직접 기획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음

■ 지원 사업이 주로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져 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환경

"전통 예술 공연을 기획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기획자를 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전통 공연을 전문적으로 기획할 인력이 적고, 비용을 맞추기도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연주자들이 직접 기획까지 맡아야 하는데, 연주 준비와 동시에 행정 업무까지 처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기획자가 있다고 해도 공연 예산이 많지 않아서, 결국 기획자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TA002)

"지원 사업이 단기 프로젝트 중심이라 공연을 장기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워요. 올해 공연을 한 번 올리면 끝이고, 내년에는 새로운 기획으로 또 지원해야 해요. 공연을 발전시키고 싶어도 예산이 끊기면 이어갈 방법이 없어요. 해외에서는 같은 작품을 수년 동안 다듬으면서 완성도를 높이는데, 우리는 한 번 공연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공연의 지속성이 부족해요." (TA002)

"대부분의 지원 사업이 연출이나 기획보다는 실연자 중심으로 운영돼요. 무대, 조명, 홍보 같은 부분은 예산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창작자가 직접 홍보도 하고, 공연 대관도 해결해야 하죠. 공연 하나를 만들려면 연습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일도 해야 해서, 실제 창작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TA002)

5) 민간 후원 및 투자 유치의 한계

■ 전통 예술이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어려워 기업 후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

■ 민간 후원은 인맥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특정 집단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음

"전통 예술은 상업적인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후원을 받기가 정말 어려워요. 현대카드나 대기업 문화재단에 지원 요청을 해도 '이걸로 우리가 얻을 게 뭐냐'라는 반응이 많아요.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이 남아야 하는데, 국악 공연은 티켓 수익도 크지 않고 브랜드 홍보 효과도 적다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민간 기업의 투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에요." (TA002)

"어떤 공연은 개인 인맥을 통해 겨우 후원을 받기도 해요. 예전에 한성준 선생님 추모 공연을 진행할 때, 한 기업에서 후원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그 회사 대표의 부인이 국악인이었어요. 결국 전통 예술에 대한 기업 후원은 문화적 가치보다는 개인적인 연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방식은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원 구조가 되기 어려워요." (TA002)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국악을 대중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럼 결국 전통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요. 기업들은 국악을 현대적으로 편곡해서 대중적인 공연을 만들면 투자하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전통을 보존하는 본래 취지와 멀어지는 문제가 생겨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후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모델이 필요해요." (TA002)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전통 예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및 지원 방향

1) 전수 교육 및 입시 체계 개선

■ 전통 예술 분야의 전수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기존의 학위 중심 평가 기준을 보완하여 실력 기반의 평가 체계 마련

"전통 예술의 입시 과정은 사실상 사사(師事)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전공 수업이 있지만, 그걸로는 입시 준비가 불가능하죠. 결국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스승을 찾아가 사사해야 하고, 경제적인 부담이 큰 학생들은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입시 체계가 실력보다 특정 유파나 개인 사사 관계에 좌우되는 경우도 많아서, 보다 공정한 평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TA002)

"대부분의 국악 전공자는 무형문화재 선생님 밑에서 배워야 공식적인 자격을 인정받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국가 지정 문화재가 아니면 이수자 자격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 누구 밑에서 배웠느냐가 중요해지고, 특정 계파를 따르지 않으면 활동 기회가 제한되기도 해요. 전수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실력 위주의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합니다." (TA002)

"현재 국악 교육 과정은 현대적인 공연 환경과 괴리가 있어요. 전수 교육은 전통 방식대로 진행되지만, 실제 무대에서는 마이크 사용이나 현대적 연출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런데 전수 교육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루지 않아요. 전통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연주자들이 공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이 개선될 필요가 있어요." (TA002)

2) 창작 및 공연 지원의 연속성 강화

■ 단기적인 프로젝트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창작 지원을 통해 팀 단위로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 전통 예술을 활용한 창작 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 마련

"전통 예술 지원 사업은 대부분 단기 프로젝트 위주라 창작을 지속하기 어려워요. 같은 공연을 몇 년간 다듬어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공연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해외에서는 같은 작품을 여러 해 동안 발전시키면서 공연을 이어가지만, 우리는 지원이 끊기면 다음 공연을 할 수 없어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TA002)

"지금 지원 사업 구조에서는 한 단체가 연속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워요. 같은 팀이 같은 프로젝트를 계속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팀 이름을 바꿔가며 신청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러다 보니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기 힘들고, 연속적인 작업이 어렵죠. 공연을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 작품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요." (TA002)

"지원 사업을 준비할 때도 연속성이 부족한 게 문제예요. 공연이 끝나고 나면 다시 기획서를 써야 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하죠. 특히 기획서 마감이 대부분 공연 시즌과 겹쳐 있어서 실연자들이 기획까지 병행하기가 어려워요. 일정 조정이 가능하거나,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이 늘어나야 예술가들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A002)

3) 대중성 확대 및 미디어 활용 강화

■ 전통 예술의 대중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 및 현대적 콘텐츠와의 협업 강화

■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전통 예술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

"국악은 대중적인 접근성이 낮아서 사람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워요. BTS의 슈가가 '대취타'를 발표했을 때 국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국립국악원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사례처럼 대중적인 콘텐츠와 협업하면 국악을 자연스럽게 알릴 수 있어요. 문제는 국악계 내부에서도 이런 시도를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거죠." (TA002)

"국악이 대중화되려면 단순히 공연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국악은 '격식을 차려야 하는 음악'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요. 사실 클래식 음악도 길거리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데, 국악은 그런 환경이 부족해요. 방송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악이 일상적으로 노출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TA002)

"기업 후원을 받으려면 국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하지만 전통을 유지하면서 대중성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아요. 국악기를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국악이라고 할 수 없듯이, 단순히 대중음악과 섞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전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려면, 미디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TA002)

[대상자3] 창작 분야

1. 일시

■ 2024년 9월 20일(금), 13:00 ~ 15:00

2. 장소

■ 대학로 예술극장 1층 회의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0길 17)

3. 참석자 명단

[표 2-3] 참석자 명단 [대상자3] 창작 분야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2)	공공	TA-A			
	공공	TA-B			
참석자(n=1)	창작	TA003	남	30대	25년

4. 주요 논의 사항

■ 전통 예술 분야의 생태계 진단 및 지원 체계 개선
■ 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 중복 문제 및 신규 사업 발굴 필요성
■ 전통 예술의 보존과 창작의 균형에 대한 논의
■ 전통 예술 분야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 필요성
■ 공연 기회 부족 및 전통 예술가들의 경제적 어려움
■ 복원 및 연구 중심의 지원 정책 필요성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전통 예술 창작과 연구의 동반 성장 필요

1) 전통과 창작의 균형

- 전통 예술은 보존·전승과 창작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
- 과거에는 창작이 전통을 해친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창작과 복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향
- 그러나 창작 시 전통 어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논란 존재
- 전통 창작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 필요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장르적으로 보면 전통과 창작의 균형이 팽팽해야 이 분야가 지속될 수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균형이 무너지고, 전통을 계승하는 사람과 창작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적절해야 합니다. 그런데 창작 작업보다 전통을 연구하고 보존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보수적인 시각도 여전히 존재해요. 결국 전통과 창작이 함께 가야 하는데, 그 조화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TA003)

"예전에는 창작을 하면 국악이 아니라는 시선이 강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전통을 깊이 연구하면 "잘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전통이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한때 창작이 부정적으로 보였던 시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전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더 도전을 받는 분위기예요. 최근에는 학생들이 창작보다는 전통을 제대로 익히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요" (TA003)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더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역타령 같은 경우 전통적인 잡가 형식을 따르지만 현대적인 가사와 내용을 넣었어요. 사람들이 처음 들으면 전통 노래라고 생각하지만, 가사를 듣다 보면 요즘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되죠. 하지만 이런 방식이 전통을 훼손하는 것이냐 아니냐의 논란도 존재합니다. 저는 전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A003)

2) 복원 및 연구의 중요성

- 유성기 음반 등 사료를 활용한 전통 음악 복원이 활발하게 진행 중. 복원 과정에서 기존 전통 예술의 원형을 유지하는 연구가 필요
- 그러나 복원된 곡을 학술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 무형문화유산 지정과의 연계 가능성 및 절차에 대한 논의 필요

“전통 음악을 복원하면서 느낀 건, 이게 단순한 창작 재료가 아니라 전통 예술가들이 알아야 할 역사라는 거예요. 유성기 음반에서 들은 옛 노래들이 지금 우리가 아는 전통 민요보다 훨씬 다양했고, 음악적으로도 뒤처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노래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진 게 아니라 전쟁이나 일제강점기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단절된 거죠. [...] 그래서 전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전통을 다시 불러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A003)

“유성기 음반을 연구하다 보면 현재 우리가 전통이라고 알고 있는 민요와 스타일이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이런 연구를 하면 오히려 반발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보유자 선생님들께 "이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해 보자"라고 하면, "젊은 애가 감히 옛날 명창들의 노래를 건드리냐"는 반응을 듣기도 해요. [...] 하지만 복원 연구가 없으면 전통도 점점 획일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연구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A003)

“복원을 하면서 가장 놀랐던 건 과거의 민요 스타일이 지금과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에요. 예전 소리꾼들은 판소리처럼 깊이 있는 창법을 썼고, 개성이 뚜렷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특정 스타일이 표준처럼 자리 잡으면서 다양한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 복원을 통해 전통 민요의 원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연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TA003)

나. 생태계 이슈

전통 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들

1) 공연 기회 및 시장 부족

■ 전통 예술 공연은 국립기관이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공연이 대부분. 개인 예술가가 자체 공연을 기획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창작 활동보다는 전승 및 교육 분야로의 진출이 다수

"전통 공연은 진짜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예회관이나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하는 공연이 아니면 개인이 자체적으로 공연을 기획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전통 예술을 전업으로 하는 입장에서 공연을 꾸준히 이어가려면 국가기관에서 주최하는 공연에 참여하는 게 거의 유일한 방법이죠. 그런데 이런 공연들도 점점 줄어드는 분위기고, 공연을 해도 예산이 적어서 적절한 개런티를 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 개인이 공연을 하려면 기획부터 제작까지 다 감당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TA003)

"지역에서 알음알음 열리는 작은 행사들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대부분 지역 출신 예술가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하는 경우고, 외부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기회를 얻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전통 공연을 자체적으로 기획하려 해도 마땅한 공연장을 찾기가 힘들어요. 국악 전용 공연장이 많지 않고, 일반 공연장에서는 국악 공연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아요. [...] 지원 사업 없이 개인적으로 공연을 기획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 공연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TA003)

"최근 몇 년 동안 공연이 확 줄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지역 행사나 기업 행사에서도 전통 예술 공연을 초청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회조차 거의 없어졌어요. 특히 창작 공연보다는 전통 공연이 더욱 기회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창작을 하면 그래도 관심을 받는데, 순수 전통 공연은 수요가 적어요. [...] 그래서 전업 예술가들이 공연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TA003)

2) 전통 예술의 대중적 인지도 부족

■ 젊은 세대의 관심이 낮아 대중화에 어려움 존재. 민요 등 전통 음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는 있지만, 대중적 성공은 미미

■ 국악과 대중음악의 경계에서 정체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청중을 확보할 전략 필요

"전통 음악을 대중에게 알리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유튜브를 운영하면서도 느끼지만, 전통 음악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아요. 제 유튜브 채널에도 구독자가 있지만, 그 연령층을 보면 대부분 50~60대 이상이 많고 젊은 세대는 거의 없어요. [...] 공연을 해도 객석을 채우는 건 대체로 국악을 원래 좋아하시던 분들이고, 새로운 관객층을 유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TA003)
"트로트는 몇 년 사이에 다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전통 음악은 여전히 대중화가 어려워요. 한때 원슈타인이나 다른 대중가수들이 민요를 접목한 음악을 발표했는데, 기대했던 만큼 반응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대중음악 스타일로 편곡한 민요조차 관심을 두지 않더라고요. [...] 그래서 국악을 대중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사람들이 국악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TA003)
"전통 음악은 매니아층을 형성하기도 애매한 위치에 있어요. 예를 들어 판소리는 그래도 깊이 있는 감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만, 민요나 잡가는 대중이 쉽게 접할 기회도 적고, 공연 자체도 많지 않아요. [...] 공연장에 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고령층이고, 젊은 관객이 찾아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전통 음악이 단순히 공연 예술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TA003)

3) 교육 및 연구 환경의 한계

- ■ 전통 예술 전공 대학 교수진의 연구 지원 부족
- ■ 연구보다 실연 중심의 교육이 주를 이루며 이론적 연구 활성화 어려움
- ■ 전통 민요 및 국악 연구에 대한 체계적 지원 필요

"저희 분야는 전통을 연구하려는 사람 자체가 많지 않아요. 대학에서도 실연 중심 교육이 많고, 이론적 연구를 깊이 있게 진행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민요나 전통 음악을 연구하려면 기본적으로 역사적 자료나 문헌을 많이 봐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지 않아서 연구 방향을 잡기가 어려워요. [...] 그래서 실무와 연구를 병행하는 게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연구보다는 공연과 교육 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습니다." (TA003)
"전통 음악을 깊이 연구하는 환경이 부족해요. 교수님들도 연구보다는 실연 중심의 커리큘럼을 운영하다 보니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연구보다는 실기 쪽으로 가게 되죠. 논문을 써보려고 해도 지도해 줄 교수님이 한정적이고, 연구할 자료 자체도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 그래서 전통 음악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연구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자료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TA003)
"대학에서도 전통 음악을 연구하는 학생이 많지 않고, 연구 자체에 대한 지원도 적어요. 민요만 봐도 전승된 곡들 외에 복원해야 할 음악이 많은데, 이런 연구를 진행할 학문적 지원이 부족합니다. [...] 결국 연구가 부족하다 보니 전통 음악의 원형이 정리되지 못하고, 후대에도 똑같은 방식으로만 계승되는 한계가 있어요. 연구와 실연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학계와 공연계가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A003)

4) 전통 음악 복원 과정에서의 논란

■ 과거 유성기 음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전통 음악 복원 시 기존 전승 음악과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
■ 원형 보존과 연구를 병행해야 하는데, 전통 음악계 내부에서도 복원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존재
■ 보유자 전형과 연구자 중심의 복원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방향 모색 필요

"유성기 음반을 통해 복원 작업을 하면서 기존 전승된 전통 음악과 차이가 크다는 걸 많이 느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경기민요나 서도민요 스타일이 과거와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차이를 연구하고 복원하려고 하면 반발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보유자 선생님들의 스타일과 다르면 '그건 원형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논란이 생기죠. [...] 하지만 복원을 통해 전통 음악의 다양성을 다시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TA003)
"복원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진짜 원형이 맞느냐'는 논란이에요. 유성기 음반에 남아 있는 곡들이 현재 전승되는 스타일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배우는 방식이 변형된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연구를 하면 '젊은 사람이 함부로 전통을 건드린다'는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 하지만 지금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도 시대에 따라 변해온 것이기 때문에, 복원된 자료도 열린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TA003)
"전통 음악을 복원할 때 보유자 선생님들의 방식과 다르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판소리는 이미 다양한 복원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민요는 아직 그런 시도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복원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가 나오더라도 기존의 보유자 중심 체계와 충돌하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 결국 복원된 음악이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고민해야 하고, 연구와 전승 방식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TA003)

5) 전통 예술 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 문제

■ 국고 보조금 지원을 통해 공연 및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나, 지원 사업의 중복성 및 한정된 대상 문제 발생
■ 특정 예술가 및 단체가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는 구조적 문제
■ 지원 사업이 예술 생태계 활성화보다 특정 그룹에게 편중되는 경향 개선 필요

"전통 예술 분야에서 지원 사업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문제는 특정 예술가나 단체에게만 지속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에요. 신규 예술가들이 지원을 받기가 어렵고, 기존에 계속 받던 사람들만 또 선정되는 일이 반복돼요. [...] 결국 지원 사업이 생태계를 활성화하기보다는 일부에게만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다양한 예술가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TA003)
"지원 사업이 계속 바뀌고 중복된다는 점도 문제예요. 중앙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지역에서 따라 하다 보면, 중앙 사업은 중복을 이유로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역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은 규모가 작고, 접근성도 떨어져서 실제 예술가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아요. [...] 전통 예술이 지속 가능하려면, 일관성 있는 지원 체계와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TA003)
"국고 보조금을 통해 공연을 하거나 창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긴 하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면 공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원금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 가능하냐는 거예요. 지원을 받으면 공연을 하고, 지원이 끊기면 활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자생적인 전통 예술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공연 기획이나 유통까지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TA003)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전통 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

1) 전통 예술가 창작 지원 확대

■ 전통 예술의 창작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필요
■ 보존 중심이 아닌 창작과 실험이 가능한 환경 조성
■ 창작을 통한 전통의 현대적 계승 모델 개발

"전통 예술에서 창작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지원이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창작을 하려면 기존의 전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하는데, 이런 작업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요. 기존 전통을 보존하는 사업은 많지만, 창작을 위한 지원은 한정적이에요. [...] 전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고, 이를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A003)
"창작을 하면 국악계에서 부정적인 시선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요즘은 창작을 통해 전통을 이어가려는 시도도 많아졌어요. 문제는 이런 창작 작업이 공연 기획부터 제작까지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창작을 하려면 기본적인 제작비와 홍보비도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전통 예술 창작자들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 단순히 전통을 계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창작을 통해 전통을 현대적으로 확장하는 작업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A003)
"지금까지의 지원 사업이 대부분 기존 전통을 계승하는 방향이었다면, 앞으로는 창작을 활성화하는 방향도 고려해야 해요. 전통을 기반으로 창작하는 것이 단순한 변형이 아니라, 미래의 전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창작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려면, 단발적인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TA003)

2) 연구 및 복원 사업의 체계화

■ 실연자 중심 연구 및 복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체계 구축
■ 유성기 음반 등 역사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고 연구하는 기관 설립 필요
■ 복원된 전통 음악을 무형문화유산 지정 등으로 연계할 방안 검토

"전통 음악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연구의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유성기 음반이나 기록 자료를 바탕으로 복원을 시도하지만, 이를 연구할 기관이나 학문적 지원이 부족해요. 판소리는 비교적 복원 연구가 진행된 편이지만, 민요나 잡가는 연구 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 연구와 복원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학문적 지원과 기관 차원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A003)
"복원된 음악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과정도 굉장히 어려워요. 연구자들이 복원을 시도해도, 기존의 전승 방식과 다르면 논란이 생기기 쉽거든요. 예를 들어, 유성기 음반에서 발견된 옛 노래를 지금 우리가 부르는 민요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런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문제예요. [...] 기존 보유자 중심의 전승 체계와 연구 기반의 복원이 조화를 이루려면, 복원 사업이 더 체계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TA003)
"전통 음악 연구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연구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점이에요. 국악 관련 연구자들이 연구비를 지원받을 기회가 많지 않고, 연구해도 실제 공연이나 전승 과정에 반영되기가 어렵죠. 결국 연구와 실연이 별개로 진행되면서 복원된 음악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 연구와 복원이 실연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A003)

3) 공공기관과 민간 협력 강화

■ 국립국악원, 문화재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의 지원 사업과 민간 예술 단체 협력 강화
■ 연구와 실연이 연계되는 환경 조성하여 공연 기회 확대 및 대중화 전략을 함께 추진할 필요성

"전통 예술이 지속 가능하려면 공공기관과 민간이 협력하는 구조가 필요해요. 지금은 공공 지원 사업이 많긴 하지만, 실제로 예술가들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창작 지원을 받아도 공연 기획이나 유통과 연결되지 않으면 한 번의 프로젝트로 끝나버려요. [...] 민간 공연 기획사나 제작사와 연계해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A003)
"국공립 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연은 안정적이지만, 민간 공연장이나 단체와의 연계가 부족해요. 국악원이나 문화재청 같은 공공기관에서 기획한 공연은 정해진 틀이 있어서 창작적인 접근이 어렵고,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반면 민간에서는 창작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지원이 부족해서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 공공기관과 민간이 협력해서 실험적인 전통 공연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TA003)
"전통 예술을 연구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도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중요해요. 현재 연구는 주로 대학이나 공공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실연과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 민간에서는 실제 공연을 통해 복원된 음악을 활용할 수 있지만, 학문적 검증이나 지원이 부족해요. [...] 복원 연구를 공공기관에서 지원하고, 민간에서 이를 공연화하는 구조를 만들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TA003)

[대상자4] 창작 분야

1. 일시

■ 2024년 09월 23일(월), 11:00 ~ 13:00

2. 장소

■ 대학로 예술극장 1층 회의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0길 17)

3. 참석자 명단

[표 2-4] 참석자 명단 [대상자4] 창작 분야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2)	공공	TA-A			
	공공	TA-B			
참석자(n=1)	창작	TA004	남	40대	25년

4. 주요 논의 사항

■ 전통예술 교육 및 전승 체계의 변화와 문제점
■ 예술가 양성 과정의 한계 및 창작 생태계 이슈
■ 지원사업 구조와 문제점, 개선 방향
■ 전통예술의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
■ 창작자와 보존 예술인의 균형 및 정책적 방향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전통예술 교육의 변화와 창작·보존의 균형 문제

1) 전통예술 교육 및 전승 체계 변화

■ 전통예술 교육은 과거 동아리 및 지역 중심의 전승 방식에서 전문 교육기관 중심으로 변화

■ 예술중·고교 및 대학 교육과정에서 전통예술 전공이 분화되었으나, 지역 기반 전승이 약화되면서 세대 간 단절 발생

■ 일부 전통예술은 교육 시스템 내에 포함되지 않아 전수 및 확산이 어려운 상황

"전승지정학교라는 제도가 그때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지방에 있는 무형문화재가 학교를 하나 정해서 동아리를 키우는 역할을 했어요. [...] 그런데 지금은 이런 동아리 자체가 거의 사라졌어요. 코로나 거치면서는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 동아리도 영향을 받았어요." (TA004)

"지역의 학생들이 예술대학으로 진학하는 과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무형문화재 전승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대학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연결고리가 약해졌죠. [...] 예를 들면 제 주위의 고성오광대 같은 경우도 한 명도 빠짐없이 특정 고등학교에서 배출되었는데, 지금은 그 흐름이 끊어졌어요." (TA004)

"대학에서 전통예술을 전공하는 학생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예고 출신들이 주로 진학했지만, 요즘은 그 인원도 적고 일반고 출신 학생들의 유입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 신입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 전공 유지 자체가 어려운 학교도 많아졌어요." (TA004)

2) 전통예술과 창작의 경계

■ 전통예술의 원형 보존과 창작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지속적인 논쟁

■ 무형문화재 제도 도입 이후, 기존의 즉흥성을 기반으로 한 연행 방식이 고착화되며 창작적 요소 감소

■ 판소리 및 산조 등 전통 장르에서도 새로운 창작물이 시도되고 있으나, 기존 전통과의 충돌 문제 발생

"전통예술은 지역의 특색을 바탕으로 자생했지만, 요즘은 지역에서 올라오는 인재가 줄어들면서 전통 보존과 창작의 경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예를 들면 판소리는 원래 즉흥성이 중요한 요소였는데, 무형문화재 제도가 도입되면서 점점 고착화됐어요. 예전에는 같은 대목도 소리꾼마다 다르게 불렀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똑같이 해야 하는 구조가 됐어요." (TA004)

"산조나 판소리에서도 창작적 시도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기존 전통과 충돌하는 문제가 커요. 새로운 시도를 하면 '이건 전통이 아니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기존 방식을 유지하면 창작 발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요. [...] 전통은 시대에 따라 변하면서 발전해야 하는데, 지금은 보존 중심으로만 가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TA004)

"퓨전 국악이 늘어나면서 장르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전통 판소리를 편곡했는데도 공연 심사에서 '이건 판소리가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반대로 대중적인 요소를 가미하면 '너무 쉽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죠. 결국 창작을 하려 해도 항상 전통과의 경계를 고민하게 돼요." (TA004)

3) 전통예술과 현대적 소비 형태 변화

■ 현대 대중의 전통예술 소비 방식이 공연장에서 SNS 및 미디어 플랫폼으로 변화

■ 박효신, 정재일 등의 유명 대중음악인의 참여로 인해 일부 전통예술 장르가 새로운 관객층을 형성

■ 그러나 본질적 접근보다는 대중성 위주의 관심이 주를 이루며, 이에 따른 예술적 방향성 고민 필요

"창극 공연에 새로운 관객층이 유입됐어요. 박효신 팬이었다가 정재일을 알게 되고, 정재일이 국악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판소리 같은 공연으로 넘어오는 흐름이 생긴 거죠. [...] 덕분에 완창 판소리 공연에서도 30~40대 젊은 여성 관객이 늘어나고 있어요." (TA004)

"전통예술 소비 방식이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극장에서 직접 공연을 보는 게 주였다면, 요즘은 SNS와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통해 공연을 접하는 경우가 많아요. [...] 관객들이 직접 촬영해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홍보 효과도 생기죠." (TA004)

"대극장 시대는 끝나고 있어요. 관객들은 점점 작은 공간에서 집중도 높은 공연을 선호하는데, 전통예술도 이런 변화에 맞춰야 해요. [...] 대형 무대보다는 관객과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할 수 있는 형식이 효과적이라고 느껴요." (TA004)

나. 생태계 이슈

전통예술 생태계의 위기와 지속 가능성 문제

1) 전통예술 교육의 붕괴와 신입생 감소

■ 전통예술을 전공하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예술중·고 및 대학에서 관련 학과 축소
■ 교육기관이 줄어들면서 지역 기반 전통예술 인재 양성이 불가능해지는 문제 발생
■ 전공자의 연령층이 점차 높아지면서 후속 세대의 부족이 심화

"전통예술을 전공하는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예술고등학교나 지역 전승학교에서 꾸준히 인재를 배출했는데, 지금은 그런 흐름이 거의 끊어졌어요. [...] 예고 출신들의 대학 진학 비율도 줄고, 일반고에서 전통예술을 배우는 학생들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TA004)
"신입생 감소로 대학에서도 전공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한예종 연희과만 해도 경쟁률이 높았는데, 지금은 뽑는 인원은 그대로인데 지원자가 줄었어요. [...] 몇몇 지방 대학에서는 전통음악 관련 학과가 폐과되거나 연극영화과로 통합되는 경우도 많아요." (TA004)
"전통예술 전공자가 줄어드는 건 단순히 학과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문제예요. 국악 오케스트라나 전통 연희단을 꾸리려 해도 젊은 인력이 부족해서 운영이 힘들어지고 있어요. [...] 교육기관이 줄어들면 배울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결국 전승이 단절될 위험이 커요." (TA004)

2) 창작자의 생계 및 지원 문제

■ 전통예술 창작자는 기본적인 지원 없이 개인적인 공연과 교육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
■ 창작 지원사업은 존재하나 지속성이 낮으며, 대부분 단기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됨
■ 창작 지원이 필요하지만, 창작을 하는 예술가와 원형을 유지하는 전통예술인의 지원 체계가 별도로 정립되지 않음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창작을 하는 예술가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아요. 공연을 계속해야 하는데, 지원사업이 없으면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 창작 활동을 위해서라도 지원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인 프로젝트 위주라 안정적으로 작품을 만드는 게 힘들어요. 창작자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고, 결국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돼요." (TA004)
"지원사업이 있긴 하지만, 점점 경쟁률이 심해지고 있어요. 특히 창작자는 전통을 보존하는 분야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 전통과 창작을 아우를 수 있는 장기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술가가 지속적으로 작품을 만들고 발전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지원뿐만 아니라 창작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해요." (TA004)
"창작 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강의나 연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작품에 온전히 몰입하기가 어려워요. [...] 창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 해요. 공연을 해도 티켓 판매만으로는 수익이 나기 어렵고, 결국 예술가들이 계속해서 창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해요." (TA004)

3) 전통예술 단체의 운영 방식 및 기득권 문제

■ 전통예술 보존 단체 내부의 기득권 구조로 인해 새로운 인력 유입이 어려운 현실
■ 특정 연령대 이상의 전공자들이 주요 공연과 지원을 독점하면서 젊은 예술가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음
■ 공연과 기획이 일부 단체에 집중되면서 예술적 다양성 저해

"전통예술 단체 내부의 기득권 구조가 강해요. 특정 연령대 이상의 전공자들이 주요 공연과 지원을 독점하면서, 젊은 예술가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어요. [...] 보존회나 단체에서도 새로운 인력을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부족하고, 결국 세대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TA004)
"공연 기회가 기득권층에 집중되면서 신진 예술가들이 활동할 공간이 부족해요. 예를 들면 국공립 단체의 공연에서도 늘 같은 연출진과 연주자가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해도 단체 내부의 기존 틀을 깨기가 어렵고, 결국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기획하는 수밖에 없어요." (TA004)
"전통예술 단체들이 공연을 기획할 때, 기존 멤버들 위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부 인맥이 없으면 들어가기 힘든 구조예요. [...]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이 부족하고, 외부의 새로운 인재가 유입될 기회가 제한적인 게 가장 큰 문제예요." (TA004)

4) 전통예술 관객 감소와 접근성 문제

■ 전통예술 공연의 주요 관객층이 고령화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와의 접점이 부족
■ 새로운 관객 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지만, 기존 전통공연 방식과 차이가 커서 적용이 어려움
■ 지역 기반 공연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지원이 부족

"전통예술 공연의 주요 관객층이 점점 고령화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가족 단위나 젊은 층도 많이 봤는데, 요즘은 극장에서 관객을 보면 대부분이 중장년층이에요. [...] 새로운 관객층을 유입하려면 전통예술이 현대적인 감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시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TA004)
"공연장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접근성이 낮아요. 국악 공연을 보려 해도 서울이나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면 선택지가 거의 없어요. [...] 지역 기반의 전통예술 공연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젊은 층이 자연스럽게 접할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결국 전통예술이 특정 계층을 위한 문화로 굳어질 위험이 있어요." (TA004)
"전통예술을 접하는 방식이 제한적이에요. 젊은 세대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문화를 소비하는데, 전통예술은 이런 플랫폼에서 노출이 적어요. [...] 공연 홍보도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고, 전통예술 콘텐츠를 디지털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TA004)

5) 지원금 의존 구조와 자생력 부족

■ 창작자와 공연 단체들이 지원금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자생적인 시장 형성이 어려운 상황
■ 공공 지원금이 특정 단체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
■ 지원금 없이도 유지될 수 있는 새로운 공연 및 예술 운영 모델 개발 필요

"전통예술 창작자와 단체들이 대부분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가 문제예요. 지원금이 없으면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데, 그런 구조는 자생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어요. [...]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속 지원에 의존하고 있죠." (TA004)
"지원금이 있긴 하지만, 점점 경쟁률이 심해지고 있어요. 특정 단체나 유명 예술인에게 집중되다 보니, 신진 예술가들은 기회를 얻기 어려운 현실이에요. [...] 결국 자생적인 예술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지원금에 의존하는 한계를 벗어나기 힘든 구조인 것 같아요." (TA004)
"정부나 문화재단의 지원금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예술가들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 자생력을 높이려면 예술가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과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TA004)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전통예술 창작 및 전승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생태계 조성

1) 창작자 및 전승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마련

■ 전통예술의 전승과 창작을 별도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단기적인 프로젝트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창작 기반 지원 확대
■ 무형문화재 제도 개편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전승 방식을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향 검토

"전통예술의 전승과 창작을 별도로 구분하여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전통예술의 전통을 지키는 전승자들에게는 그에 맞는 보존과 전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창작자들에게는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작 기반 지원이 절실해요. [...] 이런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지원될 때 전통예술의 생태계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TA004)
"무형문화재 제도나 전통예술 관련 지원사업들이 있지만, 대부분 단기적인 프로젝트 중심이에요. 전통예술 창작자들은 그때그때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해요. [...] 정부와 공공기관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TA004)
"전통예술이 단기적인 지원사업에 의존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창작자들에게는 지속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이 필요하고, 전승자들에게는 그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해요. [...] 전통예술을 유지하려면 한 해, 두 해가 아닌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TA004)

2) 지역 기반 전통예술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 지역별 전통예술 단체와 교육기관 연계를 통한 지속 가능한 전승 시스템 마련
■ 지방 공연장 및 문화재단을 활용한 상설 공연 및 지역 밀착형 예술교육 확대
■ 지역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연 및 프로그램 운영

"지역 기반 전통예술 활성화는 매우 중요해요. 서울이나 대도시에서만 전통예술을 소비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습니다. [...] 지역 예술인들이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면, 전통예술이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TA004)
"전통예술의 생태계가 건강하려면, 지역 예술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 지방 공연장이나 문화재단을 활용해 지역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주민들이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전통예술을 확산시킬 수 있어요." (TA004)
"지역 기반 전통예술이 활성화되려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필수적이에요. [...] 지역 문화재단이나 예술 단체들이 전통예술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전통예술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TA004)

3) 전통예술의 현대적 소비 방식 도입 및 홍보 강화

■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전통예술 콘텐츠 개발 및 배포

■ 전통예술과 현대음악, 영상기술을 결합한 융합형 공연 활성화

■ SNS 및 유튜브 등 미디어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전략 마련

"전통예술도 현대적인 소비 방식을 도입해야 해요. SNS나 유튜브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전통예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어요. [...] 예를 들면 전통음악이나 공연을 온라인에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해요." (TA004)

"전통예술이 대중화되려면 홍보가 정말 중요해요. 과거에는 공연장에서만 전통예술을 접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사람들에게 다가갈 필요가 있어요. [...] 전통예술도 콘텐츠로서 소비될 수 있도록 디지털화를 강화해야 합니다." (TA004)

"전통예술의 현대적인 소비 방식을 도입하려면, 공연의 형식도 바뀌어야 해요. 대극장에서만 하는 공연보다는 작은 공간에서의 실험적인 공연이 더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어요. [...] 전통예술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해요." (TA004)

[대상자5] 창작 분야

1. 일시

■ 2024년 09월 27일(금), 15:00 ~ 17:00

2. 장소

■ 대학로 예술극장 1층 회의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0길 17)

3. 참석자 명단

[표 2-5] 참석자 명단 [대상자51] 창작 분야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2)	공공	TA-A			
	공공	TA-B			
참석자(n=1)	창작	TA005	남	20대	16년

4. 주요 논의 사항

■ 전통예술 창작 및 보존
- 창작과 전통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와 그에 대한 지원 체계 필요성

■ 지역 기반 예술 활성화
- 지방에서의 전통예술 활동과 그에 대한 지원 방안

■ 전통예술 교육 및 향유
- 교육의 중요성, 학생들의 전통예술 참여와 향유 증진 방법

■ 정부 지원 및 수익 모델
- 전통예술의 재정적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과 자생적 수익 모델 구상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전통예술의 창작과 보존의 균형, 지역 기반 예술 활동 활성화

1) 전통예술 창작과 보존의 균형

■ 창작과 전통을 동시에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전통을 지키는 것과 새로운 창작을 시도하는 것이 상충할 때가 있음
■ 전통예술 창작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중요한 작업이며, 그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

"저는 균형이 사실 안 맞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되게 많죠. 전통으로 그냥 뭐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전통에 취중해야 되는 게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시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창작을 한다는 것을 이제 창작은 제가 봤을 때는 창작문을 냈잖아요. 근데 그 전통도 옛날로 따지면 그때 창작한 거잖아요" (TA005)
"지금 옛날에는 창작하면 그거를 유지했는데 요즘은 창작을 해버리면 그냥 그때 하는 반짝반짝 그때 연주되는 창작물이에요. 그냥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거를 전승으로 보존해준다? 이런 거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전통과 창작이 같이 공존하려면 이 부분도 조금 더 지켜줘야 될 만한 [...] 인정을 좀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TA005)
"전통과 창작이 같이 공존하려면 이 부분도 조금 더 지켜줘야 될 만한 [...] 창작과 인정되는 부분이 악단에서 연주되는 단체에서 연주되는 것만 인정을 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야를 이 울타리 안에 말고 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내다 봤으면 좋겠고요" (TA005)

2) 지역 기반 예술 활성화

■ 지방에서 활동하는 전통예술 단체들은 수도권과의 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방에서의 활동을 활성화하려면 지원과 인프라가 필수적
■ 지방 예술인들이 서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함

"저희가 활동하는 지역이 세종시나 천안시인데,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해요. [...] 하지만 지역에서라도 활동을 이어가면, 그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TA005)
"지방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서울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그만큼 지원받을 기회도 적어요. [...] 그래서 저희 팀은 지역 예술인들과 협업하면서 점차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A005)
"지자체에서 예술활동을 위한 지원이 있지만, 실제로 그 지원이 예술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큰 문제예요. [...] 지역 기반의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려면,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A005)

3) 전통예술 교육의 변화

■ 전통예술 교육은 예전보다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

■ 교육 체계와 입시 과정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전통예술의 미래를 위해 교육 과정의 유연성이 필요하며, 창작 중심으로 변화해야 함

"솔직히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확대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축소된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은 게 지금 각 지방에 있는 세종시에 세종예고도 있고 충남예고도 있지만 작년에 세종예고만 하더라도 시험을 봤던 친구가 아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ㅇㅇ예고도 올해는 제가 강사로 나가고 있지만 둘 다 한 세 명? 사실 이거밖에 없습니다." (TA005)

"이제 전통예술 분야에서 학생들이 편하게 악기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계속 깊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현재 교육은 틀에 박힌 요구가 많고, 그런 점에서 입시의 방향이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낍니다." (TA005)

"입시나 전통예술 교육에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전통예술을 공부하면서도 창작의 자유로움과 개인적 관심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TA005)

나. 생태계 이슈

전통예술 생태계의 위기와 자생력 부족, 창작자의 어려움

1) 창작자 생계 문제

■ 창작자들은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생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움
■ 창작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구조가 부족하며, 지원금 이외의 수익 모델이 필요
■ 창작의 지속성을 위해 안정적인 지원과 창작 기반 마련이 중요

"창작은 제가 봤을 때는 창작문을 냈잖아요. 근데 그 전통도 옛날로 따지면 그때 창작한 거잖아요. [...] 지금 옛날에는 창작하면 그거를 유지했는데 요즘은 창작을 해버리면 그냥 그때 하는 반짝반짝 그때 연주되는 창작물이에요.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거를 전승으로 보존해준다? 이런 거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전통과 창작이 같이 공존하려면 이 부분도 조금 더 지켜줘야 될 만한 [...] 인정을 좀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TA005)
"전통과 창작이 같이 공존하려면 이 부분도 조금 더 지켜줘야 될 만한 [...] 창작과 인정되는 부분이 악단에서 연주되는 단체에서 연주되는 것만 인정을 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야를 이 울타리 안에 말고 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내다 봤으면 좋겠고요" (TA005)
"전통을 지키는 것과 창작을 시도하는 것의 균형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전통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창작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창작을 한다고 해서 전통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 우리가 전통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창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TA005)

2) 지역 기반의 전통예술 생태계 위기

■ 지방에서 전통예술을 접할 기회가 부족하며, 지역의 문화재단과 지원 시스템이 미비
■ 지역 예술인들은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

"저희가 활동하는 지역이 세종시나 천안시인데,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해요. [...] 하지만 지역에서라도 활동을 이어가면, 그 지역의 문화와 예술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TA005)
"지방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서울에 비해 많이 부족하고, 그만큼 지원받을 기회도 적어요. [...] 그래서 저희 팀은 지역 예술인들과 협업하면서 점차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A005)
"지자체에서 예술활동을 위한 지원이 있지만, 실제로 그 지원이 예술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큰 문제예요. [...] 그래서 지역 기반의 예술 활동을 활성화하려면, 더 많은 기회와 자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A005)

3) 전통예술의 저변 확대 부족

■ 전통예술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이 낮고, 새로운 관객층을 유입하는 데 어려움
■ 전통예술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새로운 콘텐츠와 결합하여 흥미를 유도해야 함
■ 향유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확대와 같은 접근 방법이 필요

"전통예술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이 너무 낮고, 전통을 어떻게 하면 대중화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이 돼요. 사실 전통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 외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 그래서 저는 전통예술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서 대중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A005)
"전통예술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민속 음악을 대중 음악처럼 편곡하거나, 국악과 K-POP을 결합하는 시도처럼요. [...] 새로운 콘텐츠와 결합해야만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어요." (TA005)
"향유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직접 악기를 만지고, 소리를 내보면서 전통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죠. [...] 체험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전통예술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TA005)

4) 전통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 한계

■ 전통예술의 지원금이 제한적이며, 대부분 특정 단체에 집중됨
■ 창작자들은 지원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
■ 정부는 보다 투명한 지원과 평가 시스템을 제공해야 함

"사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부 지원금이라는 자체가 올해 굉장히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 재원이라고 따지면 사실 공연이 저희 재원이 가장 크고, 공연을 통해서만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TA005)
"전통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원금이 제한적이고, 특정 단체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창작자들은 그 지원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하며, 자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TA005)
"전통예술 창작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창작의 자유와 자립을 위한 지원입니다. [...] 정부는 보다 투명한 지원과 평가 시스템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TA005)

5) 창작과 전통의 공존 문제

■ 창작과 전통의 경계를 넘나드는 창작이 필요하나, 전통 보존을 중시하는 규제도 존재
■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전통과 창작의 경계를 허물고, 유연한 지원이 필요
■ 창작된 작품이 전통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

"저는 균형이 사실 안 맞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되게 많죠. 전통으로 그냥 뭐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전통에 취중해야 되는 게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시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창작을 한다는 것을 이제 창작은 제가 봤을 때는 창작문을 냈잖아요. 근데 그 전통도 옛날로 따지면 그때 창작한 거잖아요" (TA005)
"지금 옛날에는 창작하면 그거를 유지했는데 요즘은 창작을 해버리면 그냥 그때 하는 반짝반짝 그때 연주되는 창작

물이에요.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거를 전승으로 보존해준다? 이런 거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전통과 창작이 같이 공존하려면 이 부분도 조금 더 지켜줘야 될 만한 [...] 인정을 좀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TA005)

"전통과 창작이 같이 공존하려면 이 부분도 조금 더 지켜줘야 될 만한 [...] 창작과 인정되는 부분이 악단에서 연주되는 단체에서 연주되는 것만 인정을 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야를 이 울타리 안에 말고 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내다 봤으면 좋겠고요" (TA005)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전통예술 생태계와 창작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1) 창작자 및 전승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 창작과 전통을 구분하여 각기 다른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장기적인 창작 기반 지원과 전통예술 보존을 위한 정책이 필요
■ 전통예술을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장기적인 재정 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필요

"전통예술의 창작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정부 지원금이 너무 제한적이고, 지원되는 기관이나 단체가 특정 몇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 창작자들이 지원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 왔습니다." (TA005)
"지금 정부의 지원은 대부분 창작보다는 전통을 보존하는 쪽에 집중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 전통과 창작을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고,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도록 더 유연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TA005)
"전통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제한적이다 보니, 창작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부족합니다. [...] 정부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창작자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A005)

2) 지역 기반 전통예술 활성화 및 인프라 지원

■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문화재단과 협력 강화
■ 지역 기반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예술 환경 마련
■ 지방 예술인들을 위한 공연 및 교육의 기회 확대

"저희 지역 예술인들은 활동 공간과 기회를 찾기 힘든 상황이에요. 특히 지방에서는 서울이나 대도시와 비교해 지원이 부족하고, 예술인들이 자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합니다. [...] 그래서 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지방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A005)
"지방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공연 및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려면, 기초적인 인프라와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지역 기반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술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A005)
"지역마다 문화재단에서 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실제로 그 지원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의문이에요. [...] 지역 예술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TA005)

3) 전통예술의 현대적 접근 및 홍보 강화

■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전통예술의 현대적 소비 방법 도입

■ SNS와 유튜브 등 미디어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대중의 관심을 끌어야 함

■ 전통예술의 교육 콘텐츠와 체험 활동을 통해 전통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함

"저희가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공연과 창작의 디지털 플랫폼 활용이에요. 유튜브나 SNS 같은 디지털 채널을 활용하지 않으면, 점점 더 관객의 관심을 끌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활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이 활용될 것 같습니다." (TA005)

"전통예술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전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면서,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 예를 들면 국악을 대중 음악처럼 편곡하는 것처럼, 전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변형해야 합니다." (TA005)

"체험을 통해 전통예술을 더 많이 알리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해요.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전통예술에 더 흥미를 느낄 수 있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예술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전통을 배울 수 있습니다." (TA005)

[대상자6] 창작 분야

1. 일시

■ 2024년 10월 2일 (수), 11:00 ~ 13:00

2. 장소

■ 대학로 예술극장 회의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0길 17)

3. 참석자 명단

[표 2-6] 참석자 명단 [대상6] 창작 분야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2)	공공	TA-A			
	공공	TA-B			
참석자(n=1)	창작	TA006	남	40대	24년

4. 주요 논의 사항

■ 전통예술 창작자의 경험
- 예술 창작과 보존의 균형 문제 및 전통을 유지하면서 창작 활동을 지속하는 방식

■ 전통예술과 창작의 변화
- 전통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변형하려는 노력과 대중의 수용 문제

■ 정부와 정책의 역할
- 정부 지원금의 한계 및 창작자들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의 필요성

■ 전통예술의 보존과 계승
- 전통음악의 지속적 보존과 창작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전통예술 창작과 보존의 균형, 창작자들의 어려움

1) 전통예술 창작과 보존의 균형

■ 창작과 전통을 동시에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전통을 고수하면서 새로운 창작을 시도하는 것이 상충할 때가 있음
■ 전통과 창작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균형이 사실 안 맞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되게 많죠. 전통으로 그냥 뭐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전통에 치중해야 되는 게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시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창작을 한다는 것을 이제 창작은 제가 봤을 때는 창작문을 냈잖아요. 근데 그 전통도 옛날로 따지면 그때 창작한 거잖아요" (TA006)
"지금 옛날에는 창작하면 그거를 유지했는데 요즘은 창작을 해버리면 그냥 그때 하는 반짝반짝 그때 연주되는 창작물이에요. 그냥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거를 전승으로 보존해준다? 이런 거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전통과 창작이 같이 공존하려면 이 부분도 조금 더 지켜줘야 될 만한 [...] 인정을 좀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TA006)
"전통과 창작이 같이 공존하려면 이 부분도 조금 더 지켜줘야 될 만한 [...] 창작과 인정되는 부분이 악단에서 연주되는 단체에서 연주되는 것만 인정을 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야를 이 울타리 안에 말고 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내다 봤으면 좋겠고요" (TA006)

2) 전통예술의 현대적 접근

■ 전통예술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필요
■ 국악과 대중음악의 결합 등을 통해 대중적 관심을 유도해야 함
■ 현대적인 접근을 통해 새로운 관객층을 유입할 수 있음

"전통이랑 가장 멀리는 어떤 무언가를 하는 멋있는 것들을 하면서 자기 무대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그때도 다 기금도 있었을 테고 극장에서 하는 공연들이었겠지만 [...] 그때 뭔가 새로운 곳을 찾는 젊은 학생들에게나 그래서 그런 선배들을 쫓아서 계속 가게 되었고" (TA006)
"2000년대 초중반 지나면서 대학교까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서울대를 중심으로 유학을 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 같아요. [...] 그렇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나서는 갑자기 약간 즉흥음악 베이스였던 그 음악 만들기 행위가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TA006)
"국악기와 서양음악을 결합하는 것처럼 전통의 일부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는 접근법이 중요해졌죠. [...] 이런 식으로 전통을 대중문화와 결합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어야만 지속 가능한 예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TA006)

3) 예술과 생계 문제

■ 창작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예술을 위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

■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

"저는 우선 1인 가구고요. 제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벌이에 대한, 어쨌든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작업은 해보질 않았어요. 정말 그냥 돈을 벌긴 벌어야겠죠. 하지만 이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이걸 밴드 세트로 돌려서 어떻게 지방 순회 공연을 할까, 뭐 그런 접근의 기획을 해서 한 공연은 없었고요." (TA006)

"5천만 원짜리 공연을 해도 5천만 원이 어디에 쓰이는 걸까 싶은 공연들이 많은데, 정말 5천만 원이 5천만 원짜리 값어치를 하는 공연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술가들한테 예술가들과 함께 하는 일이긴 하지만 [...] 그렇게 되어서 더 뭔가 퀄리티를 높이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TA006)

"예술가들이 작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기금을 받으면 이 돈으로 공연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되죠. 기금을 받았다 보니 단가 체계가 달라지기도 하고, 예술가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TA006)

나. 생태계 이슈

전통예술 생태계의 위기, 정부 지원의 한계

1) 창작자 생계 문제

■ 전통예술 창작자들은 대부분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음
■ 자생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
■ 창작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시급

"예술 창작자들이 자생적인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가기란 쉽지 않아요. 대부분은 지원금에 의존하며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죠. [...] 저는 제 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작품을 만들고 있지만, 그로 인해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TA006)
"기금을 받으면 공연을 만들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창작자들이 자생적인 수익 모델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기금을 받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며,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TA006)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을 위해서는 창작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합니다. [...] 기금을 받지 않고도 독립적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A006)

2) 지역 기반 예술의 어려움

■ 지방 예술인들은 서울 등 대도시와의 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예술 환경 마련 필요
■ 지방 문화재단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

"우선 요새 시대가 음대 잘 안 보내서요. 그 음악 국악계 이런 걸 떠나서요 음대 잘 안 보내거든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국악계뿐만 아니고 사회음악계도 돈벌이가 잘 안 되니까 크게 돈을 벌어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부모님이 기대할 수 없고, 들어가는 돈은 많으니까 옛날보다는 그렇게 예술을 많이 안 시키거든요. 그런 문제도 우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학생들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TA006)
"그 지역마다 또 지역 지자체 문화재단에서. 네. 저 우리 지역 예술인들 뭐 음반 제작해가지고 음악 창작소라고 해서 지역마다 요즘에 하나씩 다 짓고 있거든요. 거기서 아예 음악 창작소 공연장도 짓고 뭐 녹음실도 있고 안에 다 있어서 또 무료로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예." (TA006)

3) 전통예술의 저변 확대 부족

■ 전통예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낮고, 새로운 관객층을 유입하는 데 어려움
■ 전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고, 대중적 관심을 끌어야 함
■ 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접근법을 통해 전통예술의 접근성을 높여야 함

"우리가 저변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듣는 음악들 중에도 국악이 들어가고 이런 저변 확대가 되는 것은 좋으나 진정한 대중화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어디가서도 피아노 학원이 있듯이 어디에 가도 합창단, 일반인 합창단이 있듯이 그런 식의 것은 아직 국악 관련돼서는 되어 있는 게 없어요." (TA006)
"국악을 대중화하는 것은 좋지만 진정한 대중화라고 해야 할지... 우리가 어디 가서도 피아노 학원이나 합창단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국악은 아직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대에 서야만 돈을 벌고 활동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구조죠." (TA005)
"무대에 서는 것만이 돈을 벌고 활동을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다른 곳에서 활동할 기회가 없어요. 국악계가 정부 지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 모든 기금이 끊기면 10년 뒤에 과연 국악계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TA005)

4) 정부 지원의 한계

■ 전통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제한적이고, 대부분 특정 단체에 집중됨
■ 창작자들이 지원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정부는 더 투명한 지원과 평가 시스템을 제공해야 함

"지금 전통예술계에서 지원사업을 받는 방식은 정말 많아요. 하지만 경쟁률이 높아지고 중장기 프로젝트로 가면 이제 지원이 점점 더 어려워지죠. [...] 창작산실까지 가면 한 3년을 쉬어야 하고, 계속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구조가 문제예요." (TA006)
"전통예술 창작자들은 보통 지원금을 받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술을 창작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계속 경쟁이 심해지면 예술가들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TA006)
"지금 전통예술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정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지원이 점점 줄어들고 경쟁이 치열해지며 창작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TA006)

5) 창작과 전통의 경계 문제

■ 창작자들은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어야 하며, 전통과 창작의 경계를 허물어야 함
■ 전통 보존을 중시하는 규제와 창작의 자유 간의 균형이 필요
■ 창작된 작품이 전통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

"저는 창작과 전통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창작자들은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전통을 고수하는 규제가 너무 강하게 존재해서 그 경계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 창작과 전통의 경계를 허물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TA006)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창작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경계를 넘나들 때, 보존을 중시하는 규제와 창작자의 자유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죠. [...]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TA006)
"전통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창작자들이 전통과 창작의 경계를 넘을 때 어떤 규제와 충돌을 겪는지 자주 보게 됩니다. 창작자들이 전통을 새롭게 변형할 수 있도록 유연한 지원과 환경이 필요하죠." (TA006)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전통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지원 체계와 정책 마련

1) 창작자 및 전승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 전통과 창작을 구분하여 각기 다른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장기적인 창작 기반 지원과 전통예술 보존을 위한 정책이 필요
■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

"예술 창작자들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원금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기획서를 잘 써도, 공연이 잘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 지원사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TA006)
"국가의 지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지원 사업이 잘 부합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기획서와 실제 공연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 지원금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닌, 창작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중요합니다." (TA006)
"전통을 기반으로 하되 새로운 연주 기법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전통을 벗어나 새로운 창작을 한다는 건 창작자의 자유가 필요하며, 그것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TA006)

2) 지역 기반 전통예술 활성화 및 지원

■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문화재단과 협력 강화
■ 지역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예술 환경 마련
■ 지방 예술인들을 위한 공연 및 교육의 기회 확대

"지역마다 문화재단이 있어 예술인들이 음반 제작을 하고 음악 창작소를 만드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 예술인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 문화재단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A006)
"저희가 지방에서 활동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연습공간을 찾는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 지역 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연습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예술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재단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TA006)
"지방에서는 예술인들이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이 많아요. [...] 문화재단과 협력하여 예술인들이 창작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TA006)

[대상자7] 창작 분야

1. 일시

■ 2024년 10월 4일(금), 13:00 ~ 15:00

2. 장소

■ 대학로 예술극장 1층 회의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0길 17)

3. 참석자 명단

[표 2-7] 참석자 명단 [대상7] 창작 분야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1)	공공	TA-A			
참석자(n=1)	창작	TA007	남	50대	25년

4. 주요 논의 사항

■ 전통 예술 창작과 보존
- 전통과 창작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문제와 전통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는 접근법

■ 전통 예술의 교육 체계
- 국악과 전통 예술 교육의 문제점과 예술가의 경로, 창작자의 생계 문제

■ 예술 생태계와 자생력
- 예술 단체 운영과 자립적인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

■ 전통 예술과 대중화
- 전통 예술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 전통과 창작의 경계 문제

■ 정부 지원과 정책
- 전통 예술 분야의 정부 지원 한계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선 필요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전통예술 창작과 보존의 균형 문제와 현대적 접근

1) 전통예술 창작과 보존의 균형

■ 전통과 창작을 동시에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전통을 고수하면서 새로운 창작을 시도하는 것이 상충할 때가 있음
■ 전통과 창작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

"전통과 창작이 같이 공존하려면 이 부분도 조금 더 지켜줘야 될 만한 [...] 창작과 인정되는 부분이 악단에서 연주되는 단체에서 연주되는 것만 인정을 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야를 이 울타리 안에 말고 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내다 봤으면 좋겠고요" (TA007)
"전통을 고수하는 것과 창작을 시도하는 것의 균형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전통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창작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창작을 한다고 해서 전통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 우리가 전통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창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TA007)
"저는 균형이 사실 안 맞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이 되게 많죠 전통으로 그냥 뭐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전통에 취중해야 되는 게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시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하지만 창작을 한다는 것을 이제 창작은 제가 봤을 때는 창작문을 냈잖아요. 근데 그 전통도 옛날로 따지면 그때 창작한 거잖아요" (TA007)

2) 현대적 접근을 통한 대중화

■ 전통예술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이 필요
■ 대중 음악과의 결합 등을 통해 관심을 유도해야 함
■ 현대적인 접근을 통해 새로운 관객층을 유입할 수 있음

"저희는 이제 숙명처럼 전통 예술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은 제가 법무고 한다 그러면 법문고에 그게 12줄인가요 6줄인가요? [...] 이거를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이 하나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고민을 하며 전통예술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TA007)
"전통 예술을 대중화하려면, 전통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고, 예술을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내는 작업이 필요하죠. [...] 그게 결국 전통과 창작을 넘나드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TA007)
"전통예술을 저변 확대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어요. [...] 전통을 대중화하려면, 전통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변형하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TA007)

3) 예술과 생계 문제

■ 창작 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예술을 위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

■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

"예술을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공연을 올리려면 장비, 무대 세팅, 인건비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지원 없이는 감당하기 어렵죠. 지원금도 매번 보장되는 게 아니라 불안정하고, 결국 많은 예술가들이 다른 일을 병행하거나 생계를 위해 포기하기도 해요." (TA007)

"국공립 단체나 교수직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가 힘든 게 현실이에요. 후원을 받으려 해도 지속적이기 어렵고, 공연만으로 수익을 내는 것은 더 힘들죠. 그래서 공연 외에도 음원 발매, 기업 행사 초청 공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해요." (TA007)

"예술 활동이 직업이 되려면 지속 가능한 구조가 필요해요. 그런데 민간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은 항상 경제적 어려움과 싸우며 생존해야 하죠. [...] 예술을 지원하는 제도는 많지만, 정작 예술가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은 부족한 것 같아요." (TA007)

나. 생태계 이슈

전통예술 생태계 위기 및 정부 지원의 한계

1) 창작자 생계 문제

■ 전통예술 창작자들은 대부분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음
■ 자생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
■ 창작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시급

"전통예술 창작자로서 가장 어려운 점은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에요. 공연을 올리기 위해선 기본적인 장비, 무대 세팅, 인건비까지 감당해야 하지만,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대부분의 창작자가 지원금에 의존하는데, 그마저도 매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늘 불안정한 상태예요." (TA007)
"공연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에요. 국공립 단체에 들어가거나 교수직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가 어렵고, 후원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창작자들은 다른 일을 병행하거나 아예 예술 활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TA007)
"창작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요. [...] 예술을 지원하는 정책은 많지만, 정작 창작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생계를 유지할 기반은 부족한 것 같아요. 공연 외에도 다양한 수익 창출 방법을 고민하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죠." (TA007)

2) 지역 기반 예술의 어려움

■ 지방 예술인들은 서울 등 대도시와의 격차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예술 환경 마련 필요
■ 지방 문화재단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

"지방에서 예술 활동을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공연 기회도 적고, 지원금도 서울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에서는 예술을 지속적으로 할 기반이 부족하다 보니 많은 창작자들이 결국 서울로 이동하거나 다른 일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TA007)
"서울과 대도시에서는 다양한 공연장과 네트워크,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지방은 선택지가 제한적이에요. 예술가로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하니까 지역에서는 계속 인력이 유출되는 거죠.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합니다." (TA007)
"지방 문화재단과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어요. 지역 예술가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단순한 프로젝트성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해요. [...] 지역 기반의 예술이 활성화되려면 단기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네트워크와 협력 체계가 마련되어야 해요." (TA007)

3) 전통예술 저변 확대 부족

■ 전통예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낮고, 새로운 관객층을 유입하는 데 어려움
■ 전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고, 대중적 관심을 끌어야 함
■ 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접근법을 통해 전통예술의 접근성을 높여야 함

"전통예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너무 낮아요. 공연을 해도 관객이 적고, 홍보도 쉽지 않다 보니 늘 같은 사람들이 보는 구조가 반복돼요. 새로운 관객층을 유입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전통예술이 특정한 사람들만 즐기는 문화가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해요." (TA007)
"전통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시도가 더 많아져야 해요. 대중이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공연 형식도 바뀌어야 하고, 국악이나 전통예술이 지루하다는 인식을 깨야 하죠. 최근 몇몇 시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전통예술을 접할 기회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낮아서 쉽게 관심을 끌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TA007)
"체험 프로그램 같은 접근법이 더 활성화돼야 해요. 직접 악기를 연주해보거나, 무대 뒤에서 전통 공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하죠. [...] 단순히 공연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전통예술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해요." (TA007)

4) 정부 지원의 한계

■ 전통예술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제한적이고, 대부분 특정 단체에 집중됨
■ 창작자들이 지원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생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정부는 더 투명한 지원과 평가 시스템을 제공해야 함

"정부 지원이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창작자는 많지 않아요. 대부분 특정 단체나 기관에 집중되고, 개별 창작자들이 지원을 받기는 쉽지 않죠. 지원이 있어야 공연을 올릴 수 있는 구조인데, 이마저도 경쟁이 치열하고 매번 불확실하다 보니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TA007)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어요. 공연 수익만으로 운영이 어렵고, 다른 수익 모델을 만들려 해도 기반이 부족해요. [...] 단기적인 지원이 아니라 창작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TA007)
"정부 지원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해요. 지금은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같은 단체에 반복적으로 지원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어요. 다양한 창작자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원 과정이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어요." (TA007)

5) 창작과 전통의 경계 문제

■ 창작자들은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어야 하며, 전통과 창작의 경계를 허물어야 함

■ 전통 보존을 중시하는 규제와 창작의 자유 간의 균형이 필요

■ 창작된 작품이 전통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

"전통예술을 한다고 하면 보존과 계승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데, 창작을 하려면 이 틀을 벗어나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전통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크다 보니 자유롭게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돼요. 창작자들은 전통의 틀 안에서만 작업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게 되죠." (TA007)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규제와 창작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필요해요. 지금의 전통예술 지원은 보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창작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지원받기가 더 어렵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이게 전통이냐'라는 비판을 받고, 전통을 그대로 하면 '지루하다'는 평가를 받으니 늘 그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TA007)

"창작된 작품이 전통과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 현대적인 해석을 통해 전통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돕는 구조가 마련된다면, 전통과 창작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예요." (TA007)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전통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정책 마련

1) 창작자 및 전승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

■ 전통과 창작을 구분하여 각기 다른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장기적인 창작 기반 지원과 전통예술 보존을 위한 정책이 필요
■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

"전통예술에서는 전승과 창작이 혼재되어 있지만, 지원 정책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전통을 계승하는 전승자와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창작자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지원 체계가 필요해요. 현재의 지원 방식은 창작자들에게는 제한적이고, 전승자들에게는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예요." (TA007)
"전통예술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작 기반을 마련하는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해요. [...] 단기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에요." (TA007)
"정부와 공공기관이 전통예술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해요. 현재는 일회성 지원이 많고, 특정 단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개별 창작자들이나 전승자들이 꾸준히 활동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전통과 창작이 균형을 맞추며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TA007)

2) 지역 기반 전통예술 활성화 및 지원

■ 지역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 문화재단과 협력 강화
■ 지역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예술 환경 마련
■ 지방 예술인들을 위한 공연 및 교육의 기회 확대

"지방에서 전통예술을 지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요. 공연 기회도 적고, 지원금도 서울과 비교하면 규모가 작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하려면 지방 문화재단과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해요. 지역에서 창작과 공연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TA007)
"지역에서 예술을 한다는 건 창작뿐만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는 문제와도 직결돼 있어요. 많은 지역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기반이 부족해서 결국 서울 등 대도시로 이동하거나 아예 활동을 접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에서도 꾸준히 창작할 수 있도록 공연장, 연습 공간, 지원 프로그램 등 예술 환경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해요." (TA007)
"지방 예술인들에게도 다양한 공연 및 교육 기회가 확대되어야 해요. [...] 현재는 지역 기반의 전통예술 교육이나 체험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결국 수도권으로 가야만 배울 수 있는 구조예요. 지역에서도 전통예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공연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어요." (TA007)

3) 디지털 접근을 통한 전통예술의 현대적 소비

■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전통예술의 현대적 소비 방법 도입

■ SNS와 유튜브 등 미디어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대중의 관심을 끌어야 함

■ 전통예술의 교육 콘텐츠와 체험 활동을 통해 전통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함

"전통예술이 현대적으로 소비되려면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해요. 지금까지는 공연장에서만 전통예술을 접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해요. 전통예술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 더 필요합니다." (TA007)

"SNS나 유튜브 같은 미디어 채널을 활용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기존 방식으로는 새로운 관객층을 유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전통예술의 매력을 알리고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이 중요해요. [...] 전통예술도 다양한 포맷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TA007)

"교육 콘텐츠와 체험 활동을 디지털화하면 접근성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 온라인에서 전통 악기 연주법을 배우거나, 가상현실(VR)로 전통 공연을 체험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전통예술을 더욱 쉽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TA007)

[대상자8] 창작 분야

1. 일시

■ 2024년 10월 7일(월) 11:00 ~ 13:00

2. 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3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3)

3. 참석자 명단

[표 2-8] 참석자 명단 [대상자8] 창작 분야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2)	공공	TA-A			
	공공	TA-B			
참석자(n=1)	창작	TA008	여	50대	46년

4. 주요 논의 사항

■ 전통예술 분야 지원 체계 및 창작자 현황
■ 교육 및 후속 세대 양성 문제
■ 국악 및 전통예술 생태계 개선 방안
■ 전통예술과 현대적 협업
■ 디지털 및 미디어 활용
■ 전통예술 지원사업 및 재원 문제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전통예술 창작 및 교육 환경의 변화

1) 전통예술 교육과정의 변화

■ 전국 예술고 및 대학에서 전통예술 관련 교육과정이 변화하고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 간 교육 기회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연극영화과와 뮤지컬과가 통합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창작자 양성을 위한 전문 과정이 부족한 상황임

"전국적으로 예술고등학교에서 전통예술 교육을 포함하는 커리큘럼이 변화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통예술만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과정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연극영화과나 뮤지컬과 안에서 일부 전통예술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환경 차이도 심해서 지방에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가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TA008)

"요즘 연극영화과와 뮤지컬과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특히 뮤지컬 시장이 커지면서 연극영화과에서도 뮤지컬 수업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죠. 하지만 전통예술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적어서 창작자 양성을 위한 전문 과정이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TA008)

"창작자를 키우려면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런 환경이 충분하지 않아요. 예술대학에서도 전통예술보다는 현대적인 공연예술 중심으로 바뀌면서 학생들이 전통예술을 깊이 있게 배울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TA008)

2) 창작자의 활동 여건

■ 창작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와 지원 체계가 부족한 현실이며, 기존 예술기관 중심의 공연 기획에 의존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음

■ 개인 창작자가 자생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국립 및 공공기관의 지원도 한정적임

"창작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제한적이에요 공연을 기획하려 해도 대부분 국공립 예술기관이 중심이 되다 보니 개인 창작자가 독립적으로 무대를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원 체계도 기관 위주로 운영되어서 신진 창작자들이 직접 공연을 기획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TA008)

"공연을 하려면 공간이 필요하고, 그 공간을 운영하려면 재정 지원이 따라야 해요 그런데 현재 지원 체계는 국립이나 공공기관 중심으로 짜여 있어서 개인이 공연을 올리려면 민간 극장을 대관해야 하는데, 대관비 부담이 크고 지원도 제한적이에요 이러다 보니 개인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작품을 발표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TA008)

"독립적인 창작자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기에는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특히 지방에서는 공연을 기획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적고, 국공립 극장에서도 자체 기획 공연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개인 창작자들이 설 무대가 거의 없어요 지원금도 대부분 기관을 통해 배분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TA008)

3) 국악과 현대예술의 접목

■ 판소리와 오페라, 성악 등의 융합을 시도하는 창작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과 현대 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음

■ 보수적인 국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며,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음

"판소리와 오페라, 성악 같은 다른 장르를 접목하는 시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전통을 기반으로 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면서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는 작업들이 늘어나고 있죠 저도 오페라 형식의 창작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국악적인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더 넓은 청중에게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봤어요" (TA008)

"전통과 현대 음악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여전히 보수적인 시각이 강해요 전통예술은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 보니 새로운 시도를 하면 비판받는 경우가 많아요 창작을 한다고 하면 '그건 판소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이런 분위기에서는 자유로운 창작 활동이 어렵습니다" (TA008)

"국악계 내부에서는 전통의 틀을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있어요 창극도 현대적인 연출을 시도하면 원형이 훼손된다고 비판받고, 다른 장르와 협업하면 국악 고유의 색이 사라진다는 우려가 나오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창작자들이 스스로 검열하게 되고, 하고 싶은 작업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TA008)

나. 생태계 이슈

전통예술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적 문제

1) 국악 교육 및 후속 세대 양성의 어려움

■ 국악 및 전통예술 교육이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여 학습 환경이 제한적임

■ 전문 강사진의 부족으로 인해 체계적인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에 따라 전통예술 후속 세대의 양성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

"국악 및 전통예술 교육이 수도권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지방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지방에서도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수도권으로 올라와야 하는 현실이에요 교육 인프라가 지역별로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TA008)

"전문 강사진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전통예술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많지 않아서 교육의 질이 들쭉날쭉해요 지방에서는 특히나 이 문제가 심각해서, 제대로 된 사사 과정을 밟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후속 세대를 양성하는 과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국악을 전공하려는 학생들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TA008)

"국악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그런 기회가 적어요 지역에서는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도 한정적이고, 배울 수 있는 과정도 제한적이라서 결국 수도권으로 나가야 한다는 게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후속 세대를 제대로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TA008)

2) 전통예술인의 직업 안정성 부족

■ 전통예술인들의 고용 불안정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창작자 및 연출자의 처우가 열악하여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실정임

■ 국립예술기관 및 지자체에서 정규직 채용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프리랜서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임

"전통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해요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 지속적으로 예술 활동을 이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창작자나 연출자의 경우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 공연이 끝나면 바로 다음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수입도 일정하지 않아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TA008)

"국립예술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정규직 채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국립단체에 들어가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정규직보다 계약직이나 비상임 형태로 뽑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예술인들이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프리랜서로는 지속적인 창작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TA008)

"연극이나 클래식 음악 같은 다른 예술 분야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지만, 전통예술 쪽은 특히 더 심각해요 전통예술인들은 공연 기회도 많지 않고, 창작 활동을 위한 지원도 부족한데, 고용까지 불안정하다 보니 결국 생활을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전통예술을 전업으로 하는 인력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TA008)

3) 정부 지원 사업의 비효율성

■ 전통예술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창작자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금 배분 방식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전통예술 지원 사업이 있지만, 정작 실질적인 창작자들에게까지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지원을 받으려면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대형 단체나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개별 창작자들이 직접 지원받기는 어려운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 소규모 단체나 독립적인 예술가들은 지원받기가 힘들고, 결국 자비로 창작을 이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TA008)
"지원금 배분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특정 단체나 기관이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고, 신진 창작자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요 객관적인 심사 기준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인맥이나 기존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금이 배분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하는 창작자들이 성장할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TA008)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사업이 창작자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맞춰 기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창작과 연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개별 예술인들은 행정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서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결국 지원금이 일부 단체에 집중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TA008)

4) 전통예술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 부족

■ 유튜브,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전통예술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며, 전통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관련 지원이 미흡하고 있으며,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부족한 현실임

"전통예술을 알리기 위해 유튜브나 SNS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상황이에요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지 않고, 기존의 홍보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도 기획 단계부터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워서 대부분 개인이 알아서 운영하는 식입니다" (TA008)
"전통예술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 개발이 필수적이에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부족하고, 창작자들이 직접 기획부터 촬영, 편집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일부 관심 있는 예술인들만 시도하는 수준이고, 지속적인 홍보 채널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TA008)
"관련된 지원이 미흡한 것도 문제지만,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큰 문제예요 국악이나 전통예술을 다룰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전문가가 거의 없고, 예술인들이 직접 플랫폼을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결국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전통예술 전문 채널이 많지 않아서, 대중들에게 노출될 기회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TA008)

5) 해외 진출 기회의 부족

■ 전통예술 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의 해외 진출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미비한 상태임

"전통예술의 해외 진출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해외에서 한국 전통예술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개별 예술인이나 단체가 해외 공연을 추진하려 해도 비용 부담이 크고,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실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TA008)

"전통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해외에서 운영되는 경우가 있지만, 지속적인 지원이 부족해요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워크숍이나 행사 위주라서 정착하기 어렵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전통예술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해외 교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TA008)

"해외에서 전통예술을 소개할 기회가 있을 때도 대규모 단체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다양한 창작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가기 어려워요 독립적인 예술가들이 해외 진출을 시도하려면 공식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체계적인 전략이 미비해서 개인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TA008)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창작자 지원 확대 및 디지털·해외 진출 강화

1) 창작자 지원 정책 확대

■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국악 및 전통예술 창작자를 위한 별도의 공공펀드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창작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하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지금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어요 현재 지원 제도는 대규모 단체나 특정 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개별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창작을 이어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국악 및 전통예술 창작자를 위한 별도의 공공펀드가 마련된다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TA008)

"단기적인 프로젝트 지원만으로는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워요 창작 활동은 지속적인 과정이 필요한데, 현행 지원 방식은 한 번의 공연이나 발표를 위한 지원이 많아서 그 이후의 활동을 이어가기 힘든 구조예요 장기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작업을 이어갈 수 있고, 전통예술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A008)

"창작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해요 지금은 행정 절차가 복잡해서 창작 활동보다 서류 작업에 시간을 더 쓰는 경우도 많고, 심사 기준이 모호한 경우도 있어서 지원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들이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A008)

2) 교육 인프라 확충 및 지역 균형 발전

■ 수도권 중심의 전통예술 교육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예술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져야 함

■ 지방 국악 교육기관 및 대학과 협력을 강화하여 창작자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됨

"전통예술 교육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서 지방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역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지만, 현재는 교육기관과 강사진이 부족해서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역에서도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예술교육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TA008)
"지방의 국악 교육기관과 대학들이 더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해요 현재는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지역에서 국악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방 대학과 교육기관이 창작자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합니다" (TA008)
"수도권과 지방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려면 단순히 시설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지역에서도 우수한 강사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어야 하고, 국악 교육기관과 대학이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창작자를 배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지방에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결국 전통예술 분야의 인재 유출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TA008)

3) 전통예술의 디지털 및 글로벌화 추진

- ■ 전통예술의 대중화 및 해외 진출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지원이 필요하며, 유튜브, 온라인 스트리밍, 글로벌 공연 협력 등을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이 요구됨
- ■ 국악 및 전통예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젊은 층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략적인 기획이 필요함

"전통예술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 지원이 필수적이에요 단순한 기록 차원의 영상이 아니라,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튜브나 온라인 스트리밍을 활용한 기획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일부 예술인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전통예술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을 거예요" (TA008)
"해외 시장에서도 전통예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글로벌 공연 협력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접근이 확대되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거예요 단발적인 해외 공연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외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TA008)
"전통예술이 젊은 층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지려면 현대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지금의 감각에 맞게 풀어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기획 단계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전통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전통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기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TA008)

[대상자9] 창작 분야

1. 일시

■ 2024년 10월 10일(목) 13:00 ~ 15:00

2. 장소

■ 대학로 예술극장 1층 회의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0길 17)

3. 참석자 명단

[표 2-9] 참석자 명단 [대상자9] 창작 분야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2)	공공	TA-A			
	공공	TA-B			
참석자(n=1)	창작	TA009	남	50대	25년

4. 주요 논의 사항

■ 전통 예술 창작과 보존
- 전통과 창작의 균형 유지
- 전통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는 접근법 필요

■ 전통 예술의 교육 체계
- 국악 및 전통 예술 교육의 문제점
- 예술가 경로 및 창작자의 생계 문제 해결 필요

■ 예술 생태계와 자생력
- 예술 단체 운영의 자립적 생태계 조성 중요

■ 전통 예술과 대중화
- 전통 예술의 대중화 및 저변 확대 필요
- 전통과 창작의 경계 문제

■ 정부 지원과 정책
- 정부 지원 한계와 정책 개선 필요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전통 예술 창작의 교육 및 지원 구조

1) 창작 예술 교육의 부재와 문제점

■ 전통 예술 교육에서 창작 과정이 포함되지 않아 졸업 후 창작 활동이 어려운 현실

■ 창작 음악을 시도하는 졸업생들이 체계적인 교육 없이 밴드 활동 중심으로 접근하는 한계

■ 일부 대학에서 창작 교육 시도를 하지만,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

"출신 전공자들이 저희 때랑 지금이랑 학교에서 배우는 게 똑같아요. 전통이라서 더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졸업하면 창작 음악을 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창작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 결국 사회에 나가면 창작을 해야 하는데 경험도, 학습도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너무 불공평한 거죠." (TA009)

"퓨전 국악 밴드들이 많이 생긴 이유도 창작을 쉽게 접근할 방법이 그거뿐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창작 과정이 없으니 음악이 비슷해지고, 유행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흘러가요. [...] 본인 색깔을 찾기도 전에 행사 시장으로 가거나 아예 다른 장르로 전향하는 경우도 많아요." (TA009)

"창작 교육을 시도하는 대학도 있지만, 체계가 자리 잡기 어려워요. 작곡과 학생들과 협업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작곡 전공자도 많지 않아요. 결국 학생들이 창작을 하려면 졸업 후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울 수밖에 없어요." (TA009)

2) 창작 음악과 전통 예술의 관계

■ 전통 음악의 보존과 창작 음악의 발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필요성

■ 창작 음악이 전통 음악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창작의 중요성 강조

"전통을 기반으로 창작을 한다는 게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과거에는 전통과 창작이 반대 개념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죠. 전통을 기반으로 창작 음악을 한다는 건 단순히 전통 요소를 차용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현대적인 감각과 시대성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TA009)

"전통 음악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작을 통해 현대적인 해석을 더해야 지속 가능성이 생긴다고 봐요. 과거의 전통 음악도 사실 당시에는 창작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변화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요. 전통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는 것도 의미 있지만, 창작을 통해 전통이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TA009)

"창작 음악이 전통 음악의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저는 그 정체성이 고정된 게 아니라 시대와 함께 변화하는 거라고 봐요. 전통적인 다섯 음계나 장단을 기반으로 하든, 전혀 새로운 접근을 하든, 결국 전통 음악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풀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대중과 소통하면서도 전통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죠." (TA009)

3) 창작 예술가들의 진로 및 활동 방식

■ 창작 음악가들이 지원 사업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자생력이 약함

■ 지원금 외의 수익 구조(공연, 음원 등)가 한정적이며,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움

■ 일부 창작자들은 기업 후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사례가 적고 지속 가능성이 낮음

"해외 어느 나라를 가도 우리나라만큼 전통과 창작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잘 되어 있는 곳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 지원에 너무 의존하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결국 창작자들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 지원 사업이 창작의 가장 큰 기반이 되어버리면서, 자생력이 약해지는 현실이 고민입니다." (TA009)

"창작 음악을 지속하려면 결국 공연이나 음원으로 수익을 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티켓 수익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음원 시장에서도 국악 기반 창작 음악이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렵죠. [...] 창작을 계속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결국 지원 사업이 가장 안정적인 재원이 되는데, 이게 창작자들에게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TA009)

"운 좋게 기업 후원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이런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기업 입장에서도 후원한다고 해서 직접적인 수익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 과거에 해외 기업 후원을 받아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기회가 계속 이어지기는 어렵더라고요. 기업 후원이 창작자들의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지속 가능한 모델은 아니라고 봐요." (TA009)

나. 생태계 이슈

전통 창작 예술 생태계의 도전과 과제

1) 창작 지원 사업의 의존성과 한계

■ 정부 및 공공 기관의 지원 사업이 창작자들에게 주요 재원이지만, 정산 및 행정 절차가 까다로움

■ 자부담 요구 및 행정 절차 부담으로 인해 창작자들이 지원을 포기하는 사례 증가

"우리나라만큼 창작을 위한 지원 사업이 많은 나라도 드물지만, 문제는 그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거예요. 창작자는 예술을 해야 하는데, 지원 사업을 신청하려면 행정 업무까지 다 챙겨야 하죠. [...] 정산이 특히 어려운 부분인데, 몇 만 원짜리 영수증 하나까지 다 첨부해야 하고, 잘못하면 반려되거나 환수 조치까지 당할 수도 있어요. 창작보다 정산 걱정을 더 많이 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합니다." (TA009)

"지원금을 받는 것 자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신청 과정부터 복잡하고, 서류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심지어 선정된 후에도 정산이 너무 까다로우니까 차라리 신청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아요. [...] 행정 부담이 너무 크니까, 기획사에 맡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또 예산의 상당 부분이 기획 비용으로 나가게 되죠." (TA009)

"자부담도 창작자들에게는 큰 부담이에요. 예를 들어 지원금 5천만 원을 받으려면 10~20%는 자부담을 해야 하는데, 창작자 개인이 그만한 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거든요. 결국 창작을 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 지원을 받더라도, 정산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창작보다 행정 처리가 더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TA009)

2) 후속 세대의 창작 유입 부족

■ 전통 예술 전공 졸업생이 창작 활동을 지속할 동기와 기회 부족

■ 창작 교육이 부재한 상태에서 기존 팀에 합류하거나 독립적으로 창작 활동을 시작하기 어려움

"전통 예술 전공 졸업생들이 창작을 계속할 동기가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졸업 후에도 창작을 하려면 자원이 필요하고, 네트워크도 필요하지만, 그런 환경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요. [...] 결국 졸업 후 안정적인 길을 찾다 보면 창작보다는 연주자로 활동하거나 아예 다른 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TA009)

"창작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졸업 후에는 창작을 독립적으로 이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 그러다 보니 기존의 밴드나 창작 팀에 합류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안에서도 창작을 주도하기보다는 연주자로 역할이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결국 창작자로 성장할 기회가 제한되는 거죠." (TA009)

"전통 음악을 전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창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졸업 후에는 창작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고, 실제로 지원 사업도 대부분 창작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문제는 학교에서 창작을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는 거죠. [...] 창작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졸업하고 나면 당장 뭔가 만들어야 하는 현실이 괴리감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TA009)

3) 기획·행정 역량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 창작자들이 기획 및 행정 업무까지 맡아야 하는 현실로 인해 창작에 집중하기 어려움

■ 기획사에 외주를 맡길 경우 수익의 상당 부분이 기획 비용으로 소모됨

"창작자들이 예술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지원금을 받으려면 기획서부터 예산 계획, 정산까지 직접 해야 하고, 공연을 올리려면 섭외부터 홍보까지 다 신경 써야 하죠. [...] 결국 창작보다는 행정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되고, 창작에 집중할 수 없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어요." (TA009)

"기획사에 맡기면 편하긴 하지만, 문제는 비용이에요. 보통 기획사가 예산의 20~30%를 가져가는데, 창작자 입장에서는 그 비용이 너무 크죠. [...] 창작자들이 직접 기획을 하려면 행정 절차를 다 배워야 하고, 기획사에 맡기자니 수익이 줄어드니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TA009)

"결국 공연을 준비할 때 창작자는 음악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무대 디자인, 홍보, 티켓 판매까지 다 챙겨야 해요. [...] 기획사 없이 하려면 모든 걸 직접 해야 하고, 기획사에 맡기면 수익이 줄어드니 창작자들에게는 어느 쪽도 쉽지 않은 선택이죠." (TA009)

4) 창작팀의 지속 가능성 문제

■ 공연 시장의 한계로 인해 창작팀이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움

■ 창작팀이 3~5년 이상 유지되는 경우가 드물며, 팀원들의 개별 활동 증가로 해체되는 경우 많음

"창작팀을 꾸려서 활동을 시작해도 3~5년 이상 유지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초반에는 지원 사업이나 몇몇 공연을 통해 활동을 이어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 결국 팀원들이 각자 생계를 위해 개별 활동을 늘리면서 자연스럽게 팀이 와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TA009)

"공연 시장이 워낙 한정적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무대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해요. 한 작품을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안 되고, 공연이 끝나면 다시 지원금을 받아야 하는 구조라서 팀이 꾸준히 활동하기 어려운 거죠. [...] 장기적으로 공연을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보니 팀을 유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TA009)

"국악 기반 창작팀들은 대중적으로 자리 잡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 시간을 버티는 게 쉽지 않아요. [...] 결국 버티지 못하고 해체되거나, 몇몇 멤버가 남아 개인 활동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요. 창작팀을 오래 유지하려면 공연 기회가 꾸준해야 하고, 수익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둘 다 부족한 상황이에요." (TA009)

5) 전통 창작 음악의 대중화 어려움

■ 전통 음악 기반 창작 음악의 대중적 확산이 어려우며, 기존 국악에 대한 인식 변화가 더딤

■ 비슷한 음악 스타일이 반복되며 창작적 다양성이 부족한 현실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창작 음악을 해도 대중적으로 확산되기가 쉽지 않아요. 국악이라는 장르 자체가 여전히 특정한 이미지로 고정되어 있어서, 창작 음악을 해도 국악은 어렵다는 인식이 남아 있죠. [...] 대중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 공연을 해도 관객층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TA009)

"창작 음악이 다양하게 시도될 필요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비슷한 스타일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기존에 국악 기반으로 성공한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지원 사업이나 기획 단계에서도 안전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요. [...] 그러다 보니 창작자들도 새로운 시도를 하기보다는 기존 틀 안에서 변주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고, 창작의 폭이 넓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TA009)

"대중들은 국악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방송에서도 국악 기반 창작 음악이 나오기 어렵고, 공연 시장도 제한적이니까 자연스럽게 친숙해질 기회가 부족한 거죠. [...] 결국 대중적으로 확산되지 못하다 보니, 창작자들도 국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음악을 시도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방식을 답습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TA009)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창작자 지원 체계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

1) 창작 교육 강화 및 전문 교육 과정 도입

■ 대학 및 공공 기관에서 창작 교육 과정 개설 필요

■ 창작자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커리큘럼 마련 및 실무 경험 제공

"학교에서도 창작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졸업 후에 창작을 하려면 스스로 배우거나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창작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곡을 쓰는 방법이나 음악적 구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가르쳐주는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없다는 게 문제죠. [...] 결국 창작을 하려는 사람들은 따로 배워야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TA009)

"창작자 양성을 위해서는 단순히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게 중요해요. 실제 공연 제작 과정이나 음원 유통, 팀 운영 같은 것들을 배울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죠. [...] 창작을 배우더라도 실무 경험이 없으면 결국 현장에서 겪는 시행착오가 많아지고, 그 과정에서 창작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밖에 없어요." (TA009)

"공공 기관에서도 창작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개별적인 창작 워크숍이나 멘토링 프로그램 정도는 있지만, 전반적인 커리큘럼이 부족해요. [...] 창작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기초부터 실무까지 연결되는 교육 과정이 마련되면, 창작자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TA009)

2) 창작 지원 사업의 절차 개선

■ 지원 사업의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창작자 친화적인 정책 필요

■ 지원금 활용 범위 확대 및 자부담 완화 정책 검토

"지원 사업이 창작자들에게 중요한 재원이지만,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서류 작성부터 정산까지 너무 까다롭다 보니까, 창작자들이 예술보다 행정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하는 현실이죠. [...] 지원 사업이 창작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오히려 지원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TA009)

"지원금을 받아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 장비나 스튜디오 대여 같은 필수적인 부분에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규정상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 창작 과정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이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TA009)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면서 창작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고 있어요. 특히 신진 창작자나 소규모 단체들은 자부담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죠. [...] 자부담 기준을 완화하거나, 창작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봐요." (TA009)

3) 창작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재정 모델 개발

■ 민간 후원 및 기업 협력 프로그램 확대

■ 창작자들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공연 및 음원 유통 지원

"지금 창작자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공연이나 음원만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결국 정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 장기적으로 보면 민간 후원이나 기업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창작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TA009)

"기업 후원을 받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기업들도 문화예술 후원에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모델이 부족한 것 같아요. [...] 단순한 일회성 후원이 아니라, 기업과 창작자들이 지속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TA009)

"결국 창작자들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연 기회가 제한적이고 음원 유통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공연 시장이 작다 보니까 자주 무대를 올리기 어렵고, 음원도 대중적으로 확산되기가 쉽지 않죠. [...] 공연 및 음원 유통을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된다면, 창작자들이 보다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거예요." (TA009)

[대상자10] 창작 분야

1. 일시

■ 2024년 10월 31일(목) 13:00 ~ 15:00

2. 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3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3)

3. 참석자 명단

[표 2-10] 참석자 명단 [대상자10] 창작 분야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2)	공공	TA-A			
	공공	TA-B			
참석자(n=1)	창작	TA010	남	20대	10년

4. 주요 논의 사항

■ 전통 예술 창작과 보존
-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창작의 영역을 확장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
- 전통 예술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접근법과 실험적 시도

■ 전통 예술의 교육 체계
- 국악 및 전통 예술 교육의 구조적 문제와 창작자의 성장 경로
- 창작자의 생계 문제와 교육 과정과의 연계 필요성

■ 예술 생태계와 자생력
- 전통 예술 창작자와 단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 문제
- 예술 생태계를 자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방안

■ 전통 예술과 대중화
- 전통 예술의 향유층 확대와 대중성과의 접점 문제
- 전통 예술이 특정 행사·축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

■ 정부 지원과 정책
- 신작 발표 위주의 지원사업 한계를 극복하고 재연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 필요
- 전통 예술 창작자의 해외 진출과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전통 예술 창작과 교육의 공존

1) 전통 예술 교육과 창작 환경

■ 전통 예술 교육은 정규 학위 과정과 민간 교육이 공존하며 운영
■ 예술고등학교 및 대학에서의 전통 예술 교육은 연극·영화·음악과 융합되는 경향
■ 전통 예술 창작자가 되는 과정이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독립적인 전공 개설이 적음

"전통 예술 교육이 정규 학위 과정으로도 운영되지만, 민간에서도 창작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술고등학교나 대학에서는 국악이 연극, 영화, 음악과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다양한 매체에서 활동할 기회를 가지려고 하고, 교육 과정에서도 그런 점을 반영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TA010)
"사실 전통 예술 창작자가 되는 과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서양음악은 커리큘럼이 비교적 명확한데, 국악 쪽은 개별적인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전공을 정할 때 선택지가 제한적이었고, 결국 서양 작곡을 전공하면서 국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가게 됐어요." (TA010)
"전통 예술 분야에서 독립적인 창작 전공이 개설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국악 전공도 보통 연주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창작자를 체계적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는 작곡가들이 개인적으로 국악과 협업하면서 창작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고, 학위 과정 내에서 전통 음악 작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은 극히 적어요." (TA010)

2)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의 결합

■ 서양 작곡을 전공한 창작자들이 국악기를 활용한 현대적 창작을 시도
■ 국악 전공자들의 경우에도 현대 음악적 요소를 융합하는 경향이 증가
■ 국악기가 가진 특성을 현대적 작곡 기법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이 활발

"서양 작곡을 전공하면서도 국악기를 활용한 곡을 쓰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저도 처음에는 서양 악기 중심으로 작곡을 했지만, 해금을 전공한 경험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국악기와 서양 작곡 기법을 결합하는 시도를 하게 됐죠. 국악기를 활용하면 음색이 독특하고 표현이 확장될 수 있어서 매력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해요." (TA010)
"국악을 전공한 분들도 현대 음악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연주하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전자음악과 결합하거나 서양 악기와 협연하는 방식으로 확장하려는 시도가 많아졌죠. 국악과 현대 음악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방향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TA010)
"국악기가 가진 특성을 현대적 작곡 기법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이 활발합니다. 예를 들어, 가야금이나 해금 같은 악기는 전통적인 주법이 있지만, 이를 현대 음악적 해석으로 변형하면 전혀 다른 색깔이 나오거든요. 단순한 융합이 아니라 국악기만이 가진 소리를 새로운 음악적 문법으로 풀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A010)

3) 창작 지원과 공연 생태계

■ 창작곡 위주의 지원사업이 많아 신작 발표 중심의 창작 환경이 조성됨

■ 기존 창작곡의 재공연(재연) 기회 부족으로 작품의 지속 가능성이 낮음

■ 독주회 및 소규모 공연을 중심으로 창작자들이 활동하며, 국악계의 창작 활성화는 개별 창작자와 단체의 역량에 따라 달라짐

"현재 지원사업이 대부분 신작 발표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창작자들은 새로운 곡을 계속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있어요. 기존에 발표된 곡을 다시 공연할 기회는 거의 없고, 새 작품이 아니면 지원받기 어려운 구조라서 작품이 장기적으로 살아남기 힘든 환경이죠. 한 번 공연되고 사라지는 곡이 많아지는 게 아쉽습니다." (TA010)

"기존 창작곡이 다시 연주되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독주회나 앙상블 공연을 기획할 때도 늘 신작 위주로 프로그램을 짜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한 곡이 지속적으로 공연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연주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곡을 배우고 준비하는 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 많은 창작곡이 초연 이후에 묻혀버리는 현실입니다." (TA010)

"국악 작곡은 독주회나 소규모 공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창작 활동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개별 창작자와 단체의 역량에 달려 있어요. 안정적인 재연 기회나 레퍼토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보니, 개별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공연 기회를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창작자의 개인적인 노력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라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TA010)

나. 생태계 이슈

전통 예술 창작과 연주의 지속 가능성 문제

1) 위촉 중심의 창작 환경

■ 전통 예술 작곡은 위촉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며, 특정 연주자나 단체에 의해 단발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 재연이 어렵고, 한 번 사용된 곡이 다시 연주될 기회가 적음

■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위한 경제적 안정성이 부족

"전통 예술 작곡은 대부분 위촉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개인 연주자나 단체가 특정 공연을 위해 작곡을 의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보니, 곡이 단발적으로 사용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연주 기회가 한정적이라서 한 곡이 여러 번 연주될 가능성이 낮고,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작품을 발표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TA010)

"재연이 어려운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공연을 위해 한 곡을 새롭게 만들고 나면, 그게 다시 연주될 기회는 거의 없어요. 작곡가 입장에서도 기존에 발표한 곡을 다시 무대에 올릴 방법이 없어서, 결국 계속 새로운 곡을 쓰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계속 신작만 발표해야 하는 환경이 장기적으로 창작을 유지하는 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TA010)

"전통 예술 작곡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려면 경제적인 안정성이 필요한데, 지금 구조에서는 그게 쉽지 않아요. 위촉곡을 받아도 작곡료만으로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렵고, 작품을 여러 번 공연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도 부족하죠. 결국 다른 일을 병행하거나, 교육과 병행하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A010)

2) 전통 예술 창작자들의 생계 문제

■ 작품 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창작자가 극히 드묾

■ 대다수 창작자들이 교직, 개인 레슨, 연주 활동 등을 병행하며 생계를 유지

■ 국악 창작자가 서양 작곡을 겸하거나, 다른 분야의 활동을 병행하는 사례 증가

"작품 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창작자는 거의 없어요. 국악 작곡가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려면 연주 기회가 많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공연이 단발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재연 기회도 부족하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작만으로 생활하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해요." (TA010)

"대부분의 창작자들은 교직을 겸하거나 개인 레슨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요. 저 역시 작품 활동만으로는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어려워서 연주 활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창작자로서 온전히 작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국 많은 분들이 다른 직업과 병행하면서 창작을 이어갈 수밖에 없어요." (TA010)

"국악 작곡가들도 점점 서양 작곡을 병행하거나, 전통 음악과 다른 분야를 융합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확장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저도 서양 작곡을 전공하면서 국악기를 활용하는 곡을 쓰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해야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특정 장르에만 머물러 있으면 활동 범위가 너무 제한되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분야로 확장해 나가는 흐름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TA010)

3) 지원사업의 방향성과 창작의 충돌

■ 지원사업은 신작 중심으로 운영되며, 기획서 작성이 필수적

■ 선정된 후에야 창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일반적

■ 창작자의 예술적 방향과 지원사업의 요구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지원사업이 신작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기획서를 잘 작성하는 게 중요해요. 창작자가 어떤 작품을 만들고 싶은지보다는, 사업의 방향성에 맞춰 기획서를 구성해야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예술적 고민보다 행정적인 절차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느낌이에요." (TA010)

"보통 선정이 된 후에야 본격적으로 창작이 시작되는 방식이에요. 기획 단계에서 작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지만, 실제로 작업이 진행되면서 방향이 바뀌거나 새롭게 시도하고 싶은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원사업에서는 사전에 제출한 기획서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유연하게 창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TA010)

"창작자의 예술적 방향과 지원사업이 요구하는 내용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의 취지에 맞춰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이 원래 하려던 음악과 거리가 생기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작품 자체보다 사업의 형식에 맞추는 게 더 중요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TA010)

4) 전통 예술 창작자의 해외 진출 기회 부족

■ 국내 활동 중심의 환경으로 인해 국제 무대에서 전통 예술 창작곡이 소개될 기회가 적음

■ 해외에서 주목받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과 네트워크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부족

■ 서양 음악과의 협업을 통한 해외 진출 가능성이 있지만 실현 사례가 드묾

"전통 예술 창작곡이 해외에서 소개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국내에서도 국악 창작곡이 연주될 무대가 한정적인데, 해외에서는 더 어려운 상황이죠. 국제적인 공연이나 음악제가 많지만, 전통 예술 창작곡이 초청받거나 기회가 주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TA010)

"해외에서 주목받으려면 체계적인 지원과 네트워크가 필수적인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거의 없어요. 국악 창작곡이 해외로 나가려면 단순히 연주 기회를 만드는 걸 넘어서, 지속적으로 해외 무대와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정책적으로 이 부분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개별 창작자가 스스로 길을 개척해야 하는 실정이에요." (TA010)

"서양 음악과 협업하면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실제로 실현되는 사례는 많지 않아요. 해외 오케스트라나 현대음악 단체와 협업하면 전통 예술 창작곡도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지만, 이런 기획을 추진할 지원도 부족하고, 시도 자체가 활발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시도하는 경우는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TA010)

5) 전통 예술 공연의 저변 확대 한계

■ 전통 예술의 향유층이 제한적이며, 대중성과의 접점이 부족

■ 창작자들이 작품 발표 후 지속적인 공연 기회를 얻기 어려움

■ 전통 예술 공연이 특정 행사나 축제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음

"전통 예술을 즐기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 향유층이 제한적이에요. 클래식 음악처럼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도 접근할 수 있는 장르가 아니고, 대중적으로 소비될 만한 접점도 많지 않아요. 결국 특정 계층이나 전공자들 중심으로만 공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대중과의 거리가 유지되는 것 같아요." (TA010)

"창작자 입장에서는 한 작품을 발표한 후에 지속적으로 공연할 기회를 얻기가 어려워요. 초연 이후에 공연을 이어가려면 연주자가 직접 기획을 하거나 새로운 무대를 찾아야 하는데, 이런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결국 작품이 한 번 연주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창작 활동이 지속되기 힘든 구조가 돼버려요." (TA010)

"전통 예술 공연이 특정 행사나 축제에 맞춰 기획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연주 기회가 생기더라도 행사 기간이 끝나면 다시 공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축제 중심의 공연 환경이 지속되면,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기 힘들고 작품도 장기적으로 남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TA010)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

1) 창작곡 재연 지원 사업 확대

■ 신작 발표 중심의 지원사업에서 벗어나, 기존 창작곡의 재연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우수 창작곡을 선별하여 장기적인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 도입 검토
■ 공공 기관과 공연장이 협업하여 지속 가능한 공연 환경 조성

"현재 지원사업이 신작 발표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한 번 발표된 곡이 다시 연주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기존 창작곡의 재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곡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이미 만들어진 좋은 작품들이 더 많은 무대에서 다시 연주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구조가 필요해요." (TA010)
"우수한 창작곡이 초연 이후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작품들을 선별해서 장기적으로 공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 도입된다면, 창작자들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관객들도 한 작품을 여러 번 감상할 기회가 생길 거예요. 이를 위한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합니다." (TA010)
"공공 기관과 공연장이 협업하면 지속 가능한 공연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독립적인 창작자나 소규모 단체가 공연장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공공 공연장들이 창작곡의 재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지속적인 무대가 가능해질 겁니다. 이런 방식이 도입되면 창작자들도 한 번 만든 작품을 여러 차례 공연하며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거예요." (TA010)

2) 창작자의 생계 지원 및 다각화된 지원책 마련

■ 창작자들이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 소득 지원 및 장기적 지원 정책 검토
■ 창작자 대상 레지던시 프로그램 및 해외 교류 기회 확대
■ 창작과 교육이 연계된 지원 사업 운영을 통해 창작자의 생계 문제 해결

"창작자들이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려면 경제적인 기반이 필요해요. 지금처럼 개별적으로 위촉을 받거나 지원사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기본 소득 지원이나 장기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된다면, 창작자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더 집중해서 작업할 수 있을 거예요." (TA010)
"창작자 대상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어요. 해외에서는 레지던시를 통해 창작 공간과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사례가 많은데, 국내에서는 아직 이런 프로그램이 제한적이에요. 특히 전통 예술 창작자들이 해외에서 작업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가 많아진다면, 국제적인 활동 가능성도 더 넓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A010)
"창작 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교육과 연계된 지원 사업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창작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교육 기관에서 학생들과 협업하며 작품을 만들고 발표할 기회를 가진다면, 창작과 교육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경제적인 안정도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TA010)

3)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 진출 지원

■ 전통 예술 창작자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 국제 무대에서 전통 예술 창작곡이 소개될 수 있도록 공연 및 음원 제작 지원

■ 해외 페스티벌 및 아트마켓과의 연계를 통해 한국 전통 예술 창작자가 참여할 기회 확대

"전통 예술 창작자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어요. 현재로서는 해외 무대에 나갈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고, 개별 창작자가 스스로 길을 개척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체계적인 지원이 있다면 전통 예술 창작곡이 국제적인 무대에서 더 많이 소개될 수 있을 거예요." (TA010)

"전통 예술 창작곡이 해외에서 연주되려면 공연뿐만 아니라 음원 제작 지원도 필요해요. 해외에서 한국 음악을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음원이나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먼저 작품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죠. 이를 위한 제작 지원이 있다면, 더 많은 창작자가 자신의 곡을 해외에 소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TA010)

"해외 페스티벌이나 아트마켓과의 연계를 강화하면 한국 전통 예술 창작자들이 국제 무대에 설 기회가 더 많아질 거예요. 특히 해외에서는 국악이나 전통 음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정책적으로 잘 연결하면 우리 창작자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A010)

[대상자11] 창작 분야

1. 일시

■ 2024년 11월 12일(화), 11:00 ~ 13:00

2. 장소

■ 대학로 예술극장 1층 회의실 (서울 종로구 대학로10길 17)

3. 참석자 명단

[표 2-11] 참석자 명단 [대상자11] 창작 분야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2)	공공	TA-A			
	공공	TA-B			
참석자(n=1)	창작	TA011	여	50대	20년

4. 주요 논의 사항

■ 전통 예술 창작과 보존
- 전통과 창작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문제와 전통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는 접근법

■ 전통 예술의 교육 체계
- 국악과 전통 예술 교육의 문제점과 예술가의 경로, 창작자의 생계 문제

■ 예술 생태계와 자생력
- 예술 단체 운영과 자립적인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

■ 전통 예술과 대중화
- 전통 예술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 전통과 창작의 경계 문제

■ 정부 지원과 정책
- 전통 예술 분야의 정부 지원 한계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선 필요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전통 예술 교육 및 창작 환경의 변화

1) 전통 예술 교육 구조의 한계

■ 예술고 및 대학의 전통 예술 교육 과정이 제한적이며, 생황 등 일부 악기는 정규 전공 과정이 부재함

■ 전통 악기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며, 교육과 연계된 실무 기회가 적음

"각각 개별적으로 듣는 수업들이 결국 그들에게 무기가 되지만, 생황 같은 특수악기는 전공 과정이 없거나 피리를 전공한 학생들이 부전공 개념으로 잠깐 배우는 정도라 깊이 있는 교육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전통적으로 계승하기보다 단순한 연주 악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TA011)

"전통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관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특히 생황은 전공이 개설된 대학이 거의 없고, 대개 피리 전공자가 졸업 후 추가로 배우는 방식이에요. 예고에서도 전통음악을 배우긴 하지만 커리큘럼이 연주 중심이라 실질적인 창작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TA011)

"대학에서 생황을 배우려면 대학원으로 가야 하지만, 운영되는 곳이 거의 없어요. 교육받은 학생들이 창작자로 성장할 지원이 부족해 실용음악이나 타 장르로 빠지게 됩니다. 결국 전통 예술을 전공해도 이를 전문적으로 활용할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TA011)

2) 창작자의 전통 음악 접근성 문제

■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한 창작 활동의 자유도는 높지만, 체계적인 지원이나 교육이 부족함

■ 창작곡 개발과 연주법 연구가 개별 예술인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생황 같은 악기는 기존에 전통적으로 계승된 곡이 거의 없어서 창작할 수 있는 자유도는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창작 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새롭게 곡을 만들어도 이를 지속적으로 연주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어요. 결국 창작을 해도 공연 기회나 음반 제작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개인적인 노력에 의존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TA011)

"전통 악기를 기반으로 한 창작곡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를 위한 교육 과정이나 연구 지원이 거의 없어요. 연주자 개개인이 곡을 만들고 실험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일정 수준 이상의 창작물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예요." (TA011)

"새로운 전통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지만, 창작곡을 개발하고 연주법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너무 큽니다. 체계적인 교육이 없고, 작곡이나 편곡에 대한 지원도 제한적이라 결국 연주자들이 개별적으로 창작을 시도하고 연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TA011)

3) 전통 악기의 활용과 현대적 변화

■ 생황을 포함한 전통 악기의 현대적 해석 및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통 음악 내에서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음

■ 생황의 경우, 특정 악기(파이프형) 중심으로 사용이 확대되며 악기 선택의 다양성이 부족함

"생황을 포함한 전통 악기가 현대적인 창작과 협업에서 점점 더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특히 클래식이나 재즈와 결합하는 시도도 많아졌죠. 하지만 전통 음악 내부에서의 역할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생황이 전통음악에서 어떻게 자리 잡아야 할지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부족한 상태라서, 연주자들이 개별적으로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TA011)

"생황이 국악관현악단에서 연주되는 일이 많아지면서 특정한 형태의 악기만 사용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어요. 특히 파이프형 생황이 국악단에서 표준처럼 자리 잡으면서, 다른 형태의 생황은 연주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요. 악기 선택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결국 연주자들은 한 가지 방식에 맞춰야 하고, 악기의 발전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TA011)

"전통 악기라고 해도 시대에 따라 개량되거나 현대적으로 변형되는 경우가 많은데, 생황은 오히려 특정 악기 형태로만 굳어지는 분위기예요. 연주자 개개인이 다양한 생황을 시도하려 해도 교육 과정이나 연주 기회가 뒷받침되지 않으니 결국 모두가 같은 형태의 악기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악기의 활용 범위도 점점 좁아질 거라고 봅니다." (TA011)

나. 생태계 이슈

전통 예술 생태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1) 교육 및 양성 기관 부족

■ 전통 예술 전공 학과가 점차 축소되거나 특정 악기 전공이 부재한 상황

■ 생황을 비롯한 특정 악기에 대한 체계적인 교수법 및 교육 기관이 부족하여 전공자 배출이 어려움

"전통 예술을 전공할 수 있는 학과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술고나 대학에서 국악 관련 전공이 축소되거나 통합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생황 같은 특정 악기는 전공 과정이 아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 피리 전공자들이 부전공 개념으로 배우거나 졸업 후 따로 익히는 방식밖에 없습니다.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없다 보니 악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할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TA011)

"생황을 비롯한 일부 전통 악기는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어요. 악기별로 전문 교수법이 정립되지 않아서 대학에서도 가르칠 인력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전공자 배출이 어려운 구조가 돼버렸어요. [...] 전통 음악이 계승되려면 교육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개별 연주자들이 각자 배워야 하는 상황이라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TA011)

"대학에서 전통 악기를 배우려 해도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공이 제한적이에요. 생황 같은 경우 대학원에서 연구하는 수준까지 가야 그나마 깊이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과정조차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거의 없어요. 결국 생황을 하려면 연주자들이 개별적으로 배워야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전공자 양성이 어렵습니다." (TA011)

2) 악기 보급 및 수급 문제

■ 국내에서 전통 악기를 제작하는 기반이 취약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

■ 일부 악기는 특정 방식(파이프형)으로만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여 악기 선택의 다양성이 부족

"전통 악기 중에서도 특히 생황 같은 경우 국내에서 제작하는 기반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고, 악기가 망가졌을 때도 국내에서 제대로 수리할 곳이 없어서 결국 연주자들이 직접 배우거나 해외로 보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 악기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전통 악기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텐데, 현재로서는 대안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TA011)

"생황을 국악 관현악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특정한 방식의 악기만 표준으로 자리 잡는 경향이 강해졌어요. 특히 파이프형 생황이 널리 쓰이면서, 전통적인 형태의 생황이나 다른 개량형 생황은 연주 기회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요. 연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악기의 범위가 제한되면서 결국 다들 같은 방식으로 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TA011)

"악기 선택의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생황 같은 악기의 발전도 정체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파이프형 생황이 관현악에서 필수처럼 사용되면서 다른 형태의 생황은 점점 밀려나고 있어요. 국내에서 다양한 생황을 연구하고 제작할 기반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환경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서 연주자들이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TA011)

3) 전통 예술 시장의 취약한 경제 구조

■ 창작자의 창작 활동 지속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며, 공연 및 음반 제작을 위한 자부담 비율이 높음

■ 전통 음악의 저작권 보호 및 음원 유통이 활성화되지 않아, 창작물의 재생산 및 재연이 어려운 구조

"창작자가 창작 활동을 지속하려면 공연 기회가 꾸준히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공연을 하려면 대관비부터 연주자 섭외까지 모두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음반 제작도 마찬가지로 개인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전액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결국 창작자 본인이 상당 부분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예요." (TA011)

"전통 음악 분야에서는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창작자가 새롭게 만든 곡이라도 기존 전통 음악과의 구분이 애매하다 보니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음원 유통도 활성화되기 힘들고, 결과적으로 창작물을 재생산하거나 다른 연주자가 다시 연주하는 과정이 이어지지 않게 됩니다." (TA011)

"음반을 제작해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서 결국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음원 사이트에 등록을 해도 많은 사람이 듣지 않으면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고, 공연 역시 지원이 없으면 자비를 들여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통 음악 창작이 활성화되려면 단순히 한 번의 공연이나 음반 제작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TA011)

4) 홍보 및 관객 확보의 어려움

■ 전통 음악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일반 대중의 관심도가 낮음

■ 전통 예술 공연은 주로 지인 중심의 관객층에 의존하며, 관객 유입을 위한 전략이 부족함

"전통 음악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 일반 대중이 관심을 가질 기회 자체가 적어요. 공연을 열어도 국악을 접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관객층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고, 전통 예술이 여전히 특정한 사람들만 즐기는 음악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결국 대중과의 접점을 늘릴 수 있는 체계적인 홍보와 접근 방식이 필요해요." (TA011)

"공연을 하면 대부분 지인들이 관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현실이에요. 새로운 관객을 유입할 방법이 없으니 공연이 지속성을 가지기 어렵고, 결국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공연을 보고 연주를 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전통 음악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공연 기획 단계부터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TA011)

"국악 공연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쉽게 찾지 않아요. 대중적인 홍보 방식이 부족하고, 공연을 보러 가야겠다는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도 약한 편이에요. 유명 아티스트가 출연하거나 특별한 주제가 있지 않으면 일반 관객층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국악 공연이 특정한 마니아층을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TA011)

5) 공연 지원 및 연계 시스템 부족

■ 창작자의 지속적인 공연 기회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며, 공연 기획 단계부터 재정적 어려움이 큼

■ 정부 지원 공연이 있어도 홍보 및 관객 유입이 미흡하여 창작자의 지속적인 활동에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다 보니, 공연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 공연을 올리더라도 후속 공연을 이어가기 어려워서, 결국 창작 활동이 지속되지 못하는 거죠. 공연 기획 단계에서부터 재정적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아예 공연을 시도하기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TA011)

"정부 지원 공연이 있기는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관객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악 공연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홍보 전략이 부족하다 보니 공연을 알리는 방식도 제한적이에요. 결과적으로 지원을 받아도 공연장이 거의 텅 빈 상태가 되고, 창작자의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TA011)

"창작자들이 꾸준히 활동하려면 공연 기획부터 홍보, 관객 유입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단순히 한 번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공연이 여러 차례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연계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공연 한 번 하고 끝나는 방식으로는 창작자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TA011)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전통 예술 창작 및 교육 지원 확대 방향

1) 창작자 교육 및 실무 기회 확대

■ 창작자 및 연주자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 신설 및 확대 필요

■ 공연 및 창작을 위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산학 협력 및 인턴십 프로그램 도입

"전통 음악 창작자와 연주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 필요해요. 현재는 특정 악기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부족하고, 창작을 위한 이론적·실기적 기반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요. 대학에서도 전통 음악 창작 과정을 심화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고, 지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창작 인력 양성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TA011)

"공연과 창작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경험할 기회가 너무 적어요.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보니, 졸업 후에도 공연 기획이나 창작을 직접 해볼 기회가 거의 없죠. 산학 협력을 통해 공연 기획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턴십 같은 실습 프로그램을 만들어 창작자들이 실제 무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TA011)

"단순히 교육을 받는 것만으로는 창작자가 성장하기 어려워요. 창작자들이 공연을 직접 기획하고 제작할 수 있는 실무 경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대학이나 기관에서 공연 단체와 협력하는 방식이 필요해요. 지금처럼 교육과 실무가 분리된 상태로는 창작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TA011)

2) 악기 보급 및 연구 지원 강화

■ 생황을 비롯한 전통 악기의 국내 제작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

■ 연구 기관 및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악기 제작 및 수리 교육 과정 개설

"생황을 포함한 전통 악기를 국내에서 직접 제작하고 보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현재는 대부분의 전통 악기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가격이 비싸고 유지보수도 어려운 실정이에요.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국내 제작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전통 악기가 더 많이 보급되고 창작자들이 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TA011)

"연구 기관과 교육 기관이 협력하여 악기 제작 및 수리 교육 과정을 개설하면, 전통 악기를 보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생황처럼 특수한 악기들은 수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학생들이 악기 제작과 수리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배우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TA011)

"국내에서 전통 악기를 만드는 기술이 부족한 만큼, 연구 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악기 제작 및 수리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를 통해 창작자들이 악기 수리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쉽게 악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TA011)

3) 홍보 및 대중 접근성 강화

■ 전통 예술 공연 및 음원의 온라인 유통 활성화 및 홍보 전략 마련

■ 전통 음악을 교육 및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여 대중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전통 예술 공연과 음원이 온라인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해요. 현재는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이 부족하고, 음원을 구매하거나 공연 소식을 알리기 위한 홍보 전략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전통 음악을 유통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SNS나 유튜브와 같은 대중적인 매체를 활용한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TA011)

"전통 음악이 대중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교육과 문화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전통 음악을 배우는 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거나, 다양한 대중문화와 결합된 공연을 기획하는 방식으로 전통 예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를 통해 전통 음악을 새로운 형태로 대중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합니다." (TA011)

"전통 예술을 대중에게 알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특히, 전통 음악을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방송 콘텐츠로 제공하면 대중들이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전통 음악을 배우고 즐기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A011)

[대상자12] 창작 분야

1. 일시

■ 2024년 11월 12일(화) 14:00 ~ 16:00

2. 장소

■ 대학로 예술극장 1층 회의실 (서울 종로구 대학로10길 17)

3. 참석자 명단

[표 2-12] 참석자 명단 [대상자12] 창작 분야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2)	공공	TA-A			
	공공	TA-B			
참석자(n=1)	창작	TA012	여	40대	30년

4. 주요 논의 사항

■ 전통 예술 창작과 보존
-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창작과 균형을 맞추는 문제
- 전통 음악과 예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방식

■ 전통 예술의 교육 체계
- 국악 및 전통 예술 교육의 구조적 한계
- 예술가 양성과정 및 창작자의 생계 유지 문제

■ 예술 생태계와 자생력
- 전통 예술 단체 운영과 자립적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 공연 및 창작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 구축

■ 전통 예술과 대중화
- 전통 예술의 저변 확대와 대중과의 소통 전략
- 창작 음악과 전통 음악의 경계 문제

■ 정부 지원과 정책
- 전통 예술 지원 정책의 한계와 개선 방향
- 창작자 및 예술 단체를 위한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필요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전통 예술 교육의 한계와 창작 지원 부족

1) 전통 예술 교육 체계와 변화

■ 전통 예술 교육은 정규 학위 과정과 민간 프로그램이 공존
■ 전통 음악 교육은 국악고·예술고 및 대학교에서 운영되며, 창작 활동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족
■ 대학 교육에서 전통과 창작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안 모색 필요

"각각 개별적으로 듣는 수업들이 결국 그들에게 어떤 무기가 되는 거라서 그런 거에 깊이를 조금 잘 파고 그러면서도 좀 다양하게 런칭할 수 있는 그런 맵을 그리는 게 저희 커리큘럼의 방향입니다. [...] 학생들이 전통을 배우면서 창작적인 요소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창작 교육이 좀 더 체계적으로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TA012)
"뮤지컬 연출을 양성할 수 있는 전문 교육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 전통 예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국악고, 예술고에서 기본적인 전통을 배우지만, 정작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TA012)
"무전공 입시 제도를 도입해서 실기 전형도 보고 원하는 전공을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 대학 교육에서도 전통과 창작을 구분하기보다는 두 가지를 함께 배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요. 학생들이 창작과 전통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TA012)

2) 창작과 계승의 갈림길

■ 전통 음악 이수 과정이 창작과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
■ 창작을 선택하는 젊은 예술가들이 증가하지만, 전통 예술 생태계에서는 보수적인 시각 존재
■ 전통 예술의 계승과 창작 활동의 접점을 찾는 논의 필요

"대학교 때까지는 정말 이거를 잘 계승하고 산조면 산조, 정악이면 정악, 배운 것을 최대한 잘 해내는 것에 완전히 포커싱이 되어 있다면, 딱 졸업하고 나면 이 시대의 어떤 필요에 갑자기 노출이 되는 거죠. [...] 그러면서 내가 해왔던 그런 공부들이 맥없이 느껴지는 순간이 와요. 전통을 지키고 싶지만, 공연할 수 있는 무대도 없고, 창작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TA012)
"창작을 하려면 역시나 이게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뭔가 돈이 필요한 거고 그런 건데, 이런 활동을 할 때 재원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 근데 이런 형태의 사업이라면 저는 어떻게 보면 초록우산이라든지 사랑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곳에서 후원을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전통 예술계 내부에서는 창작 활동이 보수적인 시각으로 평가받기도 해서 쉽지는 않은 구조예요." (TA012)
"전통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창작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 하지만 계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생님들이나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정책적 기조가 있어서, 창작을 시도하는 젊은 예술가들에게는 일종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전통과 창작이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TA012)

3) 전통 예술가들의 활동 방식 변화

■ 공연, 음원, 미디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통 예술이 확장되고 있음

■ 하지만 창작 음악이 공연 외 다른 방식으로 재생산되거나 전승되는 사례는 많지 않음

■ 전통 예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공연과 음원 유통 방식이 필요

"처음에는 정말 그런 한 아이를 위한 그룹이었는데, 같은 개념으로 점점 확장이 돼서 이제 암 환자들이나 소외된 분들에게 음악을 제공하는 방식까지 나아갔어요. [...] 최근에는 VR 기술을 활용해서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 저희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메타버스 플랫폼과 협업을 하고 있어요. 전통 예술도 이제 공연장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TA012)

"창작 음악은 한 번 공연되고 나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중음악처럼 누군가 리메이크하거나 후배들이 다시 연주하는 경우가 드물죠. [...] 저작권 등록을 하거나 음원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지만, 전통 음악에서 그런 개념이 아직 자리 잡지 못했어요. 결국, 창작 음악이 공연 외에도 지속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TA012)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지속하려면 공연뿐만 아니라 음원이나 영상 콘텐츠까지도 고민해야 해요. [...] 저는 가능하면 창작한 곡들을 음원으로 남기려고 해요. 한때 음반을 제작하는 것이 활발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음원 플랫폼을 활용한 유통 방식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전통 예술도 이제 이런 흐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A012)

나. 생태계 이슈

전통 예술 생태계의 한계와 자립 방안

1) 공연 기반 수익 모델의 한계

■ 전통 예술 공연이 티켓 수익만으로 운영되기 어려운 구조
■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공연 제작이 많아 생태계가 자생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움
■ 전통 예술이 상업적인 구조를 갖추기 위한 전략 필요

"이게 어떤 지속 가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태계를 연구하겠다 하고 의욕적으로 달려들었는데, 과연 인터뷰를 진행하면 할수록 생태계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 공연을 올렸을 때 티켓 수익으로 생태계가 굴러갈 만큼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결국 정부 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TA012)
"지금 전통 예술계에서는 창작을 하려 해도 티켓을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 그러다 보니까 공연은 계속 만들어지지만, 관객들은 외면하고 있고, 창작 활동을 유지하려면 결국 정부 지원이 필요해지는 거죠. 하지만 지원금이 끊기면 공연 자체가 어렵고, 이렇게 정부 주도의 생태계가 지속되면 상업적인 구조를 만들 기회 자체가 줄어드는 게 문제예요." (TA012)
"결국, 정부 지원만으로 유지되는 생태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 공연 외에도 전통 예술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모델을 만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 기업 후원이나 콜라보레이션 공연,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수익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 예술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상업적 접근이 필요해요." (TA012)

2) 정부 지원금 의존과 그 영향

■ 전통 예술 창작 활동이 정부 지원금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지원금 수혜 여부가 예술가의 활동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가 형성됨
■ 장기적인 창작 지원 체계와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 필요

"지금 전통 예술계에서 창작 활동을 지속하려면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에요. [...] 공연을 올리거나 음반을 제작하는 것도 결국 지원금이 있어야 가능하고, 개인적인 창작 활동 역시 지원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예술가들이 창작을 지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지원금 수혜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어요." (TA012)
"사실은 이런 지원 사업이 없다면 창작 활동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 대부분의 공연이 정부 주도의 프로젝트로 기획되고,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약하죠. 창작 활동이 일시적인 프로젝트 단위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TA012)
"예술 생태계가 건강하려면 정부 지원금이 창작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창작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해요. [...] 지원을 받지 않아도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공연 시장의 활성화와 전통 예술 콘텐츠의 수익 모델 개발이 함께 이루어져야 해요. 단순히 지원금을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TA012)

3) 전통 예술 전승과 창작의 경계 문제

■ 전통 음악의 전승 과정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음

■ 즉흥성이 강조되는 전통 음악조차도 정형화된 틀로 전승됨

■ 창작을 시도하는 예술가들이 전통과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접근 필요

"초창기에 산조는 분명히 즉흥적인 요소가 강했어요. 그런데 1세대에서 2세대로 전승되면서 즉흥성이 점점 사라지고 정형화된 틀로 굳어졌죠. [...] 이제는 그 악보대로 타지 않으면 전통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많아요. 전승을 위해 체계가 필요하긴 하지만, 오히려 자유로운 표현이 제한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TA012)
"전통 음악이란 게 원래 연주자의 스타일에 따라 변주되고 발전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이 하던 방식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 즉흥 연주를 하는 음악조차도 정형화된 방식으로만 전승되면서 창작과의 접점이 점점 줄어드는 게 현실이에요." (TA012)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창작을 허용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해요. [...] 전통과 창작이 아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창작이 전통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전승 방식 자체를 좀 더 유연하게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A012)

4) 전통 예술 창작자의 생존 문제

■ 젊은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

■ 전통 음악 전공자들이 창작과 연주를 병행하며 생존 전략을 고민하는 현실

■ 중견 예술가들의 지속적 활동을 위한 지원 체계가 부족

"전통 예술을 하는 젊은 예술가들이 창작을 병행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 악단 공채는 1년에 한두 명 뽑을까 말까 하고, 공연 기회도 제한적이다 보니 창작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창작을 한다고 해도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서 결국 지원 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TA012)
"공연을 하려면 결국 창작을 해야 하고, 창작을 하려면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지원이 없으면 활동이 끊겨버리는 구조예요. [...] 전통 음악 전공자들이 연주자로서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으니까 창작과 병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창작 활동을 한다고 해서 생계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개인적인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TA012)
"중견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부족해요. [...] 신진 예술가들을 위한 사업들은 많지만, 오히려 경험이 쌓인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창작과 연주를 병행하는 생존 전략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TA012)

5) 대중과의 소통 문제

■ 전통 예술이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소비되고 있어 대중성이 약함

■ 크로스오버, 미디어 콘텐츠 활용 등을 통해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는 방안 필요

■ 전통 예술의 현대적 해석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 요구됨

"전통 예술은 아직도 특정 계층을 중심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강해요. [...]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국악을 전공했거나, 전통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중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전통 예술이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소비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TA012)

"예전에 크로스오버 음반을 발매했을 때, 그게 대중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 기존의 산조 공연을 했을 때는 관심을 거의 못 받았지만, 크로스오버 앨범이 나오니까 방송에도 나오고, 일반 대중들도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결국, 전통 예술도 크로스오버나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해서 대중과 접점을 넓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A012)

"전통 예술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시도가 더 많아져야 해요. [...]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연 형식이나 유통 방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어요. 기존의 공연 방식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거나 새로운 협업 방식을 시도하는 등, 보다 폭넓은 전략이 요구됩니다." (TA012)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전통 예술 창작과 전승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 방향

1) 창작자 지원 체계 강화

■ 창작 기반 전통 예술 지원 제도를 확대하여 정부 지원과 자생적 생태계를 함께 구축
■ 창작 지원금의 분배 방식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예술가들에게 기회 제공
■ 신진 예술가뿐만 아니라 중견 예술가들도 지속적으로 창작할 수 있도록 장기적 지원 필요

"지금 전통 예술 분야에서 창작을 지원하는 제도는 있지만, 여전히 창작보다는 전승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 창작을 기반으로 한 전통 예술 지원을 확대해서, 정부 지원과 자생적인 생태계가 함께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한 공연 지원이 아니라 창작 과정 자체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해요." (TA012)
"지원금을 받는 단체나 예술가들이 정해진 몇몇 곳으로만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요. [...] 창작 지원금의 분배 방식을 좀 더 다양화하고, 더 많은 예술가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진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기존의 예술가들도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거예요." (TA012)
"창작 지원이 대부분 신진 예술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중견 예술가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고 있어요. [...] 하지만 이분들은 전통과 창작을 함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고,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해요. 전통 예술이 단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신진과 중견 예술가 모두가 함께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TA012)

2) 공연 및 유통 환경 개선

■ 전통 예술 공연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유통 채널 개발
■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전통 예술 음원 및 영상 콘텐츠 확대
■ 공연 외에도 전통 예술을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구조 마련

"전통 예술 공연만으로 수익을 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예요. [...] 공연 티켓 판매만으로는 운영이 힘들고, 결국 후원이나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유튜브, OTT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통 채널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TA012)
"예전에는 음반을 내면 공연과 연결되어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음반 시장 자체가 거의 사라졌어요. [...] 전통 예술도 스트리밍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해요. 음원뿐만 아니라 공연 실황을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 배포하고,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TA012)
"전통 예술이 공연장에서만 소비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전통 음악 교육, 인터랙티브 미디어 공연, VR·AR 기술을 이용한 체험형 콘텐츠 등 공연 외에도 지속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A012)

3) 전통과 창작의 균형을 위한 정책 마련

■ 전통 음악의 전승과 창작 활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 방향 설정

■ 전통 음악 창작을 위한 연구 및 실험적 프로젝트 지원 강화

■ 기존의 전승 방식과 현대적 창작 방식을 함께 아우르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필요

"전통 음악을 전승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 창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없으면 전통도 결국 정체될 수밖에 없죠. 전통과 창작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설정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TA012)

"지금 전통 예술계에서 창작을 위한 실험적 시도는 많지 않아요. [...] 연구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새로운 연주법을 개발하거나 전통 음악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프로젝트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요. 창작을 위한 연구와 실험적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TA012)

"전승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 창작을 배우고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해요. [...] 기존의 전승 방식과 현대적인 창작 방식을 함께 아우를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개편되어야 해요. 전통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창작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TA012)

[대상자13] 창작 분야

1. 일시

■ 2024년 11월 15일(금) 11:00 ~ 13:00

2. 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3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3)

3. 참석자 명단

[표 2-13] 참석자 명단 [대상자13] 창작 분야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2)	공공	TA-A			
	공공	TA-B			
참석자(n=1)	창작	TA013	여	40대	18년

4. 주요 논의 사항

■ 전통 예술 창작과 보존
- 전통성과 창작의 균형 유지 문제 및 현대적 감각을 활용한 전통 예술의 재해석

■ 전통 예술의 교육 체계
- 국악 및 전통 예술 교육의 한계, 창작자의 진로와 생계 문제

■ 예술 생태계와 자생력
- 예술 단체 운영의 어려움과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 구축 필요성

■ 전통 예술과 대중화
- 전통 예술의 대중적 접근성 확대 방안과 창작·전통의 경계 설정 문제

■ 정부 지원과 정책 개선
- 전통 예술 지원 정책의 한계와 창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개편 필요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전통 음악 창작자의 교육 및 성장 환경 부족

1) 창작보다는 연주 중심의 교육 구조

■ 전통 음악 교육은 연주자 양성에 집중되어 있으며, 창작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교육 과정이 미흡

■ 대학에서도 전통 음악 작곡 전공은 극소수이며, 대부분 연주 중심의 커리큘럼 운영

"전통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연주를 중심으로 교육을 받아요. 작곡을 배우고 싶어도 체계적인 과정이 없어서 독학하거나 개인적으로 배워야 하는 경우가 많죠. 작곡을 전공해도 실제 창작 활동을 지속할 기반이 부족해서 결국 연주나 강의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TA013)

"대학에서 전통 음악 작곡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곳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연주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운영되고 있고, 작곡을 하려면 서양음악이나 다른 영역에서 배워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전통 음악에서 창작을 하려는 학생들이 진입 장벽을 느끼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TA013)

"작곡가로서 활동하려면 공연 기회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작곡을 배울 기회 자체가 적어요. 전통 음악 작곡 전공이 극소수다 보니 실제로 창작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TA013)

2) 대학 및 민간 교육기관의 역할과 한계

■ 일부 대학에서 전통음악 창작 관련 학위 과정을 운영하지만, 전공 교수진 및 교육 인프라 부족

■ 민간 교육기관이 창작자를 양성하는 역할을 하지만,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고, 공공 지원이 필요

"전통음악 창작을 가르치는 대학이 있긴 하지만, 그 수가 적고 교수진도 충분하지 않아요. 결국 창작을 배우려는 학생들은 선택지가 좁아지고,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심도 있는 창작 교육이 어렵습니다. 특히 작곡을 배우려 해도 전공 교수님이 많지 않아서 제대로 된 지도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TA013)

"민간에서 운영하는 창작자 양성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걸 지속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공공 지원이 없으면 운영 자체가 불안정하고, 장기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힘들죠. 그러다 보니 창작을 배우고 싶어도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지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TA013)

"학교에서 배울 수 없으니까 결국 민간에서 배우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민간 교육기관들도 운영이 쉽지 않다 보니 중간에 없어지거나 한정적인 교육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 지원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창작 교육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예요."

3) 창작자의 진로 불투명성과 경제적 어려움

■ 전통 음악 작곡 전공자들은 졸업 후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움

■ 공연 기회가 제한적이며, 수익성 부족으로 인해 강의나 부업을 병행하는 사례가 많음

"전통 음악 작곡을 전공해도 졸업 후에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연주자들은 무대에 설 기회라도 있지만, 작곡가들은 자기 곡을 발표할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결국 창작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서 다른 일을 병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TA013)

"작곡가로 활동하려면 공연이 꾸준히 있어야 하는데, 전통 음악에서는 창작곡이 연주될 기회가 많지 않아요. 서양 음악처럼 작곡가를 중심으로 한 공연이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대부분 위촉이 있어야 창작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강의나 편곡 같은 부업을 하게 되는 거죠." (TA013)

"창작 활동을 지속하려면 경제적인 기반이 필요한데, 전통 음악 작곡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작곡가들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다른 음악 관련 일을 병행하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정작 창작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해지는 게 문제죠." (TA013)

나. 생태계 이슈

전통 음악 창작 생태계의 불균형과 지속 가능성 문제

1) 전통 음악 창작에 대한 시장 한계

■ 전통음악 창작곡에 대한 수요가 적고, 공연 및 음반 제작 지원이 부족

■ 연주자 중심의 시장 구조로 인해 작곡자들의 활동 기반이 약함

"전통음악 창작곡을 연주할 기회 자체가 많지 않아요. 연주자들은 대부분 전통 레퍼토리를 선호하고, 창작곡은 공연에서 잘 다뤄지지 않죠. 음반 제작도 연주자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작곡가들이 직접 자비를 들여 녹음하고 제작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TA013)

"전통 음악 공연 시장이 연주자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작곡가들이 설 자리가 부족해요. 공연이 있어야 창작이 이루어지는데, 연주자들이 직접 편곡하거나 기존 곡을 연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새로운 창작곡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죠. 그러다 보니 작곡가들은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TA013)

"창작곡이 활성화되려면 연주자와 작곡자가 협력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하지만 현재 시장 구조상 연주자들이 기존 곡을 위주로 공연을 기획하다 보니, 작곡가들의 활동 기반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창작곡이 공연될 수 있는 기회나 지원이 더 많아져야 창작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거예요." (TA013)

2) 창작과 전통의 경계에 대한 모호한 기준

■ 전통 기반 창작과 퓨전 음악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 지속

■ 창작 지원 정책이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면서 일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례 발생

"전통을 기반으로 한 창작과 퓨전 음악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가 늘 논란이에요. 전통 음악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변형하면 어떤 기준으로 전통 창작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창작자들 입장에서도 지원을 신청할 때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TA013)

"창작 지원을 받으려 해도 어떤 음악이 전통 기반 창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모호해요. 전통적인 요소를 살리면서 현대적 요소를 가미하면, 어떤 심사에서는 전통이라고 인정받고, 다른 심사에서는 퓨전 음악이라며 배제되기도 하죠. 이런 부분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창작자들이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TA013)

"전통음악 창작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지만, 장르적 구분이 애매해서 일부 창작자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낸 전통 창작 음악이 심사 과정에서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되면, 결국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생기죠." (TA013)

3) 공연 시장의 협소함과 관객 저변 부족

■ 전통 예술 공연이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대중적 접근성이 낮음

■ 관객 개발이 미흡하여 창작 활동을 지속할 기반이 약함

"전통 예술 공연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제한적이다 보니, 대중이 접할 기회가 적어요. 국립극장이나 특정 전통 공연장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일반 관객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고,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기도 힘든 구조예요." (TA013)
"대중들이 전통 음악을 접할 기회 자체가 적어요. 공연을 찾아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데, 홍보도 충분하지 않고 공연 장소도 제한적이라서 자연스럽게 관객층이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창작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TA013)
"전통 예술을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관객층이 형성되지 않으면 창작도 유지되기 어려워요. 공연을 봐야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있어야 지속적인 창작이 이루어질 텐데, 현재로선 그런 순환 구조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어요." (TA013)

4) 지원 사업 구조의 문제점

■ 기존 지원 사업이 특정 분야나 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며, 창작자 개별 지원이 제한적

■ 청년 창작자와 중견 예술가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하며, 지속적인 성장 구조 마련이 필요

"지원 사업이 특정 단체나 장르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개별 창작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에요. 특히 전통 음악 작곡가는 연주자와 달리 단체 소속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예요." (TA013)
"청년 예술가 지원은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중견 창작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예요. 초기 창작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생태계가 단절될 위험이 있어요." (TA013)
"청년 창작자와 중견 예술가 간 지원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청년 창작자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기회가 있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을 쌓으면 더 이상 지원을 받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겨요. 지속적인 창작이 가능하려면 성장 단계별 지원이 필요해요." (TA013)

5) 창작자에 대한 낮은 처우와 다중 역할 수행 문제

■ 전통 음악 창작자들이 연출, 기획, 연주 등 여러 역할을 병행하는 사례 증가

■ 전문적인 역할 분배 없이 작업이 진행되면서 창작의 질적 저하 우려

"전통 음악 창작자들이 단순히 작곡만 하는 게 아니라 연출, 기획, 심지어 연주까지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창작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예산 절감을 위해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게 되고, 이는 작업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TA013)
"작곡가가 곡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공연 기획까지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제작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결국 창작자가 기획부터 연출까지 맡게 되고, 이는 곡의 완성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TA013)
"전문적인 역할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창작자가 여러 역할을 맡게 되면, 결국 창작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연출, 기획, 작곡이 각각의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인데, 현실적으로 이런 역할을 나누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TA013)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전통 음악 창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지원 방향

1) 창작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 및 멘토링 강화

■ 창작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 과정 마련 및 교수진 확충 필요

■ 청년 창작자들이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멘토링 및 협업 지원 강화

"전통 음악 창작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전문 교육 과정이 필요해요. 현재는 작곡을 배우려 해도 마땅한 정규 과정이 없고, 교수진도 한정적이라 학생들이 제대로 된 창작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TA013)

"청년 창작자들이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해요. 단순히 학교에서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연 기획이나 창작 과정에 참여하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멘토링과 협업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되어야 해요." (TA013)

"창작은 단순히 개인적인 공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실전 경험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지원이 부족해요. 선배 창작자들과 협업할 기회가 많아지고, 공연 기회가 확대된다면 청년 창작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TA013)

2) 창작 기반 조성 및 지속 가능한 활동 지원

■ 창작 작품의 공연 및 음원 제작 지원을 확대하여 창작자들의 지속적인 활동 보장

■ 창작자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적인 지원 정책 마련

"전통 음악 작곡가들이 창작한 작품을 실제로 공연할 기회가 많아져야 해요. 지금은 연주자 중심의 공연이 대부분이라 창작곡이 연주될 기회가 제한적이고, 음원 제작도 개별 창작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원 확대가 꼭 필요해요." (TA013)

"단기적인 지원으로는 창작을 지속하기 어려워요. 작곡가들이 꾸준히 작업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특히 창작 작품이 공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작곡가들도 더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거예요." (TA013)

"창작자는 계속해서 작품을 발표해야 하는데, 공연 기회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창작 활동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속적으로 작품을 만들고 발표할 수 있도록 공연 기획 단계에서부터 창작 지원이 연계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TA013)

3) 공연 기회 확대 및 관객 저변 확대 전략

■ 전통 예술 창작 공연을 위한 소규모 극장 및 지역 문화 공간 활성화

■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전통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전통 예술 창작 공연을 위한 소규모 극장이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어요. 현재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라 신진 창작자들이 무대를 올릴 기회가 부족하고, 대형 극장에서만 공연이 이루어지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TA013)

"전통 음악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야 해요. 단순히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넘어 교육과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대중이 전통 음악을 체험하고 관심을 가질 기회가 늘어나면서 저변 확대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TA013)

"전통 예술 창작 공연이 특정 기관이나 대형 공연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역 문화 공간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어요. 지역 기반의 공연과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전통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TA013)

[대상자14] 창작 분야

1. 일시

■ 2024년 11월 15일(금), 14:00 ~ 16:00

2. 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3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3)

3. 참석자 명단

[표 2-14] 참석자 명단 [대상자14] 창작 분야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2)	공공	TA-A			
	공공	TA-B			
참석자(n=1)	창작	TA014	남	30대	8년

4. 주요 논의 사항

■ 전통 예술 창작과 보존
- 전통예술의 보존과 창작의 조화, 현대적 감각을 접목한 새로운 시도 필요

■ 전통 예술의 교육 체계
- 국악 및 전통예술 교육의 구조적 문제와 졸업 후 진로, 창작자의 생계 문제

■ 예술 생태계와 자생력
- 예술 단체의 운영 현실과 지속 가능한 전통예술 생태계 구축 방안

■ 전통 예술과 대중화
- 전통예술의 대중 접근성 강화와 창작·보존의 경계 문제 해결 필요

■ 정부 지원과 정책 개선
- 전통예술 지원 정책의 한계와 창작자 지속 지원을 위한 개선 방향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전통예술 교육과 지원 체계

1) 국악 교육과 입시제도의 특수성

■ 국악중·고등학교는 대학 입시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경로로 인식됨

■ 입시 중심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개별 예술성이 제한되는 구조

■ 졸업 후 전통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타 직종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음

"국악 중고등학교가 대학 가기 너무 쉽잖아요. 실제로도 들어가 보면 음악이 좋아서 하는 애들, 그냥 시켜서 하는 애들로 나뉘어요. 물론 다 열심히 하지만, 결국 대학이 가지는 상징성이 가장 크죠. 그래서 입학이 목표가 되고, 대학을 가면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요. [...] 음악은 재능의 영역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격차를 좁히기 어렵고, 대학 가는 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에요." (TA014)

"졸업 후 국악과 나온 사람들이 다 국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전공을 살리지 못하고 다른 직업을 찾아요. 악단이나 레슨 외에는 생계가 어렵고, 결국 취업이 안 되니까 대학원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 대학원도 연구보다는 그냥 할 게 없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TA014)

"국악 교육이 입시에 맞춰져 있어서 창작적인 기회를 거의 못 가져요. 정답이 정해져 있죠. 이런 곡은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기법은 이렇게 써야 한다. [...] 전통을 배우면서도 새로운 걸 만들어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TA014)

2) 전통예술 전공자의 진로 다양성 부족

■ 대학 졸업 후 주요 진로는 국립·시립 악단, 교육자, 개인 연주 활동 등으로 한정적

■ 국악 전공자가 대학원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학문적 연구보다는 생계와 연계된 선택으로 작용

■ 연주자의 수익 구조가 취약하여 생계를 위해 레슨을 병행하는 경우가 대다수

"대학 졸업하고 나면 진로가 사실 정해져 있어요. 국립이나 시립 악단 들어가거나, 교육자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개인 연주 활동을 하면서 레슨을 병행하는 거죠. 근데 악단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개인 연주만으로는 사실상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 그래서 대부분이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레슨을 하게 돼요. 그게 거의 필수처럼 되어 있죠." (TA014)
"대학원 진학률이 높은 이유는 단순히 학문적인 연구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 대학원 가는 사람들 중에 진짜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그냥 할 게 없어서 가는 경우가 많죠. 졸업 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으니까 대학원을 가는 거예요. [...] 요즘은 박사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 석사만으로는 명함도 못 내민다는 말도 나올 정도예요." (TA014)
"연주만으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아요. 공연을 해도 지원사업 없이는 거의 유지가 안 되고, 티켓 수익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레슨을 같이하죠. 레슨이 가장 확실한 수입원이고, 결국에는 공연 활동도 레슨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TA014)

3) 전통예술 지원사업과 창작 활동

■ 창작자의 주요 지원 재원은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에 의존
■ 지원사업 신청 및 기획서 작성이 중요한 생존 전략이 되며, 기획력이 예술 활동의 지속 여부를 결정
■ 공공 지원사업은 전통성과 창작성의 구분이 모호하여 평가 기준에 대한 논란이 존재

"전통예술 창작자들은 대부분 지원사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공연을 올리는 비용 자체가 크니까,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 없이는 지속적인 창작 활동이 어렵죠. [...] 창작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거의 생계 지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지원을 못 받으면 공연 자체를 못 하는 경우도 많고요." (TA014)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기획서를 잘 써야 해요. 결국 기획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창작을 계속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거죠. [...] 예술가가 작품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행정적인 업무까지 다 해야 하니까 힘들어요. 기획서를 못 쓰면 공연을 못 하고, 그게 곧 생계 문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TA014)
"공공 지원사업이 전통예술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 악기가 전통이면 전통예술로 볼 건지, 새로운 시도를 하면 창작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평가 기준도 애매해서, 어떤 경우에는 같은 스타일인데도 심사위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해요." (TA014)

나. 생태계 이슈

전통예술 창작·유통의 현실과 한계

1) 창작자 지원 체계의 문제점

■ 전통예술 분야의 지원사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창작자를 육성하기보다 단기적인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

■ 지원사업이 많지만 공연 제작비 외 생계 지원은 부족하여 지속적인 창작 활동 유지가 어려움

"지원사업이 많긴 하지만 대부분이 단기 프로젝트 위주예요. 장기적으로 창작자를 육성하는 구조가 아니고, 1년짜리 공연이나 프로젝트 지원이 대부분이라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기 힘들죠. [...] 다음 지원을 또 받아야 공연을 할 수 있으니까, 안정적인 창작이 어려운 거예요." (TA014)

"공연 제작비는 지원되지만, 정작 창작자의 생계까지 고려한 지원은 거의 없어요. 공연 한 번 올리는 걸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다들 레슨을 병행하거나 다른 수입원을 찾아야 해요. [...] 결국 공연을 위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창작자 개인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TA014)

2) 관객 유입의 어려움과 향유층 한정

■ 전통예술 공연의 주요 관객층이 제한적이며, 신규 유입이 거의 없는 상황

■ 미디어 노출이 관객 유입에 영향을 미치지만, 방송·온라인 콘텐츠가 공연 관람으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음

■ 티켓 판매를 통한 자립 구조가 어렵고, 정부 지원 없이 독립적인 기획·운영이 사실상 불가능

"전통예술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기존에 관심 있던 분들이나 관련 분야 사람들이 많고, 새로운 관객이 유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 공연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보는 사람이 한정적이라 대중적으로 확산되기가 어려운 거죠." (TA014)

"미디어에 나오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많아져요.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전통예술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 근데 그 관심이 공연장까지 이어지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조회수는 높은데, 실제로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TA014)

"티켓 수익으로 공연을 유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전통예술 공연은 티켓이 많이 팔리는 구조가 아니고, 제작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정부 지원이 없으면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요. [...] 지원사업 없이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공연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요." (TA014)

3) 전통예술의 시장성과 대중성 부족

■ 지원사업을 통해 창작되는 공연은 실험적 시도가 많지만,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낮음

■ 전통예술 창작자들은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해도 정책적 지원이 부족

■ 국악 연주자들이 국악 이외의 활동(영상 제작, 사진, 타 장르 협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음

"지원사업으로 공연을 만들면 실험적인 시도를 해볼 기회는 많아요. 근데 그게 상업적으로 성공하기는 어렵죠. [...] 티켓을 팔아서 수익을 내야 하는 공연 시장과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대중적인 공연으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TA014)
"전통예술을 현대적으로 풀어내거나 대중과 소통하는 새로운 시도를 하려 해도 정책적으로 뒷받침되는 지원이 부족해요. [...]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더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하는데, 그런 걸 뒷받침하는 지원이 많지는 않아요." (TA014)
"연주 활동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국악 연주자들도 다른 일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 공연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이 영상 제작이나 사진 촬영, 다른 장르와 협업 같은 걸 하면서 수입을 만들고 있어요." (TA014)

4) 전통예술 보존·전승 체계의 경직성

■ 무형문화재 이수 체계가 창작보다는 전승과 보존을 우선하는 방식으로 운영
■ 창작 음악과 전통 음악의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지원 정책에서 혼란 발생
■ 원로 중심의 기존 체계가 유지되면서 젊은 창작자들의 진입과 자립이 어려운 구조

"무형문화재 이수 체계는 기본적으로 전승과 보존을 중심으로 운영되니까, 창작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 창작자로 활동하는 입장에서는 전통을 배우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죠. 결국 창작보다는 기존 것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TA014)
"창작 음악과 전통 음악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 지원사업에서도 이게 전통으로 봐야 하는지, 창작으로 봐야 하는지가 애매한 경우가 많고, 심사 기준도 들쭉날쭉해서 정책적으로 혼란이 있어요." (TA014)
"전통예술계는 기본적으로 원로 중심으로 돌아가요. 기존 체계가 유지되면서 젊은 창작자들이 자립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기존 틀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그러면 전통이라고 인정받기 힘들고, 그렇다고 그대로 하면 창작자로 성장하기가 어려운 딜레마가 있어요." (TA014)

5) 전통예술 교육과 사회적 인식 문제

■ 국악 교육이 초·중등 과정에서 감상보다 실기 중심으로 운영되며, 대중적 친숙도가 낮음
■ 국악이 특정 계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인식이 존재하여 일반 대중의 접근성이 떨어짐
■ 전통예술을 창작하는 행위 자체가 보존과 배치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초·중등 교육에서 국악을 배우긴 하지만, 감상보다는 단소 같은 실기 위주로 진행돼요. 근데 단소는 배우기 어려운 악기라서 흥미를 느끼기 힘들죠. [...] 결국 국악을 접할 기회는 있지만, 즐길 기회는 부족하니까 대중적으로 친숙해지기가 어려워요." (TA014)
"국악이 특정 계층의 문화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어요. 전통예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공연을 보러 갈 생각 자체를 하지 않고, 접근성도 낮죠. [...] 일반 대중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해서 여전히 국악은 일부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인식돼요." (TA014)
"전통예술을 창작하는 게 보존과 반대되는 개념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 전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걸 시도하면 '그건 전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반대로 전통을 그대로 하면 창작자로서 성장하기 어려운 딜레마가 있어요." (TA014)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전통예술 창작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1) 장기적 창작자 육성 지원 모델 도입

■ 초기 창작자에게 폭넓은 기회를 부여하되,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창작자에게 집중 지원하는 모래시계형 지원 구조 필요

■ 연차별 성장 관리 시스템 도입(예: 3년 주기의 지원 검토 및 지속 가능성 평가)

■ 단순 창작 지원이 아닌 기획, 홍보, 유통까지 연계하는 지원 체계 마련

"지금 지원사업은 대부분 단기 프로젝트 중심이라서, 처음 시작하는 창작자들이 한두 번 지원받고 나면 이어나가기 어려워요. [...] 처음에는 많은 기회를 주고, 이후에는 발전하는 창작자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기 지원보다는 장기적인 성장 구조가 중요하죠." (TA014)

"창작자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차별로 지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3년 단위로 평가해서 계속 발전하는 창작자들에게 다음 단계의 기회를 주는 방식이죠. [...] 단순히 한 번의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을 고려한 지원 체계가 필요해요." (TA014)

"창작 지원만으로는 지속적인 활동이 어렵고, 결국 유통이나 홍보가 제대로 돼야 의미가 있어요. [...] 공연을 만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어떻게 홍보하고, 유통할 것인지까지 연계하는 지원이 필요해요. 단순한 창작 지원이 아니라 창작자가 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필요하죠." (TA014)

2) 전통예술 관객 확대 및 향유층 개발

■ 국악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접점 확대(학교 교육, 공공 프로그램, 미디어 콘텐츠 활용)

■ 전통예술 공연과 연계된 체험·교육 프로그램 확대

■ 지역 문화재단과 연계하여 전통예술 공연을 정기적인 기획 프로그램으로 운영

"국악을 접할 기회가 너무 한정적이에요. 학교 교육에서는 단순 실기 위주고, 공연을 직접 보거나 체험할 기회는 거의 없죠. [...] 미디어를 활용해서 국악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요. 예능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콘텐츠를 통해 대중과 만날 기회가 많아져야 해요." (TA014)

"단순히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체험이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면 관심을 가질 사람이 더 많아질 거예요. [...] 공연을 보기 전에 악기를 직접 연주해 본다든지,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워크숍을 연계하면 접근성이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TA014)

"전통예술 공연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지역에서 정기적으로 기획되는 형태가 되어야 해요. [...] 지역 문화재단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전통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면 자연스럽게 관객층도 형성될 거예요." (TA014)

3) 전통예술의 유통 및 시장성 확대

■ 기존 지원사업이 단기 프로젝트에 집중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시장 모델 구축

■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협력 방안 마련 및 크라우드펀딩, 기업 후원 등 다변화된 재원 확보 방안 모색

■ 공연 외에도 음반, 온라인 콘텐츠, 디지털 플랫폼 등으로 수익 모델 다각화

"현재 지원사업은 대부분 단기 프로젝트 위주라서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한 번 공연을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시장 모델이 필요해요. [...]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공연 이후의 유통과 확장이 고려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TA014)

"공공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민간 투자나 기업 후원 같은 방식도 고민해야 해요. [...] 크라우드펀딩이나 기업 협업 같은 방식을 활용하면 창작자들도 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죠." (TA014)

"전통예술 공연만으로 수익을 내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음반이나 온라인 콘텐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수익 모델이 필요해요. [...] 공연뿐만 아니라 음원이나 영상 콘텐츠로도 시장을 넓혀야 창작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TA014)

[대상자15] 창작 분야

1. 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15:00 ~ 17:00

2. 장소

■ 국립창극단 (서울 중구 장충단로 59)

3. 참석자 명단

[표 2-15] 참석자 명단 [대상자15] 창작 분야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1)	공공	TA-A			
참석자(n=1)	창작	TA015	여	60대	35년

4. 주요 논의 사항

■ 전통 예술 창작과 보존
- 전통예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창작과 현대적 해석을 조화롭게 접목하는 방안

■ 전통 예술의 교육 체계
- 국악 및 전통예술 교육의 현황과 한계, 예술가 및 창작자의 지속 가능한 경로 마련 필요

■ 예술 생태계와 자생력
- 예술 단체의 운영 현실과 전통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독립적 생태계 조성 필요

■ 전통 예술과 대중화
- 전통예술을 대중에게 친숙하게 만들기 위한 접근법과 창작·전통 간 균형 조정 문제

■ 정부 지원과 정책
- 전통예술 지원 체계의 한계점과 실질적인 정책 개선 및 지원 방안 모색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전통예술 지원체계의 변화와 창작자 환경

1) 전통예술 지원 체계의 문제점과 분리 필요성

■ 창작과 전통예술의 지원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

■ 현재 지원사업이 창작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전통예술 기반이 약화됨

■ 국악 분야에서도 창작 음악과 전통 음악이 동일한 지원 트랙에서 경쟁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 발생

"지원 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창작하고 전통을 같이 두면 창작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창작과 전통을 분리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지금처럼 한 트랙에서 경쟁하면 전통은 설 자리가 줄어들어요. 창작은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하는 흐름인데, 전통은 보존과 계승이 중요한데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으니까 어려운 겁니다" (TA015)

"창작 중심 지원이 운영되면서 전통예술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요. 원래 전통을 하던 사람들도 창작으로 가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억지로 창작을 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전통예술이 본래 가치를 유지하려면 창작과는 별개 기준과 지원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전통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게 될 거예요" (TA015)

"국악에서도 창작 음악이랑 전통 음악이 같은 지원 트랙에서 경쟁해야 하는데, 이게 맞는 구조인가 싶어요. 전통은 연마와 계승이 중요한데, 창작은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잖아요. 같은 기준에서 평가하면 전통 쪽이 불리해요. 창작과 전통이 각자의 방식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합니다" (TA015)

2) 전통예술 창작자 양성 환경의 변화

■ 전통예술을 전공한 학생들이 창작으로 방향을 틀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어려운 현실

■ 창작 중심 지원 정책으로 인해 판소리, 산조 등 전통 기량을 연마하는 환경이 약화됨

■ 전통예술 전공자들이 창작에 몰두하면서 정통성을 유지할 기반이 부족해지는 문제 발생

"전통예술 전공한 학생들이 졸업하고 전통만 고집하면 먹고살기 힘들어요. 지원도 창작 쪽에 집중되니까 결국 창작을 해야만 활동할 수 있는 구조가 됐어요. 원래 전통 판소리나 산조를 하던 친구들도 창작 판소리 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활동할 수 있는 지원책이 부족한 게 문제예요" (TA015)

"창작 중심으로 지원이 운영되면서 전통 기량을 연마하는 환경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예전에는 판소리 다섯 바탕을 온전히 배울 기회가 많았는데, 요즘은 창작 요소가 결합되지 않으면 공연도 기회도 없어요. 결국 전통을 깊이 연구할 시간이 줄어들고, 창작할 줄 알아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TA015)

"전통예술 전공자들이 창작에 몰두하면서 정통성을 유지할 기반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창작도 중요하지만, 정통 판소리나 산조를 그대로 계승하고 연마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부족합니다. 예술 지원이 창작 위주로 흐르면서 정통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TA015)

3) 전통예술 공연 및 제작 방식의 변화

■ 창극, 국악 공연에서도 해외 원작 활용 및 창작 요소 결합 증가

■ 창극에서 판소리적 요소를 유지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

■ 전통예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기준 설정 필요

"요즘 창극이나 국악 공연에서도 해외 원작을 활용하거나 창작 요소를 많이 결합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요. 리어왕이나 패왕별희 같은 외국 작품을 창극으로 재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런 작품들이 대중적으로 성공하면서 창극의 방향성이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 판소리 어법을 유지하는 창극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TA015)

"창극에서 판소리적인 요소를 유지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창극 자체가 원래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 장르인데, 요즘은 서양 연극 방식이나 뮤지컬 요소가 많이 들어오면서 판소리 특유의 소리 구성이나 음악적 구조가 변형되고 있어요. 창극이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판소리 본연의 방식이 사라지는 건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TA015)

"전통예술이 변화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어디까지를 전통으로 보고 어디까지 현대적 요소를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해요. 단순히 창작적인 요소를 더하는 게 아니라, 전통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조화롭게 담아낼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전통은 점점 희미해지고 창작만 남게 될 거예요" (TA015)

나. 생태계 이슈

전통예술의 지속 가능성과 제도적 한계

1) 전통예술인들의 생계 기반 문제

■ 전통예술 창작자들의 생계가 어려운 현실로 인해 예술계를 떠나는 사례 증가
■ 국립단체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창작 활동이 어려운 구조
■ 젊은 예술가들에게 전통예술이 안정적인 직업이 되지 못하는 문제

"전통예술을 전공한 사람들도 결국 생계를 고민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국립단체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워요. 개인적으로 공연을 올리려 해도 대관비부터 인건비까지 감당하기 힘들고, 지원을 받으려 해도 창작 중심이라 전통예술가들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TA015)
"젊은 예술가들 입장에서 전통예술을 전공한다고 해서 안정적인 직업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국악과나 전통예술 관련 학과를 졸업해도 선택지는 극히 제한적이고, 결국 다른 직업을 찾거나 창작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구조에서는 전통예술을 이어가고 싶어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TA015)
"국립단체에서 활동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조 자체가 한정적이다 보니, 국립단체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전통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민간에서 전통예술가들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TA015)

2) 전통예술 공연 시장의 축소

■ 국립단체의 공연이 지방에서 증가하면서 민간 단체의 공연 기회가 감소
■ 국립예술단체들의 활동 확대로 인해 전통예술계의 다양성이 축소될 위험
■ 민간 예술가들이 공연할 기회와 공간 부족

"국립단체의 공연이 지방에서 점점 더 많아지면서, 민간 단체들이 공연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어요. 원래 지역에서는 민간 예술가들이 소규모 공연을 열면서 활동을 이어갔는데, 국립단체 공연이 많아지면서 관객들도 국립 공연만 찾게 되고, 예산 지원도 국립 위주로 돌아가니까 민간 단체는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TA015)
"국립예술단체들이 활동을 확장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전통예술계 전체의 다양성이 줄어들 위험도 있어요. 원래 민간 단체에서 실험적인 공연이나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었는데, 국립단체가 주도하는 공연이 많아지면서 창작의 방향성이 획일화되고 있어요. 전통예술이 풍성해지려면 국립과 민간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지금은 국립이 너무 중심이 되는 느낌입니다" (TA015)
"공연할 기회뿐만 아니라 공간 문제도 커요. 국립 공연들이 많아지면서 민간 예술가들이 공연할 극장을 구하기 어려워지고, 지원도 국립에 집중되다 보니 민간 단체는 점점 위축되는 구조예요. 국립이 전통예술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민간 단체들의 공연 기회까지 잠식하는 상황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TA015)

3) 전통예술 전공자들의 진로 불확실성

■ 전통예술을 전공한 학생들이 졸업 후 갈 수 있는 길이 제한적
■ 국악, 창극, 판소리 전공자들이 국립단체나 교육직 외에는 마땅한 진로를 찾기 어려운 상황
■ 창작을 하지 않으면 생계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전통예술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이 강해짐

"전통예술을 전공한 학생들이 졸업 후 갈 수 있는 길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국립단체에 들어가거나 교육직으로 가는 게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인데, 정원이 한정적이라 대부분은 자리조차 얻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결국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데, 전공을 살릴 방법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TA015)
"국악이나 창극, 판소리를 전공한 사람들도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지만, 국립단체 외에는 마땅한 진로가 없어요. 프리랜서로 활동하기에는 공연 기회도 적고 지원도 창작 중심으로 흐르니까, 결국 창작을 하지 않으면 설 자리를 찾기 어려운 현실이에요. 전통을 지키고 싶어도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TA015)
"요즘 전통예술 전공자들도 창작 쪽으로 방향을 바꾸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요. 생계를 유지하려면 전통만 가지고는 어렵고, 창작을 해야 공연 기회도 얻고 지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전통예술을 정통 방식으로 연마하는 환경이 점점 사라지고, 결국 전통이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TA015)

4) 예술 지원 정책의 구조적 문제

■ 지원금이 창작 위주로 집중되면서 전통예술의 연구·보존·공연 기회가 줄어듦
■ 전통예술 지원이 문화재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일반 예술가들에게는 혜택이 적음
■ 전통 장르를 위한 별도의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현재 지원금이 창작 위주로 집중되면서 전통예술의 연구나 보존 활동을 위한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전통 판소리나 산조 같은 분야는 꾸준히 연마하고 연구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창작과 달리 가시적인 결과물이 빠르게 나오지 않다 보니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TA015)
"전통예술 지원이 문화재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반 예술가들이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요. 국가 지정 문화재 이수자나 보유자가 아니면 지원을 받기 힘든 구조라서, 전통예술을 해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분야나 젊은 예술가들은 지원받을 길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창작으로 방향을 틀지 않으면 활동을 이어가기가 힘들어요" (TA015)
"전통 장르를 위한 별도의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창작 지원과 별도로, 전통예술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사람들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지금은 전통예술 자체가 창작의 일부로 묶이면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TA015)

5) 저작권과 창작물 활용의 문제

■ 창작된 전통예술 공연의 저작권이 불분명하여 활용에 제약 발생
■ 국립극장, 국립창극단 등에서 제작한 창작물의 사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 전통예술 창작자들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창작물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음

"창작된 전통예술 공연의 저작권이 불분명해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예를 들어 국립기관에서 만든 작품이라도 개별 창작자들의 기여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저작권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이후 공연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통예술 창작물들이 일회성으로 끝나고 사라지게 돼요" (TA015)
"국립극장이나 국립창극단에서 제작한 창작물의 사용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공식적으로는 국립기관이 제작했지만, 작창가나 연출가, 작곡가의 창작이 포함된 작품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작품을 다른 단체에서 활용하려고 하면 사용권이 불분명해서 결국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A015)
"전통예술 창작자들이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판소리나 창극처럼 구전과 공연을 기반으로 하는 장르는 기존 음악과 창작 요소가 섞여 있어서 법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창작물이 나와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고,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TA015)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전통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책 마련

1) 전통예술 창작자 지원 체계 개선

■ 창작 중심이 아닌 전통예술 보존 및 발전을 위한 별도의 지원 트랙 마련 필요
■ 창작자 지원금이 아닌 전통 기량을 연마할 수 있도록 연주·연습 지원 정책 확대
■ 전통예술 기량을 유지하면서 창작하는 방식에 대한 정책적 기준 마련

"현재 지원이 창작 중심으로 흘러가면서 전통예술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별도의 지원 트랙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창작은 새로움을 요구하지만, 전통예술은 기량을 연마하고 계승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면 전통예술가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창작과 전통을 구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TA015)
"창작자 지원금보다 전통 기량을 연마할 수 있도록 연주와 연습을 위한 지원이 확대돼야 해요. 지금은 창작이 아니면 공연 기회를 얻기도 어렵고, 지원금을 받기도 힘든 구조라서 전통을 깊이 있게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요. 전통 판소리나 산조 같은 기량 중심의 예술을 지속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TA015)
"전통예술 기량을 유지하면서도 창작을 병행하는 방식에 대한 정책적 기준이 필요해요. 단순히 창작과 전통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전통을 기반으로 창작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통예술이 단순히 창작의 일부로만 소비되고, 결국 정통성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TA015)

2) 전통예술 공연 기회의 확대

■ 국립단체와 민간 예술단체 간 공연 기회를 조정하여 민간 공연 활성화
■ 지역 문화재단과 연계한 전통예술 공연 지원 사업 확대
■ 전통예술 공연을 위한 전용 극장 및 상설 공연 공간 확보

"국립단체와 민간 예술단체 간 공연 기회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국립단체가 지방 공연을 확대하면서 민간 단체의 무대가 줄어드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립이 해야 할 역할이 있지만, 민간 단체들도 공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야 해요. 그래야 전통예술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TA015)
"지역 문화재단과 연계해서 전통예술 공연 지원을 확대해야 해요. 현재 국립기관 위주의 지원이 많다 보니 지역에서 활동하는 전통예술가들이 설 자리를 찾기 어려워요. 지역 문화재단이 중심이 되어 지역 기반 전통예술 공연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전통예술 공연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TA015)
"전통예술 공연을 위한 전용 극장과 상설 공연 공간이 절실합니다. 현재 전통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전용 무대가 부족해서, 국악이나 창극 공연이 대관 일정에 따라 밀려나는 경우가 많아요. 전통예술 전용 공연장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공연을 올릴 수 있고, 장기적인 관객층을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TA015)

3) 전통예술 교육과 창작자의 진로 지원

■ 국악·창극·판소리 전공자들이 졸업 후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장기적 연수 및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

■ 전통예술 교육과정을 개선하여 창작과 보존이 균형을 이루도록 유도

"국악, 창극, 판소리 전공자들이 졸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해요. 현재는 국립단체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무대에 설 기회가 많지 않고, 창작을 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전통예술을 전공한 이들이 전통 기량을 유지하면서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TA015)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장기적인 연수 및 멘토링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전통예술을 전공한 젊은 예술가들이 실전 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하고, 배운 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한 창작 지원이 아니라 전통을 기반으로 한 연수, 교육, 공연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TA015)

"전통예술 교육 과정이 창작과 보존을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해요. 지금은 창작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면서 전통 기량을 깊이 있게 연마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전통을 기반으로 한 창작이 가능하려면, 먼저 전통을 충분히 익히고 연마할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과정에서부터 이런 부분이 반영돼야 해요" (TA015)

[대상자16] 유통 분야

1. 일시

■ 2024년 9월 20일(금), 10:00 ~ 12:00

2. 장소

■ 대학로 예술극장 1층 회의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3)

3. 참석자 명단

[표 2-16] 참석자 명단 [대상자16] 유통 분야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2)	공공	TA-A			
	공공	TA-B			
참석자(n=1)	유통	TA016	남	50대	28년

4. 주요 논의 사항

■ 전통 예술 창작과 보존
- 전통을 유지하면서 창작을 활성화하는 방법과 현대적 해석을 통한 새로운 접근 방식

■ 전통 예술의 교육 체계
- 국악 및 전통 예술 교육의 방향성, 창작자의 생계 문제와 전문성 강화 필요

■ 예술 생태계와 자생력
- 예술 단체의 운영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 주도 활성화 방안

■ 전통 예술과 대중화
- 전통 예술의 대중적 확산을 위한 전략과 공연 시장에서의 자리 잡기

■ 정부 지원과 정책
- 전통 예술 지원 정책의 한계와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전통 예술의 창작, 시장 구조 및 대중성의 한계

1) 전통 예술과 창작의 경계

■ 전통 예술이 창작과 결합되며 개별 장르의 고유성 약화됨. 장르별 특성 강화 필요
■ 보존 중심 교육으로 창작 중심 교육이 부족, 실험적 창작환경 조성 필요
■ 전통예술의 실무 경험 부족, 현장 연계 교육 강화 필요

"전통 음악을 우리가 너무 하나로 뭉뚱그려서 보고 있구나. 전통 음악도 장르가 많은데 예를 들면 판소리 한다고 그러면 록도 하고 R&B도 하고 다 할 줄 아는구나라고 이제 착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 전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한복도 필요하고, 갓도 필요하고, 이게 다 있어야 되는구나를 어느 한순간에 쫙 느끼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TA016)
"교육 시장하고 전통의 계승이 너무 심각하게 믹스되어 있어요. 이 안에서 여러 충돌이 생기고 있는데 [...]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걸 가르치면서, 결국 깊이 있는 경험을 쌓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상향 평준화는 됐지만, 개별 전통 장르에서 전문성을 갖춘 연주자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에요." (TA016)
"초중고 교육과 대학 교육이 전통 음악 실연자에게 필요한 실무 경험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창작이든 공연이든 현장에서 배우는 게 중요한데, 그런 기회가 부족해요. 국악을 전공해도 시장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할지 감이 없고, 결국 공연 기획부터 무대 운영까지 실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요." (TA016)

2) 전통 음악 시장의 구조적 한계 관련

■ 유료 공연 정착이 어려워 경제적 가치가 낮아지고 있으며, 관객 인식 개선 필요
■ 지원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체 수익 모델 부족
■ 관객 확보가 어려워 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효과적인 마케팅과 접근 전략 필요함

"전통 음악 공연은 굳이 돈 내고 안 봐도 되는 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무료여도 안 봐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검색어나 유튜브 조회수나 이런 것도 형편없어요. 관심이 밖에 나버렸어요. 특별한 지위를 얻은 건 맞는데, 관심을 받지 못하는 특별한 지위가 돼버려서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TA016)
"지금의 공연 시장 구조를 보면, 전통 예술 분야는 대부분 공공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생적인 공연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지원 사업이 없으면 공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많아요. 지원 없이도 지속 가능한 시장이 형성되려면 유료 공연 문화가 정착돼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TA016)
"유료 공연을 정착시키려면 관객이 전통 음악을 소비할 이유를 만들어야 해요. 근데 지금은 그걸 위한 마케팅이나 접근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관객을 확보하려면 공연 기획부터 홍보 방식까지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데, 전통 음악계에서는 그런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TA016)

3) 전통과 대중성의 접점 부족

■ 전통 음악이 특정 행사에 집중되며, 일상에서 접할 기회가 적어 대중 확산이 어려운 상황

■ 재즈처럼 음악이 지속적으로 연주될 수 있는 장소와 환경이 부족한 실정

■ 거리 공연, 공공장소 배경음악 등 전통 음악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전주 한옥마을에서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다니고, 음식도 한식을 먹는데 정작 한국 음악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일상 속에서 전통 음악을 접할 기회가 너무 부족해요. 뉴올리언스 같은 곳은 어디를 가든 재즈가 흐르는데, 우리는 전통 음악을 그런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TA016)

"전통 음악이 공연장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해요. 거리에서도 들리고, 카페에서도 연주가 되고, 사람들이 의식하지 않아도 전통 음악이 흐르는 환경이 필요해요. 그래야 대중들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TA016)

"공공장소에서 전통 음악이 틀어지기는 하지만, 그냥 배경음악처럼 존재할 뿐 실제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만들지는 못하고 있어요. 단순히 틀어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통 음악을 배치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TA016)

나. 생태계 이슈

전통 음악의 정체성 확립, 대중화, 산업화 필요

1) 전통 음악의 개별 정체성 약화

■ 다양한 장르를 함께 교육하며 고유한 음악적 특성이 흐려지고, 개별 장르의 정체성이 약화됨
■ 교육 과정이 폭넓은 개론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특정 장르에서 깊이 있는 연주자가 부족함
■ 사물놀이의 확산으로 지역별 농악의 차별성이 줄어들며, 다양성이 사라지고 있음

"초중고 교육과 대학 교육을 보면, 정악도 배우고 민속악도 배우고, 창작 음악까지 해야 하고, 심지어 컴퓨터 음악도 알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어요. 결국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수준만 가르치게 되고, 특정 장르에서 깊이 있는 연주자가 나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TA016)
"사물놀이가 등장한 이후에 지역 농악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지역마다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사물놀이가 표준처럼 자리 잡으면서 그 개성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다양성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전통 음악의 깊이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TA016)

2) 국악의 명칭 문제 관련

■ '국악'이라는 명칭이 현대 음악 시장에서 차별적 요소로 작용하며, 대중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원인
■ '국악'이라는 구분 없이 하나의 음악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용어와 개념에 대한 전환 필요

"국악이라는 말 자체가 대중들에게 장벽처럼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국악'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것, 어렵고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국악도 음악인데, 꼭 그렇게 특별한 범주로 묶여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TA016)
"우리는 국악을 하나의 독립된 장르처럼 여기지만, 해외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한국 음악의 일부로 받아들여요. 오히려 우리 스스로 전통 음악을 특정한 틀 안에 가두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국악'이라는 명칭보다는 자연스럽게 음악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해요." (TA016)

3) 전통 음악 시장의 상업화 부족

■ 음원, 굿즈, 공연 기획 등 전통 음악의 상업적 활용이 부족하며,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 필요
■ 기존 음악 시장과 차별화된 유통 전략이 부족한 상황
■ 전통 음악을 산업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미흡하며, 체계적인 시장 접근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

"전통 음악이 시장에서 소비되는 방식이 너무 제한적이에요. 음원도 제대로 유통되지 않고, 공연도 대부분 지원 사업에 의존하고 있어요. 일반 대중이 전통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업화도 어려운 거죠." (TA016)
"다른 음악 장르는 음원, 굿즈, 브랜드 협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장을 확장하고 있는데, 전통 음악은 여전히 공연 중심이에요.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유통 전략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TA016)
"전통 음악을 산업적으로 성장시키려면 체계적인 논의와 접근 방식이 필요해요. 지금은 단기적인 지원 사업 중심이라 지속 가능한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장기적인 시장 전략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TA016)

4) 공연 기획자, 제작자 부족

■ 공연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할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
■ 공연 제작을 위한 조직 및 시스템 부족
■ 공연의 지속성을 위해 민간 주도 기획 활성화 필요

"전통 예술 분야에서 공연 기획을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이 정말 부족해요. 대부분 연주자들이 직접 기획까지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체계적인 공연 기획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예요. 결국 공연이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지속성을 갖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TA016)
"공연을 제작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어요. 전통 음악 공연을 기획하고 홍보하며, 유통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TA016)
"민간 주도의 기획이 활성화되어야 해요. 지금은 대부분 공공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라서 자생적인 공연 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워요. 기획자와 제작자가 제대로 자리 잡고 움직일 수 있어야 전통 음악 공연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TA016)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유료화, 창작 및 기획 활성화 필요

1) 유료 관람 문화 정착 필요

■ 접근성이 높은 소규모 공연 확대하여 관객의 부담을 줄이고, 유료 관람 문화 정착 필요

■ 관객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예술적 가치를 전달하는 공연 기획 필요

"전통 음악 공연이 대부분 무료로 제공되다 보니, 사람들이 돈을 내고 봐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해요. 대규모 공연보다는 접근성이 높은 소규모 공연을 늘려서 관객이 자연스럽게 유료 공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해요." (TA016)
"공연이 단순히 전통 음악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관객이 예술적 가치를 느끼고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해요. 유료 공연이 정착되려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공연의 질과 경험 자체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TA016)

2) 전통 음악의 창작 및 콘텐츠 활성화

■ 예술가들이 전통을 바탕으로 창작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하고, 실험적 시도 장려 필요

■ 전통 음악과 현대 음악 시장의 접점 확대, 다양한 융합 콘텐츠 개발 필요

■ 공연 외에도 영상, 디지털 콘텐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접근 방식 확대 필요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창작을 지속하려면 단순한 보존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요. 하지만 지금은 실험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지원이 부족해서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TA016)
"전통 음악이 현대 음악 시장과 연결될 수 있는 접점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해요. 단순한 협업이 아니라, 장르적으로도 융합이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전통 음악이 자연스럽게 대중과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TA016)
"공연만으로 전통 음악을 소비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유튜브, 스트리밍 플랫폼, SNS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 전통 음악이 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접근 방식을 확대해야 합니다." (TA016)

3) 기획자 및 페스티벌 네트워크 구축

■ 공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문 기획자 및 프로듀서 육성 필요

■ 작은 규모의 지역 기반 페스티벌 활성화하여 접근성 확대 및 소비 촉진 필요

■ 공연 기획자 - 아티스트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하여 공연 유통 환경 조성

"전통 음악 공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기획자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현재 전통 예술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획자나 프로듀서가 너무 부족해서 공연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TA016)
"대형 공연이나 축제보다는 접근성이 높은 작은 규모의 지역 기반 페스티벌이 활성화되어야 해요.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전통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요." (TA016)
"공연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기획자와 아티스트 간의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해요. 기획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공연 유통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구조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TA016)

[대상자17] 유통 분야

1. 일시

■ 2024년 10월 7일(수), 14:00 ~ 16:00

2. 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3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3)

3. 참석자 명단

[표 2-17] 참석자 명단 [대상자17] 유통 분야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2)	공공	TA-A			
	공공	TA-B			
참석자(n=1)	유통	TA017	남	50대	20년

4. 주요 논의 사항

■ 전통 예술 창작과 보존
- 전통과 창작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문제와 전통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는 접근법

■ 전통 예술의 교육 체계
- 국악과 전통 예술 교육의 문제점과 예술가의 경로, 창작자의 생계 문제

■ 예술 생태계와 자생력
- 예술 단체 운영과 자립적인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

■ 전통 예술과 대중화
- 전통 예술의 대중화와 저변 확대, 전통과 창작의 경계 문제

■ 정부 지원과 정책
- 전통 예술 분야의 정부 지원 한계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개선 필요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전통예술 창작과 공연은 진입 경로가 다양하며,
재정 문제 지원 체계 개선 등이 필요한 상황

1) 전통예술 창작자의 진입 과정

■ 전통예술 창작자의 진입 경로는 공식 교육과 개인적 경험이 혼재되어 있음
■ 사사 문화가 강하게 작용하며, 특정 스승과의 관계가 진입 경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공식 교육 외에도 우연한 계기를 통한 창작자 유입 사례가 많아 맞춤형 지원이 필요

"저는 원래 집안에서 국악을 하시는 분이 계셨지만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판소리도 계셨고 옛날에 OOO 선생님도 당숙 할머님이셨고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대금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금에 관심이 생겼다기보다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인데, 다들 그렇습니다. [...] 원래는 저는 산을 좋아해서 지리산 연하천 산장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서울로 오게 되었고, 서영석 선생님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전화를 드리면서 시작됐죠." (TA017)
"처음에는 그냥 대금을 불기 시작했는데, 선생님이 대학을 가보라고 해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OO예술대학교로 가게 됐죠. [...] 원래는 전통예술을 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길이 열렸던 것 같아요." (TA017)
"전통예술에서는 스승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대금을 시작할 때 OOO선생님을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길이 열렸어요. 처음에는 그저 흥미로 시작했지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신 덕분에 계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TA017)

2) 창작과 연주의 균형 관련

■ 창작과 연주를 병행하지만, 생계를 위해 창작 혹은 연주 한가지에 집중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연주자에서 기획자·연출자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다방면의 역량이 요구되고 있음
■ 창작과 연주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며,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이 필요

"연출을 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일을 하고, 글을 쓰고 있어요. 보통 지원 사업이 없으면 앞으로 나가기가 힘들잖아요. 지금까지의 활동을 보면 예산이 있어야 뭔가 만들어지고, 그러려면 그 예산을 따기 위해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하죠. 그러니까 공연을 만들기 위해 기획과 연출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TA017)
"창작과 연주를 같이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아요. 연주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우니까 기획이나 연출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원래 대금 연주를 했지만 지금은 연출과 프로그램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공연을 만들고 유지하려면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하는 거죠." (TA017)
"공연을 많이 한다고 해서 티켓 수익만으로 운영이 가능한 건 아니에요. 전통예술 생태계에서는 정부 기관의 지원이 없으면 유지하기 어렵죠. 그래서 연주자들도 기획이나 연출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TA017)

3) 공연 시장 내 전통예술의 경쟁력

■ 전통예술 공연의 관객측이 제한적이며, 극장 대관 및 홍보 비용 부담이 큼

■ 공연단체들은 자체 홍보와 운영이 어려워 공모사험과 초청공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지속되며, 안정적인 공연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

"전통예술 공연의 관객층이 너무 한정적이에요. 극장 대관 비용도 크고, 홍보까지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자체적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 공연을 지속하려면 공모사업이나 초청공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TA017)

"티켓 판매로 수익을 내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특히 '국악'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더 어려워요. 지방 문예회관에서도 국악 공연은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우수공연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되어도, 국악팀들이 실제로 공연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공연을 만들어도 무대에 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TA017)

"공연을 하려면 홍보도 해야 하고, 극장 대관도 해야 하지만, 전통예술 공연 단체들은 자체 홍보가 쉽지 않아요. 안정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으려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공모사업이 없으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구조예요." (TA017)

나. 생태계 이슈

전통예술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공공지원 확대, 공연 인프라 개선, 해외 진출 전략 등 필요

1) 공공지원의 필요성과 한계

■ 전통예술 단체는 공공지원 없이 독자적 운영이 어렵고, 안정적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

■ 공공지원이 창작의 자율성을 제한하거나 형식적 지원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창작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전통예술 단체들은 공공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공연을 만들려면 제작비도 필요하고, 연주자들에게도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자체 수익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죠. 결국 공공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TA017)

"공공지원이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주제나 형식을 따라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창작의 폭이 좁아지기도 하죠. 또한,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형식적인 지원이 많아서, 창작자들에게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도 있어요." (TA017)

"지원이 있어야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지만, 그 지원이 단기적이거나 불규칙하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져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전통예술 생태계도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TA017)

2) 공연장 및 극장 운영 관련

■ 전통예술 공연에 적합한 극장이 부족하고, 음향·조명 등 필수 기술적 환경이 미비한 경우가 많음

■ 음향·조명 등 필수 요소의 부담이 크며, 중소 규모 공연장은 자체 음향 장비 사용이 필요해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전통예술 공연을 할 수 있는 적절한 극장이 많지 않아요. 특히 음향이나 조명 같은 필수적인 기술적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공연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많죠." (TA017)

"공연장마다 시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중소 규모 공연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음향 장비를 가져가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세팅하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운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TA017)

3) 국악과 전통예술의 개념 혼재 관련

■ 국악과 전통예술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어 정책 및 지원 대상 구분이 모호한 상황
■ 일부 창작자는 '국악'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있어, 장르 정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정확한 개념 정립을 통해 정책 및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국악과 전통예술이라는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 정책이나 지원 대상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까지가 전통이고, 어디까지가 창작인지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죠." (TA017)
"일부 창작자들은 '국악'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국악이라고 하면 특정한 이미지로 고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창작의 폭을 넓히기 위해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하죠." (TA017)
"정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해요. 정책이나 지원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어떤 창작자나 단체가 대상이 되는지 애매해지고, 지원 체계 자체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요." (TA017)

4) 해외 진출의 기회와 한계

■ 전통예술 단체의 해외 공연이 증가했으나, 초청 비용을 국내 지원에 의존하는 한계가 있음
■ 해외 진출 시 관객의 반응은 긍정적이나,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어려워 장기 지원이 필요한 상황

"해외 공연 기회는 늘어나고 있지만, 초청을 받더라도 항공료나 체류비 같은 기본 비용을 국내 지원사업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초청국에서 전액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사례가 줄어들고 있어요." (TA017)
"해외에서의 반응은 굉장히 좋아요. 특히 유럽에서는 전통예술을 클래식처럼 진지하게 감상하는 분위기예요. 공연을 하면 기립박수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문제는 이걸 지속적으로 이어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어렵다는 점이에요." (TA017)

5) 지원사업의 신청 및 정산 절차 관련

■ 지원사업 신청과 정산 절차가 복잡해 공연단체의 행정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상황
■ 기획사 대행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공연을 준비하는 것도 바쁜데, 행정 절차까지 직접 챙기려면 창작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정산 절차도 까다로워서, 경험이 없는 단체들은 실수하기 쉽죠." (TA017)
"기획사 대행을 맡기면 편하긴 하지만, 수수료가 높아서 부담이 커요. 많게는 30%까지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서, 결국 공연단체 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반복돼요." (TA017)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맞춤형 지원, 해외 진출 전략 마련, 행정 절차 개선 등 필요

1) 전통예술 지원 체계의 다층적 설계 필요

■ 창작자와 단체의 경력 단계(신생 - 중견 - 장기 활동 단체)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업 필요

■ 단순 공연 지원에서 나아가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을 위한 단계별 지원사업 마련 필요

"전통예술 단체들도 경력과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신생 단체와 오래된 단체가 필요한 지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일괄적인 지원이 많아서 각 단체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TA017)
"단순히 한 번의 공연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공연이 끝나고 나면 다시 처음부터 공모를 준비해야 하는 방식은 장기적인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구조예요." (TA017)

2) 해외 진출을 위한 전략적 지원 확대

■ 해외 공연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단순 초청 공연 지원이 아닌, 장기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전략적 접근 필요

"해외 공연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원이 필요해요. 초청 공연이 있어도 다음 기회를 연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TA017)
"단순히 항공료나 체류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지속적인 교류 프로그램이나 현지 기획사와 협력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면 더 효과적일 거예요." (TA017)

3)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지원의 실효성 강화

■ 지원사업 신청·정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연 단체가 창작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음

■ 기획사 대행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내부 연락 강화 지원 필요

"지원사업 신청부터 정산까지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공연을 준비하면서 행정 업무까지 신경 쓰려면 창작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절차가 간소화되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TA017)
"정산 과정이 까다로워서 경험이 없는 단체들은 실수하기 쉽고, 결국 기획사 대행을 맡기게 돼요. 하지만 수수료 부담이 커서 오히려 운영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아요." (TA017)
"단체가 자체적으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해요. 내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나 시스템이 마련되면 기획사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TA017)

[대상자18] 유통 분야

1. 일시

■ 2024년 10월 15일(화), 11:00 ~ 13:00

2. 장소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 1층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31)

3. 참석자 명단

[표 2-18] 참석자 명단 [대상자18] 유통 분야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2)	공공	TA-A			
	공공	TA-B			
참석자(n=1)	유통	TA018	여	40대	15년

4. 주요 논의 사항

■ 전통 예술 창작과 보존
- 전통성과 창작의 조화 및 현대적 해석 방식

■ 전통 예술의 교육 체계
- 교육 시스템의 한계
- 예술가의 성장 경로 및 생계 문제

■ 예술 생태계와 자생력
- 예술 단체 운영 방식 및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 방안

■ 전통 예술과 대중화
- 대중적 접근 확대 및 전통과 창작의 경계 설정

■ 정부의 지원과 정책
- 지원 체계의 한계 및 정책 개선 방향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지역 전통예술 축제와 지역 기반 창작자의 현 상황

1) 전통예술 지원 체계와 축제 운영 구조

■ 전통 예술 지원은 공공기관과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며, 예산은 국비·시/도비·후원금으로 구성됨

■ 주요 축제 운영은 조직위원회·집행위원회 중심이나, 민간과 공공 간 운영 방식의 긴장 존재

■ 민간 자율성과 공공 개입의 균형이 필요하며,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개선이 요구됨

"저희가 현재 한 26억 정도 지원금을 받고 그 안에 균특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티켓 수입 한 1억 정도 그리고 협찬 수입 한 3억 정도 해서 자체 수입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OO지역하고도 잘 맞았죠. 그러면서 그분이 계실 때 OO지역이 굉장히 개입을 많이 못했어요." (TA018)

"조직위원장은 OO지역 지자체장이 선임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조직위원회도 이번에는 100% 이제 아 이번에는 OO지역하고 OOO조직위원장님이 굉장히 싸우면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OO지역 분들이 조금 많아요. OOO 조직위원장님은 이 축제가 OO지역에서도 오는 축제가 돼야 되는 거다. 지역민을 위한 축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지금은 OO지역과 이제 조직위원장님 사이가 굉장히 나빠요." (TA018)

2) 창작자들의 환경과 교육 배경

■ 전통 예술 창작자는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며, 공연 및 교육과 연계되고 있음

■ 일부 창작자는 문화 기관과 협력하지만, 안정적 지원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

■ 장기적 창작 활동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저는 저는 여기 OO지역 사람이고 제가 전공이 이제 고고미술사학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OO문화연구소라는 데에서 이제 간사로 하면서 지역 뭐 문화 발굴 뭐 OO지역의 향토사 이런 거 정리하고 답사 프로그램 만들고 문화유산 해설사들 이런 강의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일 하다가 [...] OO축제 넘어오면서 이제 제가 2009년부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15년째 일을 하고 있고 워낙 이제 지역 축제인데 이 축제가 전통을 중심으로 하는데 소리가 뭐냐라는 그런 뭐 정의 내리는 것부터 너무 여기가 시끄러웠어요." (TA018)

"그러면서 이제 또 OO축제가 표방하는 건 세계니까 또 OO지역은 무슨 일 있나. 뭔 무슨 일 있나 하면서 이렇게 일 때문에 쫓아다니다가 아 우리가 가진 거 우리 여기 지역 전통예술도 굉장히 내가 보니까 훌륭하고 OO지역 가서 이쁘게 포장하고 이쁘게 앉히는 걸 좀 배워야겠다 이러면서 그런 작업들을 이제 OO축제 안에서 지역 전통예술가들을 끌어안아서 뭘 하는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이러면서 전통예술 베이스에서 일을 하게 된 거죠." (TA018)

"여기 OO대 이쪽 OO지역은 그 OO대학교 문화인류학과가 기획자들이 거기서 많이 공부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를 많이 졸업을 해요. 그래서 기획자들이 또 글로 모이는 때들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고 OO축제 넘어오면서 [...] 근데 그러고 나서 해가 갈수록 와 여기는 내가 사는 이곳은 난 몰랐는데 굉장히 이게 풍부한 곳이구나." (TA018)

3) 전통예술과 현대 공연 예술의 융합

■ 전통 예술은 현대 공연 예술과 융합하며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업과 재해석이 증가하는 추세

■ 창작자들은 전통 형식을 새롭게 해석하고 확장하지만, 보수적 시각과 행정적 제한이 장애로 작용함

"특히 개막작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됐던 거죠. [...] OO연출이 이제 연출을 하고 OO감독님이 음악을 했는데 뭐 이걸로 지금 뭐 논문을 준비하는 분도 계실 정도로 굉장히 실험적이고 좀 상상하지 못했던 미장센을 만들고 메시지를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목이 OO이에요. 그러니까 농악 안에 잡색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 연출이 잡색이 뭐든지 될 수 있는 민중이다. 그래서 이 안에 뭐 시민들이 할로윈 코스튬을 하고 그리고 당산나무가 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하늘로 올려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이거는 세월호를 건지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OO지역에 풍물 관계자들이 진짜 많은 게시거든요. 당산나무가 왜 앙상한 배야. 잡색이 저거가 아니고. 우리 가락을 잘못 쳤고. 그러니까 축제 첫날부터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고 칭찬이란 칭찬은 다 받았는데 이 지역에서 원하는 건 그 그림이 아닌 것 같아요." (TA018)

나. 생태계 이슈

전통예술 축제와 창작은 자율성과 현대적 해석의 균형이 필요

1) 전통 예술 출제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지원 체계

■ 전통예술 축제의 예산과 운영은 지역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음

■ 조직위원회의 독립성 여부, 공공의 개입 강도 등이 축제 운영의 안정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저희는 OO지역의 업무 보고서. 업무 보고부터 다 들어가요. 직접. 저희 집행위원장님 들어가셔서 업무 보고 어떻게 올해는 어떻게 할 거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행정감사 있는데 이것도 다 직접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문의는 민간이지만 운영되는 거는 그냥 OO지역 산하기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약간 재단법인 문화재단이나 이런 것보다는 또 뒤처지는 거죠. 애매하니까. 민간이니까. 또 누가 챙기는 사람이 없고 저희 내부가 공무원들하고 싸울 수 잘 현명하게 잘 못 싸워요." (TA018)

"OO지역에서도 이 축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까 계속 개입을 하려는 거죠. 그런데 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뭐 허락을 받고 한 적은 없어요. 보고는 했죠. 이렇게 하고 공유는 하면 오케이를 해. 뭐 동의를 안 한 적이 없거든요. 축제 안전 좀 챙겨주세요. 뭐 이런 식이었지. 지금 요 근래 들어온 이 이제 OO작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OO연출이 텍스트가 진짜 중요한 게 보이는 게. 그래서 뭐 천지인 해서 모음도 세 개씩 쓰고 자음도 세 개씩 쓰다 보니까 딱 이렇게 이미지를 봤을 때 OOO같이 보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행정에서는 참을 수 없는 거였죠." (TA018)

2) 지역 기반 전통 예술인의 성장 기회 부족

■ 전통예술 장르 내 지역 기반 예술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

■ 일부 예술가들은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성장 기회를 확보하지만, 지원 시스템 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인 발전은 어려운 상황

"이게 지금 보면 OO문화의 전당이 이제 메인 축제 장소인 것 같고, 도의원들이 하니까 그냥 억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스팟을 저희가 발굴해서 하고 학교도 가고 병원도 가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지역 예술가들이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갈 기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은 부족해요." (TA018)

"OO축제 같은 경우에 실은 지역 아티스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예전보다 적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이전에는 저희가 지역 예술가들 성장시키고 해외 교류 프로그램도 만들고 협업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축제 운영 방향과 해외 연계 프로젝트가 많아지면서 지역 기반 예술가들에게까지 충분한 기회가 돌아가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TA018)

3) 공공 행정과 민간 기획자 간 의견 조율의 어려움

■ 공공기관과 민간 기획자 간 의견 차이가 축제 운영과 예술 기획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제시됨

"공무원들이 이 축제를 행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공연을 하고, 예술을 기획하고, 콘텐츠를 고민하는데 그분들은 숫자로 보잖아요. 관객 수, 경제 효과, 이런 것들만 보면서 왜 OO제나 OOOO축제처럼 쉽게 사람이 몰리는 방식으로 안 하냐고 해요. 하지만 공연예술은 그렇게 단순하게 흥행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는 거거든요." (TA018)

4) 전통 예술의 현대적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

■ 전통 예술의 현대적 재해석을 시도하는 기획이 종종 지역 사회의 반발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전통 형식의 변형 및 현대적 요소 가미에 대한 보수적 반응이 일부 있음

"전통예술의 현대적 재해석이 왜 이렇게 어렵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OO국악원이 다 전통적인 걸 하고 있잖아요. OO축제가 지금 OO지역에서 뭐 OO제일탈이나 좋은 예술가들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OO지역에서 공연하고 OO지역로 내려오고 싶어 하는 건 여기는 그게 통하는 곳이고 이해하는 곳이라는 그 이해 때문인데. 이 문화적 자산을 왜 당신들이 내팽개치냐. 뭐든 할 수 있는 예술가한테 자유를 줄 수 있는 OO축제가 되면 그거 돈과 칭찬받는 거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TA018)
"그런데 저는 좀 답답한 게, 여기가 전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현대적인 변형이나 새로운 시도를 하면 바로 거부감이 생겨요. OO지역에서 하면 창의적인 작업이라고 평가받는 것들이 여기서는 왜 전통을 망가뜨리냐는 비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행정적으로도 조율해야 하고, 지역사회와도 조율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예술가들에게 자유를 줘야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TA018)

5) 해외 교류 확대 관련

■ 전통 예술의 해외 교류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한 상황

■ 해외 공연 및 협업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재정 및 행정적 부담이 주요 문제로 작용함

"매년 해외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해서, 다음 11월에 저희 OOO팀장이 캐나다를 가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부터 같이 작업을 했던 OOOOOO는 이란 연주자가 있어요. 원래 한국에서 공연하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대면 공연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해외 협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해외 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금 받는 것도 쉽지 않고, 행정적으로도 절차가 많아요." (TA018)
"해외 공연을 추진하려면 교류 국가와의 지원 협의를 해야 하고, 항공료나 체재비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그게 다 개별적으로 진행되니까 부담이 커요. 그래서 가능한 해외 지원금을 확보해서 진행하는데, 행정적으로 복잡한 절차들이 많아서 속도가 늦어지기도 하고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있다면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TA018)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전통 예술 축제의 자율성 확보, 지역 기반 예술가 지원 확대, 현대적 해석에 대한 수용 필요

1) 축제 운영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 필요

■ 전통 예술 축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직위원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 보장 필요

■ 공공 기관의 과도한 개입을 줄이고, 예술 전문가 중심의 기획·운영 체계 구축 필요

"OO지역에서도 이 축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으니까 계속 개입을 하려는 거죠. [...] 그러니까 저희는 그 사이에서 행정 조율을 해야 하고, 예술가들이 원하는 방향과 행정이 원하는 방향을 조율해야 하는데,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축제가 발전하기 어려운 거죠." (TA018)

2) 지역 기반 예술가 대상 지원 확대

■ 지역 기반 예술가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장기 지원 프로그램 마련 필요

■ 지역 기반 창작 활동을 위한 재정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함

■ 해외 교류 기회 확대 필요

"OO축제 같은 경우에 실은 지역 아티스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예전보다 적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이전에는 저희가 지역 예술가들 성장시키고 해외 교류 프로그램도 만들고 협업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축제 운영 방향과 해외 연계 프로젝트가 많아지면서 지역 기반 예술가들에게까지 충분한 기회가 돌아가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TA018)

"전통예술 장르 내에서 지역 아티스트들이 성장하려면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저희도 예전에 3년 동안 70~80명의 지역 아티스트를 해외로 보내면서 성장을 지원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지속되려면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해요. 지금은 개별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하는데,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어서 지속적인 발전이 어렵습니다." (TA018)

3) 전통 예술의 현대적 해석과 다양성 수용 필요

■ 전통 예술의 현대적 재해석을 위해 정책적 지원 및 공공 인식 개선 필요

■ 공연 예술과 융합된 형태의 창작물이 적극 수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공연예술과 융합하는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반응이 극과 극이에요. 창의적인 작업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전통을 훼손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이런 논쟁이 생길 때마다 행정에서 개입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도를 보호하고 장려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TA018)

[대상자19] 유통 분야

1. 일시

■ 2024년 10월 15일(화), 15:00 ~ 17:00

2. 장소

■ 국립무형유산원 내 카페 '나빌레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3. 참석자 명단

[표 2-19] 참석자 명단 [대상자19] 유통 분야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2)	공공	TA-A			
	공공	TA-B			
참석자(n=1)	유통	TA019	여	40대	10년

4. 주요 논의 사항

■ 전통 예술 창작과 보존
- 전통의 보존과 창작적 해석의 균형 유지 문제 및 현대적 감각을 반영한 전통예술 공연 기획 방안

■ 전통 예술의 교육 체계
- 국악 및 전통예술 교육의 구조적 한계, 예술가의 경로 문제, 창작자의 생계 및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

■ 예술 생태계와 자생력
- 전통예술 단체의 운영 실태 및 자립형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요 조건

■ 전통 예술과 대중화
- 전통예술의 저변 확대 전략과 현대적 접근 방식, 전통과 창작의 경계 설정 문제

■ 정부 지원과 정책
- 전통예술 지원 정책의 한계 및 개선 방안,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 필요성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전통예술의 창작과 보존을 균형있게 유지,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기획 및 홍보 강화 필요

1) 창작 및 기획 환경

■ 무형유산 보유자·이수자 중심 공연 운영, 연출가와 협업을 통한 창작 진행
■ 전통예술의 현대적 해석 강화,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공연 기획 확대
■ 보전을 넘어 창작과 융합, 전토예술의 지속 가능성 확보

"저희 공연은 일단 보유자라든지 이수자들이 어쨌든 저희 기관에서 본인들의 예술적 역량을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공연을 많이 기획을 하고 있죠. 이수자전 같은 거는 저희 대표 프로그램인 거죠. [...] 이분들은 오셔서 국가무형유산 어떤 한 종목의 이수자로서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예술적 기량을 맘껏 대중들에게 좀 알려줘라 하는 이수자전 같은 어떤 그런 공연들이 있고" (TA019)
"사람들이 무형유산 공연하면 너무 재미없어 하니까 무형유산을 기반으로 이 시대와 소통하고 있는 컨템퍼러리 공연인데 무형유산의 너나들이라고 해서 이날치도 왔다 갔고 저희만의 콜라보 무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희를 가지고 EDM 음악적인 장르와 현대무용 장르인데 그 중심에 남사당놀이와 탈이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TA019)
"저희는 전통도 되게 한정된 계층 안에 소비되고 있는 건데 그 안에서 무형유산이 더 그들끼리의 리그여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쪽 무형유산에도 약간 예술적인 경영 마인드 비즈니스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문화예술경영학 박사 수료까지는 지금 한 상태예요." (TA019)

2) 공연 기획과 지원 구조

■ 연초에 공연 기획이 수립되며, 연출가를 선발해 창작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기획과 연출이 분리되지 않으면 전문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 체계적인 구조 마련 필요

"저희가 그래도 연초에는 연말부터 연초에 그 해 라인업을 다 정하기는 아주 대략적으로 인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 내년에 뭔가 우리가 포인트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이제 그 전통적인 저희가 이제 레퍼토리화된 공연들이 있죠. 이수자전, 명인오마주, 예능의 품격, 무형유산 너나들이, K-무형유산 페스티벌, 인류무형유산 초청 공연. 이렇게 이제 큰 레퍼토리화된 브랜드화된 공연들이 있으니까 그 안에 콘텐츠를 뭘로 가져갈 거냐는 계속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TA019)
"창작자가 기획과 연출을 다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획을 전담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연출을 맡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공연이 훨씬 더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거든요. [...] 연출가가 본인이 구상한 그림을 공연으로 만들려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역할을 나누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게 중요하죠." (TA019)

3) 공연 관객층 현황

■ 공연별 관객층이 상이하며, 컨템포러리 공연은 젊은층, 전통 공연은 중·장년층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전통예술의 저변 확대를 위해 효과적인 홍보전략이 필수적인 상황

"OOOO는 젊은 관객층이 많고요. 그리고 그냥 저희 상설 공연이나 이수자전 이런 거는 저희가 만족도 조사하고 설문조사 하긴 하는데 40~50대가 좀 많죠. 60대도 많고요. 그리고 약간 이런 페스티벌형 공연은 가족 단위로 많이 와 가지고요. 가족 단위 관객층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TA019)

"공연이 무료인데도 홍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OOOO기관이 10년 됐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고, 홍보팀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서 관객 유치가 쉽지 않아요. [...] 단순히 보도자료만 내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미디어랑 협업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알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전통예술이 대중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죠." (TA019)

나. 생태계 이슈

창작, 유통, 공연환경 개선 및 기관별 차별화된 역할 정립 필요

1) 공연 창작자와 전통 예술인의 역할 분리 관련

■ 창작자자 기획과 연출을 겸하며, 전문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연출가와 기획자의 역할을 분리하여 체계적인 창작 환경 조성 필요

"예술가가 직접 기획하고 연출까지 다 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요. 연출은 공연 전체적인 흐름과 무대 연출을 고려해야 하고, 기획자는 예산, 지원, 홍보까지 챙겨야 하는데, 이걸 한 사람이 다 하면 공연의 완성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획과 연출의 역할을 분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TA019)

2) 대중화 및 유통 관련

■ 전통 예술의 소비층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통 구조 개선 및 다양한 채널 확보 필요

■ 자체 유통 역량을 갖춘 예술인이 부족해 공공 차원의 지원 및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

"전통예술이 특정 계층에서만 소비되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대중적으로 확장할지가 중요한 문제예요. 유통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전통예술 하는 분들이 공연 기회를 많이 못 가지는 경우가 많고, 결국 공공기관이 그 역할을 좀 더 해줘야 하는 상황이죠." (TA019)

"지금 무형유산 분야에서 유통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예술인이 극히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 정부 지원이나 공공기관이 공연 기획과 유통을 담당해야 하는 비중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공연을 한 번 올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순회공연을 하거나 재공연을 할 수 있도록 유통 구조를 개선해야 해요." (TA019)

3) 기관 간 역할 중첩 및 차별화 관련

■ 현재 주요 기관별(국립국악원, 국립국장 등) 역할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 기관별 차별화된 방향성이 필요

"국립국악원이나 국립극장 같은 기관과 저희 OOOO기관이 하는 역할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국악원은 국악 중심이고, 극장은 전통과 현대 공연을 섞어서 하는데, 저희는 무형유산 전승자 중심의 공연을 기획하는 차별성이 있어요. [...] 보유자와 이수자들이 중심이 되는 공연을 기획하고, 종목별 스토리텔링을 강조하는 게 국립무형유산원의 차별화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TA019)

"OOOO기관은 전속 예술단이 있는 기관이 아니라서 7,000명 이상의 전승자와 다양한 종목을 기반으로 공연을 기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국악원이 정해진 국악단과 창극단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면, 우리는 더 유연한 기획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방향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TA019)

4) 전용 공연장 및 기술 환경 구축 필요

■ 전통 예술 공연을 위한 전용 극장이 부족하며, 차별화된 음향·조명 설비 필요

■ 실험적 공연 형태 도입을 통해 전통 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필요

"전통예술 공연을 위한 전용 극장이 많이 부족해요. 기존 공연장들은 현대적인 공연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전통 공연에 적합한 음향이나 조명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무형유산 공연에 맞는 특화된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TA019)

"전통예술이 계속 발전하려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단순히 보유자나 이수자가 기존 전통 형식대로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할 수 있는 실험적인 무대가 있어야 해요. 전통예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려면 공연 공간과 기술적인 환경을 좀 더 다양하게 구축해야 해요." (TA019)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공연 유통 활성화, 창작지원 확대, 홍보전략 강화 필요

1) 공연 유통 활성화 방안

■ 공연 유통 활성화를 위해 공연 레퍼토리화 및 지속 가능한 기획 필요

■ 단발성 공연이 아닌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순회공연 및 재공연 활성화 필요

"전통예술 공연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기획하는 게 중요해요. 공연을 레퍼토리화 해서 꾸준히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단발성 공연이 아니라 계속 순회공연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TA019)

"지금은 공연이 한 번 올려지고 나면 다시 무대에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재공연을 지원하거나,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서 순회공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전통예술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통될 수 있어요." (TA019)

2) 공공기관 주도의 창작 지원 확대

■ 연출가와 기획자 대상 창작 지원금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창작 역량 강화 필요

■ 현재 지원금 수준을 현실적인 창작 비용에 맞춰 조정할 필요가 있음

"연출가와 기획자를 위한 창작 지원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창작자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금을 통해 창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해요." (TA019)

"현재 연출가들에게 지원되는 창작 지원금이 현실적인 창작 비용과 차이가 커요.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 제대로 된 창작 과정을 거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실제 창작 환경을 반영해서 지원금 규모를 조정해야 해요." (TA019)

3) 홍보 역량 강화 및 대중 인식 개선

■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며, 다양한 미디어 활용 필요

■ 새로운 관객 유입을 위한 마케팅 전략 마련 필요

"[...] OOOO기관이 10년 됐는데도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고, 홍보팀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서 관객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단순히 보도자료만 내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미디어랑 협업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알릴 필요가 있어요." (TA019)

"전통예술의 기존 관객층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새로운 관객층을 유입할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을 마련해야 해요. 유튜브나 SNS 같은 채널을 적극 활용해서 젊은 세대도 자연스럽게 전통예술을 접할 기회를 만들어야 해요." (TA019)

[대상자20] 유통 분야

1. 일시

■ 2024년 10월 23일(수), 16:30 ~ 18:30

2. 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3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3)

3. 참석자 명단

[표 2-20] 참석자 명단 [대상자20] 유통 분야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2)	공공	TA-A			
	공공	TA-B			
참석자(n=1)	유통	TA020	여	50대	25년

4. 주요 논의 사항

■ 전통 예술 창작과 보존
- 전통의 계승과 창작의 균형 문제, 현대적 재해석을 통한 접근 방식

■ 전통 예술의 교육 체계
- 국악 및 전통 예술 교육의 문제점, 예술가의 성장 경로와 생계 유지 문제

■ 예술 생태계와 자생력
- 예술 단체 운영의 지속 가능성 및 독립적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 전통 예술과 대중화
- 전통 예술의 대중적 접근성 강화, 창작과 전통의 경계 설정 문제

■ 정부 지원과 정책
- 전통 예술 지원 정책의 한계 및 지속 가능한 개선 방안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전통예술 창작자의 공공지원 의존, 유통망 확보 및 홍보 부족

1) 창작자 활동 환경

■ 창작자의 자생적 활동이 어려워 공연 유통 및 홍보 전략 강화가 필요한 상황
■ 지원 체계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인해 창작 활동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 공연, 기획, 심사 및 자문 등 창작자의 활동 범위는 넓지만, 안정적인 예술생태계 구축이 미흡함

"그러니까 저. 프로듀서로서의 역할은 이제 작품을 만드는 데까지 작품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이제 올리는 데까지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같이 얘기를 나눠서 어떤. 계획을 해서 작품을 올리는 데까지는. 근데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는 게요. 그 홍보 마케팅 부분. 이 자신이 없는 부분이고. 어렵지. 예. 계속 거기에 대해서." (TA020)
"전통예술이 공연 산업에서 시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공연 작품 자체가 물리적으로 예전보다 많아졌지만, 홍보와 유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관객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유명한 사람이 끼지 않으면 공연이 주목받지 못하고, 창작 기반의 작품들은 지속성을 갖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TA020)
"그냥 전통 쪽하고 연관돼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좀 이야기해주시면 저희가 듣고 아, 전통 쪽에서 이런 가지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바쁘고, 지원사업도 늘 있지만, 개인 창작자가 자생적으로 기획을 꾸려가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TA020)

2) 전통 예술 지원의 현 상황

■ 공공지원이 창작과 유통을 주도하지만, 창작자의 실질적 필요와 지원사업의 방향이 불일치함
■ 사업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지원금 중심 운영으로 인해 창작자의 장기적 비전 설정이 어려움
■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가능하고 현실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공공지원이 창작과 유통을 주도하는 구조인데, 실제로 창작자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이 많아지고 있지만, 정작 필요한 곳에 실질적인 지원이 가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TA020)
"지원금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한 번 공연을 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구조라서 계속 새로운 지원사업을 찾아다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창작 활동의 지속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TA020)
"단발적인 지원만으로는 창작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어요. 특정 기관에서만 전통예술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창작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해요." (TA020)

3) 장르 산업화의 어려움

■ 전통예술이 공연 산업에서 시장성을 확보하지 못해 지속적 창작 환경 조성이 어려움

■ 특정 스타 연주자 중심으로 소비되며, 창작 기반 작품의 유통과 지속성이 미흡한 실정임

■ 공연 유통망 확대와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통해 산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저도 요즘에 계속 고민하는 지점인데, 요즘에는 특히 더 그래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뭔가 실험적인 기획이나 공연들이 생기면 관심도 가고 서로 찾아보기도 했는데, 이제는 누가 뭘 하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다들 바쁘고, 시장 자체도 좁아졌어요." (TA020)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 사람들이 보지만, 그게 아니면 티켓이 안 팔려요. 창작 기반의 작품을 꾸준히 하려면 관객이 있어야 하고, 유통망도 있어야 하는데, 전통예술 공연은 이게 너무 어렵죠. 그러다 보니 공연을 올려도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TA020)

"이제는 그냥 기획을 잘해서 공연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유통망도 같이 만들어야 하고, 체계적인 홍보 전략도 필요해요. 안 그러면 아무리 좋은 공연을 만들어도 알려질 기회조차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TA020)

나. 생태계 이슈

지속적 창작과 전통 예술 시장 확대가 어려운 상황

1) 공연 생태계의 부재

■ 전통예술 공연이 공공기관과 지원사업에 의존하며 독립적 공연 기획이 어려운 구조임
■ 대중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부족해 관객 개발과 시장 확대가 원활하지 않음
■ 지속 가능한 공연 생태계를 위해 자율적 기획과 관객 유입 전략 마련이 필요함

"전통예술 공연이 공공지원에 의존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기획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대부분 지원사업을 통해 공연이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면 자체적으로 공연을 올리기 힘든 상황이에요." (TA020)
"관객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대중적인 접근성이 너무 낮아요. 그냥 공연장에 가서 공연을 보면 너무 좋은데, 그 기회를 만들기가 어렵고, 어떻게 하면 관객을 유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필요해요." (TA020)
"자율적으로 공연을 기획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해요. 단순히 지원을 받아서 공연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통망이나 관객 확보 전략이 같이 가야 해요." (TA020)

2) 창작과 전승 간 균형 관련

■ 전통예술은 보존과 창작의 균형이 중요하지만 정책적 지원 방식이 미흡함
■ 보존 중심 정책이 강하게 작용하며 창작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 발생

"전통 계승과 보존은 중요하지만, 그쪽으로 지원이 쏠리다 보니 창작이 위축되는 느낌이 있어요. 전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창작자들에게도 균형 있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보존 중심의 정책이 강하게 작용하는 편이에요." (TA020)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창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해요. 보존만 강조하다 보면 새로운 시도 자체가 어려워지고, 전통예술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되거나 확장될 기회가 줄어들어요." (TA020)

3) 전통 예술가의 경제적 어려움 관련

■ 전통예술 창작자들이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음
■ 개별 예술가의 수익 모델이 제한적이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구조임
■ 단발적 지원사업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할 방안 마련이 필요함

"전통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근데 바쁘면 바쁠수록 가난해지는 구조예요. 하나만 해서는 생활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해야 하고, 결국 창작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고 있어요." (TA020)
"공연을 해서 수익을 내기가 힘드니까 다들 지원사업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지원사업이 단발적이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창작 환경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TA020)
"단체나 개인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해요. 공연을 올리고 나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 유통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창작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예요." (TA020)

4) 홍보 및 마케팅 부족

■ 창작자의 작품을 효과적으로 유통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획 시스템이 부족함

■ 창작자들이 기획과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존재

"창작자들이 작품을 만드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후 유통과 홍보까지 스스로 해결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효과적으로 공연을 알리고 관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획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TA020)

"기획과 마케팅이 중요한데, 창작자들이 직접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아요. 공연을 기획하고 작품을 만들어도 어떻게 유통해야 할지, 어떻게 홍보해야 할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해요." (TA020)

"공연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통하고 홍보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해요. 지금처럼 개별 창작자가 모든 걸 다 감당하는 방식으로는 장기적인 활동이 어렵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만들기 힘들어요." (TA020)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유통망 확대, 장기 지원, 디지털 홍보 전략 강화 필요

1) 유통 시스템 개선 필요

■ 전통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공연 유통망 확대가 필수적임
■ 지역극장 및 다양한 플랫폼과 협력하여 안정적인 작품 순환 구조 마련이 필요함
■ 유통 환경 개선을 통해 전통예술의 산업적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 도모 필요

"전통예술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려면 공연 유통망을 확장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공연이 한두 번 이루어지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작품이 장기적으로 순환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TA020)
"지역극장이나 다양한 플랫폼과 협력해서 공연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지금처럼 단발적인 공연만으로는 전통예술이 산업적으로 자리 잡기 어렵고, 창작자들도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가기 힘들어요." (TA020)
"전통예술이 산업적으로 정착하려면 유통 환경이 개선되어야 해요. 창작자들이 작품을 만들고 나서도 계속해서 공연할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공연장이든, 플랫폼이든 지속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해요." (TA020)

2) 창작 지원 체계 개편 필요

■ 전통예술 창작 지원사업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중요함
■ 단발적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됨
■ 창작자의 자율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지원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함

"창작 지원이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요. 한 번 지원을 받아 공연을 올려도 그 다음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활동하기가 힘든 구조예요." (TA020)
"지원사업 방식이 바뀌어야 해요. 단순히 한 번의 공연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창작자가 계속해서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해요." (TA020)
"지금처럼 창작자들이 매번 새로운 지원사업을 찾아다녀야 하는 방식으로는 연속적인 활동이 어려워요. 창작의 자율성과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지원 구조가 필요해요." (TA020)

3) 홍보 및 관객 개발 전략 강화

■ 전통예술의 대중화를 위해 혁신적인 홍보 및 마케팅 전략 마련이 필요

■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접근 방식과 콘텐츠 개발이 요구됨

■ 다양한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강화 필요

"전통예술 공연이 대중들에게 더 쉽게 다가가려면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홍보 전략이 필요해요. 단순히 공연 안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TA020)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전통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콘텐츠가 필요해요. 단순한 공연 홍보가 아니라, 그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전통예술을 소개하고 경험할 기회를 만들어야 해요." (TA020)
"요즘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가 필수적이에요. 기존의 홍보 방식으로는 관객 개발이 어렵고, 새로운 미디어와 온라인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전통예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어요." (TA020)

[대상자21] 유통 분야

1. 일시

■ 2024년 10월 24일(목), 16:00 ~ 18:00

2. 장소

■ 공감M아트센터 소극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40길 11)

3. 참석자 명단

[표 2-21] 참석자 명단 [대상자21] 유통 분야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2)	공공	TA-A			
	공공	TA-B			
참석자(n=1)	창작	TA021	여	50대	40년

4. 주요 논의 사항

■ 전통예술 창작과 보존
- 전통 무용 및 음악의 보존과 현대적 창작 간 균형 유지 방안

■ 전통예술의 교육 체계
- 전통예술 교육과정의 한계와 예술가 경로 및 생계 문제

■ 예술 생태계와 자생력
- 전통예술 단체 운영과 지속 가능한 예술 생태계 구축 필요성

■ 전통예술과 대중화
- 전통예술의 저변 확대 및 대중과의 소통 강화 전략

■ 정부 지원과 정책
- 전통예술 지원 정책의 한계와 지속 가능한 공공 지원 체계 구축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소극장 운영과 창작 기반이 취약해 공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

1) 공연장의 현실과 운영 구조

■ 전통 예술 공연장은 대형 극장보다 소극장 중심으로 운영되며, 안정적 운영이 어려움
■ 운영비·인력 부족으로 공연장 시설 개선 및 조명·음향 등 필수 인력 배치 필요
■ 조명 오퍼레이터 등 전문 인력 부재가 공연의 질적 수준 저하로 이어짐

"전통 예술 공연장은 대형 극장보다 소극장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운영이 쉽지 않아요. 특히 조명 오퍼레이터 같은 필수 인력이 없으면 공연의 완성도가 크게 떨어지죠. 저희 같은 소극장은 기본적으로 운영비도 부족하고, 이런 인력 지원도 받기 어렵다 보니 공연을 올릴 때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 극장 운영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결국 전통 예술 공연을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려요." (TA021)
"소극장은 조명이나 음향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공연을 올리는 데 큰 장애가 됩니다. 조명 오퍼레이터가 없으면 공연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음악을 세팅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필수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지원이 없다 보니, 공연을 할 때마다 그때그때 조명이나 음향을 봐줄 사람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 최소한 이런 인력 지원만이라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공연의 질도 올라가고, 운영도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TA021)

2) 창작 공간의 한계

■ 전통 예술 창작자들은 연습 공간과 공연 기회 부족으로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음
■ 특히 젊은 창작자들은 소극장에서 활동을 시작하지만, 자존감 유지가 어려운 환경임
■ 창작 공간 확대 및 공연 기회 제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전통 예술 창작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연습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공연을 준비하려면 일정한 공간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 안정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가 어렵죠. [...] 연습실을 대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공연장도 마찬가지로 대관료 부담이 크니까 결국 창작자들이 활동을 지속하기가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TA021)
"젊은 창작자들이 소극장에서 활동을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런 공간들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극장이라는 이유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공연 기회를 얻기도 쉽지 않죠. [...] 소극장이 단순히 작은 무대가 아니라 창작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되려면, 공연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요." (TA021)

3) 전통 예술과 창작의 융합

■ 전통 춤과 창작 무용의 융합이 증가하지만, 창작을 위한 기반과 지원이 부족함

■ 창작 무용가들에게 전통 예술의 깊이를 학습할 기회 제공이 필요함

■ 전통과 현대적 감각이 조화를 이루는 공연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 지원 강화

"전통 춤과 창작 무용이 자연스럽게 융합되는 흐름이 있는데,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기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창작을 하려면 전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지만, 그걸 제대로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아요. [...] 전통을 기반으로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만큼, 이를 지원하는 체계적인 교육과 환경이 필요합니다." (TA021)

"창작 무용가들에게 전통 예술을 깊이 있게 학습할 기회가 주어져야 해요. 단순히 몇 개의 동작을 차용하는 게 아니라, 전통이 가진 철학과 표현 방식을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죠. [...] 지금은 창작과 전통이 단절된 채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둘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려면 교육과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TA021)

나. 생태계 이슈

안정적인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해 극장 운영, 관객 확보, 지원체계 등 개선 필요

1) 소극장의 운영의 어려움

■ 전통 예술 소극장은 운영이 불안정하며, 관객 유치와 티켓 판매에 어려움을 겪음
■ 티켓 판매 부담이 창작자에게 전가되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
■ 공연 기획 시 지속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소극장은 운영이 정말 쉽지 않아요. 대형 극장과 다르게 기본적인 운영비조차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어렵고, 관객 유치도 힘든 상황이 많아요. 전통 예술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 티켓 판매가 어려운데, 결국 그 부담이 창작자들에게 그대로 전가됩니다. [...] 공연을 올릴 때마다 경제적 부담이 커서 지속적인 활동이 힘든 구조예요." (TA021)
"공연을 기획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비용 문제예요. 소극장 운영도 어렵지만, 공연을 올리는 창작자들에게 티켓 판매 부담까지 떠넘겨지는 구조가 되어버리니까요. [...]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려면 최소한의 지원이라도 필요하고, 소극장에서 이루어지는 전통 예술 공연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TA021)

2) 장르의 시장성 및 관객 확보 관련

■ 전통 예술은 대중적 접근성이 낮아 젊은 관객층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현대적 접근 방식과 디지털 홍보 전략이 부족하여 활성화가 저조함
■ 전통 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홍보 및 관객 유입 전략 강화 필요

"전통 예술은 대중적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아요. 특히 젊은 관객층을 확보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기존 관객층도 한정적이라 자연스럽게 시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 전통 예술이 현대적인 방식으로 관객과 소통할 기회가 부족한 게 문제예요." (TA021)
"지금은 디지털 시대인데, 전통 예술은 홍보 방식이 여전히 제한적이에요. 현대적인 접근 방식이 부족하고, 온라인 홍보나 마케팅 전략이 미흡하다 보니 관객 유입이 원활하지 않아요. [...] 대중화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고, 젊은 층이 자연스럽게 전통 예술을 접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TA021)

3) 공공 지원의 일관성 부족 및 예산 관련

■ 전통 예술 지원 정책의 변동성이 높아 안정적 운영이 어려움
■ 예술가들은 자부담 문제로 인해 지원 사업 참여에 부담을 느낌
■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 마련과 행정 절차 간소화 필요

"전통 예술 지원 정책이 매년 바뀌다 보니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 해는 지원을 받았다가도 다음 해에는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어요. [...] 이렇게 정책이 일관성이 없으면 결국 창작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TA021)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에 집중해야 하는데,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개인적인 재정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 결국 경제적인 이유로 지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TA021)

4) 기부 및 민간 후원 활성화 필요

■ 전통 예술 지원을 위한 기업 후원이 필요하지만, 복잡한 절차로 기부가 활성화되지 않음
■ 기업 후원을 유도할 소규모 펀딩 방식과 후원 인센티브 제도 마련 필요
■ 기부 절차 간소화 및 민간 후원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요구됨

"전통 예술을 위한 기업 후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부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기업이 후원을 하려고 해도 행정 절차가 많고, 관련 서류 작업이 부담되다 보니 쉽게 기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 기부 문화가 자리잡으려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TA021)
"기부를 활성화하려면 소규모 펀딩 같은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요. 기업이 일정 금액을 후원하면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민간 후원을 확대하기가 어렵습니다. [...] 단순히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필요해요." (TA021)

5) 직업 안정성 및 지속적인 활동 기회 부족

■ 전통 예술가들은 공연 기회가 제한적이며, 경제적 자립이 어려움
■ 일정 수준 이상의 성장 없이는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구조임
■ 상주단체 지원 확대 및 공연장 연계 프로그램 마련 필요

"전통 예술가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공연 기회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공연할 무대가 많아야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기회가 적다 보니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쉽지 않아요. [...] 결국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TA021)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하려면 지속적인 공연 기회가 보장되어야 해요. 하지만 현재 시스템에서는 개별적으로 공연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요. [...] 상주단체 지원을 확대하고, 공연장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자들이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TA021)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소극장 및 창작공간 확대 및 공공 지원의 안정성 확보 필요

1) 소극장 지원 및 운영 개선 필요

■ 전통 예술 소극장은 조명·음향 등 기본 인력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음
■ 공연의 질 향상을 위해 조명·음향 담당자 배치 및 인력 지원 필요
■ 소극장 운영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공연 환경 조성 요구됨

"소극장은 운영이 쉽지 않아요. 조명이나 음향 같은 필수 인력이 없으면 공연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지원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 결국, 공연을 올릴 때마다 조명과 음향 담당자를 따로 섭외해야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최소한의 기술 지원조차 받기 어려워요." (TA021)
"전통 예술을 위한 소극장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조명·음향 담당자 배치가 필수적이에요. 공연을 기획할 때 이런 기술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완성도가 떨어지고, 공연장의 활용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 소극장 운영비를 지원해서 공연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TA021)

2) 창작 공간 확대 및 젊은 예술가 지원 강화

■ 전통 예술 창작자들을 위한 도심형 창작 공간 확대 필요
■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상주단체 지원 강화 및 공연 기회 확대 요구됨
■ 안정적인 창작 및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전통 예술 창작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안정적인 창작 공간이에요. 도심에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연습실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비용 부담도 커요. [...] 지속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젊은 예술가들이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TA021)
"젊은 예술가들은 공연 기회가 적고, 상주단체 같은 안정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 보니 꾸준히 활동하는 게 쉽지 않아요. [...] 공연을 통해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상주단체 지원을 확대하고, 공연 기회를 늘려야 해요." (TA021)

3) 공공 지원 안정성 확보 및 자부담 완화 필요

■ 전통 예술 지원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자부담 비율 완화 필요

■ 예술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요구됨

■ 지원금 활용 방식의 유연성 확보 및 서류 절차 간소화 추진 필요

"전통 예술 지원 정책이 매년 바뀌다 보니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해에는 지원을 받았다가 다음 해에는 지원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어요. [...]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TA021)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지원을 받으려 해도 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창작 활동에 집중해야 할 예술가들이 경제적 문제로 인해 지원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 실질적인 창작 지원을 위해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고, 지원금 활용 방식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TA021)

"지원금 신청 과정도 복잡하고 서류 작업이 많아서 예술가들이 행정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해요. [...]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다 접근하기 쉬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TA021)

[대상자22] 유통 분야

1. 일시

■ 2024년 10 29(월), 1100 ~ 1300

2. 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3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3)

3. 참석자 명단

[표 2-22] 참석자 명단 [대상자22] 유통 분야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2)	공공	TA-A			
	공공	TA-B			
참석자(n=1)	유통	TA022	남	50대	20년

4. 주요 논의 사항

■ 전통예술 창작과 보존
- 전통과 창작의 균형 유지 및 현대적 해석을 통한 접근 방안

■ 전통예술의 교육 체계
- 국악 및 전통예술 교육의 문제점, 예술가의 진로 및 생계 안정 문제

■ 예술 생태계와 자생력
- 예술 단체의 지속 가능성과 독립적 창작 생태계 조성 방안

■ 전통예술과 대중화
- 전통예술의 대중적 접근성 확대 및 창작과 전통의 융합 문제

■ 정부 지원과 정책
- 전통예술 지원 정책의 한계와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 방안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전통예술 창작 환경 및 대중 소통 개선, 교육 강화, 유통 확대 필요

1) 전통예술 창작 환경 현황

■ 전통예술 창작자들이 자생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으며, 공연 및 유통 시스템이 부족함
■ 장기적인 창작 환경 조성이 어렵고, 안정적인 창작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 체계 개선이 필요함
■ 창작자들의 독립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공연 유통망 확대와 홍보 전략 개선이 요구됨

"전통예술 창작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공연장이 부족하고, 작품을 유통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요. 결국 창작자들은 한두 번 공연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이게 반복되면서 장기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가 어렵죠." (TA022)
"지금은 창작자들이 자립적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구조가 거의 없어요. 공연 유통망이 잘 형성되어 있어야 작품을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데, 그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공연 한 번 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속적인 공연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유통 시스템을 개선해야 해요." (TA022)

2) 교육 및 인재 양성의 한계

■ 전통예술 교육이 이론 중심으로 운영되어 창작자들이 실무 경험을 쌓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
■ 창작과 기획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도록 현장 경험과 연계된 실무 중심 교육 모델 개발이 필요함
■ 전통예술 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지원과 장기적인 육성 전략 마련이 필수적임

"전통예술 교육이 이론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실무 경험을 쌓기가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공연장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경험을 할 기회가 부족하거든요. 백스테이지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서 선배들의 공연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TA022)
"창작뿐만 아니라 기획과 운영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아요. 기획을 배우려면 실무 경험이 필수적인데, 지금 교육 시스템에서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단순한 이론 교육이 아니라 현장 경험과 연계된 실질적인 교육 모델이 필요해요." (TA022)

3) 관객과의 소통 부족

■ 전통예술이 대중과의 접점을 확장하지 못해 관객 유입과 관심 유도가 어려운 상황임

■ 공연 홍보와 마케팅 전략이 부족하여 관객 개발이 원활하지 않으며 지속적인 관객 확보가 어려움

■ 새로운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강화 및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전략적 변화가 필요함

"전통예술이 대중과의 접점을 확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존 방식의 한계 때문이에요. 기존 홍보 방식만으로는 일반 대중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공연 자체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해요. 새로운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TA022)

"예술가들이 방송에 나와도 기존 연예인 진행자와 함께하면 전통 예술계의 파급력이 거의 없어요. 대중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방식이 필요하고, 예술가들이 직접 홍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해요. 홍보 전략 자체를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TA022)

나. 생태계 이슈

전통예술의 지속적 지원, 유통망 강화, 자립 기반 및 협력 확대가 필요함

1) 지원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 관련

■ 공공 지원이 창작과 유통을 주도하지만, 창작자의 실질적 필요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단기 지원 위주의 구조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장기적 창작 계획 수립이 어려움
■ 창작자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방식 마련이 필요함

"까놓고 말씀드리면 지원 기간에 항상 아쉬움이 있고, 저는 지원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전국 예술가들이 문제가 많아요. 단기 지원이 반복되면서 장기적인 창작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고,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TA022)
"지금 지원 체계를 보면, 예술가들이 일정 단계를 거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라기보다는, 단발적으로 지원받고 끝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생태계가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TA022)

2) 공연 및 유통 시스템 미흡

■ 공연장 부족과 제한적인 유통망으로 인해 전통예술이 지속적인 무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작품의 순환 구조를 마련하여 공연 기회를 확대하고 창작자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전통예술의 안정적 유통망 구축과 공연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요구됨

“공연장이 부족하고 작품이 순환될 수 있는 구조가 없으니까, 결국 공연 기회가 단발적으로 끝나버려요. 공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유통망이 갖춰져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창작자들이 스스로 공연을 이어가기가 어려운 환경이에요." (TA022)
"작품을 한 번 올리면 끝이 아니라, 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창작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기회를 잃게 되고, 전통예술이 산업적으로 자리 잡기 어려워질 거예요." (TA022)

3)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 창작자들의 수익 모델이 제한적이며, 지원 없이 지속적인 예술 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임
■ 예술가들이 창작뿐만 아니라 기획과 운영까지 병행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음
■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위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수익 모델 마련이 필요함

"전통예술 분야에서 창작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예요. 연주자들은 기본적으로 악기 유지비부터 의상비, 공연장 대관비까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정작 졸업 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해요. 결국 지원 사업을 찾아다니거나 강사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TA022)
"공연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창작뿐만 아니라 기획과 운영까지도 신경 써야 해요. 하지만 예술가들이 창작에 집중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 업무와 운영까지 병행해야 하는 현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는 예술가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해요." (TA022)

4) 전통과 창작의 균형 부족

■ 전통예술이 보존과 창작의 균형을 유지하며 발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 정책적으로 보존 중심의 지원이 많아 창작 활동이 위축되고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려운 상황임
■ 창작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지원 정책 마련과 창작 환경 개선이 필요함

"심사를 하다 보면 전통과 창작의 경계를 너무 기계적으로 나누려는 경향이 있어요. 창작 음악에서도 전통적인 요소를 충분히 포함할 수 있는데,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이건 전통이고, 이건 창작이다'라고 구분을 지으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창작 활동이 위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TA022)
"실제로 무대에서 보면 전통과 창작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전통 요소를 기반으로 한 창작이 충분히 가능하고, 오히려 그런 방식이 전통을 현대적으로 확장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원 체계나 심사 방식에서 전통과 창작을 구분하는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 보니 창작을 활성화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TA022)

5) 창작 생태계 내 경쟁과 협력 관련

■ 기금 지원 정책이 예술가들 간 경쟁을 심화시키며 창작 생태계 내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특정 예술가나 단체에 지원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해서 발생함
■ 창작자 간 협력을 촉진하고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한 균형 잡힌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함

"지원받는 사람들을 너무 경쟁 위주로 구분하고 평가하는 방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단계별로 경쟁을 붙이는 방식은 창작 생태계에서 협력을 저해할 수 있어요. 창작자들이 서로 경쟁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고, 결국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만 기회가 집중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TA022)
"정말 우수한 팀을 선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단순히 경쟁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속적인 창작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해요. 창작자들이 오로지 경쟁에만 몰입하게 되면 결국 창작 활동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예술 생태계 전체가 불균형해질 수 있어요." (TA022)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전통예술 창작 지원, 교육 강화, 유통 확충, 대중 소통 혁신 필요

1) 창작 및 유통 지원 체계 개편

■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창작 지원 정책 마련,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 유도 필요

■ 공연 유통망 확대 및 창작자의 독립적 운영을 위한 구조적 지원 강화 필요

■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 및 유통 시스템 정비 요구됨

"지금 지원 체계를 보면,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라기보다는 단발적으로 지원받고 끝나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생태계가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TA022)

"진입 장벽이 높고, 공연 유통망이 잘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 창작자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려면 안정적인 지원과 유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요." (TA022)

2) 교육 및 역량 강화 정책 마련

■ 창작자의 기획 및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필요

■ 산학협력을 통한 창작자와 기획자의 협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확대가 요구됨

"작품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획적인 역량은 필수인데, 다양한 기관에서 기획 공연도 하고 강연도 하지만, 정작 예술가들이 실질적으로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아요. 마케팅 공부만 한다고 홍보를 잘하는 게 아니고, 현장 경험과 실제 적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TA022)

"전문 예술가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백스테이지 프로그램처럼 선배들의 공연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창작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TA022)

3) 대중과의 소통 강화 및 시장 확대

■ 전통예술의 대중화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과 미디어 활용한 홍보 전략 강화 필요

■ 젊은 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효과적인 접근 방식 마련이 요구됨

"전통예술이 대중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기존 홍보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디지털 플랫폼과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새로운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유튜브나 SNS를 통한 홍보가 중요한데, 전통예술 분야에서는 이런 부분이 아직 미흡한 편이에요." (TA022)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해요. 단순히 전통예술 공연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접점을 만들어주는 방식이 필요해요. 요즘 웹소설이나 웹드라마 같은 방식으로 콘텐츠가 확산되는데, 전통예술도 그런 흐름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요." (TA022)

[대상자23] 유통 분야

1. 일시

■ 2024년 11월 4일(월), 14:00 ~ 16:00

2. 장소

■ 대학로 예술극장 1층 회의실(서울 종로구 대학로10길 17)

3. 참석자 명단

[표 2-23] 참석자 명단 [대상자23] 유통 분야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2)	공공	TA-A			
	공공	TA-B			
참석자(n=1)	유통	TA023	여	40대	20년

4. 주요 논의 사항

■ 전통예술 창작과 보존
- 전통과 창작의 균형 유지 및 현대적 감각을 반영한 창작 방식

■ 전통예술의 교육 체계
- 전통예술 교육의 문제점, 예술가의 성장 과정 및 창작자의 생계 유지 방안

■ 예술 생태계와 자생력
- 예술 단체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독립적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

■ 전통예술과 대중화
- 전통예술의 저변 확대 및 대중 친화적 접근 방식, 창작과 전통의 경계 설정 문제

■ 정부 지원과 정책
- 전통예술 분야의 공공지원 한계 및 지속 가능한 지원 정책 마련 필요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전통예술 창작자의 높은 공공지원 의존도와 경제적 자립의 어려움, 폭 넓은 창작 지원 필요

1) 전통예술 지원의 현황

■ 전통예술 창작과 유통이 공공지원에 의존하며 자립적 창작 환경 조성이 미흡함
■ 지원사업이 창작자의 실제 필요와 맞지 않아 지속적인 활동과 장기적 비전 설정이 어려움
■ 지원금 중심 운영으로 창작의 연속성이 부족하며 안정적인 창작 기반 마련이 필요함

"공연을 올릴 수 있는 여건은 대부분 공공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저희가 매출을 내서 다시 제작비로 돌리는 구조는 어렵고, 대부분의 단체가 지원금을 받아서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공연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TA023)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아졌지만, 막상 창작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작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정해진 틀 안에서 사업계획을 짜야 하다 보니 오히려 창작 방향이 제한되기도 하고요." (TA023)
"한 번 공연을 하면 그걸로 끝인 경우가 많아요.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하고 싶어도 지원이 단발성이다 보니까 연속적인 작업이 어려워요. 이게 창작자 입장에서는 제일 큰 고민이에요." (TA023)

2) 창작과 전승의 균형 관련

■ 전통예술의 보존과 창작 균형이 중요하나, 창작 지원이 부족하여 활성화가 어려움
■ 보존 중심 정책이 강하게 작용하며 창작 활동이 위축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 창작 활성화를 위한 균형 잡힌 정책 지원과 창작 환경 개선이 필요함

"전통은 지켜야 한다는 명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나 창작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어요.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면 그게 전통이냐는 질문을 먼저 받게 되고요." (TA023)
"전승과 보존 쪽에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배정되는데, 창작은 항상 그 해 사업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니 장기적인 창작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고, 창작자도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활동하게 되는 거죠." (TA023)
"창작이 활발해져야 전통이 현대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재 구조에서는 보존 쪽에 비해 창작이 너무 소외되어 있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인 균형이 필요하다고 봐요." (TA023)

3) 예술가의 경제적 어려움

■ 창작자의 안정적인 수익 모델 부족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구조임

■ 단발적 지원사업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이 필요함

■ 창작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위한 장기적 지원 및 수익 모델 개발이 요구됨

"공연 한 번 올리고 나면 수익이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자가 나요. 그러니까 그다음 공연을 하려면 또 다른 지원을 받아야 하고, 그게 없으면 사실상 창작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 반복돼요." (TA023)

"창작자들이 창작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대부분은 수업을 병행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창작에 온전히 집중하기가 힘들죠." (TA023)

"지금은 단발성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이라 안정적으로 작업을 이어가기 어려워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작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TA023)

나. 생태계 이슈

전통예술의 높은 공공지원 의존도와 유통·홍보 및 지원사업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1) 공연 생태계의 부재

■ 전통예술 공연이 공공기관과 지원사업에 의존해 독립적 기획이 어려운 구조임

■ 대중적 접근성 부족으로 관객 개발과 시장 확대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임

■ 공연 기획 자율성 강화와 관객 유입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공연을 하려면 거의 대부분이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아야 가능해요. 자비로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고, 관객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다 보니 독립적으로 기획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TA023)
"전통예술이 좋다는 건 알지만, 그걸 실제로 보러 오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중적인 접근이 어렵고, 새로운 관객층을 만들려는 시도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TA023)
"기획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해요. 관객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작품을 만드는 걸 넘어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TA023)

2) 홍보 및 마케팅 부족

■ 공연 홍보와 관객 개발 전략 부족으로 전통예술 공연의 대중적 접근성이 낮음

■ 기존 홍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홍보 및 마케팅 전략 필요

■ 다양한 플랫폼과 미디어를 활용한 효과적인 관객 유입 방안 마련이 요구됨

"좋은 공연을 만들어도 그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해요. 포스터 붙이고 보도자료 내는 정도로는 관객을 모으기가 힘들죠. 특히 젊은 세대는 그런 방식에 반응하지 않아요." (TA023)
"전통예술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미 어렵게 느껴지다 보니까, 더 적극적인 홍보나 설명이 필요한데 그런 게 부족해요. 사람들이 뭘 기대하고 볼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하는데, 그걸 잘 못 하고 있는 거죠." (TA023)
"요즘은 유튜브나 SNS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도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데, 그런 미디어를 활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거나 지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효과적으로 관객을 유입하려면 그런 채널들을 적극적으로 써야 해요." (TA023)

3) 창작 작품 유통의 어려움

■ 창작 기반 전통예술 작품의 지속적인 공연을 위한 유통망이 부족한 상황임
■ 특정 스타 연주자 중심 소비 구조로 인해 창작 작품의 지속성이 약화됨
■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을 통해 창작 작품의 장기적 활성화가 필요함

"공연을 한 번 올리고 나면 끝이니까 결국 지속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유통망이 필요해요. 후속 공연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없으면 창작자 입장에서는 작품을 계속 이어가기 어렵죠." (TA023)
"결국에는 창작 기반 작품들은 특정 연주자나 단체 중심으로만 소비되는 경향이 있어요. 새로운 작품이 계속 나오지만, 기존 작품들이 유통되거나 재공연될 수 있는 구조가 부족해요." (TA023)
"지속적으로 공연을 이어갈 수 있으려면 안정적인 유통망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공연을 올리는 것도 어렵고, 공연이 끝난 후 다시 무대에 올리는 건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TA023)

4) 예술기획과 실행의 한계

■ 창작자가 작품을 효과적으로 유통하고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함
■ 기획 및 마케팅 전문 역량이 부족해 창작자들이 자립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환경임
■ 체계적인 유통·홍보 지원 시스템 구축과 기획 역량 강화가 필요함

"기획이라는 게 단순히 공연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공연 이후까지 고민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창작자들이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요. 유통과 홍보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TA023)
"결국 공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기획부터 홍보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창작자들이 직접 모든 걸 해야 하는 구조라서,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많아요." (TA023)
"기획과 마케팅이 중요하지만, 예술가들은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공연을 만들어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유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TA023)

5) 지원사업의 구조적 결함

■ 지원사업이 분산 운영되어 창작자들이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임
■ 지원사업 간 연계성과 지속성이 부족해 실질적 창작 지원이 미흡함
■ 창작자 중심의 통합적·장기적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지원사업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정리가 필요해 보여요. 기초문화재단, 광역문화재단 등에서 각각 운영하는 사업들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중복되거나 분산된 경우가 많아요." (TA023)
"공연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한 달에 하나씩 새로운 작품이 나오는데, 지원사업이 쪼개져 있어서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어떤 단체는 각기 다른 지원사업을 따로 받아 운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TA023)
"지원사업이 난립하면서 결국 예산 배분도 애매해지고, 지원을 받기 위한 과정이 복잡해졌어요. 지원사업 간 연계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지원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TA023)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유통망 확대, 장기적 지원 체계 개편 및 혁신적 홍보 전략 강화 필요

1) 유통 시스템 개선 필요

■ 전통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공연 유통망 확대가 필수적임
■ 지역극장 및 다양한 플랫폼과 협력하여 작품 순환 구조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함
■ 창작 작품이 지속적으로 공연될 수 있는 유통 환경 개선이 필요함

"공연이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공연하기가 어렵고, 지속적인 유통망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창작 작품들이 한 번 공연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순환시킬 구조가 필요해요." (TA023)
"지역극장이나 플랫폼과 협력하면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체계가 잘 마련되지 않았어요. 공연이 계속해서 순환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TA023)
"전통예술 작품도 대중들에게 노출될 기회가 많아져야 해요. 일회성 공연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공연될 수 있도록 유통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TA023)

2) 창작 지원 체계 개편 필요

■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단발적 지원에서 장기적 지원으로 전환 필요
■ 창작자의 자율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안정적인 지원 구조 마련이 요구됨
■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 수립이 필수적임

"지원사업이 너무 많아지면서 오히려 창작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위한 방향성이 필요해요." (TA023)
"지원이 단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창작자들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고, 결국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힘든 구조예요." (TA023)
"기초문화재단과 광역문화재단의 역할이 분리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TA023)

3) 홍보 및 관객 개발 전략 강화

■ 전통예술 대중화를 위해 혁신적인 홍보 및 마케팅 전략 도입이 필요함

■ 젊은 세대를 위한 맞춤형 접근 방식과 콘텐츠 개발이 요구됨

■ 다양한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강화가 필수적임

"전통예술 공연이 많아졌지만, 정작 홍보 효과가 크지 않아요. 지원사업을 통해 공연이 늘어나도 관객들에게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TA023)
"요즘엔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야 하는데, 전통예술 홍보는 아직도 기존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새로운 홍보 전략이 필요해요." (TA023)

[대상자24] 유통 분야

1. 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11:00 ~ 13:00

2. 장소

■ 대학로 예술극장 1층 회의실(서울 종로구 대학로10길 17)

3. 참석자 명단

[표 2-24] 참석자 명단 [대상자24] 유통 분야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1)	공공	TA-A			
참석자(n=1)	유통	TA024	여	40대	15년

4. 주요 논의 사항

■ 전통 예술 창작과 보존
- 지역 서사 기반 창작 활성화와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을 위한 민간 기획 확대

■ 전통 예술의 교육 체계
- 창작자·기획자의 진입 경로 다양화와 현장 중심 교육의 필요성

■ 예술 생태계와 자생력
- 공공기관 중심 운영 구조의 한계와 민간 주체의 지속적 창작 기반 마련 필요

■ 전통 예술과 대중화
- 다양한 매체와 플랫폼을 활용한 접근 방식 강화 및 관객 개발 전략의 재설계

■ 정부 지원과 정책
- 단발성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장기적 기획과 유통 기반을 지원하는 정책 개편 필요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전통예술 산업의 현황

1) 민간 중심 전통예술 기획 활동의 확대

■ 민간 주도의 전통예술 기획 확대, 지역 기반 창작 활동 활발
■ 전통연희의 현대화와 교육 연계 프로젝트를 통해 저변 확대에 기여
■ 문화재 및 인물 콘텐츠 활용 증가, 민간 기획자의 역할 중요성 부각

"사실 저희는 전통연희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전통적인 요소를 그대로 재현한다기보다는 저희 지역의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인물, 설화 같은 걸 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로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TA024)
"그래서 지역에서 저희가 청소년이나 주민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만드는 프로그램도 많고요. 교육하고 연결해서 전통적인 움직임이나 소재들을 자연스럽게 체화시키는 식의 작업들도 하고 있어요." (TA024)
"문화재적인 인물들을 다시 조명하거나, 전통 속에서 살아온 여성들의 이야기를 콘텐츠화하면서 새로운 공연을 기획하기도 해요. 그게 단순히 공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 문화로 확장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TA024)

2) 전통 공연 콘텐츠의 다양성과 지역 밀착성

■ 지역 서사와 정체성을 반영한 창작 콘텐츠 확산
■ 관객과의 거리감 해소를 위한 지역 인물·설화 활용 증가
■ 주민 참여형 공연 등 공동체 기반 창작 방식 강화

"전통이라는 걸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려고 했고요. 지역에 있는 설화나 인물이나 마을 이야기 같은 걸 끌어다가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공연을 만들기도 했어요." (TA024)
"우리가 사는 마을의 이야기를 가지고 공연을 하면 주민분들이 관객이자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훨씬 더 공연에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게 되더라고요." (TA024)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서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공연을 만들면, 관객들하고의 거리도 확실히 줄어드는 걸 느껴요." (TA024)

3) 젊은 창작자와 기획자의 진입 확대

■ 청년 기획자와 창작자들의 전통 분야 진입 증가

■ 새로운 형식과 주제를 통한 현장 활력 및 이미지 전환

■ 현대적 감각을 반영한 전통예술 창작 시도 확산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전통 쪽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요. 특히 연희 쪽은 움직임이 있고 에너지가 있으니까 더 흥미를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청년 창작자들이랑 같이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TA024)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시도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기존에 갖고 있던 전통의 이미지랑은 또 다른, 좀 더 현대적인 감각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것 같아요." (TA024)

"확실히 젊은 창작자들이 들어오니까 분위기도 달라지고, 접근 방식도 훨씬 다양해져요. 그런 변화가 전체적으로 전통예술 분야에 활력을 주는 것 같아요." (TA024)

나. 생태계 이슈

공공기관 중심 생태계의 한계와 민간 창작 활동의 지속성 문제

1) 공공 중심 생태계의 구조적 편중

■ 공공기관 중심 운영으로 민간의 자율적 기획과 실행에 제약 발생
■ 민간 기획 콘텐츠의 실연 기회 부족으로 창작 활성화에 어려움
■ 공공지원 중심 생태계가 창작자 간 경쟁 심화 요인으로 작용

"전통예술 쪽은 아직까지도 공공 쪽이 많이 주도하고 있어서, 민간에서 뭔가 기획을 해도 발표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아요. 공연장도 대부분 공공기관 소속이니까요." (TA024)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실제로 무대에 올릴 기회가 부족하니까, 결국에는 다들 공공지원 사업에 몰리게 되고, 그 안에서 경쟁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TA024)
"공공 쪽에서 전체 판을 짜고 있는 상황이라서, 민간 기획자들이 자율적으로 뭔가를 하기가 참 어려워요. 심지어는 아이디어가 있어도 발표 기회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TA024)

2) 기획자와 창작자의 생계 불안정

■ 단발성 사업 의존으로 장기적 창작 및 기획 활동 계획 수립 어려움
■ 기획자의 노동이 성과 중심으로 평가되어 인건비 반영이 미흡함
■ 지속 가능한 기획 활동을 위한 구조적 개선 필요

"사업이 단발성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획자 입장에서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항상 새로운 걸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요." (TA024)
"기획자는 결국 보이지 않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과 중심으로 평가되다 보니까 실제로 기획에 드는 시간이나 노동이 인건비로 보상되기 어려운 구조예요." (TA024)
"지속적으로 기획을 하려면 뒷받침되는 구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그때그때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식이어서 장기적으로 활동하기가 힘들어요." (TA024)

3) 전통 콘텐츠 소비 방식의 변화에 대한 대응 부족

■ 유튜브·SNS 등 매체를 통한 전통예술 소비 확산 중
■ 콘텐츠 축적 대비 유통 구조와 활용 모델 마련이 부족함
■ 새로운 매체 대응 전략과 지속 유통을 위한 구조 개선 필요

"요즘은 유튜브나 SNS 같은 데서 전통 콘텐츠를 접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저희도 공연 영상이나 짧은 클립을 올리긴 하는데,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고민이에요." (TA024)
"자료는 계속 쌓이고 있는데, 그걸 체계적으로 유통하거나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도 그냥 묻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TA024)
"새로운 매체를 활용하려면 그에 맞는 전략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전통예술 쪽은 그런 준비가 부족한 편이에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TA024)

4) 지역 단위 창작활동에 대한 체계적 지원 부족

■ 지역 기반 전통예술 창작은 활발하나 유통·협력 구조는 미흡함
■ 수도권 중심 인프라로 지역 창작자 성장 경로 제한됨
■ 지역 단위 유통망 및 창작 지원 네트워크 구축 필요

"지역에서는 전통을 바탕으로 한 공연이나 프로젝트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디로 유통시켜야 할지, 또 다른 지역하고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스템은 거의 없어요." (TA024)
"수도권에는 공연장도 많고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데, 지역은 그런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작업을 해도 확장성이 떨어져요." (TA024)
"지역 단위에서 움직이는 창작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들을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나 지원 체계가 있으면 훨씬 더 지속적인 작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TA024)

5) 평가 기준과 기획 역량의 간극

■ 실현 가능성 중심 심사로 창의적·실험적 기획이 불리함
■ 새로운 기획 시도와 심사 기준 간 괴리 발생
■ 다양한 기획 활성화를 위한 평가 기준 재정비 필요

"지원사업에 신청해 보면 창의적이거나 실험적인 기획은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기준이 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TA024)
"새로운 기획을 시도해보고 싶어도 심사 기준이 너무 현실 위주로 짜여 있다 보니까, 오히려 색다른 시도는 불리하게 작용하더라고요." (TA024)
"다양한 기획이 나올 수 있으려면 평가 기준도 조금 더 유연하고, 창의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TA024)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유통 기반 조성, 중장기 창작 지원, 기획자 지원 체계 마련 필요

1) 전통예술 유통 기반 강화

■ 민간 기획 콘텐츠의 실연을 위한 안정적 유통 기반 필요
■ 지역 공연장·축제·교육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콘텐츠 순환 필요
■ 일회성 지원을 넘는 지속 가능한 유통망 확보가 요구됨

"기획자들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그걸 실제로 유통시킬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한두 번 공연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TA024)
"지역 공연장이나 축제랑 연계해서 계속 순환할 수 있는 구조가 있으면 훨씬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TA024)
"지금은 일회성 사업이 많다 보니, 그때만 반짝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지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통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TA024)

2) 기획자 중심 지원사업 확대

■ 기획자 중심의 지원사업 마련과 인건비 지원 필요
■ 기획 역량 강화 교육 및 네트워크 구축 병행 필요
■ 프로그램 중심에서 인력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요구됨

"기획자 입장에서는 결과물뿐 아니라 그 과정을 만들어내는 데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나 기획 과정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TA024)
"기획 역량을 키우고 싶어도 따로 배울 수 있는 구조나 네트워크가 부족해서, 다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익히는 수밖에 없어요." (TA024)
"지금은 프로그램 단위로만 지원이 이뤄지다 보니까, 실제로 그걸 꾸려나가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은 부족한 것 같아요. 인력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봐요." (TA024)

3) 장기 창작 프로젝트 지원 구조 마련

■ 중장기 창작 프로젝트를 위한 단계별 지원 구조 마련 필요

■ 사전 연구비부터 유통비까지 연속적 지원 체계가 요구됨

■ 지속적 창작 활동을 위한 장기적 기획 기반 조성이 중요함

"지금은 대부분 단발성 지원이 많다 보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작업을 하기 어려워요. 한 번 발표하고 끝나는 식이 되니까요." (TA024)

"작업을 하다 보면 사전 조사부터 제작, 유통까지 단계가 있는데, 그걸 다 감당하려면 중간중간 끊기지 않는 연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TA024)

"장기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창작자나 기획자 모두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TA024)

[대상자25] 유통 분야

1. 일시

■ 2024년 11월 20일(수), 15:00 ~ 17:00

2. 장소

■ 대학로 예술극장 1층 회의실(서울 종로구 대학로10길 17)

3. 참석자 명단

[표 2-25] 참석자 명단 [대상자25] 유통 분야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1)	공공	TA-A			
참석자(n=1)	유통	TA025	여	50대	30년

4. 주요 논의 사항

■ 전통예술 창작과 보존
- 창작 기반 공연의 유통 한계와 민간 공연장의 보존·계승 기능 병행 필요

■ 전통예술의 교육 체계
- 공연 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 부재 및 신진 예술인의 성장 경로 부족

■ 예술 생태계와 자생력
- 민간 공연장의 운영 현실과 소규모 단체의 창작 기반 확보 어려움

■ 전통예술과 대중화
- 관객 개발과 홍보 전략 부재로 대중적 접근성 및 인식 확산에 한계

■ 정부지원과 정책
- 민간 공연장 중심의 전통예술 생태계에 대한 정책적 이해 및 지원 미흡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전통예술의 시장 및 지원 구조의 한계

1) 민간 중심 전통예술 공연장의 복합적 운영 현실

■ 전통예술 공연 유통망 부족으로 작품의 지속성과 시장 확대에 한계 존재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구조 강화로 공연 순환과 안정적 운영 체계 구축 필요
■ 지속 가능한 전통예술 유통을 위한 체계적 지원 및 전략적 접근 요구됨

"우리가 하는 공연은 지원을 받아서 한 번 하고 나면 거기서 끝나요. 이 공연을 다시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공연을 해도 축적이 안 되고 사라져요. 결국 공연의 생명력이 너무 짧은 거죠." (TA025)
"전통예술 공연은 유통망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지역에서 다시 공연하기도 어렵고 다른 공간으로 순회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요.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간 공연장도 버티기 힘들어요." (TA025)
"공연을 한 번 하고 나면 더 이상 활용할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새로 만들어야 하고, 그게 반복되면 창작자나 공연장 입장에서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공연이 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TA025)

2) 기획형 전통예술 공연의 유통 한계

■ 공공지원이 창작과 유통을 주도하나 창작자의 실질적 요구와 불일치하는 경우 많음
■ 장기적이고 자율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 개편 필요
■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위한 창작자 중심의 정책 마련 요구됨

"지금 공공에서 지원하는 것도 대부분 다 기획 공연이에요. 그게 좋은 측면도 있지만, 저희 같은 공간에서는 그 기획 공연 외에는 다른 공연을 올릴 수 없어요. 결국 기획에서 벗어나는 공연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TA025)
"지원사업이라는 게 어쨌든 목적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결과 위주로 흘러가고, 그러면 창작자들이 자율적으로 뭔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적어요. 그게 제일 아쉬운 점이에요." (TA025)
"공연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구조에서는 창작자도 계속 새로운 걸 해야 하니까 지치고, 뭔가를 축적해 나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 창작자 중심의 지원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TA025)

3) 전통예술 공연의 관객 접근성 부족

■ 전통예술이 스타 연주자 중심으로 소비되며 창작 기반 작품의 시장성 확보 어려움

■ 공연 산업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 구조 개선 및 마케팅 전략 마련 필요

■ 창작 작품의 지속적 유통과 관객 확대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요구됨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전통예술도 재밌고 재미없는 게 있는 건데, 좋은 공연이 많아도 그걸 알릴 방법이 없고, 결국 유명한 연주자가 나오지 않으면 관객들이 잘 안 와요." (TA025)

"지금은 전통예술이 스타 위주로 소비되는 경향이 강해서, 새로 창작한 작품이나 실험적인 공연은 관심을 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공연은 올리기조차 힘든 구조예요." (TA025)

"전통예술도 유통이 되고 마케팅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관객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지원은 공연 한 번에만 집중돼 있고, 이후에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TA025)

나. 생태계 이슈

민간 공연장과 예술 단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현실적 지원 및 협력 구조가 필요

1) 민간 공연장의 역할 대비 제도적 지원 부족

■ 민간 공연장은 장르 특화 공간이나 공공지원 체계에서 소외된 현실

■ 소규모 전통예술 단체의 활동 거점이나 정책적 지원 인식 부족

■ 민간 중심 공간에 대한 이해 기반의 차별화된 지원책 마련 필요

"민간 공연장이 전통예술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사실 정책적으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대부분 공공극장 중심으로만 이야기되니까요." (TA025)
"저희 공연장은 사실 소규모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인데, 이런 공간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정책적으로 고려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TA025)
"민간 공연장은 수익을 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공공지원이 잘 되는 것도 아니니까, 이중으로 어려워요. 민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원이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TA025)

2) 공공지원의 구조적 단절성과 비효율성

■ 지원사업이 목적 및 결과 중심으로 설계되어 공연의 연속성 확보에 한계 존재

■ 창작 단체의 자생력 확보 어려움, 행정 절차와 현장 운영 간 괴리 발생

■ 지속성과 현장성을 고려한 현실 기반의 지원체계 개선 필요

"지원사업이라는 게 대부분 목적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춰야 하니까 창작 단체가 뭘 해보려고 해도 자율성이 많이 제한돼요. 공연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TA025)
"지원사업이 많긴 한데 실제로 그걸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행정 절차가 까다롭고, 현장에서 공연을 준비하는 현실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TA025)
"한 공연이 끝나면 그다음이 없다는 게 가장 문제예요. 뭔가 쌓여야 하는데, 지금 구조에서는 축적도 어렵고 이어가는 것도 어려워요. 이런 점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TA025)

3) 공연장과 예술단체 간 연계 부족

■ 공연장과 예술단체 간 장기적 협력 부족으로 창작 역량 축적 어려움
■ 공연장이 단순 대관 공간으로 활용되며 생태계 활성화에 한계 발생
■ 유기적 협업 구조 마련을 통한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 필요

"공연장이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역할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단체와 같이 장기적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구조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창작이 쌓이지 않아요." (TA025)
"창작 단체가 공연장을 활용하더라도 일회성으로 끝나니까, 그 공간에서 뭔가 계속 발전되거나 연계되는 작업이 어렵죠. 그런 연결 구조가 있어야 공연도 살고 공간도 사는 건데요." (TA025)
"공연장과 단체가 서로 장기적으로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모델이 있으면 좋은데, 지금은 대부분 대관 중심이라 그런 구조가 거의 없어요. 협업이 지속되려면 정책적인 유도도 필요하다고 봐요." (TA025)

4) 공연장의 역할과 공공성 인식 미흡

■ 민간 공연장이 전통예술 진흥의 거점이지만 공공적 기능으로 인식 부족
■ 정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 다수, 제도적 사각지대 존재
■ 공연장의 공공성 재평가 및 정책적 반영 필요

"저희 같은 공연장이 실제로 전통예술 단체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공간인데도, 공공적인 기능으로는 잘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민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TA025)
"민간 공연장이 없으면 소규모 전통 단체들이 공연할 곳이 거의 없어요. 근데 정책에서는 이런 공간을 공공시설처럼 보지 않으니까 지원에서도 계속 배제되는 것 같아요." (TA025)
"공연장이 단순히 수익을 내는 공간이 아니라, 전통예술 생태계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정책에서도 다시 봐줬으면 해요. 공공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TA025)

5) 창작자와 기획자의 상생 구조 미비

■ 기획자 중심 구조에서 창작자의 자율성과 예술성이 제약되는 구조
■ 기획자 역시 안정적 활동 기반 부족, 양측 모두 지속성 확보 어려움
■ 창작자-기획자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지원사업이 대부분 기획자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창작자는 기획 방향에 맞춰야만 해요. 그러다 보면 창작자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원래 하려던 예술적 방향도 수정되는 경우가 많죠." (TA025)
"기획자도 사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요. 사업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고, 그게 아니면 계속 프로젝트 단위로만 일해야 하니까 지속성이 없어요." (TA025)
"창작자와 기획자가 서로 협력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해요. 지금은 각자 따로 움직이는 구조라 정책적으로도 그걸 연결해 줄 장치가 없다는 게 아쉬워요." (TA025)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전통예술의 유통을 비롯한 창작 및 홍보 지원 체계 강화 필요

1) 민간 공연장 대상 공공지원 체계 구축

■ 장르 특화 민간 공연장의 역할 반영한 공간 중심 지원사업 필요
■ 차별화된 운영지원 모델 마련 및 민간 공연장 지속 운영 기반 강화
■ 공공극장 연계 및 네트워크형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생태계 활성화 필요

"전통 쪽은 특히 특화된 공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민간 공연장이 살아남으려면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 해요. 그냥 대관료만으로는 유지가 안 되거든요." (TA025)
"공공극장들은 시스템이 있지만, 저희 같은 민간 공연장은 다 자력으로 운영해야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운영 자체를 도와주는 방식의 지원이 있으면 진짜 도움이 클 거예요." (TA025)
"공공극장이나 다른 민간 공연장과 연결돼서 공동 기획도 하고 유통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있어요.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 구조가 꼭 필요해요." (TA025)

2) 전통예술 공연의 유통 및 축적 시스템 마련

■ 전통예술 기획공연의 재공연 및 순회를 위한 유통 인프라 구축 필요
■ 공연 연계망 조성을 통해 작품의 생명력과 관객 접점 확대 도모
■ 창작자의 활동 지속성을 지원하는 공연 유통구조 마련 요구됨

"저희도 창작극을 만들고 있지만 한 번 공연하고 끝나요. 유통 구조가 없으니까 지역에 갈 수도 없고, 결국은 또 새로 돈 들여서 만들어야 해요. 너무 비효율적이죠." (TA025)
"공연이 순환되면 창작자도 좀 더 오래 작품을 다듬을 수 있고, 관객도 다양하게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런 유통 시스템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연결망이 필요해요." (TA025)
"좋은 공연도 한두 번 하고 끝나면 사라지잖아요. 공연이 살아 있으려면 계속 보여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하고, 그걸 위해선 유통 인프라가 꼭 필요해요." (TA025)

3) 전통예술 관객 개발을 위한 전략적 홍보 강화

■ 청년세대와 대중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및 전략적 홍보 방식 필요

■ 디지털 플랫폼과 문화공간을 연계한 접근 방식으로 접근성 제고

■ 체험형 프로그램 도입을 통한 전통예술 인식 확산 및 관객 저변 확대

"젊은 세대들은 전통공연이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관심을 안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 접할 수 있는 콘텐츠나 체험 기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TA025)

"지금은 다 디지털 기반이잖아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정보를 쉽게 접하게 하고, 오프라인 공간과도 연결하면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TA025)

"그냥 공연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전통예술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뀔 수 있어요. 그런 기획이 점점 더 필요해요." (TA025)

[대상자26] 유통 분야-1차

1. 일시

■ 2024년 12월 4일(수), 15:00 ~ 17:00

2. 장소

■ 대학로예술극장 1층 회의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67)

3. 참석자 명단

[표 2-26] 참석자 명단 [대상자26] 유통 분야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1)	공공	TA-A			
참석자(n=1)	유통	TA026	남	50대	18년

4. 주요 논의 사항

■ 전통 예술 창작과 보존
- 장르 구분을 넘는 복합적 창작 활동과 전통의 현대적 재해석에 대한 실천 필요

■ 전통 예술의 교육 체계
- 명인 중심의 기능 전승 중심에서 창작 기반 교육으로의 전환 필요

■ 예술 생태계와 자생력
- 기획과 운영을 병행하는 창작자의 현실과 자율적 창작 생태계 조성의 과제

■ 전통 예술과 대중화
- 유통과 반복 공연의 한계 속에서 관객과의 접점 확대 및 접근성 강화 필요

■ 정부 지원과 정책
- 장기적이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원 체계로의 개편 및 창작 친화적 제도 마련 필요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높은 지원 의존도와 시장 자생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균형 잡힌 정책 필요

1) 창작자 중심의 전통예술 활동과 기획 운영의 병행구조

■ 창작자들이 기획, 운영, 기술 등 복합적 역할을 병행하며 활동을 지속하는 구조임
■ 민간 전통예술 단체 중심으로 유연한 자율 기획과 제작 환경이 자생적으로 조성됨
■ 자율성 기반 구조 속에서 행정과 예산 부담이 집중되어 지속성에 제약이 있음

"저는 창작자이기도 하지만 운영자이기도 하고, 공간을 운영하다 보니까 행정도 해야 되고, 공연을 올릴 때는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하나의 공연을 올리기 위해서 단순히 예술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병행하게 되는 거죠." (TA026)
"민간 단체이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제작하는 데 익숙해요. 저희가 직접 공간도 운영하고 있고요. 물론 그런 자율성은 좋은데, 동시에 예산 문제나 행정 부담이 커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TA026)

2) 시장성과 예술성 간 긴장 속 자율적 예술 활동의 확장

■ 전통예술은 시장성보다 예술적 자율성과 실험성을 중시하는 창작 기반을 형성함
■ 장르 구분 없이 예술 세계를 구축하나 수익성 확보에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함
■ 자율적 예술 활동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창작 환경 보장이 필요함

"국악이 정말 좋아서 더 많이 공부하고 국악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내가 그런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서울대에 진학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 [...] 저는 순수하게 연주자로서 연주 활동이 비전이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 문화재가 되거나 어디에 기관장이 되거나, 국립국악원의 정악단 단원이 되거나, 저는 이런 비전은 극히 일부만 갖는 비전이어야 된다고 보고." (TA026)
"지원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17년을 자생해왔거든요. [...]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의존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생력과 경쟁력은 하나도 없다." (TA026)
"지금 젊은 연주자들한테 뭔가를 강요하고 주입시키는 건 대단히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 뭔가를 주입시켜서 연주자들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건 되게 어렵다라는 게 제 일체적인 결론이고." (TA026)

3) 장르 구분의 한계를 넘어선 복합 예술적 접근

■ 창작자들은 장르 경계를 넘어 전통예술을 복합적으로 재해석하며 창작을 수행함

■ 기존 장르 중심 지원 체계와 현장 창작 방식 간의 괴리가 존재함

■ 창작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분류 및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국악 플러스 퓨전국악을 사실은 2006년 가을에 처음 접했습니다. 라이브.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 그래서 제가 기업에서 나오고 이제 국악을 처음 비즈니스 모델로 한 공연 기획사를 차리고 나서 그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건데." (TA026)

"지금 K-POP도 시작해서 K-국악, K 어쩌고 저쩌고 K 엄청 많이 붙었는데, 정말로 그 몫을 K-POP만큼 하고 있는가? [...] 국악 쪽 분야는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또 없어져요. [...] 그래서 저는 그럼 그걸 어떻게 바꿀 거냐? 대중화 시키는 게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강제적인 게 필요하다." (TA026)

"제가 사실은 예전에 한번 기획했던 게 뭐냐면 아리랑 전용관이라는 걸 만들면 아리랑을 모티브로 하는 무용, 창극이든 아니면 기악 공연이든 상설로 365일 일어날 수 있는 공연이 필요하지 않을까. 최소한 인사동이든 경복궁이든.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고." (TA026)

나. 생태계 이슈

전통예술 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

1) 공연 공간의 접근성과 창작 활용도 불균형

■ 전통예술 창작자가 활용 가능한 공연장과 연습 공간의 실질적 가용성은 낮음
■ 접근성, 사용 시간, 비용 등 제약으로 창작과 공연의 연계가 어려운 현실임
■ 창작자 중심의 공간 설계와 유연한 운영 체계 마련이 필요함

"음대를 가면 아직도 연습실을 서양하고 국악하고 연습실을 같이 쓰고 있는 현상. [...] 내가 서울대 국악과 교수님이면 건물을 하나 세웠다. 왜 그거를 분리 작업을 못하고 여전히 눈치 보면서 연습실을 잡아서 써야 되는가." (TA026)
"동십자각 옆에서 갤러리를 운영할 때 외국인이 들어와서 아리랑이라는 공연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 [...] 우리는 아리랑이 대표적인 전통의 모티브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아리랑 전용관이라는 게 없구나." (TA026)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국립국악관현악단 공연을 할 때 낮 공연이었거든요. [...] 무대에 올리는 사람은 70명이 넘는데 관객들은 제가 대충 세어 봤는데 한 55명. [...] 관객들이 있건 없건 대중화를 위한 홍보라든가 소위 모객 활동 자체를 적극적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TA026)

2) 유통 기회의 부족과 반복 공연의 어려움

■ 전통예술 공연은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나며 재공연 기회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 유통 구조 부재와 연계 극장 부족이 지속적 순환 공연에 걸림돌로 작용함
■ 반복 공연이 가능한 유통구조 마련과 플랫폼 연계가 절실함

"국악의 대중화가 정말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큰 선생님들도 계세요. [...] 굳이 공연 나가서 관객들이 미어터져야 되고 티켓을 사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정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국악 공연을 초대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 돈 내서 가서 보지 않는다. 그럼 이게 어디부터 고쳐야 되나." (TA026)
"뮤지컬 '빨래' 같은 경우는 소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게 그거고 [...] 그러면 왜 국악 공연을 몇 번씩 와서 보게끔 못 만드냐." (TA026)
"아리랑 전용관이라는 걸 만들면 아리랑을 모티브로 하는 무용, 창극이든 아니면 기악 공연이든 상설로 365일 일어날 수 있는 공연이 필요하지 않을까." (TA026)

3) 홍보 미비와 관객 소통의 단절

■ 전통예술 공연은 관객 개발이 미흡하며 전략적 홍보와 소통 방식 강화 필요

■ 젊은 세대와의 접점 부족, 기존 관객층 의존을 넘어서는 관객 확대 전략 요구

■ 관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체험형 프로그램 도입 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공연을 잘 안 보러 오잖아요. 우리가 공연을 올릴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 말고는 정보가 닿지 않아서 접근 자체가 어려운 것 같아요." (TA026)
"홍보를 해도 전통 쪽은 기존 관객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젊은 세대나 새로운 관객들이 유입되려면 콘텐츠나 소통 방식부터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TA026)
"예를 들어 체험형 콘텐츠나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 같은 게 있으면, 공연을 보는 것 이상으로 관객과 연결되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TA026)

4) 지속 불가능한 예산 구조와 행정 절차의 과중

■ 공연 제작 예산을 창작자가 직접 부담하는 구조로 재정적 어려움이 큼

■ 기획자 겸 창작자에게 과도한 행정 업무와 증빙 절차가 요구됨

■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마련과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함

""공연을 했는데 고스란히 두 번 공연하고, 적자만 한 2,700만 원. 우리 연주자들은 다 아는데요. 제가 앙상블을 하는 3년 차에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거든요. 그때는 스태프도 있었고, 저는 어떻게 보면 기업체에 있다가 예술계로 처음 온 케이스라 연주자들을 너무너무 우러러보는 상황이었어요." (TA026)
"인건비에 대해서 출연료를 40만 원, 40만 원, 40만 원 입금해놓고 다시 현금을 리턴받는 게 17년이나 지금이랑 똑같다라는 거. 안 그러면 남질 않으니까." (TA026)
"지원사업의 기획안이나 신청서를 좀 써달라는 요청이 제일 많아서 […] 우리가 서류에서 쓰는 것과 실제를 하고 나서도 현장실사도 오시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신고한 대로 페이를 입금은 시켜서 증빙은 가능하지만, 결국 현금으로 리턴받아가는 구조가 2007년하고 지금 2024년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TA026)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유통망 확대 및 지속적 창작 지원 체계 구축, 홍보 전략 강화 등을 통한 지속 가능 생태계 활성화 필요

1) 공연 유통 생태계 구축을 위한 플랫폼 개발

■ 전통예술 유통 경로가 부족해 지속적인 작품 순환이 어려운 상황임
■ 기획자 중심 플랫폼과 지역 순회·상시 공연이 가능한 유통 구조 마련이 필요함
■ 단발성 공연을 넘는 지속적 유통 환경 조성이 요구됨

"작품을 만들고 나서 한두 번 공연하고 끝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계속해서 공연이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없으니까, 아무리 좋은 작품이어도 순환이 안 되면 소모되고 말죠." (TA026)
"기획자 중심으로 공연을 묶어서 상시 공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좋겠어요.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공연하고, 플랫폼처럼 계속 노출되는 구조가 있으면 창작자 입장에서도 훨씬 낫죠." (TA026)
"지금은 거의 모든 공연이 단발성이에요. 유통 구조가 약하니까 작품 하나 만들고 나서 끝이에요. 지속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 해요." (TA026)

2) 창작자 주도형 공간 지원과 활용도 제고

■ 창작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 연습 및 공연 공간 확보가 필요함
■ 단순 대관을 넘는 창작자 중심의 공간 설계 및 운영 체계 구축이 요구됨
■ 시간, 음향, 기술 등 창작 실현 위한 물리적 지원 기반 마련이 필수적임

"공간이 있어도 연습하거나 작업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시간 제약도 크고, 음향이나 기술적인 조건도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창작에 활용하기 어려워요." (TA026)
"공간을 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작자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거나 설계에 참여할 수 있어야 진짜 필요에 맞게 쓸 수 있어요. 그냥 대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TA026)
"작업하려면 공간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음향 조건이라든가 조명이나 장비 같은 것도 갖춰져야 하잖아요. 그런 게 다 지원돼야 진짜 창작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TA026)

3) 장기적이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지원 체계 도입

■ 창작자의 자율적 예술 활동 유지를 위한 장기적·포괄적 지원 체계가 필요함

■ 기획·운영·기술 등 복합 역할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식 마련이 요구됨

■ 단발성 지원을 넘는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이 필수적임

"지금은 대부분 단기 지원이라서 공연 한두 번 하고 끝이에요. 그다음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고, 계속 새로운 사업을 찾아다녀야 하니까 자율적으로 창작하기가 힘들어요." (TA026)

"창작자들이 기획도 하고 운영도 하고 기술적인 것까지 다 챙겨야 하니까, 그걸 반영해서 좀 더 맞춤형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TA026)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해요. 그래야 자율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안정적으로 창작을 이어갈 수 있어요." (TA026)

[대상자26] 유통 분야-2차

1. 일시

■ 2024년 12월 9일(월), 11:00 ~ 13:00

2. 장소

■ 온라인 Zoom회의

3. 참석자 명단

[표 2-27] 참석자 명단 [대상자26] 유통 분야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1)	공공	TA-A			
참석자(n=1)	유통	TA026	남	50대	18년

4. 주요 논의 사항

■ 전통예술 창작과 보존
- 전통 계승과 창작의 균형 문제, 현대적 감각을 반영한 창작 방식 모색

■ 전통예술의 교육 체계
- 국악 및 전통예술 교육의 한계, 창작자의 경로와 생계 유지 문제

■ 예술 생태계와 자생력
- 예술 단체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독립적 생태계 조성 방안

■ 전통예술과 대중화
- 전통예술의 대중적 접근성 확대, 창작과 전통의 경계 설정 문제

■ 정부 지원과 정책
- 전통예술 지원 정책의 한계 및 지속 가능한 개선 방안 마련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전통예술 창작 환경의 현실

1) 창작자의 자생적 활동 어려움

■ 전통예술 창작자가 공공지원에 의존하며 독립적 창작 활동 지속이 어려운 환경임
■ 공연 유통과 홍보 부족으로 자율적인 작품 발표 기회가 제한됨
■ 창작 생태계 구축이 미흡해 안정적인 예술 활동이 어려운 상황임

"시즌이나 이런 때마다 다르지만, 공연이 잘 들어올 때도 많지만 특정 사회적 이슈나 사건이 발생하면 공연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부나 기관에서 주최하는 공연의 경우 계약서를 쓰지 않고 유선상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창작자 입장에서 불안정성이 큽니다." (TA026)
"공연이 확정된 이후 연주자들이 연습에 들어가거나 편곡, 의상 준비를 시작하지만, 갑작스럽게 공연이 취소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창작자가 자율적으로 공연을 계획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TA026)
"창작자들은 공연 연습과 준비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지만, 공연이 취소되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작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보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TA026)

2) 공연 계약 체계의 불안정성

■ 정부 및 공공기관 주최 공연에서 계약서 없이 구두로 확정 후 취소되는 사례 빈번함
■ 창작자는 사전 준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임
■ 계약서 작성 의무화 및 계약금 지급 제도 도입이 필요함

"공연 계약이 유선상으로 확정된 후 취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계약서 없이 진행되다 보니 공연 준비 과정에서 투입된 시간과 비용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최 측 사정으로 공연이 일방적으로 취소되더라도 일정 부분 보상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TA026)
"계약금이 지급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공연이 확정되면 연주자들은 연습에 들어가고, 편곡 작업을 하거나 의상을 준비하는데, 공연이 주최 측 사정으로 갑자기 취소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최소한 계약금 일부라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TA026)
"공연이 하나의 행사 프로그램으로 정식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최 측이 공연을 단순한 부가 요소로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막상 행사 직전에 공연이 취소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통한 보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TA026)

3) 지원사업과 창작자의 필요 불일치

■ 정부 지원사업이 창작자의 실질적 필요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지원금 중심 운영으로 창작자의 장기적 비전 설정이 어려운 구조임

■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원사업 개편이 필요함

"공공 지원사업이 많긴 하지만, 실제로 창작자가 원하는 방식과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금이 책정되는 방식도 공연 기획자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연주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제한적입니다." (TA026)
"지원금이 창작자의 장기적 활동을 지원하기보다는 단기 프로젝트 위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공연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TA026)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도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연주자들이 실제로 신청해도 금전적 이익이 거의 없는 구조라서, 오히려 지원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TA026)

나. 생태계 이슈

전통예술 생태계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시장 구조 및 문제점

1) 공연 시장에서의 불리한 경쟁 구조

■ 전통예술 공연이 시장성을 확보하지 못해 지속적 유통과 소비가 어려운 현실임
■ 특정 스타 연주자 중심으로 공연이 소비되며 창작 기반 작품의 기회가 제한됨
■ 공연 유통망 확대와 체계적인 홍보 전략 마련이 필수적임

"전통예술 공연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유통 구조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스타 연주자 중심으로 소비되는 경향이 강하고, 새로운 창작 기반 작품은 공연 기회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TA026)
"공연이 일정하게 지속되지 않고, 특정 시기에는 몰리다가 갑자기 취소되는 사례가 많아요. 이런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창작자가 장기적으로 작품을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TA026)
"공연 유통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지원과 홍보 전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TA026)

2) 공연 취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

■ 주최 측 사정으로 공연이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함
■ 공연 취소 시 보장되는 위약금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주최 측 사유로 취소될 경우 일정 비율 보상을 지급하는 계약 조항이 필요함

"공연이 확정된 후 연주자들이 연습과 편곡, 의상 준비를 진행하지만, 갑작스러운 취소로 인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연 취소 시 일정 비율의 보상을 보장하는 계약 조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TA026)
"공연이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경우가 많지만, 위약금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연주자들은 경제적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최소한 공연료의 일정 비율을 계약금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TA026)
"계약서 없이 유선상으로 공연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행사 직전 공연이 취소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공연을 단순한 부가 요소로 취급하는 인식이 바뀌어야 하며, 계약서를 통한 보호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TA026)

3) 전통예술 단체의 운영 한계

■ 연주자가 공연 외 수익 모델을 확보하기 어려워 안정적 활동이 어려운 구조임
■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부족한 현실임
■ 단체 운영 방식 개선과 공연 외 수익 창출 방안 마련이 필요함

"연주자들이 공연 외에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공연이 있을 때마다 사례비가 지급되는 방식이라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TA026)
"앙상블이나 예술단체를 운영하려면 재정적 기반이 필요한데, 공연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운영 자체가 불안정합니다. 월세 부담을 함께 나누던 팀원들이 경제적 이유로 빠져나가면 단체가 해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TA026)
"공연 외에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연 사례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단체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TA026)

4) 디지털 홍보 및 유통의 중요성

■ 기존 홍보 방식의 한계로 전통예술 공연의 대중적 접근성이 낮음
■ 젊은 세대를 겨냥한 디지털 홍보 전략이 부족한 상황임
■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함

"전통예술 공연의 홍보 방식이 기존 아날로그 중심이라 대중적 접근성이 낮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가 부족하여 자연스러운 관객 유입이 어렵습니다. 온라인 홍보와 디지털 플랫폼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TA026)
"공연 홍보가 기존 포스터나 보도자료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새로운 홍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TA026)
"해외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전통예술을 홍보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홍보 채널을 개발하고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TA026)

5) 후속 세대 유입과 교육 문제

■ 전통예술 생태계 유지를 위해 새로운 인재들의 지속적 유입이 필요함
■ 수익성 부족과 불안정한 환경으로 젊은 창작자의 장기적 활동이 어려운 현실임
■ 창작 지속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및 지원 체계 마련이 요구됨

"대학을 졸업하면 자연스럽게 연주팀을 만들거나 기존 팀에 들어가지만, 문제는 장기적인 활동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수익이 불안정하고, 공연 기회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창작 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TA026)
"앙상블 활동이 단순히 용돈벌이가 아니라, 연주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공연이 있을 때만 수익이 발생하고 그 외에는 안정적인 지원이 부족합니다." (TA026)
"전통예술을 전공한 젊은 창작자들이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지원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연습 공간 제공이나 지속적인 창작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TA026)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전통예술의 지속성을 위해 유통망 확대, 장기 지원, 디지털 홍보 강화 필요

1) 공연 유통망 확충 및 안정적 계약 체계 구축

■ 전통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공연 유통망 확대와 안정적 유통구조 마련이 필요함
■ 공연 계약 시 일정 비율의 계약금을 보장하는 시스템 도입이 요구됨
■ 창작자의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

"전통예술 공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안정적인 유통망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공연이 단발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창작자들이 꾸준히 활동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TA026)
"공연 계약이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취소 시 창작자가 경제적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일정 비율의 계약금을 보장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TA026)
"공연 취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의무화와 보상 체계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TA026)

2) 장기적 창작 지원 체계 마련

■ 단기 지원 중심의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 창작 활동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
■ 창작자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 안정적인 지원 구조 마련이 요구됨
■ 공연 외에도 교육, 연구,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지원 확대가 필요함

"공연 지원사업이 대부분 단기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되어 창작자들이 장기적인 활동을 계획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위해 보다 안정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TA026)
"공연뿐만 아니라 교육, 연구, 콘텐츠 개발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도 창작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공연 중심 지원이 많아 창작자의 직업적 다양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TA026)
"단기 지원에서 벗어나 창작자들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이 개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정적인 창작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예술 생태계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TA026)

3) 디지털 홍보 및 관객 개발 전략 강화

■ 전통예술의 대중화를 위해 혁신적인 홍보 및 마케팅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젊은 세대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미디어 활용이 요구됨

■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공연 접근성 확대와 관객층 확장이 필요함

"전통예술 공연의 홍보 방식이 기존 아날로그 중심이라 대중적 접근성이 낮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가 부족하여 자연스러운 관객 유입이 어렵습니다. 온라인 홍보와 디지털 플랫폼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TA026)
"공연 홍보가 기존 포스터나 보도자료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새로운 홍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TA026)
"해외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전통예술을 홍보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홍보 채널을 개발하고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TA026)

[대상자27] 지원영역(민간) 분야

1. 일시

■ 2024년 10월 10일(목), 09:30 ~ 11:30

2. 장소

■ 군포문화예술회관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599)

3. 참석자 명단

[표 2-28] 참석자 명단 [대상자27] 지원영역(민간) 분야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2)	공공	TA-A			
	공공	TA-B			
참석자(n=1)	지원영역(민간)	TA027	여	50대	-

4. 주요 논의 사항

■ 전통예술 창작과 보존

- 정악 창작의 필요성과 전통적 어법을 해치지 않는 현대적 재구성 방식의 고민

■ 전통예술의 교육 체계

- 국악과 전통 관현악 교육에서 창작 능력 함양과 실연 기반 교육의 강화 필요성

■ 예술 생태계와 자생력

- 민간 예술단체의 운영 현실과 인력 부족,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위한 구조 마련 필요

■ 전통예술과 대중화

- 관객층 확대와 지역 연계, 전통예술에 대한 친숙한 접근 방식을 통한 저변 확대 필요

■ 정부지원과 정책

- 단발성 중심의 공공지원 방식 개편과 창작 기획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구축 필요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민간 전통예술 분야 현황 및 문제점

1) 민간 전통예술 단체의 독립적 운영 실태

■ 민간 단체는 기획력과 연주력을 갖췄으나 정기 공연 외 활동 기회가 제한됨
■ 예술감독이 기획과 행정을 겸하며 인력 부족으로 운영의 지속성 확보가 어려움
■ 창작 기반 확대를 위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예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그냥 저희는 정기 연주회하고, 그러니까 정기 연주회 말고는 사실은 공연할 기회가 없어요. 뭐 이렇게 초청 연주회 이런 것들은 사실 없고, 저희가 뭐 기획해서 하는 건 다 정기 연주회고요." (TA027)
"그리고 또 행정적인 일을 제가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연주자들이 워낙 연주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TA027)
"창작곡을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게 참 지속이 안 돼요. 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연주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저희가 계속 창작곡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어요." (TA027)

2) 고용 안정성과 인력구조의 불균형

■ 단체 내 행정 및 기획 인력의 고용 안정성이 낮고 대표자에게 업무가 집중됨
■ 역할 분담이 미비해 예술단체의 장기적 운영과 발전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고용 안정성과 행정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사실은 저희가 상근 인력이 없어요. 단체 대표인 저도 물론 다른 일도 하고 있고, 또 이게 상근 인력으로서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게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예요." (TA027)
"연주하는 사람들은 연주에 집중하고 싶어 하고, 또 연주만 하기도 바쁘고요. 그런데도 기획이나 행정 일까지 같이 맡아야 하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이런 역할을 분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쉽지가 않아요." (TA027)
"기획이나 행정 일을 전문적으로 맡아줄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긴 한데, 그런 분들을 단체에서 채용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재정 구조가 안 되니까 늘 임시방편으로만 움직이게 돼요." (TA027)

3) 외부 협업과 사업 수주 중심 활동 구조

■ 민간 단체는 공공기관 위탁사업 중심으로 외부 공연 활동을 이어가는 구조임
■ 자체 수익 창출 기반이 부족해 운영의 독립성과 예술적 정체성 유지가 어려움
■ 위탁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생적 전략과 구조 마련이 필요함

"지금은 거의 외부 사업 위탁 형태로 공연을 하고 있어요. 공공기관이나 지역 축제 같은 데서 요청이 오면 그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공연을 하게 되죠. 저희가 주도적으로 기획해서 하는 공연은 정기 연주회 정도밖에 없어요." (TA027)

"사실 단체 운영비를 자체 수익으로 충당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외부 공연이 들어오면 거기서 일부 수익을 얻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운영은 힘들고, 예술적으로도 늘 타인의 기획 의도에 맞춰야 하니까 저희 색깔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TA027)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 단체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그걸로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해요. 지금처럼 위탁 공연에 의존하면 방향성을 잡기도 어렵고, 꾸준한 활동도 쉽지 않거든요." (TA027)

나. 생태계 이슈

유통, 기획, 협업 기반 강화 필요

1) 단체 운영의 지속 가능성 위협

■ 민간 단체는 일회성 지원에 의존해 중장기적 운영 계획 수립이 어려운 구조임
■ 지속적 창작과 유통을 위한 안정적 기반과 지원 체계가 부족한 실정임
■ 장기적 관점의 기획과 창작 지속이 가능하도록 운영 구조 개선이 필요함

"지원사업이라는 게 대부분 일회성이다 보니까, 그 해에 뭘 하고 나면 다음 해는 또 다른 지원을 찾아야 해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죠." (TA027)
"어떤 해에는 지원을 받아서 창작곡도 하고 규모 있는 공연도 할 수 있지만, 다음 해에는 아예 공연을 못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지속한다는 게 구조적으로 힘든 거예요." (TA027)
"지속적으로 창작하고 공연할 수 있으려면 단체 운영 자체가 안정적이어야 하는데, 그 기반이 너무 약해요. 그냥 해마다 상황을 봐가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TA027)

2) 공연 유통 경로의 부족

■ 공연장 접근성과 대관의 어려움으로 창작 공연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음
■ 지역 공연장과 연계된 순회 시스템 부재로 반복 상영과 유통 기반이 미흡함
■ 유통 경로 확대를 위한 공공의 전략적 개입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공연장을 잡는 게 정말 어려워요. 특히 민간단체 입장에서는 서울 안에서 괜찮은 공연장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대관도 경쟁이 심하고 비용도 부담이고요." (TA027)
"저희가 창작곡을 한 번 공연하고 나면 그걸 다시 올릴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지역에서라도 다시 공연하면 좋겠는데, 그걸 연계해 줄 시스템이 없어요." (TA027)
"창작한 작품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공연장에서도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유통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런 흐름이 거의 없어요." (TA027)

3) 관객 개발 및 소통 부족

■ 전통예술 단체는 관객 개발 역량이 제한적이며 대중화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만드는 콘텐츠 개발과 소통 방식이 부족한 실정임

■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관객 소통 전략 마련이 시급함

"저희 단체가 기획한 공연을 보면 연령대가 대부분 높아요. 젊은 관객층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은 많은데,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TA027)
"젊은 세대가 전통음악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뭔가 새로운 콘텐츠나 접근 방식이 필요한데, 그런 기획을 할 수 있는 여력도 부족하고 실제로 해본 적도 많지 않아요." (TA027)
"그냥 포스터 만들어서 홍보하고, 지인들 통해서 알리고… 이런 방식만으로는 관객이 다양해지기 어려워요. 좀 더 체계적인 관객 소통 전략이 있었으면 해요." (TA027)

4) 공공지원의 기획 편중 문제

■ 공공기관 기획 공연 중심 구조로 민간 단체의 자율적 기획 반영이 어려움

■ 특정 프로그램 집중 지원으로 창작자의 기획 역량 발휘에 한계 존재

■ 민간 기획에 대한 신뢰 확보와 위탁 구조 재편이 요구됨

"공공기관에서 기획한 공연에 저희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엔 이미 정해진 방향과 주제에 맞춰야 하니까 저희가 원래 기획했던 아이디어를 반영하기가 어려워요." (TA027)
"지원사업도 보면 공모 형식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엔 정해진 프로그램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니까 창작자가 스스로 기획을 해서 밀고 나가는 데 한계가 있어요." (TA027)
"민간 단체가 기획한 프로젝트도 충분히 완성도 높게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획이 신뢰받고 위탁될 수 있는 구조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TA027)

5) 예술가와 기획자 간 협업 부재

■ 공연 기획과 유통에서 예술가와 기획자 간 협력 구조가 부족한 실정임

■ 창작과 유통이 분리되지 않아 역할 분담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 기획 인력 육성과 예술가-기획자 연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제가 예술감독이지만 사실상 기획, 섭외, 행정까지 다 맡고 있어요. 창작에만 집중하고 싶어도 다른 일을 병행해야 하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TA027)
"기획자랑 팀을 이뤄서 작업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항상 해요. 그런데 그런 인력도 없고, 연결될 수 있는 구조도 없어서 결국은 다 단체 내부에서 해결하려고 하게 되죠." (TA027)
"공연 유통이나 마케팅 같은 건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인데, 예술가가 그걸 전부 감당하는 건 무리예요. 그런 부분을 맡아줄 수 있는 기획자와의 협업이 절실해요." (TA027)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기획 중심 지원과 유통 시스템 구축, 운영 인력 자원 필요

1) 기획 중심 공공지원 체계로의 전환 필요

■ 단체 중심 공공지원에서 벗어나 창작 기획 중심의 지원 체계 전환이 필요함
■ 기획자와 예술가 협업을 통한 유통 및 반복 상연 가능한 구조 마련이 요구됨
■ 단발성 아닌 연속적 기획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원 방식이 필요함

"지원사업이 대부분 단체 운영비나 정기 연주회 중심이다 보니까, 기획자 중심의 창작 프로젝트는 잘 반영이 안 돼요. 예술가와 기획자가 협력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 해도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TA027)
"창작 공연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해서 상연될 수 있으려면, 기획자가 지속적으로 유통 경로를 만들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 구조가 지금은 마련돼 있지 않아요." (TA027)
"창작자 입장에서는 단발성 공연보다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프로젝트가 훨씬 중요해요. 그런 걸 가능하게 하려면 기획 중심의 지원 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TA027)

2) 순회공연 시스템 구축과 유통 플랫폼 강화

■ 창작 작품이 지역 공연장을 순회할 수 있는 공연 유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지역문화재단·민간 극장과 협업해 유통 플랫폼을 확장할 전략 마련이 요구됨
■ 반복 공연이 가능한 구조 지원을 통해 전통예술의 유통 기반 강화가 필요함

"창작한 곡이 한 번 공연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에서도 다시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근데 그런 순회 시스템이 잘 안 갖춰져 있어서 계속 새로운 작품만 만들게 되는 구조예요." (TA027)
"지역문화재단이나 민간 극장이랑 연계해서 유통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공연도 더 많이 알려지고 관객도 더 넓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TA027)
"한 번 만든 창작곡이나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해서 공연할 수 있게 하면, 창작자 입장에서도 보람 있고 단체 운영도 더 안정될 수 있어요." (TA027)

3) 인력구조 개선 및 행정 지원 강화

■ 단체 운영을 위한 기획·행정 인력의 안정적 고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대표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역할 분담 가능한 행정 지원 프로그램 확대가 요구됨

■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예술단체의 운영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함

"기획이나 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따로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은 그런 여건이 안 돼서 대표인 제가 거의 모든 걸 맡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이 구조가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TA027)

"단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과 기획도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제도나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요." (TA027)

"중간지원조직이 단체 운영과 관련해서 행정 지원이나 기획 역량을 키워주는 방식으로 연계되면 훨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TA027)

[대상자28] 지원영역(공공) 분야

1. 일시

■ 2024년 10월 29일(화), 16:00 ~ 18:00

2. 장소

■ 국악방송 인근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2)

3. 참석자 명단

[표 2-29] 참석자 명단 [대상자28] 지원영역(공공) 분야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2)	공공	TA-A			
	공공	TA-B			
참석자(n=1)	지원영역(공공)	TA028	여	50대	32년

4. 주요 논의 사항

■ 전통예술 창작과 보존
- 전통 계승과 창작의 균형 문제, 현대적 감각을 반영한 전통예술 접근 방식

■ 전통예술의 교육 체계
- 국악 및 전통예술 교육의 구조적 한계, 예술가의 성장 경로와 경제적 지속 가능성

■ 예술 생태계와 자생력
- 예술 단체의 운영 안정성과 자립적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

■ 전통예술과 대중화
- 전통예술의 대중적 접근성 확대, 창작과 전통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

■ 정부지원과 정책
- 전통예술 지원 정책의 한계 및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 필요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공공 전통예술 분야 현황 및 문제점

1) 전통예술 창작과 유통의 한계

■ 전통예술 창작과 유통이 공공지원에 의존하며, 창작자의 자생적 활동이 어려운 구조임
■ 독립적 공연 기획과 유통망 부족으로 창작 활동의 지속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임
■ 창작자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공연 유통망 확대 및 자립 기반 마련이 필요함

"전통예술 창작과 유통이 공공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에요. 독립적인 기획이 어려운 이유는 창작자가 공연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데 필요한 유통망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공연이 한두 번 이루어지고 나면 지속되기 어려운 구조예요." (TA028)
"지금의 환경에서는 창작자들이 자생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지원이 있어야 공연이 가능하고, 지원이 끊기면 기획을 이어가기가 어렵죠. 결국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유통망과 공연 기회가 더 필요해요." (TA028)
"공공지원 없이 전통예술이 자생적으로 유지되려면, 창작자들이 공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해요. 독립적인 기획이 가능하도록 유통망을 확대하고, 공연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요." (TA028)

2) 전통예술 방송 및 홍보의 부족

■ 전통예술의 대중적 확산이 어려운 이유는 홍보 및 방송 접근성이 낮기 때문임
■ TV, 라디오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전략 강화가 필요함
■ 체계적인 홍보 지원 부족으로 대중과의 접점 확대에 한계가 존재함

"홍보를 할 예산이 부족해서 TV 광고를 지속적으로 할 수도 없고, 방송을 접할 기회를 만들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방송을 들어보면 좋은데, 지속적으로 청취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예요." (TA028)
"요즘은 젊은 세대가 라디오를 잘 듣지 않아요. 앱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유튜브나 SNS로 이동하는 경향이 강해요. 전통예술 방송도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춰 변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TA028)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전통예술 방송은 항상 뒤따라가는 입장이에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예산과 인력 문제로 새로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TA028)

3) 전통예술 지원 체계의 구조적 한계

■ 공공지원 중심 구조로 창작자의 장기적 비전 수립이 어려운 상황임

■ 단발적 지원이 많아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위한 연속성이 부족함

■ 창작자의 실질적 필요에 맞는 지원 방식 개선이 요구됨

"예전에는 신진 예술가 위주로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서 중견 예술인들이 소외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현재는 중견 예술인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창작자가 15년 이상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해요." (TA028)

"단발적인 지원사업이 많다 보니 창작자들이 연속적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려면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는 체계가 필요해요." (TA028)

"우리나라 국악 인구가 어느 정도 유지되려면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필요해요. 창작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TA028)

나. 생태계 이슈

높은 공공지원 의존도와 창작·홍보·유통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전통예술의 지속성 문제

1) 공연 생태계의 부재

■ 전통예술 공연이 공공기관과 지원사업에 의존하며 독립적 기획이 어려운 구조임
■ 대중적 접근성 강화와 관객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 부족한 상황임
■ 지속 가능한 공연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과 유통망 구축이 필요함

"전통예술 공연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어렵고, 대부분 공공기관과 지원사업에 의존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 창작자가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환경이 부족하고, 관객 개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TA028)
"대중들이 전통예술을 쉽게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아요. 공연이 있더라도 정보가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낮아 실제로 관객들이 찾아오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관객 개발을 위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TA028)
"공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안정적인 유통망과 지원 체계가 필요해요. 공연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해요." (TA028)

2) 창작과 전승 간 불균형

■ 전통예술의 보존과 창작을 균형 있게 지원하는 정책이 부족한 상황임
■ 보존 중심 정책으로 창작 활동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함
■ 창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 개선이 필요함

"전통예술의 보존과 창작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존이 우선시되다 보니 창작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아요. 보존도 중요하지만, 창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지원이 필요해요." (TA028)
"창작자들이 전통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지원 체계는 보존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창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TA028)

3) 전통 예술가들의 경제적 어려움

■ 창작자들이 지속적인 창작 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
■ 수익 모델이 제한적이며 단발적 지원사업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문제 존재함
■ 장기적인 생계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만 해도 국악 관련 취업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국립국악원이나 서울시립국악관 같은 극소수의 기관에서만 채용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른 직종으로 전향해야 했죠. 지금은 지원사업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TA028)
"국악 인구가 일정 규모를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필요해요. 창작자들이 15년 이상 활동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많은 예술가들이 생계를 위해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TA028)

4) 홍보 및 관객 개발 전략 부족

■ 공연 홍보 및 마케팅 전략 부족으로 전통예술의 대중적 확산이 어려운 상황임
■ 새로운 플랫폼과 미디어를 활용한 효과적인 홍보 전략 마련이 필요함
■ 관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홍보 지원 강화가 요구됨

"홍보 예산이 부족해 TV 광고를 지속적으로 할 수도 없고, 방송을 접할 기회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공연과 방송을 연계해 관객을 유입하는 방식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효과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TA028)
"라디오나 TV를 활용한 홍보도 한계가 있어요. 요즘 젊은 세대는 유튜브나 SNS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경향이 강해서, 전통예술도 이런 새로운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해요." (TA028)

5) 예술기획과 실행의 한계

■ 창작자의 작품 유통과 홍보를 위한 기획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임
■ 창작자들이 기획과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존재함
■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체계적인 유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유통하고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해요. 방송 기획도 마찬가지로 전통예술을 위한 체계적인 기획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라 창작자들이 직접 마케팅까지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TA028)
"기획과 마케팅이 중요한데, 창작자들이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체계적인 기획과 유통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창작자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요." (TA028)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유통망 확대, 장기적 지원, 디지털 홍보 전략 강화 필요

1) 유통 시스템 개선 필요

■ 전통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공연 유통망 확대와 유통 환경 개선이 필수적임
■ 지역극장 및 다양한 플랫폼과 협력하여 안정적인 작품 순환 구조 마련이 필요함
■ 창작 작품의 장기적 유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전통예술이 지속되려면 공연 유통망이 반드시 확장되어야 해요. 지금은 새로운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전통예술은 이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고 있어요. 공연을 안정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요." (TA028)
"지금까지는 공연을 한 번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지역극장과 플랫폼을 활용해 작품이 순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창작자들도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요." (TA028)

2) 창작 지원 체계 개편 필요

■ 전통예술 창작 지원사업 방식 개편과 장기적·안정적인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단발적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유도하는 정책 마련이 요구됨
■ 창작자의 자율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지원 구조 확립이 중요함

"전통예술 창작자가 지속적으로 활동하려면 단순한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해요. 15년 이상 버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많은 예술가들이 생계를 위해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TA028)
"지금은 신진 예술가 위주의 지원사업이 많지만, 일정 기간 이상 활동한 예술가들도 안정적으로 창작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개편될 필요가 있어요. 창작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장기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해요." (TA028)

3) 홍보 및 관객 개발 전략 강화

■ 전통예술의 대중화를 위해 혁신적인 홍보 및 마케팅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젊은 세대를 겨냥한 맞춤형 접근 방식과 콘텐츠 개발이 요구됨
■ 다양한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강화가 필수적임

"홍보를 위한 충분한 예산이 없다 보니 TV 광고를 지속적으로 할 수도 없고, 방송을 통해 홍보할 기회도 제한적이에요. 효과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하지 않으면 대중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구조예요." (TA028)
"공연이 있더라도 정보가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낮아 관객들이 쉽게 찾아오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전통예술 공연을 홍보할 새로운 플랫폼과 미디어 활용 전략이 필요해요." (TA028)

[대상자29] 지원영역(공공) 분야

1. 일시

■ 2024년 11월 4일(수), 11:00 ~ 13:00

2. 장소

■ 대학로 예술극장 1층 회의실(서울 종로구 대학로10길 17)

3. 참석자 명단

[표 2-30] 참석자 명단 [대상자29] 지원영역(공공) 분야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2)	공공	TA-A			
	공공	TA-B			
참석자(n=1)	지원영역(공공)	TA029	여	40대	20년

4. 주요 논의 사항

■ 전통예술 창작과 보존
- 전통 계승과 창작의 균형 유지, 현대적 감각을 반영한 창작 방식 모색

■ 전통예술의 교육 체계
- 국악 및 전통예술 교육의 한계, 예술가의 경로 및 창작자의 생계 문제

■ 예술 생태계와 자생력
- 예술 단체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독립적인 생태계 조성 필요성

■ 전통예술과 대중화
- 전통예술의 대중적 확산과 접근성 확대, 창작과 전통의 경계 설정 문제

■ 정부지원과 정책
- 전통예술 지원 체계의 한계와 지속 가능한 정책 개선 필요성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전통예술 창작 환경 및 현황

1) 전통예술 창작자의 자생적 활동의 한계

■ 창작자의 자생적 활동이 어려운 구조로, 공연 유통망 부족과 홍보 부담이 큼

■ 공공지원 의존도가 높아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이 미흡한 상황임

■ 창작자가 기획과 마케팅까지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커 창작 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움

"공연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에요. 유통 구조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공연을 올리는 것도 어렵고, 올린 이후에 유지하거나 순환시킬 수 있는 방법도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창작자들이 계속 공연을 하며 활동을 지속하기가 힘든 구조예요." (TA029)

"창작자들이 홍보나 마케팅을 스스로 다 해야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작품 만들기도 바쁜데, 관객을 어떻게 모을지, 어디에 알릴지도 고민해야 하니까요. 이런 부담이 창작 활동에 집중하는 데 장애가 돼요." (TA029)

"지원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는 구조예요. 지원을 못 받으면 창작이 멈추게 되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또 별도의 행정 업무를 해야 하니까 창작 이외의 일에 에너지가 많이 쓰여요." (TA029)

2) 공공 지원사업과 창작자 수요의 불일치

■ 공공지원이 창작과 유통을 주도하지만, 창작자의 실질적 필요와 방향이 불일치함

■ 단발적 지원 중심 운영으로 창작자의 장기적 비전 설정이 어려운 구조임

■ 지원사업의 지속성과 유연성이 부족해 실질적인 창작 활동 유지가 어려움

"지원사업이 많긴 한데, 실제로 창작자들이 필요로 하는 방식과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기획 의도는 좋지만 현장과의 간극이 느껴져요. 창작자 입장에서는 작품을 지속하려는 계획이 있는데, 사업은 일회성이라 연속성이 떨어지죠." (TA029)

"어떤 지원은 예산 사용 방식이 너무 제한적이라 창작 과정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힘들어요. 상황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때가 많은데, 그런 걸 반영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려워요." (TA029)

"장기적으로 작업을 해 나가야 하는데, 매년 새로운 지원을 찾아야 하고 형식도 매번 달라지니까 안정적으로 창작을 이어가기 어렵죠. 지원사업이 좀 더 유연하고 지속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어요." (TA029)

3) 전통예술의 시장성 부족과 산업화 문제

■ 전통예술이 시장성을 확보하지 못해 창작 기반 작품의 유통과 지속성이 미흡함

■ 특정 스타 연주자 중심 소비 경향이 강해 일반 창작자의 기회가 제한됨

■ 공연 유통망이 협소하고 추가 공연 기회 부족으로 작품이 단발적으로 소멸함

"지금은 시장에서 전통예술을 소비하는 방식이 한정적이에요. 스타 연주자 중심의 소비가 많고, 창작 기반의 새로운 작업은 공연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반복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TA029)
"좋은 작품이 나와도, 한 번 무대에 올리고 나면 다음 기회가 없어요. 후속 공연을 위한 유통 경로나 장치가 거의 없다 보니, 계속 새로운 걸 만들기만 하고 그게 쌓이질 않아요." (TA029)
"대중에게 다가가기도 쉽지 않고, 유통 구조도 열려 있지 않아서 창작자 입장에서는 산업화나 시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결국 창작이 이어질 동력이 부족해져요." (TA029)

나. 생태계 이슈

높은 지원사업 의존, 유통 및 홍보 기반 부족으로 인한 지속성과 확산의 한계

1) 독립적 공연 기획의 어려움

■ 전통예술 공연이 공공기관과 지원사업에 의존해 독립적 기획이 어려운 구조임
■ 대중적 접근성 부족으로 관객 개발과 시장 확대가 원활하지 않음
■ 공공지원 없이 지속 가능한 공연 운영 기반이 부족한 상황임

"전통예술 공연은 거의 대부분이 공공지원에 기대고 있어요. 독립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 보니, 창작자나 단체가 스스로 공연을 지속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예요." (TA029)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공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도 부족하고, 관객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다 보니 대중적 확산도 힘들죠." (TA029)
"공연을 하고 싶어도 관객 유입이 불확실하고, 운영비 마련도 쉽지 않으니까 단체나 창작자 입장에서는 자립적인 공연 기획 자체가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TA029)

2) 전승과 창작 지원의 불균형

■ 보존 중심 정책으로 창작이 위축되는 문제 발생, 균형 잡힌 지원 체계 필요함
■ 전통 계승과 창작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적 조정이 요구됨
■ 새로운 창작 활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 개편이 필요함

"전통의 보존과 전승이 중요하다는 건 당연하지만, 그쪽으로만 자원이 집중되다 보니 새로운 창작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요. 창작도 전통의 일부로 보고 균형 있게 다뤄야 해요." (TA029)
"지금의 정책은 계승 중심이라 창작자들이 실험적인 작업을 하거나 현대적인 해석을 시도할 때 어려움이 많아요. 전통을 현대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창작 활동에도 지원이 이뤄져야 해요." (TA029)
"창작은 결국 지금 이 시대에 전통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고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작업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은 여전히 보존 쪽에 무게가 쏠려 있어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TA029)

3) 전통예술 창작자의 경제적 불안정성

■ 개별 예술가의 수익 모델이 제한적이며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이 어려움
■ 단발적 지원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위한 구조 마련 필요함
■ 예술가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적 대안이 요구됨

"전통예술 하는 창작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공연을 해도 수익이 거의 없고, 대부분은 생계를 위해 강의나 다른 일을 병행해야 하니까 창작에 온전히 집중하기 힘들어요." (TA029)
"지원사업이 일시적이다 보니 매년 새로운 지원을 찾아야 하고, 그때그때 사업 조건에 맞춰서 작품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다 보니 창작 활동의 지속성이 떨어지고요." (TA029)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필요해요. 단순히 일회성 지원을 넘어서, 창작자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안정적으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이 마련돼야 해요." (TA029)

4) 홍보 및 마케팅 전략 미흡

■ 공연 홍보와 관객 개발 전략 부족으로 전통예술의 대중적 확산이 어려움
■ 다양한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새로운 홍보 전략 강화 필요함
■ 젊은 세대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홍보 부족으로 관객 확대 어려움

"전통예술 공연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홍보가 제한적이다 보니 관객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아예 접근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TA029)
"요즘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정보 확산이 중요한데, 전통예술은 여전히 기존 방식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요. 온라인 콘텐츠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해요." (TA029)
"홍보 대상도 명확히 설정해야 해요. 관객층별로 다른 언어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그런 맞춤형 전략이 부족하다 보니 전통예술이 대중 속으로 확산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TA029)

5) 기획 역량 부족과 실행의 한계

■ 창작자의 작품 유통과 홍보를 지원할 기획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임
■ 창작자들이 기획과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존재함
■ 공연 유통과 홍보를 담당할 기획자 부족 및 기획자 양성 시스템 미비함

"창작자들이 작품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유통이나 홍보까지도 스스로 해야 하는 구조예요. 기획을 도와줄 인력이 거의 없고,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아서 실행에 어려움이 많아요." (TA029)
"기획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어요. 공연을 기획하고 유통까지 연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TA029)
"창작자와 기획자의 역할이 분리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기획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제도도 거의 없어서 인력 기반이 약해요." (TA029)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유통망 확대, 장기 지원, 디지털 홍보 강화 필요

1) 공연 유통망 확대와 순환 구조 마련

■ 전통예술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공연 유통망 확대와 순환 구조 마련이 필수적임
■ 지역극장 및 다양한 플랫폼과 협력하여 안정적인 공연 유통 시스템 구축 필요함
■ 공연의 일회성 소멸을 방지하고 장기적인 공연 기회 제공이 요구됨

"전통예술 공연은 대부분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유통망이 부족하다 보니 좋은 작품이 있어도 계속 무대에 올릴 기회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TA029)
"지역극장이나 다양한 공연 플랫폼과 협력해서 작품이 순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해요. 그래야 창작자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활동을 이어갈 수 있어요." (TA029)
"지금처럼 단발성으로 끝나는 공연 구조로는 창작자도 관객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없어요. 안정적인 유통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전통예술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TA029)

2) 창작 지원 체계 개편 및 장기적 지원 강화

■ 전통예술 창작 지원사업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체계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단발적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유도하는 정책 마련이 요구됨
■ 창작자의 자율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실질적 지원 구조로 전환이 필요함

"지원사업이 대부분 단기적이라 창작자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고, 매년 새로운 사업에 맞춰 작품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반복돼요." (TA029)
"창작자에게 필요한 건 일회성 자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예요.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안정적인 창작이 가능하도록 장기적 지원이 필요해요." (TA029)
"창작자들이 행정적인 일에 매몰되지 않고 작품에 집중할 수 있으려면, 지원사업도 유연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해요." (TA029)

3) 홍보 및 마케팅 전략 강화

■ 전통예술의 대중화를 위해 혁신적인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함

■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접근 방식과 콘텐츠 개발이 요구됨

■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강화 및 현대적 감각의 재해석 전략 도입 필요함

"전통예술도 지금 시대에 맞게 보여주는 방식이 바뀌어야 해요. 콘텐츠는 좋은데 전달 방식이 옛날 방식에 머물러 있어서 젊은 세대에게는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TA029)

"지금은 디지털 중심 시대니까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해요. 전통예술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영상 콘텐츠나 SNS를 통해 더 많이 노출시킬 필요가 있어요." (TA029)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이 중요해요. 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방식으로 전통을 풀어야 대중화도 가능하고 관객층도 넓어질 수 있어요." (TA029)

[대상자30] 지원영역(공공) 분야

1. 일시

■ 2024년 11월 6일(수), 15:00 ~ 17:00

2.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40)

3. 참석자 명단

[표 2-31] 참석자 명단 [대상자30] 지원영역(공공) 분야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1)	공공	TA-A			
참석자(n=1)	지원영역(공공)	TA030	여	-	-

4. 주요 논의 사항

■ 전통예술 창작과 보존
- 전통예술을 현대적으로 재창작하는 과정에서 전통성과 창작성의 균형 확보가 필요하며, 보존 중심의 시각이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 제기됨

■ 전통예술의 교육 체계
- 창작자가 고용 안정성 없이 생계를 위한 다중 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예술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및 진입 경로가 부족함

■ 예술 생태계와 자생력
- 소규모 단체 중심의 창작 구조는 기획, 제작, 홍보 등 모든 과정을 자체 해결해야 하며, 장기적 창작 계획과 자립적인 생태계 형성이 어려운 현실임

■ 전통예술과 대중화
- 전통 창작 작품은 유통과 홍보 시스템이 부재해 관객과의 접점이 약하고, 복합 장르로 분류되는 작품은 제도 안에서 정체성을 인정받기 어려움

■ 정부지원과 정책
- 장르 중심 지원 체계의 한계로 복합적 성격의 창작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며, 유연한 제도 설계와 지속 가능한 유통 및 재공연 지원이 요구됨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전통예술 분야의 실황과 문제점

1) 창작자 정체성과 장르 구분의 모호함

■ 전통연희 기반 창작자들이 제도 내에서 전통 장르로만 분류되어 정체성 드러내기 어려움
■ 창작자의 활동 특수성과 방향성이 제도에 반영되지 못해 창작 환경의 제약 초래
■ 복합적 창작 양식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장르 분류 및 제도 개선 필요

"그런데 전통예술 안에서도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은 현대적인 창작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도 행정이나 지원사업에서는 그냥 '전통'이라는 장르로만 묶여버리니까,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TA030)
"지금 지원 체계가 장르로 나뉘어 있다 보니까 복합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하는 작업이 '전통도 아니고 현대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TA030)
"창작자마다 작업의 성격이나 방향이 다 다른데, 그런 다양성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요. 제도도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TA030)

2) 공연 기회 확보의 어려움과 불균형

■ 인지도 중심의 기획 관행으로 창작 기반 전통공연의 무대 진입 장벽이 높음
■ 대극장은 관객 수요 전제가 강해 실험적 전통공연의 진출이 어려운 구조임
■ 극장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와 창작공연 지원 확대가 필요함

"극장에서 프로그램을 짤 때 아무래도 관객 수요를 고려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름이 알려진 공연이나 단체 위주로 기획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처럼 실험적인 창작 전통공연은 무대에 오르기가 쉽지 않아요." (TA030)
"창작 기반의 전통공연은 일단 대극장에서 올리기엔 부담이 크고, 소극장에서도 전통이라는 이유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전통이면 무조건 고정된 형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서요." (TA030)
"공연 기회 자체가 제한적이니까 결국은 공모나 지원사업에 의존하게 되고, 그 안에서도 경쟁이 심하니까 창작자들이 더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TA030)

3) 제작환경과 예산 구조의 취약성

■ 소규모 예술단체가 제작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자체 해결해야 하는 구조임

■ 제작비·인력 부족 등 현실적 제약으로 장기적 창작 활동 지속이 어려운 상황임

■ 안정적 창작 기반 마련을 위한 구조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함

"작품 하나를 올리려면 기획부터 제작, 홍보까지 다 직접 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소규모 단체는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다들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맡아야 해요." (TA030)

"제작비도 항상 빠듯하고, 무대를 한 번 올리는 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재공연이나 순회공연을 하려면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한데,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TA030)

"한두 번의 공연으로 끝나버리는 구조다 보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고, 다음 작업으로 이어지기까지 공백이 생기니까 창작 흐름도 끊기게 돼요." (TA030)

나. 생태계 이슈

창작자의 생계 불안, 제도 경직성, 유통 부재, 노동 저평가, 창작 인식 부족 등의 구조적 한계

1) 자생력 부족과 창작자의 생계 문제

■ 공연 수입만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 복수의 활동 병행이 불가피한 구조임
■ 창작자들이 행정·기획 등 비창작 업무에 과도하게 몰려 창작 집중이 어려움
■ 예술가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및 창작 전념 환경 조성이 필요함

"공연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대부분 다른 일을 병행하고 있어요. 강의도 하고, 다른 단체 작업에도 참여하고요. 결국 창작에만 집중할 수 없는 구조예요." (TA030)
"창작 외에도 기획, 예산 관리, 지원사업 정산까지 다 직접 하다 보니까 정작 창작에 쏟을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그게 반복되다 보니 번아웃이 오기도 해요." (TA030)
"꾸준히 창작을 이어가려면 생활 안정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서 작업을 이어가는 느낌이에요." (TA030)

2) 장르 구분 중심의 제도 운영 문제

■ 장르 중심의 형식화된 지원 기준이 복합적 창작자의 제도 내 포용을 어렵게 함
■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은 장르 경계 밖으로 밀려 정책 수혜에서 배제됨
■ 융합형 창작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함

"전통을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 내용이나 형식은 굉장히 현대적인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사업에서는 여전히 전통이나 연희라는 기준으로만 보니까 저희 작업이 어정쩡한 위치에 놓이게 돼요." (TA030)
"창작자 입장에서는 장르를 혼합해서 새로운 걸 시도하고 있는데, 제도는 여전히 장르 구분에 따라 운영되니까 그런 시도가 반영되기 어려워요." (TA030)
"지금의 지원 기준은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저희 같은 복합적인 작업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결국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TA030)

3) 공연 유통과 홍보 시스템의 부재

■ 공연 유통구조와 재공연 기회 부족으로 작품이 일회성 소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 홍보가 창작자 개인이나 단체에 의존해 관객 개발과 확산에 한계가 존재함
■ 지속 가능한 공연 순환을 위한 유통·홍보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한두 번 공연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더 이어가고 싶어도 유통 구조가 없으니까 작품이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죠." (TA030)
"홍보도 대부분 저희가 직접 해요. 포스터 만들고, SNS 올리고, 보도자료 쓰는 것도 다 직접 하니까 전문성도 부족하고 관객에게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워요." (TA030)
"공연이 순환되려면 유통이나 재공연을 연결해주는 구조가 필요해요. 지금처럼 창작자에게만 맡겨두면 한계를 넘기 어려운 것 같아요." (TA030)

4) 창작 주체의 역할과 노동에 대한 저평가

■ 창작자가 연출·기획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도 노동의 가치가 저평가됨
■ 예술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계와 지속성에 어려움 존재
■ 창작자의 전문성 인식 제고와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함

"작품 하나를 만들려면 연출도 하고 기획도 하고, 어떤 때는 조명 설치까지 직접 해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해도 그에 맞는 대우를 받는 건 아니에요." (TA030)
"창작자들이 하는 일이 단순히 공연만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기획부터 운영, 행정까지 다 하면서도 보상은 너무 적은 편이에요." (TA030)
"예술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창작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어렵죠." (TA030)

5) 전통의 창작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 전통 재창작 작업이 보수적 시각 속에서 '전통성 부족' 평가를 받는 경향 존재함
■ 원형 보존 중심 인식으로 인해 현대적 재해석 기반 창작의 예술적 가치가 저평가됨
■ 창작형 전통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가치 인정이 필요함

"전통예술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창작을 하면, 그걸 전통으로 안 보려고 해요. 전통이면 반드시 원형을 지켜야 한다는 시각이 여전히 강하거든요." (TA030)
"원형을 조금만 바꾸거나 새로운 형식을 적용해도 '그건 전통이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창작자 입장에선 그런 반응이 위축감을 주기도 해요." (TA030)
"새롭게 만든 전통 기반 작품들도 충분히 전통예술로서 가치가 있다는 인식이 필요해요. 지금은 그런 작업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기 어려운 분위기예요." (TA030)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복합 장르 포용, 유통·재공연 확대, 홍보·행정 지원을 통한 창작 환경 개선 필요

1) 복합적 장르를 포용하는 제도 설계 필요

■ 창작자의 활동 특성과 양식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설계가 요구됨
■ 복합장르와 창작 기반 활동을 포괄할 수 있는 분류체계 및 지원 기준 개편 필요
■ 창작자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정체성 선택 구조 마련이 필요함

"지금은 장르로 나뉜 기준이 너무 명확해서, 저희처럼 전통도 현대도 아닌 작업은 어디에 넣어야 할지 애매해요. 이런 경우를 포괄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TA030)
"저희 작업은 복합적인 성격이 강한데, 지원 신청하려고 보면 어디에도 정확히 속하지 않아서 기준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자주 들어요." (TA030)
"창작자 스스로 자기 작업의 성격이나 방향을 선택해서 설명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도에 반영되면 훨씬 더 다양한 작업이 가능해질 거예요." (TA030)

2) 유통망 확보와 재공연 지원 확대

■ 일회성 소비를 넘어서기 위해 유통 기반 확충과 재공연 지원이 필수적임
■ 공공극장 및 지역 공연장 연계를 통한 유통 구조 다변화가 필요함
■ 공연 이후에도 작품이 순환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함

"공연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너무 아까워요. 다시 올릴 기회가 거의 없으니까 작품이 사라져버리는 느낌이에요. 유통 구조가 더 다양하게 마련되면 좋겠어요." (TA030)
"지역 공연장이나 소극장 같은 곳과 연결이 잘 되면 재공연이 더 쉬워질 텐데,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매번 새로 만들고 끝나는 구조예요." (TA030)
"작품이 한 번 공연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순환할 수 있는 구조가 생기면 창작자 입장에서는 훨씬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A030)

3) 홍보·마케팅 및 예술행정 역량 강화 지원

■ 창작자가 직접 수행하는 홍보·기획 업무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가 필요함

■ 콘텐츠 기반 홍보 전략, 전문 인력 연계 등 체계적 홍보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예술 행정 역량 강화를 통해 창작 집중 환경 조성과 업무 부담 완화 필요함

"홍보부터 기획, 예산 정리까지 다 직접 해야 하니까 정작 창작에 쓸 시간이 부족해요. 이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TA030)

"요즘은 콘텐츠 중심으로 홍보가 이뤄지는데, 저희는 전문 인력이 없으니까 SNS 올리는 것조차도 힘들고 비전문적이에요. 누가 연결만 해줘도 훨씬 나아질 것 같아요." (TA030)

"행정적인 지원이 조금만 있어도 창작자가 기획과 운영 부담을 줄이고 작품에 더 집중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다 혼자 감당해야 하니까 지치는 경우가 많아요." (TA030)

[대상자31] 지원영역(공공) 분야

1. 일시

■ 2024년 11월 13일(수), 10:00 ~ 12:00

2. 장소

■ 대학로 예술가의집 예술나무라운지 카페 (서울 종로구 동숭길 3)

3. 참석자 명단

[표 2-32] 참석자 명단 [대상자31] 지원영역(공공) 분야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2)	공공	TA-A			
	공공	TA-B			
참석자(n=1)	지원영역(공공)	TA031	남	30대	8

4. 주요 논의 사항

■ 전통예술 창작과 보존
- 전승 중심 제도에서 창작이 소외되는 문제와 창작 연계 구조의 필요성

■ 전통예술의 교육 체계
- 교육과 현장 간 괴리, 예술가로의 성장 경로 단절과 지속적 활동의 어려움

■ 예술 생태계와 자생력
- 전통 예술인의 불안정한 창작 기반과 민간 영역의 제도적 배제 문제

■ 전통예술과 대중화
-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유통·홍보 방식과 젊은 세대와의 단절

■ 정부지원과 정책
- 기관 중심의 지원 구조가 창작자의 실질 수요와 괴리되고 연속성도 부족한 현실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전승자 중심의 제도 기반으로 인한 창작의 어려움

1) 기능 위주의 전승 구조

■ 기능 중심 전승 제도가 창작과의 연계 구조를 형성하지 못함
■ 전승자는 교육과 제도 내 역할에 머무르며 예술 창작과의 접점이 부족함
■ 보존 중심의 전승 구조로 인해 창작자와 공연자와의 협업이 제한됨

"국가무형문화재가 됐다고 해서 창작자나 공연자와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기능 중심으로 보존만 하다 보니 그분들이 창작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따로 존재하는 느낌이 있어요." (TA031)
"전승은 교육안에서만 이뤄지고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공연이라든지 창작과는 분리돼 있어서 연결 지점이 너무 약한 거죠." (TA031)
"창작자나 공연자와의 협업이 이뤄지려면 전승 체계가 유연하게 열려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정형화되어 있어요. 기능을 지키는 게 우선이니까 창작 쪽과 만나는 접점이 거의 없어요." (TA031)

2) 국립·공립기관 중심의 운영

■ 전통예술 전승과 교육이 국공립기관 중심으로 운영되어 민간 참여가 제한됨
■ 민간 전통 예술인이 제도적으로 포용 되지 못해 현장 다양성 반영이 어려움
■ 예산과 운영 방식에서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배제됨

"지금 전통예술 교육은 거의 국립이나 공공기관 중심이에요. 민간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제도 안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죠. 예산도 그렇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TA031)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워요. 민간 예술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정책이 너무 일방향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TA031)
"국공립기관 중심의 시스템이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민간 전문가들이 제도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건 문제예요. 다양한 현장의 의견이 반영돼야 전통예술도 살아남을 수 있어요." (TA031)

3) 시대적 감각에 어긋난 전통예술 유통 방식

■ 전통예술 유통 방식이 디지털 환경과 젊은 세대 감각에 부합하지 않음

■ 교육과 현장 간 연결 부족으로 새로운 관객층과의 소통이 어려움

■ 과거 중심 이미지 고착으로 전통예술의 현대적 확장이 제한됨

"전통예술 공연이 지금도 마치 30~40년 전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 환경이나 젊은 세대 감각하고는 괴리가 있죠. 그 간극을 메워야 해요." (TA031)

"교육기관에서 배운 전통이 현장으로 연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 창작자들이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방식도 배우지 못하고, 결국 과거 방식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TA031)

"전통이라는 말만 붙으면 너무 과거의 이미지에 고착돼 버려요. 지금 시대에 맞는 언어나 형식으로 풀어내야 관객도 공감할 수 있는데, 그런 시도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TA031)

나. 생태계 이슈

보존 중심 정책의 지속, 창작 활성화 기반 부족

1) 전승과 창작 간 연계 관련

■ 전승 교육과 예술 창작의 분리로 전통예술의 동시대적 확장이 저해됨
■ 교육기관 출신 인력의 예술가 성장 경로가 부재해 창작 연결이 어려움
■ 교육과 창작의 유기적 연계 부족이 창작 생태계 형성에 장애로 작용함

"전통예술을 배워도 그걸 가지고 창작으로 이어가기는 어려워요. 전승 교육을 받고 나면 진짜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TA031)
"교육과 창작이 따로 움직이니까 새로운 창작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힘들죠. 학교에서 배운 걸로 무대에 올리는 게 아니라, 따로 창작을 배워야 하니까 연결이 안 돼요." (TA031)
"전통을 전승하는 구조와 창작하는 구조가 다르게 분리돼 있어요. 그래서 동시대적으로 확장하거나 변형하려는 시도는 많이 제한되고 있어요." (TA031)

2) 장인적 전승 인식으로 인한 확장 제한

■ 장인 중심 전승 인식이 공연·창작·융합 콘텐츠 확장을 제약함
■ 창작자 중심 기획과 예술화 시도가 구조적으로 제한됨
■ 전통예술의 산업적 확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기반적 한계 존재

"아직도 전통예술 하면 장인정신 중심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요. 기능을 잘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공연이나 창작 쪽은 뒷전이 되는 거죠." (TA031)
"창작자 중심의 기획이 필요해도, 구조적으로는 기능 보유자 중심이라서 예술화나 콘텐츠화 시도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요." (TA031)
"산업으로 확장하려면 콘텐츠로 재구성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전승 체계로는 그게 어려워요. 창작이나 융합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거든요." (TA031)

3) 공공지원의 방향성 문제

■ 지원 구조가 창작자보다 제도와 기관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
■ 현장 창작자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존재
■ 공연과 창작보다 제도 유지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 운영 경향 있음

"지금 공공지원은 거의 대부분 제도나 기관 중심이에요. 현장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닿는 지원은 많지 않아요." (TA031)
"지원사업을 보면 창작을 위한 게 아니라 제도나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공연 하나 하려고 해도 복잡한 절차부터 마주하게 돼요." (TA031)
"창작자 입장에서 보면, 지원이 필요할 때는 못 받고, 기관이 중심이 돼서 뭔가 만들어놓고 창작자를 끼워 맞추는 식이죠. 실질적 도움이 되기 어렵죠." (TA031)

4) 불안정한 활동 기반

■ 전통예술 창작자의 수익 구조가 제한되어 창작 지속 가능성이 낮음
■ 다수 예술가들이 생계를 위해 타 직업을 병행하는 현실에 놓여 있음
■ 창작 중심의 자생력 확보가 어려운 비정규적 예술 활동 구조임

"전통예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른 일도 같이 해요. 수입이 안 되니까 창작만으로는 먹고살기 힘들죠." (TA031)
"창작을 계속하고 싶어도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없으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아요. 계속 이어가기가 정말 어려워요." (TA031)
"지금 구조에서는 창작자들이 자생하기가 힘들어요. 정규직처럼 안정적인 시스템이 아니니까 창작 활동이 지속되기 어렵죠." (TA031)

5) 홍보 및 관객 개발 시스템 부족

■ 전통예술 홍보가 전통적 방식에 머물러 디지털 플랫폼 연계가 부족함
■ 관객 개발 전략 부재로 특정 세대나 취향 중심 소비에 그침
■ 홍보 다변화와 세대 확장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미흡함

"전통예술 홍보는 아직도 포스터나 보도자료 중심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유튜브나 SNS로 정보를 접하는데, 거기엔 거의 없죠." (TA031)
"관객 개발이라는 말은 있지만 실제로는 특정 세대나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만 찾아요. 새로운 관객을 끌어들이는 전략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TA031)
"요즘은 디지털 기반 홍보가 기본인데, 전통예술은 거기까지 못 가고 있어요. 세대 확장을 위한 전략이 필요해요." (TA031)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창작 기반 확장을 위한 유통구조 및 제도 개편 필요

1) 전통예술 유통망 구축과 관객 확산 전략 강화

■ 전통예술의 지속을 위한 안정적 유통 플랫폼이 부족한 상황임
■ 지역극장 및 플랫폼과 협력해 공연 순환 구조 마련이 필요함
■ 다양한 세대와의 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유통 전략 구축이 요구됨

"전통예술 공연은 대부분 한두 번 하고 끝나요. 다시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없으니까 창작자 입장에선 너무 아깝죠." (TA031)
"지역극장이나 다른 플랫폼과 연결해서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한 번 만든 공연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TA031)
"지금 관객층이 너무 고정되어 있어요. 젊은 세대나 다른 문화권과 접점을 넓히려면 유통 전략을 근본부터 다시 짜야 해요." (TA031)

2) 창작 중심의 전통예술 지원 제도 개편 필요

■ 전승 중심 지원제도를 창작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젊은 창작자와 독립 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연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장기적 창작 지원 체계 구축이 요구됨

"지원이 전승자나 기능 보유자 쪽으로만 집중돼 있어요. 실제 창작자들, 특히 젊은 창작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은 거의 없어요." (TA031)
"젊은 사람들,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팀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지원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자율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해요." (TA031)
"한 번 공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창작을 계속할 수 있는 장기적인 지원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전통예술도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살아남을 수 있어요." (TA031)

3) 디지털 기반 홍보 및 미디어 연계 활성화

■ 전통예술 콘텐츠 확산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 전략이 필수적임
■ 유튜브·SNS·OTT 등 플랫폼 활용으로 젊은 세대 접근성 확대 필요
■ 디지털 기반 홍보 강화로 전통예술의 대중화 기반 마련이 요구됨

"이제는 영상이나 온라인 콘텐츠가 기본이에요. 전통예술도 유튜브나 OTT 같은 플랫폼에서 보여줘야 해요. 그래야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요." (TA031)
"요즘 홍보는 SNS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전통예술 쪽은 그런 채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콘텐츠는 있는데 보여주는 창구가 부족한 거죠." (TA031)
"디지털 기반으로 홍보하고 콘텐츠를 만들어야 대중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야 전통예술이 일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TA031)

[자문회의 1]

1. 일시

■ 2025년 01월 14일(화), 11:00 ~ 12:00

2. 장소

■ 온라인(Zoom) 회의

3. 참석자 명단

[표 2-33] 참석자 명단 [자문회의 1]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1)	공공	TA-A			
참석자(n=4)	창작	TA002	남	30대	24년
	창작	TA003	남	30대	25년
	창작	TA004	남	40대	25년
	창작	TA008	여	50대	46년

4. 주요 논의 사항

■ 전통예술 창작과 보존

- 비전공자 및 다양한 진입 경로 확산과 전통 계승 방식의 유연한 확대 필요

■ 전통예술의 교육 체계

- 이수제도, 예술 교육자 경로, 예중·예고 외 진입 구조의 제도화 필요

■ 예술 생태계와 자생력

- 민간 공연장 운영, 프로젝트 중심 활동 등 자생적 창작 기반 형성의 중요성

■ 전통예술과 대중화

- 국악 유튜버 및 디지털 콘텐츠 확산을 통한 대중 접근성 강화 필요

■ 정부지원과 정책

- 청년 단원제, 민간 기획 및 유통 활동에 대한 지원 제도 보완과 균형 정책 마련 필요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다양한 진입경로 및 자생적 생태계 구성, 교육자 진출 확대를 통한 기반 확장

1) 비전공자의 다양한 진입 경로와 전통예술 참여 확대

■ 전통예술 진입 경로가 다양화되며 비전공자와 일반인의 참여 사례가 증가함
■ 생활문화, 문화센터,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한 다원적 진입 구조가 형성됨
■ 다양한 배경의 참여 확대로 전통예술의 접근성과 기반이 확장되는 추세임

"전공자들이 가는 길도 있지만, 지금은 예중이나 예고를 거치지 않고도 국악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지역 국악 동아리라든지, 문화센터에서 판소리를 접한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입문해서 전공까지 이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취미로 지속하는 경우도 있어요." (TA008)
"저도 사실 국악을 처음 접한 건 대학 이후였어요. 어릴 때부터 전통예술을 배운 건 아니고, 오히려 뒤늦게 접했는데 빠져들게 된 케이스죠. 요즘은 그런 사례가 점점 더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인들 중에도 국악 동호회나 모임 통해 입문하는 분들 많고요." (TA003)
"생활문화 쪽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국악에 대한 애정이 있는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이어가는 거죠. 전통예술이 더 이상 특정 집단만의 영역이 아닌 시대가 된 것 같아요." (TA004)

2) 자생적 예술 생태계 형성과 개인 공연장 운영 사례 확산

■ 예술인이 직접 공연장을 운영하며 자생적 창작 환경을 형성함
■ 연습 공간이 커뮤니티 중심으로 활용되며 유연한 생태계가 조성됨
■ 민간 주도의 공연 운영이 예술인의 자율성과 실험성 확보에 기여함

"저희도 지금 작은 공간을 하나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는 연습실로만 썼는데, 지역 예술가들이 모여서 작은 공연도 하고 워크숍도 열고 있어요. 이게 꼭 제도권에 들어가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식이더라고요." (TA003)
"어떤 선배는 아예 자기 돈으로 소극장을 차려서 국악 공연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규모는 작지만 본인이 기획도 하고, 젊은 연주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자리를 열어주는 거죠. 이런 자생적 운영이 늘어나는 건 좋은 흐름 같아요." (TA004)
"지역 커뮤니티랑 연결돼 있는 공간들도 있어요. 단순히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민 대상 프로그램이나 오픈 클래스도 같이 열거든요. 전통예술이 일상 속에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봐요." (TA008)

3)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한 진로 다양화

■ 전통 예술인의 교육자 진출이 확대되며 직업 경로가 다양화됨

■ 예술 경력을 기반으로 교사, 교수, 민간 강사로 진입하는 흐름이 확산됨

■ 민간 강습소와 문화센터를 통한 지속적 예술교육 활동이 증가함

"저는 처음에는 공연 중심으로 활동했는데, 지금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강의도 하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교육 쪽으로 확장된 거죠. 요즘은 공연과 교육을 병행하는 분들이 많아요." (TA008)

"국악을 전공했다고 꼭 무대에서만 활동하는 건 아니에요. 대학에서 강의하거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식으로 교육자로 진로를 잡는 경우도 많고요. 저도 몇 군데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어요." (TA004)

"단체에서 활동하던 선생님들 중에 이제는 민간 강습소를 차려서 판소리나 장단 수업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게 또 하나의 안정적인 진로가 되는 거죠." (TA003)

나. 생태계 이슈

불안정 고용 및 유통구조, 관련 제도 미비로 인한 어려움

1) 창작자 생계와 지속 가능성

■ 프리랜서 예술인은 유닛 단위 활동과 인력 축소로 창작 안정성에 한계 있음
■ 상주단체·청년단원 제도의 실효성 부족으로 지속적 활동 기반 마련이 어려움
■ 장기적인 창작을 위한 생계 기반이 취약한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

"저희 같은 프리랜서들은 여러 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적다 보니 보통 유닛 단위로 움직이고, 인원도 최소로 구성하게 되죠. 그럼 퀄리티나 안정성에서 당연히 한계가 생겨요." (TA004)
"상주단체 제도도 사실 창작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아요. 공모 형식이라 1~2년마다 계속 경쟁해야 하고, 매번 새로 제안서를 써야 하니까 장기적으로 뭘 하기가 어려워요." (TA003)
"청년단원 제도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단기적인 해결책이긴 한데, 끝나고 나면 다시 원점이라서 창작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진 않아요." (TA002)

2) 민간과 지역 기반 공연장 및 사업 운영의 불안정성

■ 개인 운영 공연장이 존재하지만 지속성 부족과 행정 대응 어려움이 존재함
■ 민간 후원 기반 공연 기획이 있으나 공공지원과의 연계에 한계가 있음
■ 지역별 편차와 단체 역량 차이로 생태계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임

"저희도 공연장을 개인적으로 운영해 본 적이 있는데, 몇 년 못 갔어요. 운영비나 인건비도 문제지만,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해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TA003)
"민간 후원을 받아서 공연을 해본 적이 있는데, 공공기관 쪽과는 연결이 잘 안 돼요. 지원사업하고는 별개로 움직여야 하니까 연계가 어려워요. 그게 오래 가기도 힘들고요." (TA004)
"지역마다 너무 차이가 커요. 어떤 데는 재단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또 어떤 데는 아예 전통예술에 관심이 없어요. 같은 활동을 해도 지역에 따라 여건이 너무 달라요." (TA002)

3) 비정규 공연 기획과 위촉 공연의 불안정성

■ 위촉 중심 공연 구조로 창작자의 주도권이 약화되고 있음
■ 문화기관 주최 공연이 일회성 행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음
■ 공연 유통의 구조적 안정성이 부족해 지속적 활동 기반 마련이 어려움

"대사관이나 기업 행사에 초청받아 공연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일회성이라 공연을 발전시키거나 이어가기가 어렵죠. 그냥 그때 그 공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TA004)
"요즘 공연은 위촉 중심이 많아요. 기관에서 기획해놓고 저희는 연주만 하는 구조라서, 창작자 입장에선 주도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요청된 만큼만 하는 거죠." (TA003)
"지속적으로 공연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별로 없어요. 한 번 공연하고 나면 다시 기회 잡기도 어렵고, 유통되거나 다른 데로 연결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TA008)

4) 청년 단원제 및 단기 고용제도의 구조적 한계

■ 청년단원 등 단기 고용이 정규 단원 전환과 연계되지 않아 지속성 부족
■ 고용제도가 퇴직금 회피 수단으로 오용되며 창작자 성장 기반이 미흡함
■ 안정적 창작 환경을 위한 정단원 채용 시스템의 구조적 개편이 필요함

"청년단원으로 몇 년 일했지만 그게 정규직으로 이어진 적은 거의 없어요. 계약 끝나면 다시 새로 지원해야 하고, 결국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TA002)
"단원 제도가 단기 고용 형식으로 계속 운영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퇴직금 부담 안 지려고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직접 겪으니까 허탈하더라고요." (TA003)
"계속 비정규로 돌려막기하는 구조라 창작자들이 오래 활동할 기반이 안 돼요. 정단원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TA004)

5) 온라인 유통의 성장과 이에 대한 제도 미비

■ 국악 유튜버 등 디지털 기반 창작 활동이 증가하고 있음
■ 음원·영상 유통 시 검열비용 등 제도적 장벽으로 활동에 제약이 있음
■ 전통예술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공공지원이 미흡함

"요즘에는 국악 유튜버들도 많고,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공연보다 오히려 조회수나 반응이 더 빨라서 젊은 친구들도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TA004)
"근데 영상이나 음원을 유통하려고 하면 검열받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한 곡 낼 때마다 비용이 드니까 자주 시도하기가 쉽지 않죠." (TA003)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 많아졌는데도, 그걸 지원해 주는 제도는 거의 없어요. 전통예술도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있는데, 정책은 거기까지 못 따라오는 느낌이에요." (TA002)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민간 유통, 지역 창작, 디지털 콘텐츠 지원 등 실질적 공공지원 확대 필요

1) 공공지원 외 민간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전통예술의 민간 유통·기획 활동에 대한 제도적 인정과 지원이 부족함

■ 민간 스튜디오와 유통 채널을 활용한 창작 활동에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

■ 민간 자원의 활용이 전통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기여함

"공연장이랑 기획까지 개인이 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민간 활동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TA004)
"요즘은 스튜디오에서 자체 콘텐츠 제작하고 유통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는 잘 연결이 안 돼요. 창작 활동으로 인정받고 지원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TA003)
"민간 자원을 잘 활용하면 훨씬 다양하고 자율적인 창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걸 묶어주는 구조나 제도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TA002)

2) 지역문화재단과의 협력을 통한 창작자 중심의 공모사업 확대

■ 지역문화재단 중심의 신진 예술가 공모사업 확대가 요구됨

■ 창작창극·완창판소리 등 지역 기반 창작 지원이 예술인 정착에 기여함

■ 지역 간 균형 있는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 정책 연계가 필요함

"전주나 전라북도에서는 창작창극이나 완창판소리 지원 같은 게 꽤 잘 되어 있어요. 그런 사업 덕분에 지역에 머물면서도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TA002)
"지역문화재단이 신진 예술가 발굴 사업을 꾸준히 하면 그게 정말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있는 곳은 한정적이라 전국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어요." (TA004)
"지역마다 지원 여건이 달라서 아예 못 해보는 지역도 있어요. 지역 간 격차를 줄이려면 중앙과 지역이 연결된 공공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TA003)

3) 온라인 컨텐츠 제작 및 유통을 위한 제도 개선

■ 국악 관련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 활발하지만 유통 진입장벽과 비용 부담이 큼

■ 방송 심의 비용 등으로 창작자들의 콘텐츠 확산이 제약받고 있음

■ 디지털 유통 기반을 지원하는 공공 정책과 실질적 제도 도입이 필요함

"요즘은 국악 뮤직비디오나 MR 음원 같은 디지털 콘텐츠도 많이 만들어요. 근데 방송에 내보내려면 심의비용이 꽤 들어서 개인이 감당하기엔 부담이 커요." (TA004)

"디지털 콘텐츠 자체는 늘어나고 있는데, 유통이나 플랫폼 진입 과정에서 걸리는 게 많아요. 비용도 문제고 제도적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는 장치가 거의 없어요." (TA002)

"국악 유튜버들 중에서도 고퀄리티 콘텐츠 만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TA003)

[자문회의 2]-1차

1. 일시

■ 2025년 1월 17일(금), 11:00 ~ 12:00

2. 장소

■ 온라인 Zoom 회의

3. 참석자 명단

[표 2-34] 참석자 명단 [자문회의 2]-1차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1)	공공	TA-A			
참석자(n=4)	창작	TA011	여	50대	20년
	창작	TA012	여	40대	30년
	창작	TA013	여	40대	18년
	유통	TA016	남	50대	28년

4. 주요 논의 사항

■ 전통예술 창작과 보존
- 이수자 중심의 창작자 다수 존재, 전승과 창작의 중첩 구조가 명확히 반영되지 못함
- 보존 중심 정책에 편중되어 창작 활동이 위축되는 현상 존재
- 외부 장르 유입 증가로 창작 개념 확대, 보존·창작을 병렬 구조로 인식할 필요

■ 전통예술의 교육 체계
- 예중·예고·대학 외에 검정고시, 동아리, 생활문화 등 비정규 진입 경로 확대
- 대학별 기회 불균형, 진입·창작·유통 과정에서 학교 차원의 지원 편차 존재
- 이론·작곡 전공자 등 비무대형 창작자의 활동이 저평가되고 있음

■ 예술 생태계와 자생력
- 창작자 활동의 단발성 지속, 순환형 생태계 형성 어려움
- 생활문화 기반 참여자와 지역 기획사가 실질적 유통 주체로 작용하고 있음
- 예술강사, 기획자 등 다중 역할 수행 주체 존재, 생태계 흐름의 통합 인식 필요

■ 전통예술과 대중화

- 실용음악, 무용, 클래식 등 외부 장르 유입 통해 전통예술 확장 시도 증가
- 뮤직비디오, OST 등 새로운 유통 콘텐츠 출현, 관객 접점 다변화 필요
- 대중화와 예술성의 균형, 장르 구분의 유연화 필요

■ 정부지원과 정책

- 지원사업이 단발적이며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구조임
- 주요 활동이 공공지원과 연계되며, 자율적 기획과 유통 여건 부족
- 생애주기별 지원, 사각지대 발굴, 통합정보 DB 구축 등의 정책 개선 필요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전통예술의 현황과 보완점

1) 진입 경로의 다변화와 제도 외 접근 확대

■ 검정고시·생활문화 등 비정규 경로 확대, 전통예술 진입 방식 다변화
■ 전승 교육 사업 확대와 대중화 노력으로 진입 인구 증가
■ 제도권 외 진입 흐름을 반영한 정책 수립과 지원 체계 정비 필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무형유산원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했을 때, 참여하는 분들이 꼭 전공자가 아니라 생활문화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검정고시 보고 예술대학 진학한 친구도 있었고, 국악 동아리에서 활동하다가 입시를 준비한 경우도 꽤 있었어요. 이런 흐름이 요즘 더 많아진 것 같아요." (TA012)
"이수자 출신이라고 해도 꼭 예중이나 예고 나온 건 아니고, 지역 문화재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도 많고요. 요즘은 전수교육조교를 준비하면서 무형유산원 같은 곳의 프로그램을 통해 진입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TA011)
"지역에서 풍물동아리 활동하거나 사찰에서 연주하다가 국악 전공한 친구들도 꽤 있어요. 전통예술로 진입하는 방식이 꼭 제도권 안에 있는 건 아닌데, 아직도 정책은 예중·예고·대학 중심으로 짜여 있는 느낌이에요." (TA013)

2) 생활문화 기반 향유층 비중 확대

■ 생활문화 참여자가 공연·교육 등 생태계 활동 주체로 확장되고 있음
■ 비전문 참여자들이 자녀 교육 및 소공연을 통해 전통예술 수요층을 형성함
■ 향유 기반 확산이 전통예술의 자생력과 지속성 강화에 기여함

"생활문화 참여자들이 단순히 배우는 걸 넘어서 공연을 직접 기획하거나 자녀들한테도 국악을 배우게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소규모 공연도 만들고,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요. 생각보다 생태계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TA011)
"지역에 보면 직장인 풍물패나 동호회가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이 행사 같은 데서 공연도 하고, 본인 자녀들도 전통악기 배우게 하고요. 단순한 향유자가 아니라 활동 주체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TA013)
"생활문화 기반이 넓어졌다는 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그냥 공연 보러 오는 관객이었는데, 지금은 국악 강습 받으면서 직접 무대에 서거나 교육 기획을 하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TA012)

3) 이론·작곡 등 비가시적 영역의 활동 저평가

■ 작곡·이론 등 비무대형 창작자의 활동이 저평가되고 있음

■ 이론 분야는 교육·보상 모두에서 사각지대, 후속세대 감소 추세

■ 무형 창작 활동을 반영한 정책 인식 전환 필요

"전통음악 이론 전공자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강의 기회도 적고, 작곡 쪽은 공연 올리기까지 어렵고요. 무대에 직접 서지 않으면 활동이 잘 보이지도 않고, 평가도 낮게 받아요." (TA013)

"요즘은 전통 작곡 전공한 친구들이 무대에 곡을 올릴 기회도 많지 않고, 교육 쪽도 뚜렷한 자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다른 장르로 빠지거나, 활동을 접는 경우도 많죠." (TA011)

"전통예술 안에서도 무형의 작업, 그러니까 글을 쓰거나, 곡을 쓰거나, 개념을 정리하는 활동은 지원사업에서 잘 포착이 안 돼요. 다들 보이는 결과 중심이라 이론이나 비가시적 작업은 계속 밀리는 느낌이에요." (TA012)

나. 생태계 이슈

전통예술 생태계의 다층적 구조적 문제

1) 창작자 활동의 연속성 문제

■ 창작자 활동이 단발성에 머물며 장기 지속을 위한 구조가 부족함
■ 기획·제작·유통의 창작 순환 구조가 부재함
■ 지속 가능한 전통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계 체계 마련 필요함

"공연 하나 하고 나면 그걸로 끝인 경우가 많아요. 다음 단계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작품이 쌓이질 않고, 결국은 다시 처음부터 준비해야 하거든요. 순환이 없어요." (TA012)
"작품을 만들고 나서도 계속 이어서 공연할 수 있는 구조가 없으니까, 창작자 입장에서는 늘 단발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장기적인 기획을 하기 어려워요." (TA013)
"기획하고 제작하는 과정까진 해도, 유통이나 확산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이 거의 없어요. 결국 창작자 혼자 다 감당해야 하는 구조라서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TA011)

2) 전통예술 생태계 통합 인식의 결여

■ 전통예술 생태계의 연계 흐름이 지원 체계 내에서 단절적으로 인식됨
■ 예술강사 등 중간 단계 주체가 구조상 단일 범주로 처리되고 있음
■ 생태계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설계 필요함

"창작자, 기획자, 유통자, 강사 이런 역할들이 다 연결돼 있는데, 정책에서는 그냥 예술인 하나로만 묶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예술강사는 교육 영역에만 있는 사람처럼 다뤄져요." (TA011)
"예술강사로도 일하고 공연도 올리고 기획도 하는데, 각 활동이 따로따로 보이고, 실제 지원도 그렇게 따로 나눠져 있어요. 생태계 흐름이 이어진다는 관점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요." (TA013)
"창작만 있는 게 아니라 진입부터 향유까지 다 연결되어야 생태계인데, 지금은 지원사업도 역할 구분도 다 단절적으로 나뉘어 있는 느낌이에요." (TA012)

3) 장르 간 융합 및 외부 유입 증가

■ 타 장르 예술가들과의 협업 증가로 전통예술의 외연 확장 중
■ 실용음악·무용 등 장르 간 융합 창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기존 지원사업과 분류 체계가 융합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전통악기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이랑 협업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어요. 예를 들면 실용음악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작업하거나, 현대무용이랑 결합한 공연도 자주 보이더라고요." (TA012)
"저희도 요즘에는 프로젝트마다 국악 외에 다양한 장르와 협업해요. 그런데 지원사업에서는 여전히 장르 구분이 명확해서 어디에 넣어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TA013)
"장르 간 융합이라는 말은 많은데, 정작 지원 체계나 심사 기준은 아직도 국악이면 국악, 무용이면 무용 이렇게 나뉘어 있어서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요." (TA011)

4) 기획사 및 민간 유통 주체의 비가시화

■ 지역 기획사·공연장 등 민간 주체가 유통과 창작 지원을 실질적으로 수행함
■ 공공 통계와 정책 논의에서 이들 주체의 활동이 비가시화되고 있음
■ 민간 주체에 대한 실태 조사와 정책 반영이 시급함

"지역에서 공연 올리려면 결국 민간 기획사나 공연장하고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정책이나 통계에서는 그런 주체들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늘 공공 중심으로만 이야기되니까요." (TA013)
"작은 기획사들이 전통예술 공연을 기획하고 유통도 많이 맡는데, 지원사업에서 이들을 위한 영역은 거의 없어요. 실질적인 일을 하는 곳들이 정책에서는 빠져 있는 거죠." (TA011)
"공공기관은 전국 단위보다는 수도권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지방에서는 민간 공연장이나 재단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하는데, 이런 곳에 대한 실태 파악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TA012)

5) 학력·소속기관 중심 기회 불균형

■ 특정 교육기관 출신이 해외 진출 등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
■ 학력·소속에 따른 기회 불균형이 전통예술 활동 지속에 영향 미침
■ 공정한 지원 접근성과 기회 균형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함

"해외 진출 기회나 대형 프로젝트 같은 건 아무래도 특정 학교 출신이 많이 가더라고요. 같은 작품을 해도 학교나 소속에 따라 기회 자체가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TA011)
"국립예술대학 나온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지원이나 경로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그 벽을 넘기가 어려워요." (TA013)
"공정한 경쟁이 되려면 출신 학교나 소속보다 실제 활동이나 성과 중심으로 기회를 줘야 하는데, 아직도 그런 기준이 부족한 것 같아요." (TA012)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생애주기별 지원, 통합 DB 구축, 민간 협력 기반 마련 필요.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창작자의 경력과 역할에 따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진입기 창작자부터 기획자·작곡자까지 다양한 주체를 반영한 정책 설계 요구
■ 개별 주체의 상이한 필요를 고려한 유연한 지원 구조 구축이 중요함

"지원사업을 보면 대부분 공연자 중심이에요. 근데 창작자도 있고 기획자도 있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오래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니까 실제로는 잘 안 맞아요." (TA012)
"생활문화에서 출발한 분들도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분들은 전문 예술인으로도 안 잡히고 지원도 받기 어려워요. 활동 주체는 다양한데 정책은 거기까지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 (TA011)
"작곡자나 기획자처럼 무대에 직접 서지 않는 분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정책에서는 그런 분들이 빠져 있는 느낌이에요. 생애주기별로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해요." (TA013)

2) 전통예술 통합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 접근성 강화

■ 비정형 창작자와 민간 활동까지 포함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 기존의 단편적 정보 외 공개형 자료 제공으로 접근성 제고 필요
■ 전통예술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정보 시스템 마련이 요구됨

"지원사업 정보를 찾으려면 관련 기관들을 일일이 검색해야 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전통예술 관련 정보가 한데 모여 있으면 진입하는 사람들도 훨씬 수월할 텐데요." (TA011)
"지금은 공모 정보나 대회 정보만 단편적으로 알려주는 수준인데, 비정규 경로로 활동하는 사람들한테도 유익한 자료들이 있어야 해요. 민간 활동까지 포함된 통합 데이터가 필요하죠." (TA012)
"전통예술 생태계가 워낙 복잡한데, 이걸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열린 플랫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TA013)

3) 유통 및 대중화 전략에 대한 민간 협력 기반 구축

■ 공연 유통·홍보 등에서 민간 주체와의 협력 기반 강화 필요

■ 지역 공연장·디지털 플랫폼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공공지원 전략 요구

■ 대중화와 향유 확대를 위한 실효적 실행 체계 구축이 중요함

"요즘 공연 유통은 민간 기획사나 지역 공연장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책적으로는 여전히 공공기관 중심으로만 짜여 있어서 민간과 연결되는 구조가 부족해요." (TA011)

"공연 올릴 때 민간 플랫폼이나 지역 네트워크가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민간 주체들과의 협력을 반영한 공공지원 체계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TA012)

"음반이나 음원 제작도 민간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는데, 공공 쪽은 아직 그 흐름을 못 따라오는 느낌이에요. 대중화하려면 이런 민간 흐름과 연결된 실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봐요." (TA013)

[자문회의 2]-2차

1. 일시

■ 2025년 1월 23일(목), 10:00 ~ 12:00

2. 장소

■ 온라인 Zoom 회의

3. 참석자 명단

[표 2-35] 참석자 명단 [자문회의 2]-2차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1)	공공	TA-A			
참석자(n=4)	창작	TA011	여	50대	20년
	창작	TA012	여	40대	30년
	창작	TA013	여	40대	18년
	유통	TA016	남	50대	28년

4. 주요 논의 사항

■ 전통예술 창작과 보존
- 전통과 창작의 경계를 넘나드는 실험적 시도와 균형 잡힌 접근의 필요성

■ 전통예술의 교육 체계
- 제도권 교육의 한계와 다양한 진입 경로 확보 및 생애주기별 예술가 지원 필요

■ 예술 생태계와 자생력
- 공공지원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자생적 유통·순환 구조 구축의 필요성

■ 전통예술과 대중화
- 관객 확대를 위한 디지털 홍보와 생활예술 기반 향유 구조 강화

■ 정부지원과 정책
- 장르 특성과 규모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 및 유연한 정책 설계 요구

5.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전통예술 교육 경로 다양화와 초기 진입 기회의 확대 필요

1) 전통예술 진입 경로와 교육 구조

■ 전통예술 진입 경로가 제한적이며, 유아~초등 단계의 공공 교육 시스템 부재
■ 민간 레슨·유학 등 개인 선택에 의존, 제도권 내 균등한 교육 기회 부족
■ 초기 진입 단계 보완을 위한 공공 기반 전통예술 교육 체계 마련 필요

"유아부터 초등학생 때까지는 사실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사설 학원이나 부모님의 관심이 없으면 아예 국악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제도권에서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죠." (TA013)
"어릴 때부터 국악을 접한 친구들은 보통 예술고등학교를 진학하고, 거기서부터 대학까지 이어지는 루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루트를 타지 못한 친구들은 거의 진입이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민간 교육에 많이 의존하게 되고요." (TA011)
"정말 국악을 전공하고 싶어도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도 모르고, 제대로 된 교육기관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아요. 입시 중심 외에는 다른 교육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학을 선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TA013)

2) 생활예술 기반 창작 활동의 존재와 확장 가능성

■ 생활예술 기반 창작과 향유가 활발하며 자생적 창작 가능성 확대
■ 아시아권 생활예술 교류 및 페스티벌 참여 등에서 창발적 활동 확인
■ 비전문 창작자의 다양성을 반영한 제도적 지원 정책 마련 필요

"전문 연주자가 아니더라도 동호회나 생활예술단체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는 음악도 굉장히 창의적이고, 자체적으로 공연을 기획하거나 지역 축제에 참여하기도 하거든요." (TA013)
"중국이나 일본 쪽하고 생활예술 교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만난 단체들은 다들 자기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공연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식의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TA012)
"생활예술 기반 창작자들도 작품성과 활동력이 높은 분들이 많아요. 다만 이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정책 설계에서 생활예술 기반도 하나의 축으로 보았으면 해요." (TA011)

3) 창작·보존·교육 간 교차 영역 확대

■ 국악 전공자의 다양한 직업 진출로 전통예술의 사회적 활용 가능성 확대
■ 창작과 전승, 보존과 향유의 이분법을 넘는 교차 영역에 대한 인식 필요
■ 예술인의 생존 기반 확장을 위한 융합적 지원 체계 마련 필요

"전통예술을 전공했어도 꼭 연주자가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요즘은 음악치료나 문화예술교육, 심지어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국악을 접목해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TA011)
"전통예술이 꼭 무대 위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향유되거나 교육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해요. 창작이냐 보존이냐를 나누기보다는 함께 갈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TA012)
"예술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다시 짜야 해요. 생존 기반이 있어야 창작도 지속되니까, 융합적인 방식으로 생태계를 봐야 할 때예요." (TA013)

나. 생태계 이슈

전통예술 생태계의 구조적 비자립성과 공공지원 편중 문제

1) 자생력 부재와 공공지원 의존에 따른 생태계 불안정성

■ 전통예술 생태계 전반이 공공지원에 의존, 민간 자생 구조 미비

■ 수익 기반 창작 활동이 불가능에 가까워 창작의 지속성 확보 어려움

■ 순환형 생태계로 기능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 필요

"지금은 거의 모든 게 공공지원에 기대고 있어요. 공연 하나를 올리려 해도 자체 예산으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잘 없어요." (TA011)
"창작을 해도 그게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없다 보니, 한두 번 하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다음 작업으로 이어가려면 또 다른 지원사업을 찾아야 하고요." (TA012)
"지속 가능한 창작을 하려면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계속 순환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해요. 지금 시스템은 그렇게 설계돼 있지 않아서, 창작자 입장에서 너무 불안정하죠." (TA013)

2) 전통 예술 유통구조의 한계

■ 전통예술 작품이 일회성 공연에 그쳐 재공연과 유통 구조 형성에 한계

■ 레퍼토리화되지 않아 창작 동기가 약화되고 지속 가능한 기반 마련이 어려움

■ 순환 가능한 유통 시스템 부재가 산업화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함

"지원 받아서 공연 한 번 하면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재공연할 기회도 거의 없고, 유통 구조가 없으니까 그 작품이 더 이상 쓰이지 못하는 거죠." (TA013)
"창작자 입장에서는 계속 새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크고, 기존 작품이 레퍼토리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창작의 동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TA011)
"산업화 얘기를 하지만, 유통 구조가 없는데 어떻게 산업이 되겠어요. 공연도 한두 번 하고 사라지니까 관객도 익숙해질 틈이 없고요." (TA012)

3) 공공지원 체계의 일관성 부족과 과도한 예산 편성 관행

■ 지원사업의 지속성과 목적성이 부족하고 최소 예산 기준이 과도한 지출 유도

■ 소규모 창작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이 어려워 지원 효율성 저하

■ 분야와 규모에 따른 세분화된 정책 설계 필요

"창작산실 같은 데는 최소 예산이 너무 높게 책정돼 있어서, 오히려 하고 싶은 규모로 공연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꼭 큰 공연이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거든요." (TA013)
"소규모 작업을 하려면 정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을 써야 하니까 예술가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편하죠." (TA011)
"사업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매번 새로 기획하고 새로 제안서를 써야 해요. 시간도 많이 들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TA012)

4) 전통예술 장르 간 차별성과 통합 정책의 부재

■ 전통예술 내 장르별 특성이 무시된 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 구조 운영
■ 정악·무용·창작음악 등 장르 간 수요와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획일적 설계
■ 세부 장르별 맞춤형 정책과 지원 체계 마련 필요

"정악이나 무용, 창작음악처럼 장르마다 작업 방식이나 필요한 예산 구조가 다 다른데, 지원사업에서는 그냥 '전통예술'로 뭉뚱그려서 다루니까 현실과 맞지 않아요." (TA012)
"같은 기준으로 심사하고 지원하니까, 어떤 장르에는 과도하거나 어떤 장르에는 턱없이 부족한 결과가 나와요. 세부 장르를 고려한 설계가 전혀 없는 거죠." (TA011)
"무용은 무용대로, 정악은 정악대로의 필요가 있는데, 그걸 구분해서 정책을 짜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창작자 입장에서는 맞춤형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요." (TA013)

5) 국제 교류의 활성화 가능성과 제도화 필요

■ 즉흥음악, 국제 교류 등 해외 진출 사례 증가하나 개인 역량에 의존
■ 체계적 지원 없이 개별 활동 중심으로 이뤄져 지속성과 확장성에 한계
■ 해외 진출을 제도화하고 정책적 구조 마련을 위한 생태계 차원 접근 필요

"요즘은 즉흥음악이나 퓨전 작업을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저도 몇 번 다녀왔는데, 다 개인 네트워크로 이루어지는 거라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어렵더라고요." (TA012)
"국제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것도 결국은 본인이 얼마나 알아보고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있었다면 훨씬 안정적으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TA011)
"해외 진출을 꾸준히 할 수 있으려면 개인이 아니라 단체나 생태계 차원에서 뒷받침해줘야 해요. 그래야 전통예술이 세계 무대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봐요." (TA013)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장르 특성과 생애 주기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 마련 필요

1) 창작 중심 지원에서 생애주기별 지원 체계로의 전환

■ 창작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청년부터 은퇴 예술인까지 전 생애를 포괄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 요구

■ 창작·향유·교육·전승을 아우르는 생태계 기반 지원 구조 마련 필요

"지금은 대부분 창작할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예술가의 삶은 창작뿐만 아니라 교육, 향유, 전승까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런 전체 흐름을 봐주는 지원이 필요해요." (TA011)

"젊은 예술가들은 진입 단계에서 너무 힘들고, 중견이나 은퇴하신 분들은 또 설 자리가 없어요. 생애주기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TA012)

"단순히 작품을 하나 만들어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술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원해주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TA013)

2) 소액 맞춤형 지원 체계 도입 필요

■ 독립적 소규모 창작을 위한 목적형 소액 지원의 필요성 대두됨

■ 최소 예산 기준이 창의성과 예산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규모와 성격에 맞는 세분화된 창작 지원 체계 마련 필요

"작은 규모의 창작을 하려 해도 최소 예산 기준이 너무 높아서 맞추기 어려워요. 그냥 조촐하게 하고 싶어도 형식에 맞추다 보면 과도한 지출이 생기죠." (TA013)

"독주회 같은 걸 기획할 때 소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 뒷받침해주는 맞춤형 지원이 거의 없어요." (TA011)

"예산이 많다고 더 좋은 공연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창작자의 기획 의도와 규모에 맞는 유연한 지원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TA012)

3) 유통·홍보 구조 강화 및 관객 확대 전략 마련

■ 유통 플랫폼·지역 극장 등과 연계해 작품 재공연과 유통 기회 확대 필요

■ 디지털 기반 홍보 역량 강화 및 관객 개발 전략 마련 시급

■ 창작 이후 과정까지 아우르는 제도적 지원 구조 보완 필요

"작품을 만들고 나서 이어지는 유통 단계가 거의 없어요. 재공연도 쉽지 않고, 지역 공연장과의 연계도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 늘 새롭게 시작해야 해요." (TA012)

"디지털 홍보가 중요한데, 전통예술은 여전히 전단지나 포스터 중심이에요. 요즘 관객들은 그런 방식으로는 잘 안 움직이거든요. 온라인 콘텐츠나 플랫폼 활용이 꼭 필요해요." (TA011)

"창작 이후의 과정은 거의 창작자에게만 맡겨져 있어요. 유통이나 관객 개발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라,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줘야 창작도 의미가 생겨요." (TA013)

[서면 자문 1]

1. 참석자 명단

[표 2-36] 참석자 명단 [서면 자문 1]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1)	공공	TA-A			
참석자(n=1)	교육	TA001	남	40대	26년

2. 주요 논의 사항

■ 전통예술 창작과 보존

- 보존 중심 구조 속 창작의 자율성과 현대적 해석 필요

■ 전통예술의 교육 체계

- 교육과 현장 단절, 예술가 경로와 생계 기반 부족

■ 예술 생태계와 자생력

- 연속적 창작과 유통을 위한 생태계 및 인력 기반 미흡

■ 전통예술과 대중화

- 젊은 세대 소통을 위한 콘텐츠 전략과 홍보 강화 필요

■ 정부지원과 정책

- 단기 지원 중심 구조, 장기적 정책 전환 요구됨

3.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전통예술의 현황과 문제점

1) 전통예술 창작과 유통의 실질적 단절 문제

■ 창작 이후 유통과 순환 구조 부재로 전통예술 활동의 지속성 확보 어려움
■ 창작 결과물이 일회성으로 소진되며 장기적 활동 경로 마련이 미흡함
■ 유통 연계 부족으로 전통예술 창작의 확장성과 생태계 순환에 제약 존재

"전통예술은 공연 한번 하고 끝나면 그 이후의 유통이나 재공연 기회가 거의 없어요. 창작된 결과물이 한번 소비되고 사라지는 구조라서 창작자로서도 다음을 기약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TA001)
"작품을 만들고 나서도 그걸 다시 올릴 수 있는 경로가 부족해요. 유통망이 연결돼 있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순환 구조가 생기지 않고, 결국 창작이 단절되거나 소멸되는 경우가 많아요." (TA001)
"저희가 아무리 기획을 잘해도 한두 번 공연하고 끝나면, 그다음 활동이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장기적인 유통 구조가 전통예술에는 절실하다고 생각해요." (TA001)

2) 전통예술 장르 분류의 불명확성

■ 전통예술 장르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기획 및 지원 방식의 획일화 발생
■ 음악, 무용, 연희 등 장르 간 창작 방향성 차이를 고려한 정책 설계 필요
■ 장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 창작 활성화의 관건임

"국악 안에서도 음악, 무용, 연희가 다르고, 그 안에서도 창작의 방식이나 표현이 다 다른데, 정책이나 지원은 하나의 전통예술로 묶여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각 장르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TA001)
"저희 같은 창작자는 무용이면 무용, 음악이면 음악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 같은 형식으로 접근되니까, 오히려 창작의 다양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TA001)
"장르마다 창작의 흐름도 다르고 필요한 자원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마련돼야 창작자 입장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TA001)

3) 기존 예술계 경로와의 불일치

■ 전통예술 전공자의 활동 경로가 협소하며 진학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함

■ 교육과 현장 활동 간 연계 부족으로 예술가 생애 경로의 다양성 제한

■ 졸업 이후 창작 활동으로의 자연스러운 이행을 위한 구조 개선 필요

"전통예술 전공자들이 졸업하고 나면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강사 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공연이나 창작 활동을 바로 이어가기에는 구조적으로 너무 막혀 있는 느낌이 있어요." (TA001)
"학교에서 배운 것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경험 사이에 간극이 커요. 졸업 이후에 바로 창작 활동을 하려면 연결 고리가 필요한데, 그게 없으니까 결국 진학이나 교육 쪽으로만 흐르게 되는 거죠." (TA001)
"창작을 계속하려면 졸업 이후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지금은 교육에서 현장으로 이어지는 길이 거의 없다 보니까 다들 자기 힘으로 개척해야 하거든요." (TA001)

나. 생태계 이슈

전통예술 창작의 지속성과 확장을 위한 기반과 정책, 복지 마련이 미흡한 상태

1)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 부족으로 인한 창작 위축

■ 프로젝트 단위 지원에 의존해 창작 활동의 지속성과 연속성 확보 어려움
■ 상시적 창작 환경 부재로 전통예술의 질적 성장과 안정적 활동에 한계 존재
■ 장기적 창작 기반 마련이 창작 생태계의 핵심 과제로 부상함

"지원사업이 대부분 단기 프로젝트 형식이다 보니까, 한 번 공연을 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 작업을 이어가기 위한 기반이 없다 보니 창작자 입장에서는 계속 단절감을 느끼게 돼요." (TA001)
"지속적으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하는데, 지금은 상시적인 창작 공간이나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몰아서 작업하고, 그 이후엔 멈춰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TA001)
"장기적인 관점에서 창작을 이어나갈 수 있으려면 일회성이 아닌 연속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고, 그게 지금 전통예술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TA001)

2) 교육과 현장의 단절

■ 학교 교육과 창작 현장 간 연계 부족으로 창작자 성장 지원 체계 미흡
■ 실기 중심 교육과 실무 간 간극으로 현장 적응과 경로 개척이 개인에 전가됨
■ 창작자 중심의 실무 연계형 교육 체계 구축이 시급함

"학교에서는 실기 위주의 수업이 많고, 창작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교육은 부족해요. 공연 제작이나 기획, 유통 같은 부분은 졸업 후에 스스로 부딪히면서 배워야 하죠." (TA001)
"교육 과정에서 현장 경험이 연결되지 않다 보니, 졸업하고 나면 막막해져요. 결국 자기 힘으로 길을 만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TA001)
"창작을 직업으로 삼을 수 있으려면 교육부터 현장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해요. 지금은 학교 안에서만 끝나고, 그 다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TA001)

3) 기획자와 유통구조의 취약성

■ 전통예술 전문 기획자 부족으로 창작자 지원 및 유통 실행력이 미흡함
■ 유통과 마케팅 기반이 약해 작품 확산과 시장진입에 구조적 제약 존재
■ 개별적·단기적 유통구조로 산업적 성장과 지속성 확보에 한계 발생

"전통예술 쪽에는 전문 기획자가 많지 않아요. 창작자는 공연을 만들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알리고 유통할지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요. 결국 작품이 한번 공연되고 끝나는 일이 많죠." (TA001)
"유통이나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잘 마련돼 있지 않아서, 아무리 좋은 작품이 나와도 관객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장으로 진입하기가 정말 어렵죠." (TA001)
"지금 유통 구조는 거의 개별적인 형태이고, 대부분 단기적인 방식이라 창작이 산업적으로 연결되거나 확장되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TA001)

4) 정책 집행 주체와 창작 현장 간 인식 차이

■ 전통예술 지원 정책이 현장 수요와 괴리되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 존재
■ 정책 기획 의도와 창작 현장의 실제 요구 간 불일치 지속
■ 창작 특수성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정책 설계 필요

"현장에서 느끼는 필요나 어려움이 있는데, 정책은 그걸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원이 있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 우리가 겪는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거든요." (TA001)
"정책이 만들어질 때 창작자들이 어떤 구조 안에서 일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기획된다는 인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지원이 되는 거죠." (TA001)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창작자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정책이 현장의 특수성을 더 구체적으로 반영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TA001)

5) 예술인 생계와 복지 기반 부족

■ 생계 병행이 필수인 구조 속에서 안정적 창작 활동 지속이 어려운 현실
■ 사회적 안전망 미비로 전통예술을 본업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 형성
■ 창작자 중심의 복지 및 생계 지원 체계 마련 필요

"창작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대부분 다른 일을 병행해요. 공연이나 창작 활동은 일정하지 않아서 수입이 들쭉날쭉하고, 안정적인 삶을 꾸리기 어렵죠." (TA001)
"전통예술을 본업으로 삼고 싶어도 사회적으로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창작을 지속하려면 뭔가 안전망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TA001)
"창작 활동을 장기적으로 이어가려면 복지나 생계 지원 같은 사회적 기반이 필요해요. 그게 없으면 결국 창작보다는 생계를 위한 일에 시간을 쓰게 되니까요." (TA001)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전통예술 창작의 지속성과 확산을 위한 유통 구조, 연속 지원, 기획 인력 기반 필요

1) 장기 순환형 유통구조 마련 필요

■ 창작 이후 유통과 재공연을 위한 순환 구조 마련이 필요함
■ 지역 공연장 및 플랫폼 기반 장기 유통 체계가 지속 가능성 확보의 핵심임
■ 작품의 순환 구조 구축을 통해 전통예술의 생명력과 확장성 강화 가능

"한 번 공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작품이 계속 다른 곳에서 유통되거나 재공연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창작자 입장에서도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TA001)
"지역 공연장이랑 연결해서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작품 하나가 여러 지역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전통예술 자체의 확장성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TA001)
"지금처럼 단발성으로 끝나는 구조에서는 창작자가 계속 새 작품만 만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소진되는 것도 커요. 순환이 되는 구조가 꼭 필요해요." (TA001)

2) 창작 환경 안정화를 위한 연속형 지원 제도 도입

■ 단발성 지원에서 벗어나 장기적 경로를 보장하는 연속형 제도 마련 필요
■ 창작자의 자율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정책적 설계가 필수적 과제임
■ 안정적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 가능성 중심의 지원 구조 구축 필요

"지원사업이 대부분 일회성이라 끝나고 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요. 뭔가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없으니까 창작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기가 어려워요." (TA001)
"창작자에게 필요한 건 지속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단기 프로젝트로는 자율성도 떨어지고, 작품의 질도 유지하기 힘들죠." (TA001)
"지속 가능한 창작을 하려면 연속형으로 설계된 지원 제도가 필요해요. 그래야 창작자도 삶과 작업을 함께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어요." (TA001)

3) 전통예술 맞춤형 기획·유통 전문 인력 양성

■ 전통예술 유통과 관객 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획자 양성이 필요함

■ 기획과 창작을 연결하는 전문 인력 기반 구축이 시장 단절 해소의 핵심임

■ 창작자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기획 전문성 확보가 생태계 구축의 관건임

"전통예술을 잘 이해하면서도 유통이나 관객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획자가 많지 않아요. 창작자는 작품을 만들 수 있지만, 그 이후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TA001)

"기획자와 창작자가 함께 움직여야 작품이 제대로 유통될 수 있는데, 그걸 연결해주는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 늘 아쉬워요." (TA001)

"전통예술은 일반 기획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맞춤형 기획 역량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훨씬 더 많은 관객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TA001)

[서면 자문 2]

1. 참석자 명단

[표 2-37] 참석자 명단 [서면 자문 2]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1)	공공	TA-A			
참석자(n=1)	유통	TA026	남	50대	18년

2. 주요 논의 사항

■ 전통예술 창작과 보존

- 전통을 창작의 기반으로 해석하는 접근과 전통·창작의 상호 보완적 관계 설정의 필요

■ 전통예술의 교육 체계

- 전통예술 교육의 기량 중심 편성과 창작자 경로 부재, 생계 기반 마련의 어려움

■ 예술 생태계와 자생력

- 창작자 중심의 생태계 부재, 유통·기획·협업 기반 부족으로 인한 자립 어려움

■ 전통예술과 대중화

- 반복 공연 및 플랫폼 유통 부재, 장르 혼합 창작에 대한 제도적 이해 부족

■ 정부지원과 정책

- 단기 중심 공공지원의 한계, 창작자 자율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지원 구조 필요

3.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전통예술 기반 창작자의 복합적 역할과 지속 활동의 구조적 한계

1) 전통예술 창작자의 다층적 활동과 생계유지의 어려움

■ 창작자는 공연, 강의, 행정 등 병행하며 창작만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구조임
■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가 미비해 예술가로서의 정체성 유지에 어려움 존재
■ 창작 활동 중심의 자립 기반 마련과 다층적 활동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공연도 하고, 창작도 하고, 강의도 하고, 기획도 하고... 사실은 행정적인 일도 같이 하게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병행하지 않으면 창작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TA026)
"지속적으로 창작을 하려면 경제적인 기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구조에서는 꾸준히 창작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은 다른 일들을 병행하면서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거죠." (TA026)
"창작 활동이 중심이 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여러 활동을 다 해야 겨우 유지가 되니까, 제도적으로 그런 다층적인 활동에 대해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느껴요." (TA026)

2) 창작 방식의 혼합과 전통 기반 탐구의 필요성

■ 전통을 매개로 창작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강조하며 전통 위 창작과 구분됨
■ 맥락을 유지한 전통 계승을 바탕으로 현대적 해석과 창작이 가능함
■ 전통과 창작의 분리 아닌 상호작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창작 구조 모색됨

"전통 위에 창작이 올라서는 게 아니라, 전통이 창작을 매개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통을 기반으로 작업하지만, 그걸 재료로 삼아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거죠." (TA026)
"전통의 맥락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시대와 연결되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창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과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맞게 풀어내는 거예요." (TA026)
"전통과 창작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관계 안에서 창작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지속 가능한 작업 방식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TA026)

3) 자생적 창작자 중심 구조의 부재

■ 전통예술 창작은 공공지원 의존도가 높고 시장 기반 유통 구조는 미비함

■ 자립 유통 부재는 창작자의 창의성과 장기적 기획을 제한하는 구조적 한계임

■ 창작 지속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유통 기반 마련이 필요함

"대부분의 작업이 지원사업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생적인 구조가 거의 없어요. 유통 구조도 마찬가지고요. 공연을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 이후로 연결되기가 어려워요." (TA026)
"시장 기반의 유통이 거의 없다 보니 창작자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힘들어요. 늘 새로운 지원을 찾아야 하고, 그에 맞춰 기획을 조정해야 하니까 창의적인 활동이 제한되는 거죠." (TA026)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하려면 공연이 이어질 수 있는 유통 구조가 필요해요. 지금처럼 일회성으로 끝나는 구조에서는 창작이 계속 이어지기 어려워요." (TA026)

나. 생태계 이슈

보존 중심의 제도와 협소한 유통 구조로 인한 창작 생태계 왜곡

1) 전통예술 유통 시스템의 폐쇄성

■ 전통예술 공연은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유통망이 협소함
■ 반복 상연이나 순회공연 등 지속 유통 가능한 구조가 부재함
■ 창작물의 장기 활용을 위한 공연 유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공연을 올려도 대부분 한두 번으로 끝나요. 순회공연을 하거나 다른 공연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거의 없어서, 그걸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죠." (TA026)
"전통예술은 유통 구조가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창작물도 장기적으로 활용되기가 어렵고요.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돼요." (TA026)
"한 작품이 여러 공간에서 반복 상연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런 구조가 없으니까, 좋은 작품이 나와도 확장될 기회가 거의 없어요." (TA026)

2) 협업 및 인프라의 부재

■ 창작자가 기획부터 홍보까지 전 과정을 부담하며 과도한 역할이 요구됨
■ 전통예술 분야의 기획자·행정 인력 부족으로 협업 기반이 미약함
■ 창작자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확충 및 협업 체계 마련이 필요함

"창작자가 공연을 만들면서 기획, 섭외, 홍보까지 다 하게 되는 구조예요.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실제 창작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죠." (TA026)
"전통예술 쪽에는 기획자나 매니지먼트 인력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창작자들이 모든 걸 직접 해야 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 버티기 어려워져요." (TA026)
"기획자나 제작자와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창작자가 오롯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되려면 그런 인프라가 꼭 필요하죠." (TA026)

3) 장르 간 경계에 대한 제도적 이해 부족

■ 장르 중심 평가 기준이 다원예술 창작자의 융합적 작업에 제약으로 작용함
■ 국악·무용 등 분과별 지원 구조가 장르 경계 넘는 창작에 불이익을 줌
■ 융합형 창작을 포용할 수 있는 유연한 지원제도 개편이 필요함

"저는 무용 기반으로 작업하지만 음악도 중요하고, 영상도 함께 다뤄요. 그런데 지원사업에 신청하면 '이건 무용도 아니고 음악도 아니다'는 식으로 분류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TA026)
"장르 구분이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융합적인 작업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해요." (TA026)
"창작의 흐름이 점점 다원적으로 가고 있는데, 제도는 여전히 전통적인 장르 구분에 머물러 있어요. 다양한 형태의 창작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TA026)

4) 보존 중심 제도의 창작 억제

■ 국악계는 보존과 계승 중심의 가치가 강하며 창작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함
■ 창작은 제도적 장려가 부족해 여전히 주변적 위치에 머물고 있음
■ 보존과 창작의 균형을 반영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국악계 안에서는 여전히 보존이나 전승이 우선이라는 분위기가 강해요. 창작을 하겠다고 하면 약간의 거리감이나 의심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TA026)
"창작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창작자들은 계속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창작도 전통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인식이 더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TA026)
"보존과 창작은 대립되는 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건데, 지금 정책은 보존에 더 치우쳐 있어요. 이제는 창작도 균형 있게 반영되는 방향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봐요." (TA026)

5) 전통예술 교육환경의 비현실성

■ 전통예술 교육은 창작보다는 기량과 전통 기법 숙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창작을 위한 실질적 역량 개발이 어려운 교육 환경이 지속되고 있음
■ 창작자 육성을 위한 창의 중심 교육 과정 개선이 필요함

"학교에서 배우는 건 거의 대부분이 전통 기법이나 기량 위주예요. 창작이나 새로운 시도를 해볼 기회는 거의 없고요." (TA026)
"교육 과정이 창작자로 성장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결국 학교 밖에서 따로 배워야 하는 게 많았고, 실질적인 창작 역량은 현장에서 몸으로 익히는 수밖에 없었죠." (TA026)
"전통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바탕으로 창작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제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창작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교육 환경이에요." (TA026)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자율성 기반 장기적 지원체계와 유통 인프라 확보 필요

1) 창작자 중심의 장기적 지원 구조 마련

■ 단기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다년간 지속 가능한 창작 지원 구조 마련이 필요함

■ 창작 밀도 향상과 실험적 시도 유도를 위한 자율적 환경 조성이 요구됨

■ 장기적 창작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1년 단위 지원이라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죠. 그 안에서만 결과를 내야 하니까 실험적인 작업을 하기도 쉽지 않아요." (TA026)
"장기적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가려면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그래야 창작 밀도를 높일 수 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시도도 해볼 수 있거든요." (TA026)
"창작자마다 리듬이 다르고, 작업 방식도 다양한데 그걸 1년 안에 맞추는 건 무리라고 생각해요. 다년간 지속 가능한 구조가 마련돼야 진짜 작업이 가능해질 거예요." (TA026)

2) 유통구조와 협업 기반의 공공 인프라 구축

■ 창작자·기획자·공연장을 연결하는 중간 조직 및 유통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반복 상연과 지역 공연장 연계를 통한 유통 전략이 필수적임

■ 창작과 유통이 연계된 통합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됨

"창작자가 공연을 올리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이어지는 유통 구조가 없으니까 작품이 한 번 쓰이고 사라지는 셈이죠." (TA026)
"기획자나 공연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중간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창작자가 그 역할까지 다 감당하는 건 너무 벅차니까요." (TA026)
"지역 공연장이랑 연결돼서 반복 상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한 지역에서만 공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작품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유통 전략이 같이 가야 해요." (TA026)

3) 창작-보존 균형 관점의 제도 개선

■ 보존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창작의 가치와 필요를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함

■ 창작과 전통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반영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됨

■ 창작 중심 지원을 강화하는 균형 잡힌 제도 개편이 필요함

"지금까지는 보존이나 전승 쪽에 정책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창작은 여전히 제도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 있죠." (TA026)

"전통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이 이루어져야 진짜 살아 있는 문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둘 사이에 균형이 필요해요." (TA026)

"보존과 창작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같이 갈 수 있는 관계인데, 정책은 여전히 한쪽으로만 기울어져 있어요. 창작도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봐요." (TA026)

[서면 자문 3]

1. 참석자 명단

[표 2-38] 참석자 명단 [서면 자문 3]

그룹 구분	분야 구분	참석자 구분	성별	연령대	경력
연구협의체(n=1)	공공	TA-A			
참석자(n=4)	지원영역(공공)	TA031	남	30대	8년

2. 주요 논의 사항

■ 전통예술 창작과 보존

- 전통의 고유성과 창작의 실험성을 조화시키는 방식에 대한 고민과 실천의 필요성

■ 전통예술의 교육 체계

- 전공자 중심 교육의 한계와 창작자를 위한 실질적인 예술가 경로 및 생계 기반 마련 문제

■ 예술 생태계와 자생력

- 창작자 주도형 프로젝트 확대에 따른 기획·유통 구조의 자립성과 지역 기반 활동의 중요성

■ 전통예술과 대중화

- 대중과의 접점을 확장하기 위한 미디어 활용, 전통 형식에서 벗어난 표현의 제도적 수용 필요

■ 정부 지원과 정책

- 단기성과 중심의 공모사업 구조 개선과 창작과정 중심의 장기적·유연한 지원 체계 필요

3. 세부 논의 사항

가. 분야 현황

전통예술 창작 환경과 시장의 분절적 구조

1) 독립 창작자의 지속 활동을 위한 지원체계의 미흡

■ 전통예술 창작자 다수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활동하며 지속적 창작이 어려운 구조임
■ 행정 중심 지원과 성과 위주의 평가 기준이 창작자의 자율성과 예술성에 제약을 줌
■ 창작자는 활동의 연속성을 위해 독립적 기획과 실험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임

"저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할 때 기획부터 연출, 출연까지 혼자 다 하는 편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주어진 역할만 하던 게 어느 순간부터는 작품 전체를 책임지는 형태로 바뀌었죠. 지속적으로 하려면 누가 챙겨주는 게 없으니까 스스로 다 해야 하는 구조예요." (TA031)
"지원사업이라는 게 대부분 단기적이고 성과 위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작품을 제대로 만들어보고 싶어도 일정에 맞추느라 급하게 하게 되고, 결국 깊이 있는 작업이 어려워요. 지속적인 창작은 그만큼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하거든요." (TA031)
"행정적인 과정이나 평가 기준이 너무 형식화되어 있어서 창작하는 입장에서 자율적으로 실험하거나 흐름을 가져가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구조예요." (TA031)

2) 창작자 주도형 프로젝트 확대와 전통예술 범주의 확장

■ 창작자가 기획부터 출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창작 주도형 활동이 확대됨
■ 예술적 해석과 실험을 통해 전통의 경계를 확장하는 창작 방식이 나타남
■ 계승 중심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전통예술 실천 양식으로 자리잡는 추세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작업을 해도, 지금은 단순히 계승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 방식대로 풀어내려는 시도가 많아요. 저도 공연을 만들 때 기획부터 음악 구성, 무대 연출까지 다 스스로 하면서 제 감각으로 전통을 해석해보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TA031)
"그냥 있는 걸 그대로 재현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제 언어로 바꾸거나 다른 장르랑 섞어서 보여주는 식으로 작업을 해요. 이게 저한테는 전통이라는 걸 계속 다르게 살아 있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해요." (TA031)
"요즘은 연출자, 기획자, 작곡자, 출연자 구분 없이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여러 역할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방식이 전통의 표현 방식을 확장하는 데도 효과적인 것 같아요." (TA031)

3) 지역 중심 창작과 실험 기반의 분산적 예술 활동

■ 지역 거점 중심의 창작 실험이 활발히 진행되며 활동 기반이 분산되고 있음

■ 지역 기반 프로젝트는 공동체와의 접점을 형성하며 전통예술의 확장 가능성 모색

■ 서울 중심 제도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성과 연계된 창작 시도 확대됨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서울처럼 큰 무대나 자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지역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작업을 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지역 이슈나 정서랑 연결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전통이라는 것도 더 다양하게 접근하게 되더라고요." (TA031)

"요즘은 서울 중심이 아닌 지역 단위에서 실험적인 작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최근에는 지역축제나 커뮤니티랑 연계해서 전통 소재를 활용한 퍼포먼스를 기획했었고요. 오히려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TA031)

"중앙에서 하는 방식이나 기준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각자 지역에서 자기 방식대로 풀어나가는 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것도 전통의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다양성이 나오는 계기라고 봐요." (TA031)

나. 생태계 이슈

제도 중심 생태계와 창작 현장의 괴리

1) 기획자 및 매개자 부족에 따른 유통 불균형

■ 기획자 및 매개자 부족으로 창작자가 유통과 홍보까지 직접 감당해야 하는 구조임
■ 중간 주체 부재는 작품 유통의 단절을 초래하고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는 원인임
■ 전통예술 유통 생태계에 전문 기획자와 유통 인력의 확충이 시급함

"공연을 만드는 것도 힘든데, 끝나고 나면 그걸 어디에 보여줄지, 어떻게 알릴지도 다 직접 고민해야 하니까 사실상 전 과정을 창작자가 혼자 감당하는 구조예요. 기획자나 유통을 도와주는 인력이 거의 없어요." (TA031)
"전통예술 쪽에는 중간에 연결해주는 사람이 정말 부족하다고 느껴요. 내가 만든 공연을 누가 이어서 써주거나 다시 무대에 올릴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연결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다 단발성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TA031)
"지금은 창작자만 있고, 그 외에 생태계를 구성해줄 전문 기획자나 유통 담당자는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역할이 있어야 작품이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한테도 전달될 수 있을 텐데요." (TA031)

2) 전통의 형식성 강조로 인한 창작 자유의 제약

■ 전통 형식 유지에 대한 기대와 평가 기준이 창작자의 자유로운 시도를 제약함
■ 전통 중심의 고정된 시선이 창작 실험과 장르 확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 해석과 융합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연한 관점과 평가 기준의 마련이 요구됨

"전통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일정한 형식이나 틀을 따라야 한다는 시선이 있어요.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면 전통답지 않다는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TA031)
"지원사업 같은 데서도 전통적인 방식의 재현이나 계승 쪽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창작자 입장에서는 형식 실험이나 다른 장르와의 융합을 시도하기가 조심스러워져요." (TA031)
"지금은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거나 다른 매체랑 결합하려는 시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평가 기준은 여전히 보수적인 편이에요. 좀 더 유연하게 봐주는 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TA031)

3) 공모 지원사업의 구조적 제약

■ 공모사업 중심 구조는 단기성과 위주로 창작자의 장기적 성장과 탐구를 저해함
■ 형식화된 서류와 촉박한 일정이 창작자의 기획력과 창의성을 위축시키는 요인임
■ 과정 중심의 평가와 유연한 운영이 가능한 지원 구조 개선이 필요함

"공모사업을 하면 대부분 일정이 굉장히 촉박해요. 아이디어가 제대로 숙성될 시간도 없이 결과를 내야 하니까 깊이 있는 작업은 거의 불가능하죠." (TA031)
"서류 평가가 너무 형식적이다 보니까, 정말 흥미롭고 실험적인 기획보다는 익숙하고 안전한 방식이 유리한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 창작자들이 새로운 걸 시도하기 어려워져요." (TA031)
"저는 어떤 작업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공모 구조는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계속 단기성과만 요구하니까 장기적인 탐구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TA031)

4) 발표 기회 부족과 유통채널의 협소함

■ 공연장과 플랫폼 수가 제한적이며 기회가 일부에 집중되어 있음
■ 창작자가 무대에 오르기까지의 경로가 협소해 발표 기회 확보가 어려움
■ 유통 지속성이 낮아 작품이 일회성 공연으로 그치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

"작품을 만들어도 보여줄 수 있는 무대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늘 같은 공연장, 같은 축제에만 집중되다 보니 기회가 편중되고 있어요." (TA031)
"저는 어떤 공연은 한 번 하고 끝났어요. 반응도 괜찮았는데, 다시 올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유통 경로가 거의 없다 보니까 결국 일회성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TA031)
"무대에 올라가기까지가 제일 어려운 과정인 것 같아요. 플랫폼이나 중간에 연결해주는 기회가 적다 보니까 창작자가 공연 올리기까지도 전부 혼자 해내야 해요." (TA031)

5) 실험적 창작의 제도적 인정 부족

■ 전통예술의 확장·해체 시도가 제도 내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임
■ 실험적 창작은 기존 평가 기준에 포섭되지 않아 제도적 지원과 연결되기 어려움
■ 창작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평가 체계 마련이 필요함

"조금이라도 기존 전통 형식에서 벗어난 작업을 하면, 제도적으로는 애매해져요. 이건 전통도 아니고 현대예술도 아니라는 식의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TA031)
"저는 전통을 해체하거나 재구성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런 시도들은 제도권에서는 아직 인정을 잘 못 받는 편이에요. 공모에서도 이런 실험은 불리하죠." (TA031)
"다양한 시도가 전통예술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제도는 여전히 기존 기준에 머물러 있어요. 새로운 시각과 표현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TA031)

다. 개선 방안 및 공공지원

창작 중심 유통 생태계와 장기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

1) 중간 매개자 양성과 창작 유통 시스템 강화

■ 기획자·유통 전문가 등 중간 매개자 양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과 지원이 필요함
■ 기획부터 재유통까지 연결되는 순환형 유통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창작자 중심의 유통 구조 마련을 위한 중간 인력 생태계 조성이 중요함

"작품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걸 이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기획자나 유통 전문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전통예술 안에서는 너무 부족한 편이에요." (TA031)
"한 번 공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상연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해요. 지금은 그런 순환이 안 되니까 매번 새로 만들고 끝나는 식이 돼요." (TA031)
"창작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연결해주는 생태계가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간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인력들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앞으로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TA031)

2) 실험적 창작을 위한 장기적·유연한 지원체계 마련

■ 결과 중심의 단기 지원에서 벗어나 창작 과정과 실험성을 인정하는 구조가 필요함
■ 장기적이고 유연한 지원 체계를 통해 창작자의 지속성과 탐구를 보장해야 함
■ 자율기획형 지원 확대와 과정 중심 심의 기준 마련이 요구됨

"지금은 무조건 결과 중심이에요. 몇 개월 안에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니까 실험적인 작업은 시작도 못 해요. 과정 자체를 인정해주는 구조가 절실해요." (TA031)
"긴 호흡으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거의 없어요. 창작이라는 건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그런 걸 고려해주는 장기적인 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TA031)
"저는 기획부터 끝까지 스스로 설계해보고 싶은데,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형식이 정해져 있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힘들어요. 자율기획형 구조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TA031)

3) 전통예술의 범주 확장에 대한 제도적 수용성 확보

■ 전통예술의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평가 기준과 정책 방향이 필요함

■ 동시대 예술 환경을 반영하여 전통 개념을 재해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요구됨

■ 해석과 표현의 폭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전통에 대한 유연한 시각이 필요함

"전통이라는 게 꼭 과거의 형식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표현하는 것도 전통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봐요." (TA031)

"동시대 예술가들이 하고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제도도 그 흐름을 반영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TA031)

"전통의 범위를 너무 좁게 보면 표현할 수 있는 게 제한돼요. 좀 더 열린 기준과 정책이 있다면, 다양한 해석과 확장이 가능할 거예요." (TA031)


한국문화예술위원회